

운강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운강이강년기념관
자료총서 2



운강이강년기념관
자료총서 2

운강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사)운강이강년기념관
발간등록번호 75-5120000-000159-11

운강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ISBN 979-11-959484-4-4
발간등록번호 75-5120000-000159-11

(사)운강이강년기념관
발간등록번호 75-5120000-000159-11

(사)운강이강년기념관
발간등록번호 75-5120000-000159-11

운강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운강이강년기념관 자료총서 2

운강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2021년 12월 10일 초판 1쇄 인쇄

2021년 12월 17일 초판 1쇄 발행

펴낸이 새)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장
펴낸곳 새)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1683(운강이강년기념관)
연락처 전화 054)550-6415

총괄기획 및 교정 엄원식, 여운황, 황용건

편집디자인 이레커뮤니케이션즈
찍은곳 이레커뮤니케이션즈
경북 문경시 당교로 233 문경브리티시 2층 206-2호
전화 054)555-7711 팩스 054)555-7714

ISBN 979-11-959484-4-4

이 책은 국가보훈처의 보조금지원으로 발간되었으나
그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윤강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는 ‘한말 의병전쟁의 횃불 운강 이강년’의 삶과 정신을 이어가고자, 2016년부터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학술대회와 자료집발간 등 학술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7년 문경에서 열렸으며, 2018년 순국1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학술대회는, 선생의 순국113주기를 맞아 운강문화행사 일환으로, ‘당신의 뜨거운 나라사랑 구국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발표·토론 등 20여명의 전문 연구자를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작년에 이어 『운강이강년기념관자료총서2-학술대회발표논문자료집』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운강선생을 비롯한 항일투쟁기 문경사람들이 펼쳤던 활동에 대해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어 8개의 소주제 발표는 문경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운강선생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며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역사 문화 예술로 승화시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술대회 기조강연과 발표·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밝히는 지표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섰던 윤강선생이 남기신 **‘의로운 삶과 정신’**입니다. 이 민족 이 나라의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 **‘시대의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기념사업회는 문경에서부터 그 길을 열어 전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1년 윤강학술대회와 자료집발간에 힘써주신 고윤환 문경시장님과 김덕석 경북북부보훈지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 12.

사단법인 윤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장 이 영 범

| 운강학술대회 |

- 일시 : 2021년 10월 15(금)~10월 16(토)
- 장소 : 문경문화원 다목적실(1부), 문경새재라마다호텔(2부)
- 주최 : 사단법인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 후원 : 문경시 · 문경시의회 · 경북북부보훈지청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성균관문경청년유도회
- 학술대회 일정

개막식

시 간	개회식
13:30~14:30	등록,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강연 : 문경의 독립운동과 의병 - 김희곤(안동대학교 명예교수)

1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첫째날)

시 간	발표 및 내용
14:30~15:00	제1주제 : 이강년의진을 통해본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 발표자 : 신진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자 :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5:00~15:30	제2주제 : 의병장 이강년 격문류의 가치와 의미 발표자 : 강민구(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토론자 : 우지영(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15:30~16:00	휴 식
16:00~16:30	제3주제 :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양상과 내용 발표자 : 김항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 최보영(용인대학교 교수)
16:30~17:00	제4주제 : 독립운동사적지(기념관) 기억과 기념 어떻게 할 것 인가 -의암류인석유적지(기념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성진(의암류인석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자 : 엄원식(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17:00~18:00	종합토론 : 좌장(구완회, 세명대학교 교양대학교수) 1부 발표자 및 토론자
18:00~	저녁식사

2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둘째날)

시 간	발표 및 내용
10:00~10:30	제5주제 : 이강년의진에서 활약한 인물의 1910년대 이후 항일투쟁 발표자 : 이성우(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 강윤정(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10:30~11:00	제6주제 : 운강 이강년 의병장 자료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심철기(연세대학교 사학과 객원교수) 토론자 : 원재영(연세대학교 강사)
11:00~11:30	제7주제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말 의병운동 서술 현황과 과제 - 교과서에 나타나는 주요의병장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광현(성주고등학교 교사) 토론자 : 조철호(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11:30~12:00	제8주제 : 문경의병과 아리랑 발표자 : 김연갑(한겨레아리랑연합회이사장) 토론자 : 권갑하(시인, 문화콘텐츠학박사)
12:00~13:00	종합토론 : 좌장(박민영,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2부 발표자 및 토론자

※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



| 목 차 |

발간사 4

학술대회 일정 6

| 기조강연

문경의 독립운동과 의병 12
김희곤(안동대학교 명예교수)

| 1부 발표토론문

제1주제 이강년의진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 26
발표자 : 신진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자 :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제2주제 의병장 이강년(李康季) 격문류(檄文類)의 가치와 의미 54
발표자 : 강민구(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토론자 : 유지영(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제3주제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양상과 그 성격 96
발표자 : 김항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 최보영(웅인대학교 교수)

제4주제 독립운동사적지의 기억과 기념 125
- 의암류인석유적지(기념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성진(의암류인석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자 : 엄원식(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운강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 2부 발표토론문

- 제5주제** 이강년의진에서 활약한 인물의 1910년대 이후 항일투쟁 148
발표자 : 이성우(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 강윤정(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제6주제** 운강 이강년 의병장 자료 현황과 과제 176
발표자 : 심철기(연세대학교 사학과 객원교수)
토론자 : 원재영(연세대학교 강사)
- 제7주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말 의병운동 서술 현황과 과제 196
- 교과서에 나타나는 주요의병장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광현(성주고등학교 교사)
토론자 : 조철호(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제8주제** 문경아리랑과 의병 219
- 융합 콘텐츠 '아리랑나라**' 1차案
발표자 : 김연갑(아리랑학교 교장), 기미양(아리랑학회 이사)
토론자 : 권갑하(시인, 문화콘텐츠학박사)

| 부록 : 자료소개 279

운강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
기조강연

—
문경의 독립운동과 의병

—
김희곤(안동대학교 명예교수)



문경의 독립운동과 의병

김희곤(안동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 독립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
2. 문경 사람이 펼친 독립운동
 - 1) 1910년 이전 의병전쟁
 - 2) 1910년대 광복회와 3·1운동
 - 3) 1920년대 의용단·청년운동·아나키즘운동
 - 4) 1930, 40년대 사회주의운동·학생운동·한국광복군
3. 문경사람이 펼친 독립운동의 성향
4. 맺음말 ; 무엇을 기리고 이어나갈 것인가

1. 머리말 ; 독립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 독립운동은 세계 식민지의 해방운동에 견주어보면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가졌다. 보편성이란 서로가 같거나 비슷한 목표와 투쟁 양상을 보인 것이고, 특수성이란 다른 국가나 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보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범위를 좁혀 보면 문경사람이 펼친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다. 그러한 양면성을 모두 견주어 봐야 비로소 한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만약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독립운동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가졌다. 하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참정권을 갖는 시민사회, 근대국가, 근대 민족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한국 독립운동사도 마찬가지다. 외세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 자주독립국가를 이룩하는 것을 반외세라 부르고, 중세사회를 극복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반봉건이라 정리하는 학자도 있다. 표현이야 어찌되었던, 세계 독립운동은 모두 두 가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한국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경북은 우뚝하다. 독립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정부로부터 포상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으며,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자정순국자가 그 어느 곳보다 많다는 사실이 그를 증명한다. 그런 가운데 문경의 독립운동사는 어떠했을까. 이 발표는 문경사람이 펼친 독립운동의 흐름을 짚어보고, 그 가운데 문경지역 의병이 가진 위상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면서 기념사업에 대한 고민을 짚어보려 한다.

2. 문경사람이 펼친 독립운동

1) 1910년 이전 의병전쟁

1894년 7월 갑오변란에 맞서 안동의병이 일어나면서 의병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의병전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계기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 공포였다. 따라서 1895년 12월, 양력으로 1896년 1월부터 전국에서 을미의병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강년이 문경 도태장터에서 거병한 때가 바로 1896년 2월 23일(음 1.11)이다.

이강년의병의 활약과 위상은 특기할 만하다. 학계에서 의병전쟁을 시기와 양상에 따라 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는데, 이 모든 시기를 꿰뚫고 투쟁을 이어간 의병은 이강년의병을 제외하면 드물기 때문이다. 굵직한 전투만 헤아려도 쉽게 이해된다. 전기의병 시기에는 1896년 안동관찰사 처단, 마고성전투(2월), 호좌의진 합류, 수안보 일본군 병참기지 공격(3월), 태봉전투 지원(3월), 제천전투(5월) 등이 대표적이다.

1904년 일어나기 시작한 중기의병은 1905년 11월 17일 외교권을 빼앗기자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것이 이강년의병이 다시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이강년은 1907년 4월 재기하여 이듬해 7월까지 경북·충북·강원 3개 도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문경·단양·영춘·영월 사이의 소백산맥과 차령산맥 사이, 또한 소백산맥 북쪽 경사면을 주된 전투장으로 삼아 활약하였다. 주요전투로는 1907년 영춘 용소동전투(5월), 민공호부대와 연합하여 일본군을 기습한 제천전투(8월), 충주성 공격(8월), 조령전투·갈평전투·적성전투(이상 9월), 죽령·순흥전투(11월), 1908년 강원도 일대 산악전투(4월), 서벽전투·내성전투(5월), 재산전투(6월), 그리고 최후 전투인 작성전투(7월)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들 전투 모두가 지

속성과 격정성에서 다른 어떤 의병에 견주어도 탁월하다. 같은 시기에 이강년의병과 연합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활동한 의병부대도 여럿이다. 이인영의병이 그렇고, 신태식·곽이섭·정흥대 부대의 존재가 뚜렷하다. 문경지역의 의병전쟁은 이강년 순국을 기점으로 찾아들었다.

1904년부터 의병전쟁과는 아주 다른 애국계몽운동이 시작되었다. 서양열강이 가진 강점인 과학문명과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받아들여 국권을 지켜내자는 운동이 그것인데, 신교육을 펼쳐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는 것과 민족자본을 축적하여 근대화를 이루자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경상북도에 신교육 바람이 불게 된 계기는 서울에서 영남사람들이 만든 교남교육회가 조직된 것이다. 여기에 참가한 경북인 409명 가운데 문경사람은 18명으로 알려진다. 그 영향으로 도천소학교(1906)가 문을 열었지만, 민족의식 고취나 저항성에서는 미약한 편이었다. 1907년 2월부터 7월까지 펼쳐진 국채보상운동에 문경에서도 보상금지원소와 의무소가 생겨났지만, 국채보상운동 성격 자체가 민초의 애국심을 자극한 것일 뿐, 항일투쟁성은 거의 없었다. 꼭 같은 시기에 이강년의병에 자금을 제공하면 처절하게 수난을 당했지만, 국채보상운동에 성금을 내면 신문에 소개되어 박수를 받았으니, 이런 사실을 견주어 보면 투쟁성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2) 1910년대 광복회와 3·1운동

1910년 나라가 무너지자, 국권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을 지겠다며 자결하여 저항한 자정순국자들이 줄을 잇고,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고 만주로 망명하는 두 줄기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립전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비밀결사체를 만들어 무장투쟁을 잇거나 만주지역 독립운동기지를 지원하는 활동도 나타났다. 문경사람들은 자정순국이나 만주망명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로 마지막 경우인 유럽 중심의 비밀결사체인 민단조합 활동에 집중하였다.

민단조합은 이동하가 주도하였다. 그는 이강년의진에 참가한 뒤, 1911년 만주로 망명했다가 1914년 돌아와 의병출신들을 모아 민단조합을 결성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이식재·최옥영·이은영·김낙문·이세영 등은 모두 이강년의진에 참가했던 인물이었다. 이들은 자주 독립 국가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오로지 만주에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독립

운동기지 건설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사람과 자금을 만주로 보내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1915년 결성된 광복회는 민단조합의 활동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광복회는 의병출신(광복단)과 계몽운동가(조선국권회복단)들이 합류한 조직으로 만주 독립운동기지를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둔 단체였다. 의병에 참가한 인물은 대부분 성리학적 체제, 군주국가 체제를 고집하는 유럽 중심의 보수세력으로서 무장투쟁을 펼친 인물이다. 이와 달리 계몽운동가들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서양의 과학문명을 갖춘 인재양성과 민족자본 축적이란 두 가지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서 공화주의를 표방한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두 갈래는 서로 반목하였고, 1910년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들이 손잡은 것이 곧 1915년 대구에서 출범한 광복회였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만주로 퍼져나가 1910년대 독립운동계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문경에서 여기에 참가한 인물로 姜順必(본명 姜秉秀)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강년의진에 참가했고, 1911년부터 의병 재기를 목표로 군자금 모집에 나섰다. 1913년 채기중이 앞장선 광복단(풍기)에 참가했던 인물이다. 1915년 광복회가 출범하자 여기에 참가하고, 1917년 11월 총사령 박상진의 뜻에 따라 채기중·유창순·임봉주와 함께 구미의 친일부호로 지목되던 張承遠을 처단하는 데 함께 하였다. 그 이듬해 경찰에 붙잡힌 강순필은 1921년 사형 수감됐다. 의병에서 출발하여, 나라가 망한 뒤 의병 재기를 도모하고, 만주 독립운동기지 지원 활동으로 이어나간 그의 자취는 한국 독립운동의 전반기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 1910년 나라를 잃은 뒤 8년이 갓 지나서 연 인원 200만 명이 넘게 참가하여 만세시위를 벌인 것이다. 1914년에 시작하여 1918년 11월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파리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표를 파견하게 되고, 민족자결주의라는 기조에 맞춰 전민족이 참가하는 독립 선언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3·1독립선언, 3·1운동이었다. 시작은 2월 8일 한인유학생들이 칩락국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지만, 서울과 평양 등 국내에서 처음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일어난 날을 기념하여 3·1운동이라 부른다. 이로부터 5월초까지 펼쳐졌으니 대개 100일 가량 되는 기간이고, 한국인이 살던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진행되었다.

경북에서는 3월 8일 대구 서문밖시장 만세시위로부터 5월 7일 청도 매전면 만세운동까지 두 달 동안 펼쳐졌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견주어보면, 문경지역의 3·1운동은 참여 규모

나 투쟁성에서 미약한 편이었다. 문경에서는 읍내에서 3월 말에 시위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보이질 않는다. 또 4월 10일 산양 장날에 맞춰 만세 시위가 기획되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4월 13일 산북면 운달산의 김용사 부설 지방 학림 학생들이 나섰다. 도중에 가로막혀 주저앉았다.

실제로 문경에서 3·1운동이 처음 일어난 날은 4월 15일이다. 이날 저녁 8시쯤 갈평리에 서 만세시위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 계기를 만든 것은 갈평 장날에 도로를 닦으려고 부역 나온 마을주민들 40여 명이 시작한 시위였다. 여기에 장꾼들이 호응하면서 규모가 커졌지만, 일본 헌병이 위협에 시위대는 흩어졌다. 김병수·신태인·전중년·이은화 등 네 명이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민족대동단(대동단)에 참가한 문경인이 있다. 전국으로 확산되던 만세시위를 지켜보면서, 또한 상하이에 독립운동가들이 집결하고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의친왕을 망명시켜 독립을 꾀하려던 조직이 바로 대동단이었다. 여기에 참가한 문경인으로 박노창·정인옥이 있고, 김병태는 함께 군자금모집에 나섰다.

3) 1920년대 의용단·청년운동·아나키즘운동

3·1운동 직후 경북사람이 펼친 독립운동으로 만주 독립운동기지 지원 활동이 돋보인다. 1910년 나라가 망한 직후 만주로 망명한 경북사람들이 주로 서간도에 터를 잡고 경학사와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로 발전)를 세워 한인동포사회의 뿌리를 내리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자금과 사람을 공급해야 했는데, 1915년 조직된 광복회도 여기에 활동 목표를 맞춘 조직이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박상진·채기중·유창순·강순필 등이 모두 순국하자, 만주 독립운동기지 지원 사업을 계승해 나간 조직이 생겨났다. 이것이 바로 1920년 경북과 경남출신이 주력을 이룬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용단)이었다.

의용단의 단장은 다름 아닌 문경출신 신태식이다. 1907년 단양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그는 이강년의진에 합류하였다가 일본군에 붙잡혀 교수형이 선고되었지만 감형되어 10년 옥고를 치렀다. 1918년 풀려난 그가 다시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의용단을 조직하여 만주 독립운동기지 지원에 나선 일이다. 의용단에 발을 디딘 서상업·한양이는 모두 이강년의진 출신이고, 정진우도 의병을 지원했던 인물이다. 이밖에도 엄주련·장세명 등도 의용단에 참가한 문경인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돕고 나선 인물도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비밀 군사조직인 籌備團에 참가한 류성우가 그런 인물이다. 그는 옥고를 치르다가 단식 순국하였다. 1921년 박용만·이회영이 베이징에서 조직한 조선독립군사령부에 경리부장으로 활동하던 김희중은 국내에 들어와 지하조직을 만들었다가 옥고를 치르고, 다시 만주로 가서 만주지역 동포의 권익을 지켜내기에 힘썼다. 1923년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릴 때, 여기에 미주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한 천세현이 두드러진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고생하다가 뉴욕으로 옮겨가서 1914년에 식품가게를 경영하던 그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 가입하고 1916년 안창호가 앞장선 홍사단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지원하고,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자 대한민족대표단을 대표하여 여기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에 들어가 활동한 문경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2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흐름으로 청년운동이란 것이 있다. 그렇다고 청년운동이 모두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회라는 것이 식민통치세력과 손잡고 친일성향을 보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문경청년회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1920년에 만들어졌지만, 항일투쟁의식을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청년총동맹과 손이 닿기 시작하는 1925년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점차 투쟁성을 드러냈다. 이는 주변 지역보다 조금은 늦게 시작된 셈이다. 불교청년연합회 김룡지회가 노동야학을 운영했지만, 이 또한 항일투쟁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1926년 문경청년연합회 탄생은 문경지역에서 벌어진 본격적인 사회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여기에서 계급투쟁으로 민족해방을 성취한다는 방향이 잡히고, 노동·농민·여성·형평운동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것이 1928년 문경청년동맹으로 나아갔지만, 뚜렷한 투쟁은 없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신간회 지회가 만들어졌지만, 문경에서는 이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주의운동도 미약했는데, 고려공산청년회에 참가했던 신봉일·이현구가 그나마 문경사람으로서 항일투쟁에 나섰다가 옥고를 치른 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문경의 농민운동은 1926년 문경노동조합의 움직임이 대표적인데, 주변 안동·예천·영주에 견주어 보면 규모가 작고 투쟁 강도가 약했다.

3·1운동 직후부터 1920년대 중반에 걸쳐 흠치교(吡哆敎)라는 민족종교가 문경에도 영향을 주었다. 강증산이 창시한 민족종교의 힘으로 민족이 독립할 것이라면서 자금을 모으다

가 많은 인물이 붙잡혔는데, 문경출신으로는 강석희·박인길·신봉규·신용균 등이 여기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1920년대 문경사람의 독립운동을 말하자면, 박열 부부의 투쟁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이다.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다니던 박열은 3·1운동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족문제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이어가던 그는 10월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날품팔이와 막노동으로 살면서 세이소쿠正則 영어학교에 다니는 고학생활을 이어갔다. 기구한 운명을 헤치고 같은 학교를 다니던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를 만난 때가 1920년이다. 이들은 이와사 사쿠타로(岩佐作太郎) 등 당대의 아나키즘 대표들과 교류하면서 아나키스트로 성장하였다. 1921년 黑濤會, 1923년 不逞社 등을 조직하며 투쟁력을 키워가면서 의열투쟁을 기획하며 폭탄 구입에 나섰다. 1923년 일본 황태자 결혼식 소식에 폭탄 투척 계획을 세웠지만,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박열 부부와 여러 동지들은 예비검속을 당하고 말았다. 취조 과정에서 폭탄 구입과 제조 시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동과 천황암살 대역사건으로 몰렸다. 박열 부부와 김중환 세 사람이 기소되었는데, 그의 법정투쟁은 ‘대역사건’으로 몰아가는 일본 법정을 철저하게 농락하였다.

1920년대에 문경사람이 펼친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황옥의 활약과 성격 문제다. 일본 경부라는 직책을 갖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황옥, 특히 그가 안동출신 김시현을 돕고, 1923년 의열단 국내투쟁에 얽혀 옥살이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그의 성격을 분명하게 풀지 못하고 있음은 아쉽기만 하다.

4) 1930, 40년대 사회주의운동·학생운동·한국광복군

1930년대는 일본이 만주침략에 이어 중국 본토를 침공한 시기였다. 침략에 필요한 물자를 수탈하고, 인력까지 징발하는 전시동원체제가 바로 1930년대 후반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정신세계마저 엮어매는 것이어서, 일본왕을 향해 아침마다 인사하는 예식을 올리고, 신사참배에다가 황국신민으로 맹세하는 의식을 거듭하는 민족말살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통치가 펼쳐졌다. 1930년대 초반에 조선공산당재건투쟁이 일어났으니, 당을 다시 세워 계급투쟁을 펼쳐 민족해방을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안동코뮤니스트그룹, 영양·영덕 Y그룹, 김천 K그룹, 예천 무명당 등이 그러한 것이고, 적색농민조합·적색노동조합 등의 활동으로도 나타났다. 또 1940년 무렵부터 전국 고등보통학교나 사범학교 등에서

전투적이고 결사대적인 성격을 띤 학생단체가 나타났다.

문경지역에 사회주의운동은 그리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문경 출신으로 정재철이 1930년대에 대구에서 움직이고, 1939년 4월 서울에서 출범한 경성콤그룹에 몸 담고 조공재건투쟁에 나선 것이 눈길을 끈다.

1938년 보천교 안에서 신인동맹이라는 비밀조직이 만들어졌다. 독립운동을 목표로 삼은 이 조직에 오귀룡이 활약하였다. 1920년대 문경사람들이 참여했던 흠치교와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것이었다.

문경사람이 참가한 학생운동으로 대구사범학교 항일투쟁을 들 수 있다. 중일전쟁 이후로는 학업보다는 근로동원이 더 많아졌고, 학생들의 반발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1940년부터 대구사범학교에 문예부·연구회·다협당 등 비밀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민족의식으로 무장하여 나갔다. 1941년 다협당을 만드는 데 참가한 주역으로 문경출신 서진구가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대원 모집에 나섰다. 해방될 때까지 한국광복군에 참가한 대원은 7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문경출신은 두 사람이 확인된다. 김경화는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기 한 해 앞서 1939년에 한국전지공작대에 참가하고, 시안으로 가서 1940년 4월 중앙간부훈련단에서 훈련을 받아 장교가 되었다.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제1지대에 속했다가, 1942년 9월 후난성 중국군 제9전구사령부에 파견되어 정치지도원으로서 대적선전공작대에 참가하였다. 1944년 늦가을부터 후난성 지역에 일본군에 징집된 1기생들이 도착했고, 탈출 한인 사병들이 나오자, 김경화는 이들을 한국광복군으로 편제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현준석은 바로 이때 징병 1기생으로서 이 지역에서 탈출하여, 1945년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속했던 인물이다.

한편 앞서서도 본 천세헌은 시카고로 옮겨 자리 잡고, 1939년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에 참가하였다.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옮긴 그는 태평양전쟁에 미주 동포들이 참전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3. 문경사람이 펼친 독립운동의 성향

1) 문경사람이 참여한 독립운동 영역별 강도

	강	중	약	없음
의병	○			
계몽운동			○	
자정순국				○
만주지역			○	
1910년대 국내항일		○		
3·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의열투쟁				○
유림단의거				○
군자금 모집		○		
6·10만세운동				○
청년운동			○	
노동·농민운동			○	
민족종교			○	
신간회				○
사회주의운동			○	
아나키즘운동		○		
미주지역			○	
일본지역		○		
광복직전 학생운동			○	
한국광복군			○	

문경사람들이 펼친 독립운동은 다른 지역에 견주어 보면, 이강년의진을 대표로 한 의병 전쟁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다. 독립운동 50년 역사에서 초기에 펼쳐진 의병전쟁에 집중된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소극적이고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1910년대 민단조합과 광복회로 연결되면서 만주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지원하였고, 1920년에 의용단에 참가하여 그 임무를 이어나간 점은 돋보인다.

이에 견주어 다른 분야에서는 대체로 활동이 미약했다. 경북 북부지역 사람들이 대거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문경사람을 찾기 힘들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3·1운동마저도 문경에서는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제1, 2차 유림단의거에도 문경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독립운동 후반기에는 주변지역에서 노동·농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문경에는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자금모집에 나선 경우는 있어도, 임시정부에 참가한 인물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930·40년대 일본에서 노동운동으로 항일전선에 나선 인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나라 밖에서 박열과 천세헌이 일본과 미국에서 보인 활동이 그나마 보완을 해주는 셈이다.

크게 정리해보면, 문경사람이 펼친 독립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사 50년 가운데 첫 시작부분에 집중되었다. 안동처럼 모든 시기와 영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경우는 흔하지 않다. 대개 의병과 3·1운동에 집중되고, 1920년대 이후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문경에서는 3·1운동과 그 뒤의 항일투쟁에서 미약한 모습을 보였다. 독립운동이 세대를 이어가며 추진되지 못하고 거의 단절 수준에 머문 탓이다.

2) 독립유공자 분포로 본 문경 독립운동의 특징

정부에서 포상한 문경출신 독립유공자는 2021년 8월 현재 84명이다. 이 가운데 62명이 의병전쟁 참여자로 73.8%나 된다. 그 가운데서도 이강년의진 출신이 49명으로 58%이니, 문경출신 독립유공자의 반 넘는 숫자가 된다.

분야	독립유공자	
의병	이강년 의진 강내영 강병수 강병욱 강병유 강순필(광복회) 고유훈 고윤환 권응정 김낙문 김상철 류문년 류조민순호 박백현 변용만 변인규 서상업 신경희 신기 신병선 신숙 심거벽 신태식 오국환 이강년 이강문 이강수 이강유 이규해 이궁재 이기량 이동하 이명재 이봉재 이성재 이승재 이원규 이정의 이진영 장복삼 장복홍(제천) 장익환 장치문 주시혁 천보락(제천) 최찬 한양이 한용국 황부주(이상 이강년의진)	이강년 49명 기타 13명
광복회	이인영 의진 남만귀 정홍대	
	기타 의진 곽이섭 김성달 김철상 박윤중 유준 조병순 류인협 장익환 곽이섭 배경신	
3·1운동	김병수 이은화 이정백 전종근	

분야	독립유공자	
대동단	박노창	
의용단 보합단	서상업(이강년) 신태식(이강년, 의용단장) 엄주련(이강년) 정원영 한양이(이강년) 황정연(보합단)	이강년의진 출신
만주지역	김희중	
일본지역	박열	
군자금 모집	유성우 김병태 박병한 정인옥	
사회, 청년, 학생운동	전인발 황직연 이현구 서진구 조영진 문봉성	
한국광복군	김경화 현준석	
민족종교	강석희 박인길 신봉규 신용균(이상 흡치교) 오귀룡(보천교)	
미주지역	천세헌	

이강년의진 출신이 1910년대 민단조합·광복회로 활동을 이어가며, 1920년에 의용단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이는 의병전쟁의 여맥이 만주지역 독립운동 기지 건설 지원과 군자금 모집활동으로 이어진 것을 말해준다. 박열 부부와 천세헌의 활약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미약했다. 아주 다른 사례를 들어 보면, 영덕군의 독립유공자가 220명 가량이나 되는데, 85%가 3·1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런데 문경에서는 3·1운동 관련 포상자가 4명뿐이니, 0.5%도 안 된다. 1920년 이후 농민운동·노동운동·청년운동 등에서도 미약하다. 독립운동을 이어갈 지도자와 민중의 결집력이나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 무엇을 기리고 이어나갈 것인가

독립유공자 수치를 전국 시군 단위로 나누어보면, 시군당 대개 40명 선을 조금 넘는다. 문경은 84명이니 두 배가 된다. 하지만 경상북도 안에서는 시군당 독립유공자가 100명을 조금 넘으니, 문경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의병에서만큼은 숫자도 그렇거니와 활동 내용도 단연 두드러진다. 청송군에서 의병관련 포상자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전투다운 전투를 찾기란 힘들고, 존재 기간마저도 짧았다. 이와 달리 이강년의병은 전기와 중후기 의병을 거치는 모든 시기에 존재했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나드는 넓은 공간에

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 승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경에서 독립운동을 이야기하자면, 단연코 의병전쟁, 그것도 이강년의병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문경에서 이강년의병을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보자.

첫째, 기념사업을 펼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가슴에 새기거나 역사에 기록하는 이유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데 있는 것이지, 무엇을 자랑하려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진실로 자랑이 아니라 제대로 계승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기념할 대상이 이강년 한 사람을 영웅 만드는 데 그치면 이것도 큰 문제거리다. 문경지역 독립운동사에서 보듯이 큰 산 하나를 지난 뒤에 이를 계승하는 것이 미미했지 않았는가. 영웅 한 사람의 몫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동참한 대중의 기여도 또한 중요하고, 따라서 이들도 기억하고 기려야 할 대상이다. 오로지 영웅 한 사람만을 쫓아가는 기념사업을 되풀이하면, 끝내 문경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문경지역에서 독립운동을 기념하자면, 또 하나 보수에서 진보로 나아가는 혁신의 에너지가 적었음을 깊이 되새겨 볼 일이다. 의병전쟁 단계에 머물다가 계몽운동으로 전환한 유림이 거의 없다는 사실, 3·1운동 이후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독립운동의 에너지가 미약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일이다. 박열 부부의 투쟁에서 진보적인 움직임을 볼 수는 있지만, 정작 고향 문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사 50년 동안 오로지 초입부 10년에 몰입하고, 만주 기지 지원 정도에 머문 문경지역의 성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기념사업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넷째, 문경사람이 펼친 독립운동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문경에서는 2009년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문경문화원)를 펴낸 일이 있지만, 이것은 역사바로세우기와 역사문화자원 만들기의 완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임을 헤아려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또 다양한 집단과 직업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관심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앞머리에서 말했듯이,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이 몇 세대

를 거치면서 큰 덩어리가 되면 이를 역사적 과제라고 일컫는다.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이유는 오늘의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실천지성이 문경에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역사를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구원희,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 김희곤 외,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 문경문화원(문경문화연구총서5), 2009.
- 김희곤 외, 『경북 독립운동사』 1-7, 경상북도, 2012-2014.
- 황용건, 『불굴의 항일독립투사 박열』, 그루, 2014.

—
1부 발표토론문
—

제1주제

이강년의진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

제2주제

의병장 이강년(李康季)격문류(檄文類)의
가치와 의미

제3주제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양상과 그 성격

제4주제

독립운동사적지의 기억과 기념



제1주제

이강년의진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

발표자 : 신진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자 :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이강년의진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

신진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2. 1871년 이필제의 조령란
3. 1894년 문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4. 이강년의진 속 동학농민군의 정체
5. 맺음말 : 문경지역 동학농민군과 이강년의진의 상관관계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국을 휩쓸었고 1895년 말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1895년 12월 안동에서 시작된 경북지역의 을미의병은 안동에 이어 예안·봉화·순흥·풍기·용궁·예천·榮川·영양·진보·영덕·영해·청송의진 등 14개 군의 의진과 상주·김산·개령·지례·성주·선산 등의 연합의진인 김산의진이 되었다. 이강년이 이끌었던 문경의진은 류인석의 호좌의진과 연합하였고, 안동·봉화·예안·榮川·순흥·풍기의진은 서상렬이 이끄는 호좌의진과 연합하여 예천회맹을 결성하였다.

문경의진 대장 이강년은 1896년 정월 11일(양 02.23) 도태장터에서 창의하고 이틀 뒤인 13일 농암장터에서 관찰사 김석중, 순검 이호윤과 김인담을 처단하고 고모산성에 효수하였다. 이후 안동창의대장 권세연을 방문하여 작전을 논의하고 문경 석현 마고성에 주둔하고 있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마고성 전투다. 창의한지 5일 만에 벌어진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강년은 다시 안동창의대장 권세연과 논의하여 29일(양 03.12) 제천 류인석의 호좌의진에 합류하

였다.¹⁾

이강년이 의병활동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처단한 김석중은 1894년 11월 26일 상주 소모영에 정의목이 소모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 유격장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1894년 12월 보은 북실전투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의 공을 인정받아 1895년 4월 28일(양 5.22) 안동부사에 추천되었고 5월 8일 임명되어 22일 도입하였다. 29일 행정체도가 23부 체제로 개편되자 곧바로 안동부관찰사가 된 인물이었다.²⁾ 1896년 조정에서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단발을 강행하자,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일본군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모습은 민의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 예안의병장 이중린이 현상금을 걸어 김석중을 수배하게 만든 계기였다. 결국 김석중은 안동의병에 쫓겨 일본군부대로 도주하다가 이강년의진에 잡혀 1896년 1월 13일 농암장터에서 처형되어 고모산성에 효수되었다.³⁾

김석중이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 계기는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이었다. 문경의 동학농민군과 김석중이 진압한 상주·보은 동학농민군의 관련성을 살피려면, 문경 동학농민군 활동의 시작은 언제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강년의진이 동학농민군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⁴⁾ 다만 그 실체에 대한 증명은 중군장 김상태와 전군장 윤기영의 행적, 그리고 이강년의 서간을 통해서만 말해져 왔다. 본문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군과 이강년의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조금이나마 찾고자 한다. 특히 이강년의진의 거의 장소인 문경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추적하고자 한다.

문경지역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문경문화원에서 발간한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문경문화연구총서 5)』(2009)이다. 여기서는 1871년 이필재의 ‘문경적변’과 1894년 관동수접주 최맹순의 접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살피고 있다. 이 책이 의병과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관련 내용은 역사적 배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뿐 상세하게 분석하거나 언급되지 않았다.

1)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문경문화연구총서 5)』, 문경문화원, 2009, 43~45쪽.

2) 신진희, 「1896년 안동부관찰사 김석중과 안동의병의 대결」, 『대구사학』 117, 2014, 4쪽 참조.

3) 신진희, 「1896년 안동부관찰사 김석중과 안동의병의 대결」, 『대구사학』 117, 2014, 24쪽 참조.

4) 구완희, 『영원한 의병장 윤강 이강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인물총서 12)』, 지식산업사, 2015;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 문경시, 2018;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문경문화연구총서 5)』, 문경문화원, 2009 등 참조.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문경지역의 사례 연구 등은 없지만, 문경 주변 지역을 언급한 경우는 많았다. 특히 1894년 일본군 증로군이 7월 11일(양 8.11)부터 16일까지 대구-인동-상주-문경-조령을 거쳐 충주로 행군한 사실과 더불어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동학농민군 학살을 밝힌 연구가 있다.⁵⁾ 이 연구는 행군로가 병참과 군용 전신망이 지나는 선과 일치한 점은 물론, 경상도 북부지역 民들이 외국군대인 제19대대의 학살까지 경험한 사실을 밝혔다.

문경지역 동학농민군과 이강년의진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 먼저, 문경지역 동학의 교세가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1871년 이필제의 조령란을 살펴야 한다.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문경문화연구총서 5)』(2009)에서는 이필제의 ‘문경적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필제의 조령란은 ‘이필제의 난’ 가운데 한 사건이며, 문경새재인 조령란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없다. 이필제를 연구하면서 언급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필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김의환·윤대원·장영민·박맹수·연갑수·임형진·임상욱 등이 있다.⁶⁾

다음으로, 1894년 문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조사·정리하였다. 동학농민군 활동 시작기, 활동 확대기, 관군과 일본군의 반격과 그에 따른 동학농민군의 피해를 서술하였다. 문경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시작기는 예천 소야리에 접소가 설치되는 3월부터 시작되며, 활동 확대기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7월부터이다. 관군과 일본군의 반격은 11월부터이며,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이 처형되거나 집 등 건물이 불타는 동학농민군의 피해를 시기별로 살폈다.

마지막으로,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이라고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강년의진의 중군장 김상태, 전군장 윤기영, 참모장 이동하가 대표적인 인물로 서술되었다. 이들이 동학농민군이었는지 사료에 입각해 살펴보고자 한

5) 신영우, 「1894년 일본군 증로군의 진압책과 동학농민군의 대응」, 『역사와실학』 33, 2007.

6) 김의환, 「신미년(1871) 李弼濟亂放 -동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하, 풀빛, 1981; 윤대원, 「이필제란의 연구」, 『한국사론』 16, 서울대 국사학과, 1987; 장영민, 「1871년 영해 동학란」, 『한국학보』 47, 일지사, 1987; 박맹수, 「해월 최시형의 초기행적과 사상」, 『청계사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연갑수, 「이필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2003; 임형진, 「혁명이 이필제의 생애와 영해」,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임상욱, 「이필제와 최시형 : 영해 동학 ‘혁명’의 선도적 근대성」,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등 참조.

다. 맺음말에서는 문경지역 동학농민군과 이강년의진의 상관관계를 서술할 것이다.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 사료들은 동학농민군 관련 사료와 의병 관련 사료들로 구분할 수 있다. 문경 동학농민군과 관련하여 『甲午斥邪錄』, 『自行錄』,⁷⁾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歲藏年錄』, 『錦藩集略』,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召募日記』, 『召募事實』 등을 활용하였다. 이강년의진 관련 부분에서는 구완회의 연구를 대부분 참고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독립운동사자료집』 3권과 『폭도사 편집 자료』 등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이들 자료를 서비스 하고 있는 장서각 기록유산DB,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공훈전자자료관 등을 활용하였다.

이 글은 문경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을 1871년 이필제의 ‘문경적변’ 혹은 ‘이필제의 조령란’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경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나아가 동학의 발상지인 경상도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미약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894년 3월부터 시작되는 동학농민군 활동은 예천 보수집강소의 진압활동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고, 11월부터는 소모영의 진압활동에 관군이 투입되면서 동학농민군의 피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또 이강년의진이 동학농민군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던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1871년 이필제의 조령란

1862년 3월 최제우의 명을 받은 최시형이 영해·영덕·상주·예천·청도 등을 순회하면서 동학의 교세를 확장하였다.⁸⁾ 1863년 7월 영양 일월산과 같은 산간지역까지도 동학이 확산되었다.⁹⁾ 이 확산세를 눈여겨 본 조정은 宣傳官 鄭雲龜를 파견하였다. ‘조령에서 경주까지는 4백여 리가 되고 州郡이 모두 10여 개가 되는데 거의 어느 하루도 동학에 대한

7) 『甲午斥邪錄』은 번역되어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로 발간되었고, 『自行錄』은 1989년 『충북사학』 2권에 「자행록과 한말 예천의 사회상」(신영우)이라는 연구논문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8) 『천도교창건사』 제2편 제1장(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3쪽).

9) 1863년 7월,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408쪽.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하였다.¹⁰⁾ 이러한 사실은 동학 교세의 확산세가 엄청났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조정에서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결국 1863년 12월 조정은 최제우를 체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파견된 인물이 이전에 조사에 나섰던 선전관 정운구였다.¹¹⁾

최제우가 선전관 정운구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될 때, 소문을 들은 동학교도가 조령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재를 넘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바꿔 상주에서 화령을 거쳐 보은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압송 행렬이 과천에 이르렀을 때 철종이 승하하여 “모든 죄인은 해당 관아에서 문초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압송행렬은 발길을 돌려 문경새재에 이르자 동학교도 수천 명이 횃불을 들고 나와 압송되는 최제우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¹²⁾ 이때 수천 동학교도에 감화한 이필제는 동학에 입도하였다.¹³⁾ 또 지역적으로 문경과 동학의 관련성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1864년 3월 10일 최제우는 대구읍성 남문 밖 아미산 아래에 위치한 관덕정에서 효수되었다. 교조의 효수는 동학교세의 위축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위축 속에서도 최시형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였다. 하지만 최제우의 효수로 인해 동학은 ‘邪道’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 회복과 동학을 인정해달라는 탄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이라고 불리는 1871년 ‘李弼濟(1825~1871)의 난’으로 연결된다.

‘이필제의 난’은 1869년 진천작변과 1870년 진주작변, 그리고 1871년 영해란과 조령란을 말한다. 진천과 진주에서 이필제가 일으킨 것을 작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단계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영해와 조령에서 이필제가 일으킨 것을 亂이라고 한 것은 실행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¹⁴⁾ ‘이필제의 난’과 관련된 문경지역은 조령(새재)이다. 1870년 진주작변이 실패하자 이필제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숨어서 동지를 규합하거나 민중들의 자각을 위한 연설 등을 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진천작

10) 『비변사등록』 250, 1863년 12월 20일조.

11) 『비변사등록』 250, 1863년 12월 20일조.

12) 채길순,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 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101쪽.

13) 임형진, 「혁명이 이필제의 생애와 영해」,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120쪽.

14)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9쪽.

변에서 헤어졌던 김낙균을 다시 만나 영해와 조령란을 함께 구상했다.

1871년 영해란이 실패한 후, 최시형과 함께 단양으로 피신하고자 하였다. 당시 단양에는 鄭岐鉉이 있었고, 8월 조령란을 일으킬 때 주동인물로 참여하였다. 조령란은 이필제가 정기현을 조선의 주인으로 삼아 조선을 정복한 뒤 군사를 빌려 중국으로 쳐들어가 대륙을 차지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문경의 조령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으로 조령별장을 두어 많은 무기를 모아 문경현에 저장해 두고 있었다. 이곳을 점령하고자 한 것이다. 영해란을 통해 동학을 이용하여 거사를 진행하면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경험한 상황이었다.

마침 이때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전국 유림들이 집단 상소와 상경을 하고 있었다. 이필제는 서원철폐 반대 집회를 이용해 민중을 모으고자 하였으며 조령 초곡에 유림들이 복합상소해야 한다는 조령유회 통문을 돌려 거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장선 인물이 정기현이었다. 정기현은 이 통문을 권옹일에게 전하고, 최해진에게 음죽 사람을 모으도록 하였으며, 이필제·김낙균·최응규 등은 충주·괴산·연풍 등지의 일을 담당했다.

거사일인 8월 2일 집합장소인 조령의 주막에 예정된 인원은 모이지 않았다. 이필제는 역수같은 비와 함께 후일을 도모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 정보를 얻은 관군이 들이닥쳐 정기현 등을 체포하였다. 이필제는 간신히 체포망을 벗어났으나 3일 후 문경읍내에서 포졸들에게 붙잡혔다.¹⁵⁾

1871년 12월 한양에 이필제를 문초하기 위한 추국청이 설치되었다. 이 問事郎廳은 후일 친일파가 되는 박정양과 김규식이었고, 기록 담당자는 뒷날 고부군수가 되는 조병갑이었다. 12월 24일 군기시 앞길에서 모반대역부도죄로 이필제는 능지처사되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필제는 구국의 의지를 실천한 혁명적 인물이라는 긍정적 평가에서부터 사회 불만세력을 선동해 난을 일으키는 직업 혁명가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까지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은 인물이다.¹⁶⁾

조선시대인 1601년부터 1905년까지 중죄인의 조사·판결서를 모은 추안급국안(推案及

15) 임형진, 「혁명이 이필제의 생애와 영해」,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134~136쪽; 이이화,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1, 교유서가, 2020, 86~89쪽.

16) 임형진, 「혁명이 이필제의 생애와 영해」,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138쪽.

鞫案, 규장각 소장)에는 ‘이필제의 난’ 관련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름을 이리저리 바꾸고 종적을 날려 숨겨서 도당을 끌어모아 난을 일으키려 한 것은 무슨 복심인가? 한 번 굴러서 湖中(충청북도)을 선동했고, 두 번 굴러서 영남에서 옥사를 일으켰고, 영해에까지 손을 뻗어 작변했으니 지극히 끔찍하다. 또 독한 말은 간담을 흔들어 놓는다. 이미 오래전에 도마 위에 오른 고기였는데, 그물을 빠져나간 고기가 아직도 목숨을 붙이고 있으니 오래 사람들이 다같이 분을 참지 못하는 바이다. 또 조령에서 도둑 무리를 매복시켜 흉측한 계획을 품었다가 최악이 차서 저절로 잡혀 온 것이다.¹⁷⁾

—「역적필제기현국안」, 『推案及鞫案』—

문경새재에서 최제우를 만나 동학에 입도하였지만 이필제는 동학교도를 이용해 일을 꾸미려 한 변혁세력이었다. 영해란은 동학교도와 원민(농민)이 결합된 최초의 동학농민군이기도 하였고, 교조 최제우의 신원을 회복하고 동학을 인정해달라는 신원교조운동이기도 하다. 이 영해란이 실패한 후 이필제는 문경새재에서 다시 일어나 문경의 무기고를 점령하고 조선을 점령한 후, 중국으로 쳐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 일을 “흉측한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제우의 효수 후 동학은 ‘邪道’로 규정되었고, 영해란과 조령란이 관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그 인식은 더욱 공고해졌다. 1907년 7월 최제우와 최시형의 죄명이 취소되었지만¹⁸⁾ 그 인식은 그대로였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세력은 조정에 그 활동이 포착되지 않도록 더욱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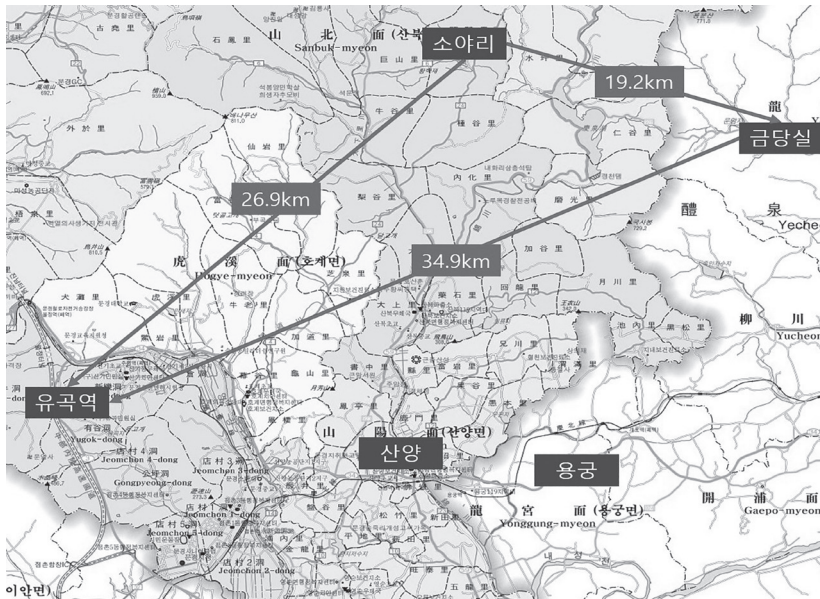
17) 「역적필제기현국안」, 『推案及鞫案』(이이화,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1, 교유서가, 2020, 88쪽 재인용)

18) 『고종실록』 1907년 7월 11일조(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8쪽 재인용).

3. 1894년 문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1) 동학농민군의 활동 시작

1894년 경상도 북부지역에 5개 포가 있었다. 관동포, 충경포, 상공포, 선산포, 영동포가 중심이었다. 이 포 가운데 관동포가 예천·문경지역을 관할한 포였다.¹⁹⁾ 이 포에는 대접주가 있는데 관동대접주는 李元八(1845~1900)이고, 崔孟淳(1852~1894)이 관동수접주라고 자칭하였다.²⁰⁾ 예천과 같이 대접주가 없는 군현에는 수접주를 두어 동학농민군에게 지도부의 명령이 하달되도록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²¹⁾ 최맹순이 관동수접주라고 자칭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접주 아래 접주·접사·봉령·교수·대정·중정 등이 임명되었다.²²⁾



문경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와 거리(추정)

19) 『歲藏年錄』 1894년 8월 초6일.

20) 『甲午斥邪錄』 1894년 봄.

21) 문경문화원,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 2009, 31쪽 참조.

22) 『甲午斥邪錄』 1894년 봄.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활동이 포착된 지역은 현재 문경시 산북면이다.²³⁾ 1894년 3월 당시 예천군 소야리였고, 이곳에 최맹순이 접소를 설치하면서 동학농민군 활동이 시작되었다.²⁴⁾ 5월 활동이 포착된 곳은 선산, 상주, 유곡으로, “동학농민군의 巢窟”로 불렸다.²⁵⁾ 이곳 사람들은 동학당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東學君 혹은 東學人으로 칭해졌다.²⁶⁾ 유곡은 문경에 속하는 곳으로, 조선시대 교통의 요지인 영남대로 가운데 큰 규모의 역원 중 하나였고, 문경은 영남대로의 길목으로 군사적 요충지요, 문물의 교류지였다.²⁷⁾ 일상적으로 동학농민군을 접하고 경의를 표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예천군 소야리인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와 문경시 유곡동의 거리는 약 26km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다. 호계면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운달산(해발 1,103.2km)으로 이어지는 굴봉산(해발 399.8m)과 오정산(해발 810.5m) 능선을 이용해 유곡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운달산은 산북면의 서북쪽, 문경읍과의 경계 부분에 있다. 산북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은 계곡도 깊고 수량도 풍부하다. 이 산에는 신라 고찰인 김룡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산북의 북방은 서쪽으로부터 단산, 운달산, 공덕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막고, 조령산-주흘산-월악산-천주봉으로 이루어진 소백산맥의 중심 준령들이 횡으로 뻗어나가다가 주선으로 흘러내린 산줄기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산맥의 중심축은 아니지만, 중심 줄기 아랫부분에서 제2선을 이루며 횡으로 흐르는 산들에 의해 북방이 둘러막혀 있다.²⁸⁾ 이 산들과 봉우리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다.

23)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5쪽.

24) 『甲午斥邪錄』 1894년 봄.

2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4년 6월 13일(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7쪽 재인용).

2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4년 6월 13일(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7쪽 재인용).

27) 안태현, 「문경지역 영남대로변의 공동체신앙과 지역성」, 『실천민속학연구』 2, 2000, 158쪽; 부산발전연구원, 「영남대로의 길목, 문경시」, 『낙동강연구』, 2006, 60쪽; 옛길박물관, 『국역 유곡록』, 문경시, 2014, 162쪽.

28)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문경 산북의 마을들-서중리,대상리,대하리,김룡리』(유교문화권 전통마을 7), 예문서원, 2009, 20~21쪽.

예천을 통해 유곡으로 이동하려면, 비조산(해발 308.4m), 월방산(해발 360.1m), 약천산(해발 210.8m), 돈달산(해발 275.2m), 장수바위산(해발 190.3m)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이용해 이동할 수도 있었다. 3개월 뒤에 문경 적성접주 권경함이 접소를 설치한 예천 금당실은 산북면 소야리에서 19.2km 떨어진 곳으로, 공덕산(해발 914.5m)과 용문산(해발 770.6m) 망월봉(해발 425.2m) 능선으로도 이동 가능했을 것이다.

2) 동학농민군의 활동 확대기

7월 문경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延豊縣監 韓鎭泰가 충청감사에게 올린 첩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첩정은 17일에 올린 것으로, “문경 공형이 사통으로 일본 중장 일행 30여 명이 방금 도착했고, 雇軍 355명을 모집하여 안보병참부에서 기다리라고 연풍현으로 알려왔다.”는 것이다.²⁹⁾

이 문건은 일본군이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에 병참부를 설치하였는데, 동래에서 문경까지 약 40리 마다 병참부를 설치하였고, 문경은 大站에 속한다. 이 대참 외에 소참도 두었고, 지나갈 도로는 3백 명이 대를 지어 3일에 십 리씩 닦았다. 길이 좁으면 전답을 가리지 않았고, 구덩이는 메웠으며, 돌은 뽑았고 나무는 베어내어 평탄하게 만들었다.³⁰⁾ 문경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병참부 설치와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민중이었던 것이다.

8월이 되면 문경 유곡 동학농민군은 산양과 용궁을 무혈점거하고 예천을 압박할 정도로 컸다. 한 예를 들면, 문경 적성접주 權景咸이 예천 금당실에 접소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³¹⁾ 앞서 살폈듯이 예천 소야리(현 문경시 산북면)에서 금당실은 19km 떨어진 곳이었다. 예천 금당실은 『鄭鑑錄』에서 南師古가 꼽은 十勝之地 가운데 한 곳으로 “兵戈不入之地”·“王駕臨之則否”로 거론된 지역이다.³²⁾ 또 1892년 7월 예천 금당실 사람들이 오미봉 일대

29) 『錦藩集略』, 『叢書』 4, 37쪽; 『금번집략』 1894년 7월 25일자(양 8.25),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2008, 29쪽.

30) 『固城府叢瑣錄』, 『叢書』 4, 237쪽.

31) 『甲午斥邪錄』, 『叢書』 11, 26~27쪽; 『갑오척사록』 1894년 8월 8일자,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272쪽;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1894년 8월 8일자(양 9.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121쪽.

32)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예천 금당실·맛질마을』(유교문화권 전통마을 3), 예문서원, 2004, 14쪽.

에 潛探하던 광부들과 충돌하여 德大 두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살해된 덕대는 러시아 광산회사에 고용된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³³⁾

이후 배상금과 로비활동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금당실 소나무숲의 소나무를 베어 팔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예천 금당실의 피폐해진 경제적 상황과 러시아 등 외국세력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고, 2년 뒤인 1894년 문경 적성접주 권경함이 이곳에 접소를 들 수 있었던 이유였다.

동학농민군이 예천을 압박한 사건은 8월 21일 관동대접주와 상북(商北)·용궁·충경·예천·안동·풍기·영천·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 13접주가 회합하고, 예천 보수집강소에다 동학농민군을 생매장한 사건의 책임자를 압송하라는 통문을 보낸 사건을 말한다.³⁴⁾ 이 사건은 7월 26일 예천 보수집강소가 설치되고 군사훈련을 하는 등 동학농민군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자, 8월 2일 동학농민군이 상인들의 예천읍내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작되었다.³⁵⁾ 보수집강소와 예천 동학농민군의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문경 적성접주 권경함이 금당실에 접소를 차리고 權順文을 접주로 삼아 예천 동학농민군을 후방지원한 것이다.

생매장 사건은 8월 9일 새벽 예천 보수집강소가 안동부 감천의 동학농민군을 습격하여 11명을 붙잡아 거주지와 성명을 조사하지도 않고 한천의 모래사장에 묻어 죽인 일이다.³⁶⁾ 금당실 접소[금곡포덕소]에서는 다음날인 10일 11명의 석방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예천 한천 가에 생매장된 이후였다. 이 사실을 알고 21일 문경·예천지역을 관할하는 관동대접주 이하 13접주가 회합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경의 접주가 적성접주 권경함이나 예천 금당실 접소[금곡포덕소]에 접주를 맡은 권순문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문경 접주가 관동대접주까지 참여하는 13접주 회합에 참여할 만큼 문경 동학농민군의 세력도 컸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3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예천 금당실·맛질마을』(유교문화권 전통마을 3), 예문서원, 2004, 25~26쪽.

34) 『甲午斥邪錄』, 『叢書』 11, 53쪽.

35) 『甲午斥邪錄』, 『叢書』 11, 25쪽; 「갑오척사록」 1894년 8월 2일자,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271쪽.

36) 『甲午斥邪錄』, 『叢書』 11, 29~30쪽; 「갑오척사록」 1894년 8월 10일자,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274~275쪽.

3) 관군·일본군의 반격과 동학농민군의 처형

7월이 문경 동학농민군의 확대기였다면 8월 하순이 되면서 관군 등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관군은 동학농민군이 주둔하고 있는 고모산성을 공격하였고 이들 동안 전투를 벌였다.³⁷⁾ 그 결과는 동학농민군의 패배였다.

8월 26일 부산수비대인 후지타[藤田]부대 50명이 용궁·문경 간에서 동학농민군 600여 명과 싸워 2명을 죽이고 가옥 11호를 불태웠다고 한다.³⁸⁾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투가 벌어진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2명이 죽었으며 가옥 11채가 불탔다.

고토[後藤馬次郎] 소위가 공병 25명과 인부 12명을 인솔하고 용궁에서 문경으로 가는 도중, 8월 29일 오전 9시경 문경 부근의 석문에서 약 600명의 동학농민군과 전투가 벌어졌으나 동학농민군 대장이 쓰러지자 모두 퇴각하였다. 병영으로 쓰던 11개 가옥에 보관된 화승총 103정, 도검 3자루, 창 3자루, 말 2마리, 동전 9관(貫)을 가져갔다.³⁹⁾ 여기에 나오는 석문은 문경 동로면 인곡리의 돌문 밖을 말한다.⁴⁰⁾

위의 사건은 1894년 8월 29일(양 9.28)에 문경 부근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과 일본공병대의 충돌을 말한다. 29일 사건의 경우 동학농민군을 죽인 사실과 11채 가옥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없이 화승총 등 확보한 물품만을 적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좀 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며칠 후인 9월 1일 고토 소위가 이끄는 25명의 병사와 12명의 인부로 구성된 공병대가 다시 문경 부근 석문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해서 2명의 동학농민군을 죽였다. 이 후부터 부산수비대인 하시다[橋田] 부대(9.12)와 후지타[藤田] 부대(9.15)가 각각 문경으로 향하였다.⁴¹⁾ 26일과 29일에 벌어진 전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모양인지 9월

37) 문경문화원,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 2009, 32쪽 참조.

38) 방위연구소, 『해군성』 4, 1894년 9월 30일자(『동학농민혁명사 일지』, 1894.08.26.(양 9.2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128쪽 재인용).

39) 「聞慶近傍 東學黨과의 戰鬥報告」,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6~128쪽.

40) 구완회, 『영원한 의병장 윤강 이강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인물총서 12)』, 지식산업사, 2015, 17쪽.

41) 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065쪽(『동학농민혁명사 일지』, 1894.09.12.(양 10.10),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140쪽;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1894.09.15.(양 10.1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143쪽 재인용).

1일에도 다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를 벌여졌다. 이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 잦은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사이의 전투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일본군의 경우, 일본군 문경병참부의 활동이나 정탐 내용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10월 15일 일본군 문경병참부 테와[出羽] 소좌가 인천병참사령부 이토[伊藤] 중좌에게 충청도 동학농민군 현황을 보고하였다. “보은 崔時亨·黃河一·姜永奭, 회인 柳日秀, 회덕 金福天, 충주 成斗煥, 옥천 朴石奎, 문의 吳一相, 청산 李國賓, 청주 徐一海, 영동 孫光五, 황간 趙景煥과 함께 청주에서 지난 달 23일부터 서일해가 수십만 군중을 인솔하고 성을 포위하고 있으며, 최법현[최시형]은 지금 청산 문암리에 살고 있는데 보은 장안에 모여 40여 리를 연락하고 있다.”⁴²⁾

원문은 일본군의 기록이기 때문에 1894년 11월 12일이라는 양력을 사용하고 있다. 문경병참부의 테와 소좌가 이토 중좌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문경부사가 문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태를 탐지하고 올린 것이다. 그 서류에는 “前日に 일컬었던 法所와 道所를 지금은 唱義所로 개칭하여 軍號 문자마다 모두 義字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⁴³⁾

소모사·토포사의 활동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을 활발하게 된 때는 11월 말이었다. 11월 26일 경상감사 조병호가 소모사와 토포사의 관할지역을 5개로 나눠 알렸는데, 尙州召募使 鄭宜默 : 상주·함창·문경·의성·용궁·예천·예안·안동·풍기·봉화·순흥·영천·청송·진보·영양 15읍. 大邱討捕使 池錫永 : 대구·경산·자인·현풍·하양·신령·창녕·영천·청도·영산·초계·경주 12읍. 仁同討捕使 趙應顯 : 인동·칠곡·선산·개령·김산·군위·비안·성주·고령 9읍. 居昌召募使 丁觀燮 : 거창·안의·함양·산청·단성·삼가·합천·지례·진주·하동·의령·남해 12읍. 昌原召募使 李鍾緒 : 창원·칠원·함안·웅천·김해·밀양·양산·진해·고성·사천·거제·울산 12읍이었다.⁴⁴⁾ 문경은 상주소모사 정의목의 관할이었다.

4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3쪽(『동학농민혁명사 일지』, 1894.10.15.(양 11.1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172쪽 재인용).

43) 「報恩東學黨에 관한 報告」(1894.11.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3쪽.

44) 「召募日記」, 『叢書』 11, 176-177쪽.

1894년 11월 4일부터 1895년 5월 21일까지 경상감영에서 정부에 보낸 「봉계(封啓)」와 「별보(別報)」를 모은 164쪽 필사본인 『별계(別啓)』가 있다.⁴⁵⁾ 12월 11일 봉계는 반동학군을 결성하고 지휘한 공을 인정받은 사람이 7개 군현 출신의 17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가운데 문경 출신의 전 영장 林重相과 진사 徐相璧이 등장한다. 임중상의 활동은 앞장서서 방수(防守)하고 적의 괴수를 찾아내 붙잡았다는 것과 군사를 모아 이끌면서 지키고 거 괴를 염탐하여 붙잡았다는 것이었다.⁴⁶⁾ 서상벽은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인솔하고 적도(동학농민군:필자 주)에 가입하는 것을 금절(禁絶)하였다고 한다.⁴⁷⁾

12월 11일 이전에 임중상과 서상벽은 반동학군을 결성하여 문경 동학농민군을 막는데 앞장 섰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주소모사 파견이 결정되고 20일도 안되는 때에 임중상과 서상벽의 반동학군이 문경 동학농민군을 막은 것이다. 하지만 문경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의 활동범위에도 항상 걸쳐지는 지역이었다.

12월 12일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관할하는 군현에 감결을 보내서, 무주에서 오는 비류를 막기 위해 각 읍의 정예포군을 선발하여 5일분 식량을 가지고 급히 상주로 오도록 군령을 전하였다. 각 군현에 병력 수를 지정했는데 안동은 300명을 16일까지 좌익장 권수종이 영솔해서 오도록 했고, 의성군은 300명, 문경군은 200명, 함창군은 20명, 용궁군은 20명을 보내도록 했다.⁴⁸⁾

관군·일본군·반동학군에 의해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상주소모사 정의목은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유입되는 동학농민군을 막기 위해 각 군현의 병력을 요청한 것이다. 그 가운데 안동·의성이 300명, 문경이 200명이었다. 12월이 되면 안동·의성은 반동학군만 있고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문경 또한 9월까지만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드러나고 12월이 되면 충청도 등 다른 지역 동학농민

45) 별계는 봉계와 별보로 나뉜다. 봉계는 1894년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올린 것으로, 1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계의 1/3을 차지한다. 별보는 吏掌, 戶掌, 兵掌, 禮掌 순서로 경상감영에서 정부 소관 부서에 올린 것이다.

46) 「별계」 1894년 12월 11일자,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97쪽; 「갑오군공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2, 2014, 353쪽.

47) 「별계」 1894년 12월 11일자,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97쪽.

48) 「召募事實」, 『叢書』 11, 329~330쪽; 「소모사실(상주)」 1894년 12월 12일자(「同日甘結各邑」),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9, 2011, 176~177쪽.

군을 지원하는 형태를 띄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주에서 유입된 동학농민군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1894년 12월 15일(양 1895.01.10) 상주목 산북면 금룡동 등 14개 마을 주민들이 等狀을 통해 보고하기를, 동학농민군 접주 朴和實이 문경에서 죽었다고 하였다.⁴⁹⁾ 박화실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상주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다가 피신한 인물로, 문경에서 죽었다. 박화실이 죽은 후, 그의 처와 딸이 官屬에게 아첨하여 下隸와 한 통속이 되어 문경의 군대를 위협하였고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관아의 하예와 병정들이 백성들을 침탈하지 못하게 단속하였다.

박화실은 동학농민군 접주로서 상주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문경에서 죽었다.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문경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처와 딸도 문경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문경지역과 박화실의 관련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만 그와 관련된 자료가 『소모사실(상주)』 뿐이라 보완자료가 더 필요하다.

보은에서 유입된 동학농민군도 있었던 모양이다. 12월 19일 상주소모사 정의목은 유격장 김석중이 보은 종곡[복실]에서 패산한 동학농민군들이 문경으로 향했다는 급보를 받았다. 곧이어 정의목은 문경에 감결을 보내서 패망한 동학농민군의 여당이 문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각 면리에서 요충지를 엄히 방수하도록 영을 내렸다.⁵⁰⁾

김석중은 앞서 언급했듯이, 1894년 11월 26일 상주소모영에 정의목이 소모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 유격장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1894년 12월 보은 복실전투에

49) 『소모사실(상주)』, 1894년 12월 15일자(「同日甘結聞慶」),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9, 2011, 190~191쪽. 지금 상주목 山北面 金龍洞 등 14개 里 주민들의 等狀을 보니, “匪接 朴和實이 도망간 뒤에 문경에서 살해되어 본 동에서는 조금 안심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박화실의 처가 그녀의 딸로 官屬에게 아첨하여 下隸와 한 통속이 되어 聞慶의 군대를 위협하여, 집안의 집기들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동민 3~4명을 잡아가서 400~500금을 빼앗았으며, 맞아서 다친 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감결로 신칙하여 동민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박화실이 본 고을에서 순순히 형벌을 받고 죽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더 이상 사람을 잡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저 匪魁의 악처는 숨이 붙어있는 것도 다행인데 귀신이나 물어우처럼 하예와 한 통속이 되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이다지도 극심한가? 이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위의 계집을 잡아다가 그 못된 버릇을 엄히 징계하고, 별도로 관아의 하예와 병정들에게 신칙하여 다시는 권한을 넘어 백성들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한 뒤에, 그 상황을 보고하라. 만약 또다시 침탈하는 폐단이 발생한다면 신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특별히 주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50) 「召募事實」, 『叢書』 11, 377~378쪽; 『소모사실(상주)』, 1894년 12월 19일자(「同日甘結聞慶」),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9, 2011, 209쪽.

서 동학농민군 진압의 공을 인정받아 1895년 4월 28일(양 5.22) 안동부사에 추천되었고 5월 8일 임명되어 22일 도입하였다. 29일 행정제도가 23부체제로 개편되자 안동부관찰사가 되었다.⁵¹⁾ 1896년 조정에서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단발을 강행하자,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일본군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모습은 민의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 예안의병장 이중린이 현상금을 걸어 김석중을 수배하게 만든 계기였다. 결국 김석중은 안동의병에 쫓겨 일본군부대로 도주하다가 이강년의진에 잡혀 1896년 1월 13일 농암장터에서 처형되어 고모산성에 효수되었다.⁵²⁾

12월 27일이 되면, 영남위무사 이중하가 중앙정부에 올린 장계에 관리들의 功過를 논하였다. 그 가운데 문경부사인 金禎根은 군병을 훈련시키고 자치 규약을 만들어 간사한 무리들이 모두 엎드리도록 만들었으니 水使의 이력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⁵³⁾ 보은 북실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교통의 요지인 문경에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유입되었다. 이에 문경부사 김정근은 동학농민군으로부터 문경을 방어하기 위해 자치 규약을 만들었다. 당시 만들어진 규약을 살펴보면 향약에 토대를 둔 규약이 많았다.

12월 28일 별보에는 문경부사 김정근의 첩정 내용이 있는데, 문경 출신으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본부에서 붙잡은 동학교도 朴汝集은 강제로 도당에 가입하도록 권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혹(煽惑)하였고, 徐德九는 상주의 軍器所가 작변(作變)할 때 참여하여 간섭한 자인데 화약 1근(斤), 화승(火繩) 1원(圓), 철환(鐵丸) 20개가 지금 그 자의 집에 있고, 朴萬金은 꽤거리를 거느리고 都會에 나아가서 불을 지르고 劫掠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세 놈을 이달 초2일에 邑市의 큰길에서 모두 嚴棍을 쳐서 物故하였으며, 安相均은 청산의 군기를 약탈하여 상주의 교경(交境)에 돌아와 범죄한 자이므로 이달 20일에 뒤를 쫓아 붙잡은 즉시 총살하였습니다.”⁵⁴⁾

김정근의 첩정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박여집, 서덕구, 박만금, 안상균 등이 그들이다. 12월 2일 박여집·서덕구·박만금은 문경시장 큰길에서 곤장을 맞

51) 신진희, 「1896년 안동부관찰사 김석중과 안동의병의 대결」, 『대구사학』 117, 2014, 4쪽 참조.

52) 신진희, 「1896년 안동부관찰사 김석중과 안동의병의 대결」, 『대구사학』 117, 2014, 24쪽 참조.

53) 『甲午實記』 1894년 12월 27일자,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9, 2011, 99쪽.

54) 『別啓』 1894년 12월 28일자(兵掌),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156쪽.

고 죽었다. 또 안상군은 충청도 청산의 군기를 빼앗아 상주, 문경 일대를 다니면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다가 12월 20일 잡히자마자 총살되었다.

1895년 1월 10일에도 동학농민군을 파악할 수 있는 별보가 있었다. 문경부사 김정근이 보내온 첩정에, “본부의 비도를 뒤쫓아 붙잡은 것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보고하였으되, 추후에 붙잡은 여섯 놈 중에 林道載·南敬俊·金汝興·李德一·張長德 등 다섯 놈은 진장眞贓(범죄 사실의 증거)이 드러나서 모두 용서하기 어려운 자들이기 때문에 12월 28일에 모두 즉시 몰고하였습니다. 李守命은 입고 있는 옷깃에 弓乙의 標跡이 노출되었고 전후로 범한 것이 더욱 몹시 흉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原籍 고을인 개령현(開寧縣)에 공문을 보내 압송하여 그곳으로 하여금 마무리를 짓고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쓰여 있다.⁵⁵⁾

12월에 동학농민군 처형을 많이 했는데, 1월에는 각지에 숨어 있던 동학농민군을 찾아내는 일이 잦았던 모양이다. 문경부사 김정근의 첩정에 동학농민군 6명의 이름이 추가되었다. 임도재·남경준·김여흥·이덕일·장장덕·이수명 등이 그들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이수명만은 고향인 금릉군 개령현(현재 김천)으로 넘겨서 그곳에서 처형하도록 하였다. 임도재 등 5명은 문경부사 김정근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아 문경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8월 하순부터 관군과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나섰다. 9월부터 12월까지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졌으며, 동학농민군의 패배가 거의 확정되는 11월 하순이 되면 소모사가 임명되어 동학농민군을 색출하고 잡아들였으며, 처형으로 이어졌다. 12월 동학농민군 최대전투 가운데 하나인 보은 북실전투가 벌어지는 한편, 조정에서는 동학농민군 진압 관련 논공행상을 진행하였다. 그 속에서 빛을 발한 인물이 이강년의 진에게 잡혀 효수된 김석중이었다.

55) 『別啓』 1895년 1월 10일자(兵掌),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169~170쪽.

4. 이강년의진 속 동학농민군의 정체

1) 운강 李康季(1858~1908)

일제가 작성한 「폭도사편집자료」에는 이강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강년은 경북 문경군 가북면 대문리 출생으로, 저 동학당 봉기 때에는 그 지방의 수괴로서 대대적으로 관병에 대항하여 비상한 참해를 일으켰고, 명치29(1894)년 그 지방의 폭동에도 다시 일어나 당시의 관찰사 김석중을 살해하고 청국으로 도망하였다가 4년 전 귀국하였다.”는 것이다.⁵⁶⁾

이강년은 1858년 12월 30일(양 1859.02.18.) 가은읍 도태리(상괴1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雲崗, 자는 樂寅이고, 아명은 暘出이다. 1880년 음력 3월 정시 무과에 합격하고 종6품 정충장군행용양위부사과에 올라 선전관이 되었다. 이 무렵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는 정국 혼란과 친일파의 행동에 분격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학문에 매진하였다.⁵⁷⁾

그러다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강년은 동학농민군과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다. 먼저 「폭도사편집자료」에서는 “작년부터 의병이라 칭하고 스스로 總首魁로서 제천·영춘·단양·청풍·충주 및 경상도의 각 지역에 걸쳐 횡행하다가 금년 경찰의 손에 체포되었다.”고 말하였고,⁵⁸⁾ 『창의사실기』에서 “갑오년 6월에 東匪와 왜변이 일어나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다. 공이 분개하여 순국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모친이 경계하여 멈추고서 널리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에 힘썼다.”고 적혀 있다.⁵⁹⁾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은 동학농민군 활동인지 의병 활동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강년이 남긴 시에서도 “동학 도적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네[東匪時欲倡義未果]”가 있다. 역시 동학농민군 활동인지 의병 활동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당시 일제가 순수 동학 세력과 ‘僞東學’을 구분하는 일이 많았다. 동학의 교리보다는 일본군 배척을 내세우며 일본군 병참을 공격하는 농

56) 「폭도사 편집 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3(의병항쟁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572쪽.

57)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 문경시, 2018, 50쪽 참조.

58) 「폭도사 편집 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3(의병항쟁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538쪽.

59) 구원회,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인물총서 12)』, 지식산업사, 2015, 15~16쪽.

민군을 ‘위동학도’라고 하였다. 이강년이 동학에 가담하였다면 아마 그러한 ‘위동학’이었을 것이다.”⁶⁰⁾

2) 중군장 金尙台(1862~1911)

김상태는 삼척김씨로 본명은 金尙鎬이다. 1862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영월군 하동면 옥동리에서 살았다. 그가 태어난 영춘이나 영월은 최시형이 숨어살면서 포교활동에 힘을 쏟았던 곳으로서, 일찍부터 상당한 동학조직이 움직이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동학의 종교적 가르침을 수용할 정도의 교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들의 사회의식에 일정한 동조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¹⁾

1909년 3월 충청도 의병에 관련된 일을 작성한 일본 경찰의 문서에는 김상태를 영춘군 출신의 ‘유생’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지만,⁶²⁾ ‘유명한 유학자로 동학당이었던 자’라고 표시한 경우가 있다.⁶³⁾ 『폭도사 편집 자료』에는 김상태를 “영춘군의 양반으로서 명망이 있었다. 동지를 규합하여 이강년의 군에 들어가 一群의 隊長으로서 각지에 걸쳐 약탈을 하였다.”⁶⁴⁾라고 적고 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작성된 문서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김상태가 영춘군의 이름난 양반으로 이강년의진에 들어가 대장으로서 활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학 관련 내용을 찾을 수는 없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강년의진에서 중군장으로 활약하였고, 류인석이 이끄는 호좌의진 아래에 합세하여 경상·충청·강원 3도에 걸쳐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강년·민공호가 1908년 잡혀서 처형된 후에도 계속 항쟁하였다. 1911년 6월 14일 풍기군 단산면 광암리 소백산 기슭에서 밀정의 제보로 체포되어 9월 21일 대구형무소에

60) 구완회,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인물총서 12)』, 지식산업사, 2015, 16쪽.

61) 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김상태(金尙台)의 생애와 항일투쟁」, 『지역문화연구』 10, 2011, 73쪽.

62) 「暴徒 討伐 狀況에 關한 件」(1909.03, 충청도),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3(의병편 VI). 管内 丹陽郡에 있어서의 暴徒 出沒의 狀況 等에 同地 駐在 巡查 姜聖淑李鍾國의 戰死 顛末은 일찌기 報告한 바 該暴徒의 一團은 丹陽永春 兩憲兵分遣所員의 協力搜索의 結果 今回 聞慶郡 東魯面 石項에서 追擊交戰하여 暴徒五를 殲하고 負傷 十五 火繩銃 二 軍銃 一 彈丸 十七 其他 雜品의 鹵獲이 있었다고 한다. 賊魁는 永春郡 出身 金尙台(儒生)(밀줄:필자)로 本月 七日 順興에서 擊退되어 永春方面으로 逃走하여 온 것 같다. 右 報告함.

63) 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김상태(金尙台)의 생애와 항일투쟁」, 『지역문화연구』 10, 2011, 71쪽.

64) 「폭도사 편집 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3(의병항쟁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538쪽.

서 순국하였다. 풍기군 단산면은 영춘군(현재 단양군 영춘면)과 소백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다.

김상태는 순국(음 1911.07.29) 후 유언에 따라 9월 12일(양 11.02) 이강년 무덤 곁에 묻혔다.⁶⁵⁾ 여기에서 김상태가 의병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를 유추할 수 있다. 이강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강년의 어떤 부분에 매료되어 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3) 전군장 尹基榮(1856~1907)

윤기영은 강원도 원주 호저면 무장리 간무곡 출신이다. 1896년 을미의병 거의 때 유격대 중군장으로 류인석 이강년 등과 조령 문경 수안보 등의 전투에 참전하여 활약한 인물이다.⁶⁶⁾ 1896년 2월 을미사변 이후 문경에서 거의한 이강년의진의 전군장으로 활약하여 문경의 일본군 병참을 격파하기 위해 교전을 하였고 1907년 11월 19일 강원도 원주군에서 재봉기하여 강릉군 연곡면에서 의병 220명을 이끌고 일군 수비대와 접전 중 전사 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⁶⁷⁾

윤기영이 동학농민군과 관련되었다고 말한 증거 자료는 후손의 증언이다. 윤기영의 후손이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윤기영이 갑오(1894)년 당시 강원도 영월·주천 일대에서 동학 조직에 관여했다가 다리뼈가 부러질 정도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⁶⁸⁾

4) 참모장 李東下(1856~1919)

이동하는 문경 출신으로 1907년 9월 이강년의진의 참모로 임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의진이 마고성에 주둔할 때 좌익장 김영식(金永軾)과 함께 정예의병 20여 명을 이끌

65) 구완회, 「제천의병과 거문돌 마을의 박약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7, 2019, 18쪽.

66)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사적지 조사보고서 6_강원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54~257쪽.

67) 공적조사.

68) 후손 윤병진 님의 증언. 2009년 09월 19일(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김상태의 생애와 항일투쟁」, 『지역문화연구』 10, 2011, 74쪽 재인용).

고 이화령을 철통같이 지켰으며, 1908년 6월 이강년이 까치성에서 부상당한 뒤 붙잡히자 그는 강원도 영월로 피신하였다. 그 후 권을병(權秉乙), 김성추(金聲秋), 조용필(趙鏞弼)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4년 9월 귀국한 그는 옛 동지인 이은영(李殷榮), 김낙문(金洛文), 최욱영(崔旭永), 이식재(李湜宰)와 함께 새로운 독립운동조직 결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1915년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단조합을 결정하여 충남 지부장으로서는 격문을 배포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6년 8월 예천의 박심수, 안동의 김숙헌 등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강년의진 속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간략하게 살폈다. 특히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자료가 확보되는 정도의 선에서만 다루었다. 대장 이강년은 동학농민군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듯하다. 1871년 이필제가 그러하였듯이 이강년도 동학세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중군장 김상태과 전군장 윤기영이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어떠한 상황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 또 참모장 이동하는 1896년이 아닌 1907년 중·후기의병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교류관계를 맺었다. 중·후기의병으로 함께 활동한 李殷榮(1868~1921)과 李觀九(1852~1922) 또한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본문에는 언급만 하였다. 실질적인 사료에 근거하여 언급해야 함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5. 맺음말 : 동학농민군과 이강년의진의 상관관계

이 글은 동학농민군과 이강년의진이 서로 관련이 있는가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문경지역 동학농민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871년 이필제의 ‘문경적변’ 혹은 ‘이필제의 조령란’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문경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나아가 동학의 발상지인 경상도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미약했던 이유를 엿볼 수 있었다. 1894년 3월부터 시작되는

동학농민군 활동은 8월 예천 보수집강소의 진압활동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고, 11월부터는 소모영의 진압활동에 관군이 투입되면서 동학농민군의 피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12월 보은 북실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문경에 유입되자, 문경부사 김정근이 그들을 색출하여 붙잡아 처형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다음으로 이강년의진 속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한 인물들의 행적을 파악하였다. 대장이었던 이강년의 서간 등에서도 1894년 거의를 도모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이것이 갑오의병인지 동학농민군 활동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이강년의진에서 중군장을 맡아 활약했던 김상태나 진군장으로 활동한 윤기영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이 두 인물은 동학농민군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강년의진의 동학농민군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 몇 사람의 사례가 일반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도한 일반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특정인물이 동학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병의 전투력을 구성하는 병사층이 농민군과 겹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 증거를 보완하는 것도 절실하다. 지도부는 동학의 이념적 이력이 중요하겠지만,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그보다는 개인적 원한 혹은 사회에 대한 원만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사료적 근거를 찾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좀더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이강년의진과 김석중의 관계이다. 이강년의진이 창 의하고 단 3일 만에 안동부관찰사 김석중을 잡아 처형하고 고모산성에 효수하였다. 김석중이 소모영의 유격장으로서 동학농민군 처단에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이강년의진과 동학농민군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안동부관찰사로 재직 하던 당시 김석중은 단발을 강행한 인물이고, 이 때문에 안동의병에 의해 안동에서 쫓겨났다가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한 인물이다. 이에 김석중을 ‘왜관찰사’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그가 안동부관찰사로 임명될 수 있었던 배경은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이었다. 1894년 소모영의 유격장으로서 활동했던 지역은 상주였지만 소모영의 관할

범위에 문경도 포함되었다.⁶⁹⁾ 동학농민군 진압으로 초고속으로 출세한 인물이라는 배경과 단발 강행으로 인해 안동의병이 거의했던 점, 그리고 안동의병에 의해 쫓겨났다가 일본군의 도움으로 복귀한 ‘왜관찰사’라는 이유가 이강년의진이 그를 붙잡아 효수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김석중이 상주소모영 유격장으로서 동학농민군 처단에 가장 앞장섰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강년의진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는 ‘밀접할 가능성이 있다’이다. 1896년 이강년의진과 동학농민군의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밀접하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강년의진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야만 할 것이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지도부의 동학 이력도 중요하지만, 의병의 전투력을 담당하였던 참여자들의 이력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69) 안동부(安東府)는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豊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고종실록』 33권, 1895년 5월 26일조). 1892년 문경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1895년 5월 상주, 용궁, 예천 등 이웃군에 할양되어 문경군이 없어졌고, 1896년 8월 4일 23부체제가 13도로 개편되면서 문경군이 환원되었다.

이강년의진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 1895년 경상도 북부의 안동을 비롯 문경과 예천, 그리고 김산 일대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 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일어나서 민보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곳이었다. 또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일본군 군용전신망과 병참망이 거치는 지역이라서 병참부 주둔병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곳이기도 했다.

발표자가 주제로 정한 동학농민군과 의병 관계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검토해온 연구자들이 과제로 삼고 있는 주제였다.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 무장활동을 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왔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사례연구를 하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다.

당시 무장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① 관군 ② 민보군 ③ 동학농민군 ④ 의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군을 제외하면 모두 민군(民軍)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관군과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적대하거나, 관군 이탈자와 의병이 합세하기도 했다.

의병 결성은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참여자를 배척하고 이루어졌을 수 있고, 갑오년의 민보군이 의병으로 참여해서 활약할 수도 있었다. 동학농민군과 의병은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이해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인 사료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동학농민군과 의병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은 대부분 인멸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는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부 자료라도 모아 맞추면 실상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동학농민군과 의병의 상관관계는 밀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자료

를 검토했지만 추정으로 마무리했다. 경북 북서부 일대의 동학농민군과 의병 관계는 문제 제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2. 경북 북부 일대의 1894~5년 상황과 반일 항쟁

경북 북서부의 문경·함창·상주·선산·김산·성주·예천·안동 일대에서 활약한 동학농민군과 의병에 관해서 그 의지와 과단성 그리고 용맹함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 일대는 일본군 여단병력이 많은 군마와 군수물자를 가지고 북상한 지역이었다.

먼저 일본군 전신가설지대가 들어와서 군용전신선을 세우고, 병참부를 설치하고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선산 해평 - 상주 낙동 - 함창 태봉 - 문경을 잇는 병참선로는 곧 일본군 제5사단의 후속부대가 북상하는 통로가 된 것이다. 일본군은 이 지역에서 만나는 조선인에게 국왕이 인질이 된 상태를 말하면서 위압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본군과 조우한 산양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존재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갑오년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간의 첫전투인 석문전투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석문전투 이전의 조선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94년 봄 경북 북서부의 문경·함창·상주·선산·김산·성주 일대는 동학도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사교로 탄압했던 동학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사태 전개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보은을 비롯한 충청도 인접 군현에서 동학 교단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대규모 장내리집회를 열었을 때 이 일대의 동학도들에게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이른바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오랜 도인'이 관아의 탄압이 줄어들자 스스로 드러내서 포교에 나섰던 것이다.

상주의 도남서원이 1863년 12월 옥성서원에 보낸 통문에는 “동학에는 반상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고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有無相資하고 있어서 비천한 계층, 흠어미와 흠아비, 빈궁자들이 모여든다.”고 했다. 또 “그 전파력은 놀라울 정도여서 동학도 한 사람이 있으면 한 마을 모두, 그리고 한 향촌 전체가 차차 그 세력하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동학의 실체를 잘 파악한 내용이다. 한 세대 뒤인 1894년 봄은 무리를 지은 동학도들이 양반 지주들에게 과거의 일로 보복하는 경우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여름에는 농민들이 소송할 일이 있으면 관아를 찾지 않고 동학 접소에 호소하고 있었다. 향촌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른바 집강소의 개혁과 같은 사례가 보이는 것이다.

7월 23일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새벽 일본군 혼성제9여단 병력이 경북공을 기습해서 점령했다. 국왕과 왕비가 인질이 되고, 일본공사가 내정을 간섭해서 정부 대신 임명 등 주요 정사가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양반 유생이 향촌사회에서 힘이 상실된 이 시기에 동학 조직은 반일 항쟁의 중심이 되었다.

여름이 되면 경북 북서부 일대에는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군 전신가설지대가 들어와서 군용 전신선을 세우고, 이 노선에 병참부를 설치하였다. 선산 해평 - 상주 낙동 - 함창 태봉 - 문경을 잇는 병참선로는 곧 일본군 제5사단의 후속부대가 북상하는 통로가 되었다.

경북 북서부 일대의 동학 조직은 무장봉기를 준비했다. 일본군 병참부를 축출하려고 한 것이다. 예천에서 동학농민군과 민보군과 공방전을 벌였고, 산양에서 일본군 대위가 피살된 사건으로 석문전투가 소야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졌다.

동학농민군의 가을 2차봉기 목표는 국내에 들어온 일본 세력을 축출하는 것이었다. 경상도 북서부 일대는 축출하려는 대상이 눈앞에 있었다. 일본군 군용전신소와 병참부였다. 동학농민군은 전신주를 쓰러뜨리거나 전신선을 단절하였다. 이것은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후방이 공격당한 유일한 사례였다.

히로시마대본영은 병참부 주둔병에게 동학농민군의 절멸을 목표로 학살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상도 예천·선산·상주·문경 일대는 가장 먼저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고 학살한 지역이 되었다. 그 피해는 자료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일본군이 이 일대를 순회하면서 학살한 실상은 전투보고서 등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의병 봉기상황과도 다르지 않다. 일본군 병참부는 1895년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었다. 문경에서 봉기한 의병은 일본에 협력했던 ‘왜 관찰사’ 등을 공격했지만 주 공세 대상은 일본군이었다. 갑오년 사태를 지켜보았으면서 의병을 결성해서 활동했던 의미는 매우 크다.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의병에 가세한 사례를 찾는 작업은 필요한 것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다른 주체세력이 연이어 무장봉기해서 일본군에게 항쟁했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주요 인물의 검토 필요

의병장 이강년은 무관 출신으로 의병의 결성해서 활약했다. 경상도와 충청도에 걸치는 의병 활동은 중요하다. 1894년의 이강년 기록에 동학농민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경상도 유생들이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대한 반감을 보면 동조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더 많은 방증자료를 찾아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문경 농암장터에서 처형한 안동관찰사 김석중에 관한 인물 검토도 필요하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 일본군 장교와 친교관계를 맺고, 지방관으로 발탁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와 함께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경군 지휘관의 사례를 보면 반민족행위로 개인영달을 띠었다. 김석중은 안동 재임시 했던 처신은 지역민의 불만을 키웠다.

의병에게 잡혀서 처형된 것이 동학농민군 진압과 관련되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을미사변 이후 ‘왜 관찰사’에 대한 반감이 직접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많은 자료가 검토되어야 한다. 상주소모사였던 정의목의 기록에 김석중의 후일담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문경부사 김정근은 유능한 지방관으로 보인다. 1894년 문경 관아에서 동학농민군에 관해 파악한 정보를 보면 치밀한 인물로 평가된다. 문경 경내가 동학농민군 진압 이후 어떻게 잔여세력을 평정하고, 관치질서를 되찾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동학농민군 참여자들은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2주제

의병장 이강년(李康季) 격문류(檄文類)의 가치와 의미

발표자 : 강민구(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토론자 : 우지영(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의병장 이강년(李康季) 격문류(檄文類)의 가치와 의미

강민구(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1. 서론
- 2. 이강년 격문류(檄文類)의 위상
- 3. 선동(煽動)의 이념(理念)과 기술
- 4. 이등박문을 저격한 격문(檄文)
- 5.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통고문(通告文)
- 6. 친일 분자에 대한 효유문(曉諭文)
- 7. 결론

1. 서론

의병장(義兵將)은 국가의 지원 없이 대중으로 의병을 조직해 항전하는 지도자이기에, 여러 가지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그것을 전통적 관념으로는 ‘문무겸전(文武兼全)’이라고 한다. 이강년은 무과에 급제한 선전관(宣傳官) 출신이기에 무재(武才)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중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류(士類)의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글로 설득할 수 있는 문필(文筆) 능력이 필수적이었다. 실전(實戰)은 치루지 않고 격문만 짓고도 ‘의병장(義兵將)’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문필이 중시되었다. 이강년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거병(擧兵)과 동시에 다양한 격문을 지어 창의의 명분을 천명하고 군사와 물자 모집을 호소하였으며, 침략자를 준엄히 꾸짖고 친일 분자를 회유하였고, 국제사회에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엄격한 기율을 게시(揭示)하는 등 한말 의병장 중 가장 많은 격문류를 지었다.

이강년은 1896년 2월에 처음 기병(起兵)하였고 1907년부터 5월에 다시 기병하였는데,

‘30여 회의 전투에서 왜적 100여명을 죽였다.’고 스스로 말하였으니, 그의 전적(戰績)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우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의 무력 항쟁에 대한 연구는 상당 정도 결실을 보았으나 그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강년이 작성한 격문류가 갖는 가치와 의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이강년 격문류(檄文類)의 위상

이강년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만큼 격렬한 전투를 치르다 순국한 의병장이라는 점에서 그가 남긴 저술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음의 기록에서 보듯이, 그는 의병 활병을 하면서 격문을 매우 중시하였으니, 원행에도 격문을 지니고 다니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기해년[1899] 봄에 여러 사우(士友)가 화서선생(華西先生)의 유집(遺集)을 충주의 병산에서 간행하였는데 공이 자신의 일처럼 힘써 주선하였다. 그때 동학 잔당이 소란을 피워 길이 막히고 위태로웠으나 공이 의리를 지키는 것을 잊지 않아, 원행에도 창의 격문과 의리를 지키자는 문자를 행장에 지녔으니, 식자가 아니라면 모두 당시 금법에 저촉된다고 아는 것이었다. 무안군수 진 아무개가 의심하여 그를 수색하고, 동행하였던 어숙심(魚叔心)과 함께 구금하였기에, 며칠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그 문자를 불태우고 이리저리 곤혹스럽고 욕되게 하니, 공이 장난 삼아 시를 지어 “나를 욕보이고 글을 불태우나 도리어 가소롭다. 천년의 남은 풍습이 망한 진나라를 계승하였구나.”라고 하였다.¹⁾

현전하는 운강의 저술 중 ‘문(文)’에 편재된 글은 모두 격문류이며, 기타 시문도 상당수는 우국충분(憂國忠奮)의 내용과 정서를 담고 있다.

1) 『倡義事實記』 “己亥春, 衆士友刊華西先生遺集于忠州屏山, 公亦幹如己事, 時有東匪餘警, 道路梗險, 公不忘守義. 遠行亦裝持倡義檄文及守義文字, 若非識者, 皆認之以時諱者也. 務安倅秦某, 疑而搜之, 并與同行魚叔心押囚之, 數日得釋. 然焚其文字, 窘辱多端, 公戲作詩曰: ‘辱我焚書還可笑, 千秋餘習續亡秦.’”

이강년이 지은 격문류는 다음의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총 16편이 현전한다.

연번	제 목	작성일자 (음력)	소재(所載)
1	「檄告各道列邑文」	1907. 7. 13.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30쪽.) 『雲崗先生倡義日錄』, 補遺, 檄文.(『雲岡集』, 447쪽.)
2	「再檄告文」		『雲崗先生遺稿』(『雲岡集』, 33쪽.) 『雲崗先生文集』, 卷1, 檄文, 「又 檄告各道列邑文 一」(『雲岡集』, 517쪽.)
3	「檄告文」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39쪽.) 『雲崗先生文集』, 卷1, 檄文, 「又 檄告各道列邑文 二」(『雲岡集』, 521쪽.)
4	「召檄」	1907. 7.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42쪽.) 『雲崗先生文集』, 卷1, 檄文, 「又 檄告各道列邑文 三」(『雲岡集』, 524쪽.)
5	「討倭檄文」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45쪽.) 『雲崗先生文集』, 卷1, 檄文, 「又 檄告各道列邑文 四」(『雲岡集』, 526쪽.)
6	「檄伊藤博文文」	1907. 9. 9.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48쪽.) 『雲崗先生倡義日錄』, 補遺, 檄文.(『雲岡集』, 450쪽.)
7	「通告各國領事館文」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50쪽.) 『雲崗先生文集』, 卷1, 檄文, 「通告各國領事館」(『雲岡集』, 529쪽.)
8	「通告文」	1907. 7. 6.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53쪽.) 『雲崗先生文集』, 卷1, 檄文, 「通告」(『雲岡集』, 534쪽.)
9	「曉告宣諭委員文」	1907. 9. 9.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56쪽.) 『雲崗先生文集』, 卷1, 檄文, 「曉告宣諭委員」(『雲岡集』, 532쪽.)
10	「曉諭一進會文」	1907. 9. 9.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58쪽.) 『雲崗先生文集』, 卷1, 檄文, 「曉諭一進會」(『雲岡集』, 532쪽.)
11	「士卒誓戒文」	1907. 9. 9.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59쪽.) 『雲崗先生倡義日錄』, 補遺, 檄文, 「誓戒士卒」(『雲岡集』, 452쪽.)
12	「通告蓬坪士民文」	1907. 12. 25.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60쪽.)
13	「示史內面執綱及各洞頭尊」	1908. 1. 9.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63쪽.)
14	「示永東各坊曲頭尊」	1908. 1. 11.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64쪽.)
15	「揭示」	1908. 8.	『雲崗先生遺稿』, 文.(『雲岡集』, 65쪽.)
16	「告訣八域同志士友」	1908. 9. 12	『雲崗先生遺稿』, 書.(『雲岡集』, 22쪽.) 『雲崗先生倡義日錄』, 補遺, 檄文, 「告訣八域同志」(『雲岡集』, 453쪽.)

이강년의 격문류 16편은 필사본인 『운강선생유고(雲崗先生遺稿)』에 모두 실려 있는데, 목활자본인 『운강선생문집(雲崗先生文集)』·『운강선생창의일록(雲崗先生倡義日錄)』과 상호 대조해볼 때 자구의 출입이 상당수 있다. 『운강선생유고』의 「격고각도열읍문(檄告各道列邑文)」·「재격고문(再檄告文)」·「격고문(檄告文)」·「소격(召檄)」·「토왜격문(討倭檄文)」은 모두 연속성을 지닌 격문으로 보인다. 이는 『운강선생문집』에 「재격고문(再檄告文)」이 「격고각도열

읍문(檄告各道列邑文)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격고문(檄告文)」·「소격(召檄)」·「토왜격문(討倭檄文)」은 「우(又)」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운강선생문집』에만 도표의 연번 1번 작품인 「격고각도열읍문」이 누락 되어 있다. 이처럼 『운강선생문집』에만 누락된 격문류로 「격이등박문문(檄伊藤博文文)」·「사졸서계문(士卒誓戒文)」 2편이 더 있다. 그리고 「통고봉평사민문(通告蓬坪士民文)」·「시사내면집강급각동두존(示史內面執綱及各洞頭尊)」·「시영동각방곡두존(示永東各坊曲頭尊)」·「게시(揭示)」 4편은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운강선생문집』에 모두 누락 되어 있다. 한편 「고결팔역동지사우(告訣八域同志士友)」는 『운강선생유고』에 ‘서(書)」로 편재되어 있고, 『운강선생창의일록』에는 ‘격문(檄文)’으로 편재되어 있으니, 이 글이 편지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격문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격문류가 지어진 시기를 본다면, 「통고문」이 1907년 7월 6일에 지어졌다고 부기되어 있으니, 기록상으로는 가장 먼저 지어진 글이다. 그리고 「격고각도열읍문」이 7월 13일에, 「소격」이 1907년 7월에 지어졌다고 부기되어 있다. 따라서 「재격고문」·「격고문」·「토왜격문」도 동일한 시기에 지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흥미롭게도 이강년은 1907년의 중앙절인 9월 9일에 「격이등박문문」·「효고선유위원문」·「효유일진회문」·「사졸서계문」 4편을 지었다. 그 중 「격이등박문문」·「효고선유위원문」·「효유일진회문」은 각각 한국 침탈의 원흉인 이등박문 토격(討檄), 의병 와해 공작을 한 선유위원(宣諭委員) 효유, 일본의 앞잡이인 일진회(一進會) 효유를 목적으로 쓴 글이다. 따라서 글의 성격상 각국 영사관에 보내는 통고문인 「통고각국영사관문」도 대체로 이 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의병 전쟁이 본격화된 시기에는 민간에서 인력과 물자 징발로 인해 발생하는 의병의 범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인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글이 지어졌으니, 「통고봉평사민문」·「시사내면집강급각동두존」·「시영동각방곡두존」과 의병들을 경계 단속하는 「게시」가 1907년 연말인 12월 25일부터 이강년이 체포되기 직전인 1908년 8월까지 작성된 격문류이다. 그리고 「고결팔역동지사우(告訣八域同志士友)」는 이강년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처형당한 날인 1908년 9월 12일에 지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강년의 격문류 16편은 불과 1년 남짓한 시기에 지어졌으며, 소모(召募)·성토·통고·효유(曉諭)·양해·경계(警戒) 등 용도도 다양하다. 이강년은

1896년에 유인석 의진의 유격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달리 1907년의 거병기에는 스스로 군사를 모으고 운용하는 등 지휘관으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강년이 이 시기에 다양한 격문류를 지었다는 것은, 그가 의병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에서 보이는 4편 이상의 격문류를 지은 한말 의병장들의 격문류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다.

한말 의병장 격문류 주요 작가와 작품

작자	연번	제 목	활동 지역	작성 시기 (음력)	소재(所載)
유인석(柳麟錫, 1842~1915)	1	「檄告八道列邑」	영월	1895. 12.	『毅菴集』, 卷45, 檄. 『昭義新編』, 卷1. 『倡義見聞錄』.
	2	「檄告內外百官」		1895. 12.	『毅菴集』, 卷45, 檄. 『倡義見聞錄』. 『湖西義兵事蹟』.
	3	「告各國公事文」	충주	1896.	『湖西義兵事蹟』.
	4	「各國公事員所送文」	충주	1896.	『湖西義兵事蹟』.
	5	「檄文」	충주		『湖西義兵事蹟』.
	6	「回照張基濂書」		1896. 3. 15.	『倡義見聞錄』. 『湖西義兵事蹟』.
	7	「再告百官文」		1896. 5.	『湖西義兵事蹟』.
	8	「敬通于畿湖列邑」	기호	1896. 5.	『湖西義兵事蹟』.
	9	「再檄百官文」		1896. 7. 20.	『毅菴集』, 卷45, 檄. 『昭義新編』, 卷1.
	10	「布告境內文」		1894. 6.	『別隱集』, 〈山居漫錄〉. 〈處義錄〉.
	11	「倡義檄文」		1895. 8.	『別隱集』, 〈山居漫錄〉. 〈處義錄〉.
	12	「通告京城及八道各邑士林文」			『昭義新編』, 卷4.
	13	「通文」		1909. 2.	
원용팔(元容八, 1862~1907)	1	「丙申學義畿左後合陣堤川時通告同倡」	제천	1896.	『湖西義兵事蹟』.
	2	「乙巳八月學義時諭告同志」		1905. 8.	『湖西義兵事蹟』.
	3	「檄告文」		1905. 7. 20.	『湖西義兵事蹟』.
	4	「傳檄日本公使館」		1905.	『湖西義兵事蹟』.
	5	「書告泰西各國公使館」		1905.	『湖西義兵事蹟』.
	6	「上政府」		1905.	『湖西義兵事蹟』.
	7	「書告清國公使館」		1905.	『湖西義兵事蹟』.

작자	연번	제 목	활동 지역	작성 시기 (음력)	소재(所載)
원용팔(元容八, 1862~1907)	8	「與海西僉士友書」		1905.	『湖西義兵事蹟』
	9	「布告京城及各通列邑文」		1905.	『湖西義兵事蹟』
	10	「與關西僉士友書」		1905.	『湖西義兵事蹟』
	11	「曉諭一進會文」		1905.	『湖西義兵事蹟』
민용호(閔龍鎬, 1869~1922)	1	「儒通」	여주	1895. 6.	『關東倡義錄』, 卷上. 『復齋集』, 卷2. 〈關東倡義錄 上〉.
	2	「檄招軍」	원주	1895. 12. 2.	『關東倡義錄』, 卷上. 『復齋集』, 卷2. 〈關東倡義錄 上〉.
	3	「令管下列邑」		1895. 12. 2.	『關東倡義錄』, 卷上. 『復齋集』, 卷2. 〈關東倡義錄 上〉.
	4	「檄告八域」	방림 (芳林)	1895. 12. 10.	『關東倡義錄』, 卷上. 『復齋集』, 卷2. 〈關東倡義錄 上〉.
	5	「檄告江陵」	강릉	1895. 12. 14.	『關東倡義錄』, 卷上. 『復齋集』, 卷2. 〈關東倡義錄 上〉.
	6	「檄」		1895. 12. 23.	『關東倡義錄』, 卷上. 『復齋集』, 卷2. 〈關東倡義錄 上〉.
	7	「京兵曉諭文」		1896. 3. 29.	『關東倡義錄』, 卷上.
	8	「關東倡義所布諭文」	강릉	1896.	『巢隱倡義錄』.
	9	「關東倡義士曉諭文」		1896.	『巢隱倡義錄』.
	10	「檄告于嶠南列邑」		1896. 3.	『湖西義兵事蹟』.
기우만(奇宇萬, 1846~1916)	1	「馳通」	장성	1896. 1.	『松沙集』, 卷12, 雜著. 『錦城正義錄』, 丙編.
	2	「通告列邑」		1896. 12.	『松沙集』, 卷12, 雜著.
	3	「別告各邑公兄所」			『松沙集』, 卷12, 雜著.
	4	「揭示京營兵」			『松沙集』, 卷12, 雜著.
	5	「曉諭完營兵」			『松沙集』, 卷12, 雜著.
	6	「再告列邑文」			『松沙集』, 卷12, 雜著.
	7	「三告列邑文」			『松沙集』, 卷12, 雜著.
	8	「輪示光山諸壯士」	광산 (光山)		『松沙集』, 卷12, 雜著.
김도현(金道鉉, 1852~1914)	1	「與陶山院中」	예안		『碧山集』, 卷1, 書.
	2	「通嶠南各陣文」			『碧山集』, 卷1, 通文.
	3	「通本省士林文」		1904.	『碧山集』, 卷1, 通文.
	4	「通三南各省文」		1905.	『碧山集』, 卷1, 通文.

작자	연번	제 목	활동 지역	작성 시기 (음력)	소재(所載)
김도현(金道鉉, 1852~1914)	5	「申告嶺南同盟人文」		1905. 12.	『碧山集』, 卷1, 通文.
	6	「通告諸道文」			『碧山集』, 卷1, 通文.
	7	「布告西洋各國文」		1905.	『碧山集』, 卷1, 通文.
	8	「擬檄告三南各郡文」		1906.	『碧山集』, 卷1, 通文.
정용기(鄭鏞基, 1862~1907)	1	「通諭文」	영천 등	1905.	『山南義陣遺史』.
	2	「激勵士林文」		1905.	『山南義陣遺史』.
	3	「寄各地招討官」		1905.	『山南義陣遺史』.
	4	「寄各鎭隊長」		1905.	『山南義陣遺史』.
	5	「警告文」		1906.	『山南義陣遺史』.
	6	「請助文」		1906.	『山南義陣遺史』.
심남일(沈南一, 1871~1910)	1	「檄告文」		1908. 2.	『沈南一實記』.
	2	「諭土倭文」		1908. 2.	『沈南一實記』.
	3	「敬通各郡鄉校」		1908. 2.	『沈南一實記』.
	4	「警諭各處補助員」		1908.	『沈南一實記』.
	5	「告示」		1908.	『沈南一實記』.
	6	「告示軍中文」		1908. 2.	『沈南一實記』.
권인규(權仁圭, 1843~1899)	1	「答禮安倡義通文」	강릉	1895. 12.	『巢隱倡義錄』.
	2	「倡義布告文」		1896.	『巢隱倡義錄』.
	3	「倡義文(關西-關北)」		1896.	『巢隱倡義錄』.
	4	「與留陣將李秉塚」		1896. 2.	『巢隱倡義錄』.
	5	「誓告文」		1896.	『巢隱倡義錄』.
허위(許蒺, 1855~1908)	1	「義舉檄文」	김천	1896.	『旺山全書』, 卷1, 檄.
	2	「排日義舉通諭文」		1904. 5. 5.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3	「排日檄文」		1904.	『旺山全書』, 卷1, 檄 『朴殷植全書』, 卷上. 『韓國痛史』.
	4	「聲討一進會書」			『旺山全書』, 卷1, 檄.
	5	「又 聲討一進會書」		1908.	『旺山集』, 卷1, 檄.
전해산(全海山, 1878~1910)	1	「令」	남원	1908.	『全海山陣中日記』.
	2	「揭示」		1908.	『全海山陣中日記』.
	3	「揭示」		1908.	『全海山陣中日記』.
	4	「檄該郡反黨文」		1909. 1. 19.	『全海山陣中日記』.
	5	「示憲兵分隊長」		1908. 윤2. 2.	『全海山陣中日記』.
김도화(金道和, 1825~1912)	1	「檄告鄉道文」	안동	1896.	『拓庵集』, 卷1, 檄文.
	2	「檄告暗行曉諭使張錫龍鄭宜默金近淵文」		1896.	『拓庵集』, 卷1, 檄文.
	3	「答本府參書官洪弼周檄文」		1896.	『拓庵集』, 卷1, 檄文.
	4	「諭告道內士林文」		1896.	『拓庵集』, 卷1, 檄文.

작자	연번	제 목	활동 지역	작성 시기 (음력)	소재(所載)
최익현(崔益鉉, 1833~1907)	1	「布告八道士民」	순창	1905. 11. 21.	『勉菴集』 권16, 雜著.
	2	「寄日本政府書」		1906. 윤4. 7.	『勉菴集』 권16, 雜著.
	3	「倡義檄文」		1906.	『勉菴集』 권16, 雜著.
	4	「再檄文」		1906.	『勉菴集』 권16, 雜著.
변학기(邊鶴基)	1	「檄文」	병화·울진·삼척	1907. 10. 3.	『韓國獨立運動史』1.
	2	「傳令」		1907. 10. 13.	『韓國獨立運動史』1.
	3	「血泣以告」(1)		1907. 10.	『義兵傳』.
	4	「血泣以告」(2)		1907. 10.	『義兵傳』.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강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유인석은 총 13편의 격문류를 남겼으니, 이강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작품 수가 많다. 유인석의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²⁾은 이강년의 「격고각도열읍문(檄告各道列邑文)」과 제목이 상호 유사한 것에서 보듯이 동일한 용도의 격문이다. 이는 한말의 의병이 비록 국지성을 갖고 있지만 전국적 연대를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각국의 공사에게 보낸 「고각국공사문(告各國公事文)」과 「각국공무원소송문(各國公事員所送文)」은 이강년의 「통고각국영사관문(通告各國領事館文)」과 동일한 용도를 갖는다. 유인석의 제천 의진에 참여하였던 원용팔(元容八)이 「전격일본공사관(傳檄日本公使館)」·「서고태

2) 유인석의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의 실제 작자는 주용규[朱庸奎, 1845~1896]로 알려져 있는데, 1895년 12월 3일에는 지평의병장 이필희의 이름으로 포고(布告)되었고, 1895년 12월 20일에 유인석이 호좌창의대장으로 추대된 이후에는 유인석의 이름으로 포고되었다.(김상기, 『의병 전쟁과 의병장』, 경인문화사, 2019, 117~118쪽.) 또 민용호는 「照會日本公使拿交內外賊犯闕弒逆文」에서 「布告各國文」·「照會日本公使拿交內外賊犯闕弒逆文」·「儒通」의 조약 10여 건은 홍재구(洪在龜)가 지은 글이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포고되었다고 기술하였다.(閔用鎬, 『復齋集』, 卷2, 「照會日本公使拿交內外賊犯闕弒逆文」, 「丙申三月初, 遜志洪先生, 命門人宋鍾大金芝谷, 齋大殿還御之意, 布告各國文及此文暨儒通條約十餘件來, 皆各項文字及儒通條約, 皆先生所製, 而以余名布告.」) 박정민(2021)은 “작자와 포고인이 일치하지 않는 격문을 비롯하여 2인 이상이 공저자인 격문, 연명 통문의 형식이나 의소(義所)의 이름으로 포고되어 격문의 작자가 분명하지 않은 격문, 포고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된 격문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작자의 명시나 관련 기록이 없으면 작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격문은 의병진의 공동성명서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포고인의 최종적 동의를 거친 문건이므로 원작자보다는 포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편이 더욱 합리적이라 판단한다.”(『韓末 檄文의 문학적 기능에 대한 고찰(1)-전기의의병 격문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8호, 동방한문학회, 188~189쪽.)라고 하였다.

서각국공사관(書告泰西各國公使館)·「서고청국공사관(書告淸國公使館)」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유인석 의진(義陣) 출신의 의병장에게 국제적 정세와 역학 관계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진회를 효유하는 글을 각각 지었다는 점도 동일하다. 김천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허위(許蔦)도 「성토일진회서(聲討一進會書)」 2편을 지었는데, 원용팔과 이강년의 글이 효유문의 형식을 취한 반면 허위의 글은 성토문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이등박문이나 선유위원을 성토하고 효유하는 글은 상기 의병장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강년이 작성한 각국 영사관에 보내는 통고문, 이등박문을 성토하는 격문, 선유위원과 일진회를 타이르는 효유문 등은 한말 의병장의 격문류에서도 특기할 위상을 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선동(煽動)의 이념(理念)과 기술

‘격문(檄文)’은 적을 꾸짖고 회유하거나 군사와 물자를 모아 거병하거나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격문은 외전(外戰)이나 내란(內亂)을 포함한 다급한 상황에서 전술(戰術)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자마다 수준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차분하게 집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글을 지을 수 있는 문필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글 한 편으로 적의 사기를 저하시켜 심리적 타격을 주는 한편 아군의 사기를 높이며 군사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식에 효과 높은 표현의 구사가 어우러져야 한다. 그리고 격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념(理念)이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으나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 그러나 명분은 침략자에게만 타당하고 정당한 것이기에 그에 대항하는 격문에서 침략의 부당성을 논파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 논리는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거병의 정당성으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은 격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강년의 격문은 선명한 위정척사의 이념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의 이념은 격문으로서 전형성을 갖는 모병(募兵) 목적의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07년 4월에 재차 거병한 이강년 의진이 당면한 급선무는 무기의 조달과 군사 모집이었다. 급한 대로 무기는 1차 거병 때 모아 둔 것으로 무장하였으며, 이후 원주의 무기고

를 습격하여 상당량의 무기와 탄환을 탈취하였다.³⁾ 이강년 의진의 모병과 군수품 조달은 『창의일록』에서 산견되는데, 다음은 그 일례이다.

선봉장을 시켜 집강(執綱) 김동태(金東泰)를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다. 적성(赤城) 평촌(平村)에 이르러 포수의 인원수와 병기의 수량을 물어보았으나 김동태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 바로 김동태를 소모장(召募將)으로 차임(差任)하여 밤에 포수 다섯 사람을 모집해 진(陣)으로 나가게 하고, 권도정(權都正)을 불러들여 벌금 110량과 무명 7필을 납입케 하였으며, 김상지(金商摯)를 파수장(把守將)으로 삼았다. 절의 중을 불러들여 화포와 화약·자기황(自起黃) 등의 물건을 들이도록 독촉하였으며, 왜학교(倭學校)를 수색하여 행장과 의복 등의 물건을 사졸에게 나누어 주었다.⁴⁾

위의 기록을 보면, 이강년은 경유지나 주둔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마을의 유지로부터 군자금을 헌납케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학교 등에서 행장이나 의복 등을 탈취하여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니, 그들의 군수물자가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절에서 화승총과 화약, 자기황(自起黃)으로 불리던 성냥 등을 징발하였다는 사실이다. 화승총조차 절실하였던 의병의 열악한 무장(武裝)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병력 조달 역시 군수물자 조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경유지나 주둔지에서 즉석 모병이 이루어졌고 특히 포수의 모집에 주안점을 두었으니, 이강년 부대에서 포수는 주요 병력이었다.

다음에서 보이는 「각도의 열읍(列邑)에 고하는 격문」은 양력으로 1907년 8월 21일에 작성된 것이다. 『창의사실기(倡義事實記)』의 다음 기록에 의하면, 이즈음에 여러 의진이 제천읍으로 모여들었고 이강년 의진도 제천으로 가서 합류하였다.

3) 『雲岡集』, 360쪽. “冒雨夜. 入大平橋, 逢尹將, 詳問知狀, 卽入原州邑, 散軍機庫, 一邊召募, 不期日, 募數百人, 領得彈丸銃子, 埋于培陽山緊密處.”

4) 『雲岡集』, 138~140쪽. “令先鋒, 嚴治執綱金東泰. 至赤城平村, 問砲丁兵器多少, 金巨令不受, 故治之, 卽差東泰召募將. 夜募砲五人赴陣, 招權都政, 納罰錢一百十兩, 白木七匹, 以金商摯爲把守將. 招寺僧, 督納火砲十柄火藥自起黃等物, 且搜覓倭學校, 行裝衣服等物, 給士卒.”

진위대(鎭衛隊)가 새로 일어나니 산포수로서 모병에 응한 자들이 매우 많았으며, 조동교(趙東敎)·오경묵(吳敬默)·정대무(丁大武) 등의 여러 진이 잇따라 제천읍으로 들어왔다. 공도 가서 합류하여 안성해(安成海)를 중군(中軍)으로 삼고 이한응(李漢應)을 후군(後軍)으로 삼았으며 공은 대장 자리를 사양하고 군사(軍師)로써 일을 보았다. 도령장(都領長) 유병선(劉秉先)이 남의 간사한 꾀임을 듣고 군사들에게 소요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죄는 오히려 효수를 해야 하겠지만 새로 모집하였기 때문에 대략 문책만 하였다.⁵⁾

제천에서 여러 의진의 연합체가 이루어져 의병의 사기가 올랐는데, 『창의사실기』에 “민공호와 기일을 정하여 충주의 적을 치기로 하니, 이때 여러 장수들이 모두 나가 싸우기를 원하였다. 이에 격문을 관동 및 4군[제천·청풍·단양·영춘]으로 띄웠다.”⁶⁾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러한 배경에서 일련의 격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격문 작성의 배경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고종이 이강년에게 내린 거병 밀지이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발각되었고, 이등박문은 이완용을 사주하여 내각회의에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건이 배경이 되어 고종은 이강년에게 거병하라는 밀지를 내렸다고 한다. 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나의 죄가 크고 악이 가득 차 황천이 보우하지 않으사, 이런 연유로 강한 이웃나라가 틈을 엿보고 반역하는 신하가 권세를 농락하여 사천년 종묘사직과 삼천리 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 땅이 되었다. 생각하면 나의 한 올 실낱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생각건대, 종묘사직과 만백성은 이에 애통하다. 선전관 이강년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 칠로(七路)로 보내니 양가(良家)의 재덕(才德)을 겸비한 사람들로 각각 의병을 일으키게 하라. 소모장에 임명하니 인장과 병부를 직접 새겨 종사(從事)하라. 만약 명

5) 『雲岡集』, 365쪽. “鎭衛隊新起, 山砲應募甚衆, 趙東敎·吳敬默·丁大武等諸陣, 連入堤邑. 公往會之, 以安成海爲中軍, 李漢應爲後軍, 公則遜避將位, 以軍師視事. 都領長劉秉先聽人奸誘, 鬧成軍擾, 罪當梟示梟, 以新募故略加警責.”

6) 『雲岡集』, 136쪽. “與閔肯鎬約期攻忠州賊, 時諸將楊輝太甚可慮, 遂傳檄關東及四郡.”

을 좇지 않는 자가 있다면 관찰사와 수령들을 먼저 베고 파직해 내치고 처분(處分)하라. 경기 진영의 군사와 나는 사직을 위해 순사할 것이다. 조서(詔書)를 비밀리에 내리니 그리 알고 거행할 일이다.⁷⁾

1906년 겨울에 심상훈(沈相薰)⁸⁾이 이강년을 찾아와 초피(貂皮) 갓옷과 이불을 주며 위로 하였는데, 이강년은 그것들을 사양하며 “대감께서 비천한 저를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후한 물건을 주시니 비록 극도로 황감하오나 사졸들이 춥고 굶주려 거의 죽을 지경인데, 강년(康年) 혼자만 이 물건을 사용한다면 천지의 신이 어찌 저를 벌주지 않겠습니까? 감히 사양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들은 심상훈은 크게 감탄하여 다시 쌀과 무명을 실어 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고종에게 그에 대하여 아뢰었다. 고종은 그를 가상히 여겨 비밀 칙령을 내렸는데, 이 밀지는 심상훈을 통해 전달되었고, 밀지 낭독을 들은 사졸들은 결사 항전을 다짐하였다고 한다.⁹⁾ 고종의 밀지 하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강년의 의병 활동에서 가장 극적(劇的)이다. 고종의 밀지와 「격고각도열읍문(檄告各道列邑文)」의 선후 관계는 좀 더 면밀하게 고증해봐야 할 문제이나, 「격고각도열읍문」에 부기된 작성 일자를 신뢰한다면, 이 글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들 앞에서 공개하고 낭독하였다는 고종의 밀지가 「격고각도열읍문」을 비롯한 여타의 글에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는다.¹⁰⁾

다음에서 이강년의 격문 중 가장 대표적 작품인 「격고각도열읍문(檄告各道列邑文)」의 분

-
- 7) 『雲岡集』, 363~365쪽. “勅令. 嗚乎! 予罪大惡盈, 皇天不佑. 由是強隣視讐, 逆臣弄權, 四千年宗社, 三千里疆土, 一朝爲犬羊之域. 惟予一縷之命, 猶不足惜, 惟念宗社生靈, 竑以哀痛, 以宣傳李康季爲都體察使, 勸送七路, 以良家才子, 各立義兵, 拜爲召募官, 自刻印符從事矣. 若有不從命者, 觀察守令先斬罷黜而處分. 畿堡一縷, 殉於社稷. 璽書密下, 以此知悉舉行事. 光武十日年七月 日. 御璽.”
- 8) 심상훈(沈相薰): 개항기에 이조판서·선혜청당상·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한 관료.
- 9) 『雲岡集』, 360~361쪽. “七月沈判書相薰, 奉密勅傳諭, 公奉書感激, 涕下如雨, 召諸將卒, 列于前, 伏讀解說, 諭之以義, 士卒莫不增氣願效死. 去年冬, 公入培陽山休兵, 沈判書相薰, 親率家奴, 持貂裘衾枕而勞之曰: ‘敝物雖不腆, 願爲將軍冬月之具, 少酬爲國之勞.’ 公辭而不受曰: ‘台監不卑卑賤, 厚賜及此, 雖極皇感, 而願士卒凍餒幾死, 康季獨御此物, 皇天后土詎不罰? 余敢辭.’ 沈公嘖嘖嘉歎, 卽輸以米布. 入京師, 見上奏其事, 上嘉之, 亟下密勅.”
- 10) 오영섭은 「고종 측근 심상훈과 제천 지역 의병운동과의 연관 관계」(『한국근현대사연구』, 2005년 겨울호, 제35집,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고종 밀지 조작의 가능성을 일축하였으나, 구완회(具玩會)는 「한말 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운강집」(『雲岡集』, 奈堤文化硏究會, 2007.)에서 고종의 밀지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석을 통하여 이강년 격문의 특성을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각도의 열읍(列邑)에 고하는 격문. 1907년 8월 21일.

아, 애통하다! 오히려 차마 말로 하랴? 역적 놈들이 나라를 제멋대로 하여 은밀히 선위(禪位)케 하려는 계책을 결정하여 흉악한 칼날로 임금을 협박하고, 북원(北轅)의 수치에 이르도록 모의하여 억지로 조약을 맺고, 우리 국권을 강탈하며 반사문(頒赦文)으로 우리를 구속하였다. 승냥이와 이리가 끊임없이 먹어 삼키니, 백만의 백성들은 목숨이 물이 새는 배에 탄 듯 절박하며, 욕심은 계곡처럼 채우기 어려우니, 팔도의 산천은 형세가 가을 낙엽보다도 가볍다. 종묘가 진동해 놀라고 궁궐이 처량한데, 산림천택(山林川澤)을 제 재산인 양 여기고 부세와 백성을 자기의 물건처럼 보는구나. 머리를 깎고 복색을 바꾸니 사람과 짐승의 경계는 다시 여지가 없는데, 왕비를 시해하고 임금을 모욕하니, 갑오년과 을미년 원수들과 오히려 같은 하늘을 이고 살겠는가? 백성을 옮겨 바다를 건너게 하려는 흥계는 점한(粘罕)이나 철목(鐵木) 때도 없었던 일이다.¹¹⁾

격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을 꾸짖는 것인데, 「격고각도열읍문」에서는 먼저 국내의 ‘반역자’를 적으로 한정하고 그들을 논죄(論罪)하였다. 반역자의 죄상 중 첫 번째는 고종의 양위에 대한 것이다. 반역자들이 무력으로 임금을 겁박하여 ‘북원(北轅)의 수치’에 이르게 했다고 하였는데 ‘왕의 수레가 북쪽으로 끌려가는 치욕’이라는 의미의 ‘북원(北轅)의 수치’는 금나라 군대가 남하하여 송나라 수도 변경(汴京)을 함락시키고 송의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을 체포하여 북으로 돌아간 일을 말하는 것이기에, 양위(讓位)를 대칭(代稱)하는 전고로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강년은 고종의 양위가 갖는 부당성과 치욕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오랑캐에게 황제가 체포되어 끌려간 전고를 사용함으로써 격문의 모두(冒頭)에서 선동성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것처럼 간악무도한 일을 자행한 반역자들을 승

11) 嗚呼，慟矣！尙忍言哉？逆虜，專擅邦家，陰決內禪之計，凶鋒脅迫君父，謀致北轅之羞，勒約條而攘吾國，頒赦文而箝我人。豺狼荐食，百萬生靈，命迫漏船，谿壑難充，八域山川，勢輕秋葉，七廟震驚，三內淒冷。山林川澤，認作渠資材，賦人視若己物。毀形變服，人獸之關，無復餘地，弑妃辱主，甲乙之讐，尙戴一天？若夫移民渡海匈計，乃粘罕鐵木所無。

냥이와 이리에 비유하는 한편 국권을 강탈당한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물이 새는 배에 탄 형국’이라고 비유함으로써 사세(事勢)의 긴박함을 강조하는 한편 독자들의 형상 사유를 활성화하였다.

이어서 반역자들의 매국 행위를 ‘욕심은 계곡처럼 채우기 어렵다.’고 표현하였으니,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서술로 보이지만, 이는 용사(用事)를 원용한 것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대부 양설부(羊舌鮒)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는 호랑이 눈에 돼지 입을 가진 데다 매처럼 두 어깨가 솟았고 소의 배처럼 옆구리가 볼록하니, 산의 계곡은 채울 수 있어도 이 아이는 만족시킬 수 없으리라. 필시 뇌물 때문에 죽으리라.”라고 말하였는데, 뒤에 형후(邢侯)와 옹자(雍子)가 토지를 다툰 때 이 소송을 심리하면서 옹자에게 딸을 받고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형후에게 살해당하였다.¹²⁾ 그러므로 반역자들을 끝없는 탐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양설부에게 비유한 것이다.

이어서 반역자들의 악행을 열거하였다. 먼저 반역자들은 국가의 강역(疆域)과 부세 및 백성을 제 물건처럼 여긴다고 성토했다. 강역과 부세와 백성에 대한 권리는 국왕에 귀속되는 것이니, 반역자들이 임금을 제거하고 그 권리를 차지했다고 논죄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게 인식된 것은 단발령(斷髮令)과 양복의 도입이었다. 정부에서는 1895년에 단발령을 발령하여 민중들의 심한 반발과 저항에게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민중들은 단발과 조선의 멸망을 동의어로 인식한 측면이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단발에 대한 반발이 강하였기에 소위 갑오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단행되었던 단발령은 대중을 선동하는데 매우 좋은 소재였다. 또 한가지 당시 창의(倡義)의 정당성을 표방할 때 빠질 수 없었던 것이 을미사변으로 일컬어지는 민비시해사건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라를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위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 땅의 민중들이 강제로 해외이주되고 있으니, 이는 점한(粘罕)이나 철목(鐵木) 때도 없던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점한(粘罕)은 금나라의 장수 완안중한(完顔宗翰)의 본명이며, 철목(鐵木)은 원나라 태조의 어릴 적 이름인 테무진[鐵木眞]을 지칭하니, 고려를 압박하고 침략하였던 오랑캐들도 하지 않았던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12) 『國語』, 「晉語8」, 『春秋左氏傳』, 昭公 14年.

하늘이 이미 미워하니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 한번 죽기를 마음먹고 성토하니 누가 도성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가? 우레처럼 한밤에 대포 소리 울리니, 더욱 기특하게도 군인 중에 절개를 위해 죽는 이가 있었다. 그것은 진실로 제 몸을 돌이켜 반성해보면 거의 깨달을 수 있으리니 처지를 바꾼다면 모두 그렇게 하리라. 도리어 갈수록 더욱 포악해져 하늘을 쏘니 마침내 반드시 패망하여 처참히 죽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아! 노예처럼 비굴하게 아첨하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의 공경(公卿) 중에도 있었지만 간악한 심사는 어찌 모두 여진(女眞)의 참군(參軍)인가? 날개가 이루어지고 발톱과 이가 날카로워지며 맥락이 두루 퍼지고 줄기가 깊어져, 임금을 적에게 넘겨주어 기꺼이 사나운 호랑이의 창귀(佞鬼)가 되고, 왜와 결탁하여 영화를 도모하고 교활한 토끼의 굴을 넓게 열었다.¹³⁾

이강년은 ‘하늘이 이미 미워하니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라고 공포(公布)하면서 반역자 처단의 정당성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항쟁 소식을 전하며 투쟁을 독려했다. 지방의 민중들은 서울의 상황과 정부의 처사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서울은 치욕적인 매국의 조약이 맺어지고 임금이 능욕되고 국모가 시해된 현장이며 매국 도당들이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강년은 서울에서 일어났던 무장 항쟁을 언급 하였으니, 그것은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이에 불복한 병사들이 무장 봉기한 사건을 이른다. 이강년이 언급한 ‘기특하게도 절개를 위해 죽은 군인’은 박승환(朴昇煥)을 지칭한다. 그의 자결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자결에 격동된 군사들이 일본군과 장렬히 전투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해산된 군인들의 일부가 의병에 투신하여 투쟁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점이다. 『창의일록』에서 “7월 23일 나라의 변고를 듣고 통곡한 뒤 목숨을 걸고 적을 치기로 맹서하고 병든 몸을 끌고 제천으로 가서 윤기영·이만원 및 원주 진위대(鎭衛隊)와 동시에 함께 일어났다.”¹⁴⁾라고 한 기록이 그와 같

13) 天既厭矣，人得誅之，決一死而舌戰，孰謂輦轂下無人？雷半夜而砲聲，尤奇，編伍中死節，渠苟反躬而自省庶悟，易地則皆然。顧乃去益暴而射天，可知終必敗而塗地。噫！奴顏婢膝，尚有漢朝公卿，奸肚逆腸，胡皆女眞參軍？羽翼成而爪牙利，脈絡遍而蔓延深，以主予敵，甘作猛虎之倡，結倭圖榮，廣開狡免之窟。

14) 六月十四日，聞國變痛哭，誓死討賊，扶病向堤川，與尹基榮李萬源等及原州鎭衛隊，同時俱起。

은 사실을 증명한다.

이강년은 박승환과 같은 처지라면 누구나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순절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반대로 반역자들은 반드시 패망하여 처참히 죽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이치상으로야 그렇지만 그들이 자연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강년은 노예처럼 비굴하게 아침하는 사람은 한나라의 공경(公卿) 중에서도 있었지만 반역자들의 간악한 심사는 모두 ‘여진(女眞)의 참군(參軍)’이라고 개탄하였다. ‘여진의 참군’이란 간신의 대명사인 진회(秦檜)가 죽었을 때, 그가 금을 도왔기에 사관(史官)이 ‘여진 참군사진회졸(女眞參軍事秦檜卒).’이라고 기록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니, 일본을 돕는 매국노를 비유한다. 그들을 짐승에 비유한다면 이미 날개가 달리고 발톱과 이가 날카롭게 된 격이고, 식물에 비유한다면 줄기가 널리 뻗어나간 것 같다고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임금을 왜적에서 넘겨주었고 창귀(偃鬼) 노릇을 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포를 해치게 만든다고 비난하였다. ‘창귀(偃鬼)’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혼백이 호랑이의 앞잡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게 인도한다는 악귀(惡鬼)이니, 반역자를 창귀에 비유함으로써 민중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아! 우리나라는 소중화의 문명과 열성조의 배양으로 지극한 정치가 향기롭기에 한·당·송·명나라의 규범을 계승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참된 유학자들이 함께 수사낙민(洙泗洛閩)의 연원을 충분히 징험할 수 있다. 중국이 몰락하고 또 커다란 열매 하나가 나뭇가지에 겨우 맺혔는데, 슬프게도 우리 백성들은 죄 없이 암흑천지의 이런 참혹한 지경을 당하였다. 천운(天運)은 순환하니 누군들 죄가 있는데 도망갈 수 있랴? 사람의 마음이 분노하니, 극도로 곱혀지면 반드시 퍼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¹⁵⁾

이강년은 우리나라가 소중화(小中華)의 문명을 지니고 있으며 역대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경험을 축적하여 중국 정통 왕조의 규범을 계승하였으며 이 땅의 유학자들이 수사낙

15) 猗! 我本朝小中華之文明, 列聖朝之培養, 至治馨香, 非徒漢唐宋明之軌轍. 眞儒比竝足徵洙泗洛閩之淵源. 自神州之淪歿. 又碩果之結梢, 哀我蒼生之無辜, 遽遭黑宰之斯慘. 天運循環, 孰有罪而幸道? 人情忿憤, 知極屈而必伸.

민(洙泗洛閩)¹⁶⁾으로 불리는 유학과 성리학의 연원을 충분히 계승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와 학문적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그는 중국은 명나라 때 이미 망하였으니 이제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문명의 결정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를 ‘석과(碩果)’에 비유하였다. 『주역』, 「박괘(剝卦)」 ‘상구(上九)’에서는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碩果不食.]”라고 하였다. 다섯 개의 효(爻)가 모두 음(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효 하나만 양(陽)인 것을 석과(碩果)로 비유하였으니, 하나 남은 양(陽)의 기운이 외로워 보이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위정척사파 이념의 요체라고 하겠다.

소매를 걷어 붙이고 봉기하니, 하나라의 1여[旅, 500인]로 우임금의 구업(舊業)을 기약할 수 있고, 치마를 찢어 발을 싸매고 가서 초나라의 세 집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장차 보리라. 초야에서 엄파(廉頗)와 이목(李牧)을 일으키니, 금정(金精)이 엄숙하고 북풍이 차갑다. 유럽에서 한세충(韓世忠)과 악비(岳飛)를 만나니, 칼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남두성은 자색으로 빛난다. 월지(月支)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드니, 불원간에 원수를 깨끗이 쓸어내 버릴 터이고, 동탁(董卓)의 배꼽에 불을 붙이니, 나라를 광복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장안의 부로들은 한관(漢官)의 위의(威儀)를 기쁜 마음으로 보고, 순창(順昌)의 깃발은 송나라 왕실의 기업(基業)을 부흥케 한다.

무릇 우리 충성과 의리로 모집에 응한 사람 중에 누가 강개하게 나라에 보답할 마음이 없으랴? 고래와 새우를 모아 함께 받아들여 계책을 모두 실행하였고 곰발바닥과 물고기를 취사선택하여 미련을 모조리 잊었다. 관중(管仲)이 아니었다면 오랑캐의 옷을 입었을 터이고, 요치(淖齒)를 주살하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있었던가?¹⁷⁾

16) 수사낙민(洙泗洛閩) : 수사(洙泗)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학하던 곳에 있는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로, 공자와 맹자를 지칭하며, 낙민(洛閩)은 송나라의 학자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가 살던 낙양(洛陽)과 주희(朱熹)가 살던 민중(閩中)을 이른다.

17) 投袂揭竿，可期夏一旅之復禹，裂裳裹足，將見楚三戶之亡秦。起頗牧於草野，金精肅而北風寒。遇韓岳於儒林，劍氣衝而南斗紫。飲頭月氏，掃清不遠，燃臍董卓，匡復何難？長安父老，喜見漢官之威儀，順昌旌旗，中興宋室之基業。凡我忠義應募之士，孰無慷慨報國之心？合鯨鯢而并容，計策畢舉，擇熊鯨而取舍，係戀都忘。微管仲難免左衽矣。誅淖齒何限右袒乎？

몹시 현학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위의 단락은 위정척사와 격문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하나라의 1여(旅)로 우임금의 구업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라가 예착(羿澁)의 난으로 국맥(國脈)이 40년 동안이나 끊어졌다가 소강 때에 이르러 비로소 옛 문물을 회복하고 중흥을 맞게 되었다는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¹⁸⁾ 또 ‘치마를 찢어 발을 싸매고 가다.’는 『여씨춘추』의 고사를 원용한 말로, 먼 길을 다급하게 가느라 발의 피로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치마를 찢어 발을 싸맨다는 뜻이며,¹⁹⁾ 이어지는 ‘초나라의 세 집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장차 보리라.’라는 말은 전국시대 말기에 초 회왕(懷王)이 진(秦)나라에 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자 초나라 사람들이 진나라를 원망하였는데, 초 남공(南公)이 ‘초나라에 비록 세 집만 남아 있어도 진나라를 멸망케 할 것은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 이리라.’²⁰⁾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역사에서 극도의 열세(劣勢)로 원수를 갚고 구토(舊土)를 회복한 일화를 예시한 것이다.

‘유림에서 한세충(韓世忠)과 악비(岳飛)를 만나다.’라는 말에서, 한세충은 남송 때의 명장으로 금나라와의 전쟁과 반란군을 토벌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으며, 진희(秦檜)가 충신 악비를 무함할 때 악비를 변호한 인물이니,²¹⁾ 유림(儒林)에서 한세충이나 악비처럼 출중한 사인(士人)이 창의에 호응하여 의진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한 말이다. ‘초야에서 염과(廉頗)와 이목(李牧)을 일으키니 금정(金精)이 엄숙하고 북풍이 차갑다.’는 말도 앞의 말과 맥락이 동일하다. 염과와 이목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명장이니 초야에서 그와 같이 걸출한 인물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금정(金精)은 병란(兵亂)을 주관한다는 태백성

18) 하나라의 우 임금이 죽은 후 30여 년 만에 예착(羿澁)의 난이 일어났다. 예착의 난이란 후예(后羿)와 한착(寒澁)의 난을 이르니, 하나라 때 유궁(有窮)을 다스리던 활의 명수 예(羿)가 하나라의 3대 임금 태강(太康)을 몰아낸 후 중강(仲康)을 세우고 정권을 독단하였다. 그 후 예의 신하 한착이 다시 예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고 한착의 아들 오(稟)가 제5대 임금인 상(相)을 시해하였다. 이에 상의 아들 소강(少康)이 5백 명의 군사로 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라의 제6대 왕이다. 그때 소강은 겨우 1성(成)의 토지와 1여(旅)의 군사밖에 없었기에 중원을 회복하는 일이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았는데, 한 사람의 구신(舊臣) 미(靡)가 있어 망한 나라의 나머지를 수습하여 우 임금의 구업을 계승할 수 있었다.

19) 『呂氏春秋』, 「愛類」에서 “초나라의 공수반(公輸般)이 높은 구름사다리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 했는데, 묵자(墨子)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노나라에서 출발하여 치마를 찢어 발을 싸매며 밤낮을 쉬지 않고 가서 열흘 만에 영(郢)에 도착하였다.[公輸般爲高雲梯, 欲以攻宋. 墨子聞之, 自魯往, 裂裳裹足, 日夜不休, 十日十夜而至於郢.]”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0) 『史記』, 「項羽本紀」. “楚雖三戶, 亡秦必楚也.”

21) 『宋史』, 「韓世忠列傳」.

(太白星)의 별칭이니, 신명도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원수의 처절한 응징 의지를 몇 개의 용사로 표출하였다.

‘월지(月氏)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든다.’라는 말은 한나라 때 흉노가 월지왕을 격파하고 그의 머리로 술잔을 만들었다.²²⁾는 이야기로, 원수를 처절하게 응징한다는 비유이다. 이어지는 ‘동탁의 배꼽에 불을 붙이다.’라는 것도 동일한 비유이다. 이는 역사에서 ‘동탁(董卓)의 시체를 시내 거리에 내놓았는데, 그때 날씨가 한창 무더웠다. 동탁은 본래 비대하여 몸의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시체를 지키는 병사가 동탁의 배꼽에 불을 붙이니, 며칠간 꺼지지 않고 탔다.’²³⁾라고 한 역사 일화를 원용하여 원흉을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원수를 응징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 허다하지만 이강년은 위의 2가지 이야기가 가장 강렬하다고 여겼다.

그와 같이 반역자를 응징한다면 결국 광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순창(順昌)의 깃발은 송나라 왕실의 기업(基業)을 부흥케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순창(順昌)에 침입한 금병(金兵)을 격파한 유기(劉錡)의 고사를 원용하여 조선 왕조의 부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곰 발바닥과 물고기를 취사선택하여 미련을 모조리 잊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맹자』에서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義)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²⁴⁾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그리고 ‘관중이 아니었다면 오랑캐의 옷을 입었을 터이다.’는 『논어』에서 ‘관중(管仲)이 없었으면 내가 오랑캐처럼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었으리다.’²⁵⁾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맹자의 사생취의론(捨生取義論)이나 공자의 화이론(華夷論)이 위정척사파의 이념과 실천에 중요한 논리로 작용하였음을 여기에서 재확인

22) 『史記』, 「大宛列傳」.

23) 『後漢書』, 「董卓列傳」.

24) 孟子曰: “魚, 我所欲也, 熊掌, 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25)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할 수 있다.

위의 글은 ‘요치(淖齒)를 주살하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있었던가?’라는 말로 일단락하고 있는데, 요치는 제나라의 반역자로 충신 왕손가(王孫賈)에게 처단당하였으니,²⁶⁾ 이 격문에서는 반역자의 철저한 응징 없이는 광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 실례를 들어 각인시킨 것이다.

산천초목(山川草木)도 응당 적개심을 품으리니, 천지귀신(天地鬼神)이 어찌 순리를 도울 이치가 없겠는가? 어찌 다만 한때의 무공이랴? 실로 만고 중화의 명맥을 부지한 것이니, 의당 각각 노력하여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지 말지어다.

모든 상과 벌은 산하와 같음이 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포고한 뒤에 혹여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거나 태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적당과 매한가지이니, 단연코 병사를 출동시켜 먼저 토벌할 것이다. 이미 사전의 기미에 어두웠지만, 아무리 후회한들 미칠 수 있겠는가? 말은 여기에 그치니, 의당 잘 살펴보리라 생각한다.²⁷⁾

격문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한다. ‘산천초목도 응당 적개심을 품으리니, 천지귀신이 어찌 순리를 도울 이치가 없겠는가?’는 두보의 ‘만방의 백성들 관군을 응원하니, 한 번 북소리에 사기 올라 당해낼 이 없네.’²⁸⁾라는 말을 원용한 것으로, 의진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의진의 승리는 필연의 이치라는 것을 밝혔다.

26) 제나라 혼왕(湣王) 때에 연나라의 명장 악의(樂毅)가 제나라를 공격하여 거(莒)와 즉묵(卽墨)만을 남기고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하였고, 제 민왕도 부하 요치(淖齒)에게 살해되었다. 이때 제 민왕을 모시던 왕손가(王孫賈)가 임금의 행방을 놓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 모친이 “네가 아침에 나갔다 늦게 돌아오면 나는 문에 기대 기다리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 네가 지금 임금을 섬기면서 임금이 계신 곳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나?”라고 깨우쳐주자, 왕손가는 대중을 이끌고 요치를 공격해 죽인 뒤, 왕자 법장(法章)을 찾아 임금으로 세우고 거(莒)를 근거지로 삼아 연나라에 대항하였다. 이때 제나라 왕족 전단(田單)은 즉묵에서 결사항전하면서 반간계(反間計)를 써 악의를 파면시키고, 1천여 마리의 소를 앞세워 연나라 진영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어 제나라의 70여 성을 수복하였다. (『史記』, 「田單列傳」.)

27) 『雲岡先生遺稿』, 「檄告各道列邑文 丁未 七月 十三日」, 30쪽. “山川草木, 應含敵愾之情, 天地鬼神, 豈無助順之理? 奚但一時之武功? 實扶萬古之華脈, 宜各努力, 毋至噬臍. 凡諸賞罰, 有如山河. 如是盡情布告之後, 有或違令違慢之人, 是乃賊黨之所歸, 斷當移兵而先討. 既昧先機, 雖悔何及? 言止於此, 想宜照亮.”

28) 「岳州賈司馬六丈巴州嚴八使君兩閣老」, “萬方思助順, 一鼓氣無前.”

마지막으로 의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상벌을 분명하게 시행하고 군령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이 이 격문의 근원적 목적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격고각도열읍문(檄告各道列邑文)」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우 걱정적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부각하기보다는 대중들의 보편적 분노를 객관적으로 전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둘째, 적을 매국 반역자로 적시하는 한편 그 죄악성을 나열하되,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기술은 선동성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셋째, 쉬운 내용과 난해한 내용을 적절히 섞어서 글을 구성하였다. 이는 광범위한 독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인층을 의식하여 현학적인 내용을 상당수 포함시켰다.

넷째, 복수와 응징의 의지, 광복의 필연성을 반복하고 강조하였다.

이강년 격문이 갖는 이러한 특징은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 ‘말이 엄하고 의리가 바르니,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 격분케 만들었다.’²⁹⁾는 평가로 요약할 수 있겠다.

4. 이등박문을 저격한 격문

양수(陽數)가 겹치는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하는데, 이강년의 고향인 영남 지역에서는 이날에 시제(時祭)를 지내는 등 속절(俗節)로 중시되었다. 이언적(李彦迪)은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 정조·한식·단오·중추와 함께 중양을 속절로 여겨 아침 일찍 사당에 들러 천식(薦食)하고 묘 앞에서 전배(奠拜)한다고 하였다.³⁰⁾

이강년은 1907년 중양절에 무려 4편의 격문류를 지었으니, 그래도 이날은 여러 편의 글을 지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흥미로운 글은 이등박문에게 보내는 격문이다.

이등박문은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

29) 『雲崗先生倡義日錄』 “著國讎源流一篇, 軍戒十二句, 通告文一頁, 辭嚴義正, 見者感奮.”

30)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4909>)

위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식민지화를 주도하였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하여 죽었다. 안중근의 이등박문 저격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쾌거이다. 그런데 이등박문은 안중근에게 권총으로 저격을 당하기 이전에 이강년에게 먼저 글로 저격을 당하였으니, 그 글이란 바로 「격이등박문문(檄伊藤博文文)」이다.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보내는 격문 정미(丁未) 중양(重陽)

너희들이 비록 오랑캐이지만 또 추장과 졸개가 있는 자이고, 또 백성과 나라가 있는 자이고 또 만국과 조약을 맺은 자이다. 온 천하에서 진실로 나라가 없다면 그만이거니와 나라가 있다면 임금과 신하가 있고, 임금과 신하가 있다면 의리를 주로 하여 의가 있는 곳에 목숨을 바쳐 힘을 쓰는 법인데 너는 그것을 모르는가?³¹⁾

이강년은 이등박문에게 보내는 격문의 첫머리에서 ‘너희들은 오랑캐’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왕은 ‘추장’에 불과하다. 이강년은 일본과 일왕을 ‘오랑캐’, ‘추장’으로 폄하하였으나, 그들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외국과 조약을 맺어 국제사회에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가에는 임금과 신하가 있고 군신 간에는 의(義)가 있으며 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상식을 모르냐?’라고 이등박문을 질책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할 뿐이다.

내 나라와 네 나라는 국토가 가장 가까워 교린의 우의가 없을 수 없는데, 만약 교린을 하고자 한다면 통상과 교역으로 충분하리라. 무기를 들고 병사를 거느리고 무리를 모아들여 남의 국모를 시해하고 남의 임금을 능욕하고 남의 정부를 핍박하고 남의 재정권(財政權)을 탈취하고 남의 전통을 변질시키고 남의 옛 전장(典章)을 어지럽히고 남의 강토를 병탄하고 남의 백성을 죽이고 오히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촌락에 불을 지르고 살육을 일삼으니, 마관(馬關) 16개 조약 속에 이런 구례(舊例)

31) 爾等雖夷也，亦有酋卒者也，亦有民國者也，亦有萬國受條約者也。一天之下苟無國則已，有國則有君臣，有君臣則以義爲主，義之所在，致死爲力，爾其不知耶？

* 『雲崗先生遺稿』, 「檄伊藤博文文」(『雲岡集』, 48쪽.)을 저본으로 삼되, 『雲崗先生倡義日錄』, 「檄伊藤博文文」(『雲岡集』, 450쪽.)으로 자구를 보충하였다.

가 들어 있던가? 너희 나라 임금이 시켜서 그리하는 것이냐?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기를 청원하여 초래된 일이나?³²⁾

위에서는 일본의 한국 침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니, 황후 시해·국왕 모독·재정권 박탈·전통 변질·법률 제도의 교란·국토 병탄·민간인 살해·촌락 방화 등이다. 그러한 침탈과 만행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본격화된 것이니, 1895년 10월 8일에 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고, 12월 30일에 친일 김홍집 내각에 의해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경복궁 공격은 일본이 청나라에 선전포고하기 전인 1894년 7월 23일에 자행되었으니, 청일전쟁 전후로 조선 왕실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강년은 일본의 그러한 만행이 마관(馬關) 16조약 속에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마관 16조약이란 시모노세키 조약[下關係約]을 이른다.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려고 대립하였고,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전선(戰線)이 만주까지 확대되었다. 청나라는 패전을 거듭하다, 미국의 중재로 1895년 2월 1일부터 휴전·강화를 위한 협상을 하였고, 3월 30일에 6조항의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4월 17일에는 전권 대표로 청나라의 이홍장(李鴻章)과 일본의 이등박문이 참석하여 전문(全文) 11개 조항의 강화조약, 각 3조항의 의정서(議政書) 및 별약(別約), 2조항의 추가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첫 조항이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천명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조선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사전작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강년은 이등박문이 직접 체결한 조약을 거론하며 그 이행을 추궁한 것이다.

이강년은 일본이 저지르는 만행의 근원을 따져 물었다.

만약 ‘조약(條約)이다.’라고 말한다면 어찌하여 각국의 공관에서는 이러한 악습을 일삼지 않는데 너만 유독 미쳐 날뛰는가? ‘우리나라가 허락하였다.’라고 말한다면

32) 我國與爾國，疆域最近，不無交隣之誼，而如欲交隣，則通商交貨足矣。提戈率兵，援群聚黨，弑人君母，辱人君父，逼人政府，奪人財權，變人遺俗，亂人舊章，并人疆土，劉人生靈，猶此不滿，衝火邑村，屠戮爲事，是於馬關條約十六件事，有此舊例耶？爾國君長，有所使而然耶？自我國請願爲屬國而致耶？

어찌하여 두세 명의 대신이 칼로 자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 나라 군장(君長)이 한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어찌 군대 십만을 동원하여 결사 항쟁하지 않겠는가?

너희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임금을 기만하여 처형당할 죄에 해당하며, 만국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약을 위반해 성토당할 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불공대천의 원수에 해당하리라.³³⁾

1905년 11월 9일에 일본은 이등박문을 특과대사로 파견하여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노들을 매수해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국권을 강탈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국권 침탈의 합법적 근거로 제2차 한일협약을 제시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논박하였다. 그리고 자결로 조약 체결에 항거한 대신들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논거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약 체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자결로 조약 체결에 항거한 대신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조참판 홍만식(洪萬植)의 음독 자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의 할복 자결, 전 좌의정 조병세(趙秉世) 전 예조참판 이명재(李命宰)의 자결 등을 이른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란 이준(李儔)을 이른다. 이준은 고종의 밀령(密令)으로 1907년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이위종 등과 참석하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신들이 자결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으니,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탈을 허락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 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한다면, 군대를 동원하여 결사 항쟁하는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이강년은 일본 왕이 그러한 만행을 자행하도록 명령했을 리 없으니, 이등박문의 죄는 왕을 기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의 죄는 자국에서도 용납되지 못할 반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청일 간에 이루어진 시모노세키조약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세계에서 조약 위반으로 성토당하는 죄에 해당할 것이고, 우리나라에게는 불구대

33) 若謂條約乎，則何各國公館，無有事此惡習，而爾獨猖獗耶？謂我國印許乎，則何二三大臣，有伏劍授命，有異域致死者耶？謂爾國君長所爲乎，則何不動兵十萬，決一死戰耶？在爾國，則必在欺君之誅矣，在萬國，則必在背約之討矣，在我國，則必在不共戴一天之讐矣。

천의 원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등박문의 죄악상을 여러 각도에서 극대화하였다.

너는 반드시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이완용·송병준 등 오적(五賊)·칠적(七賊)이 있어서 한 일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또 그렇지 않다. 외국의 도망친 신하의 주인이 되는 자는 원래 죄책(罪責)이 있거늘, 하물며 남의 신하를 꺾어 남의 조정을 어지럽히고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함에랴? 한나라 왕실의 왕망(王莽)·조조(曹操)나 송나라의 진희(秦檜)·왕륜(王倫)을 역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지만, 금나라 오랑캐가 송나라를 우롱하니, 죄가 오랑캐보다 더욱 심하다.³⁴⁾

이강년은 일본이 '단독으로 한국을 침탈한 것이 아니라 오적(五賊)·칠적(七賊)과 같이 한 일'이라는 변명도 타당하지 않다고 책망하였다. 제2차 한일협약은 이등박문이 일본 헌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강압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이루어졌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참정대신 한규설과 탁지부대신 민영기가 격렬히 반대하고, 법무대신 이하영이 소극적 반대 의견을 내었으나, 학부대신 이완용·군부대신 이근택·내부대신 이지용·외부대신 박제순·농상공부대신 권중현 5인의 찬성으로 체결되었으니, 그들을 '일사오적'이라고 칭한다.

일본이 통감 이등박문으로 하여금 헤이그 특사파견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물어 퇴위하도록 만들고,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에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침탈하는 내용의 원안을 제시하니, 이것이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르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다. 이때 농상공부대신 송병준·군부대신 이병무·탁지부대신 고영희·법무대신 조중응·학부대신 이재곤·내부대신 임선준 등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조선 통감부 통감 이등박문의 명의로 체결된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하고 순종의 재가를 얻도록 협조하였으니, 이들을 '정미칠적'이라고 칭한다. 당시에 을사오적암살단 등이 그들 매국노를 처단하려는 시도도 속출하였다. 그들 매국노의 죄상도 크지만, 이강년은 이등박문이 남의 나라의 신하를 꺾어 남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망하게 만든 죄가 크다고 질책하

34) 爾必曰：“非獨我也。有完用秉叟等五七賊所爲。”此又不然。爲外國逋臣之主者，原有罪責，況誘人之臣，亂人之朝，亡人之國耶？漢室之莽操，宋朝之檜倫，不謂不逆，金虜之愚宋，罪尤甚於夷狄之列矣。

였다. 을사오적이나 정미칠적은 한(漢)나라의 황위(皇位)를 찬탈한 왕망(王莽)이나 왕을 참칭(僭稱)한 조조, 금나라와 굴욕적 화의를 맺은 송나라의 간신 진회(秦檜), 금나라와 화의 조약을 체결한 왕륜(王倫) 등과 같이 역적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보다 금나라 오랑캐가 송나라를 우롱한 죄가 더 크듯이, 아무리 을사오적이나 정미칠적과 같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분산하려 해도 이등박문이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책망하였다.

우리들은 군신의 대의와 충성과 반역의 경계에 대하여 적개심이 일어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외마디 소리로 불러일으키자 전국에서 모두 호응하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백번 싸워 백번 승리할 계책이 있으며, 재앙이 되건 복이 되건 간에 오로지 지키다가 한번 죽을 맹약이 있다.

바다를 에워싸고 산을 연하여 총과 칼이 유달리 날카롭나니 너와 내가 서로 싸운다면 비린 피가 내를 이루리라. 만약 시일을 지나간다면 한 명의 병사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터이니 너는 잘 생각해서 후회가 없도록 하라.³⁵⁾

이강년은 마지막으로 군신의 대의(大義)를 지키고 반역자에 대한 적개심을 억누를 수 없어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에 전국의 호응이 있으며 백전백승할 계책이 있을 뿐 아니라 결사 항전을 맹세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로 싸우게 되면 피가 내를 이루고 단 한 명의 병사도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될 터이니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는 말로 끝맺음을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등박문에게 보내는 격문은 크게 죄목의 나열, 죄상의 극대화, 경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은 이등박문 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자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으니, 전쟁 수행 중 의병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5) 俺等, 於君臣大義, 忠逆大防, 敵愾所使, 按住不得, 一聲唱起, 八路并應, 以公以私, 有百戰百勝之策, 於禍於福, 有一守一死之符. 環海連山, 銃劍別利, 爾我相戰, 腥血成川. 若過時日, 片甲不回, 爾其自諒, 勿至有悔.

5.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통고문(通告文)

1876년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강화도조약 이후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1882년)·영국(1883년)·독일(1883년)·이탈리아(1884년)·러시아(1884)·프랑스(1886년)·오스트리아(1892년)·청국(1899년)·벨기에(1901년)·덴마크(1902년) 등 11개국이며, 이 가운데 자국의 공사관 또는 영사관을 개설한 나라는 모두 9개국이고,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두 나라는 별도로 공관을 개설하지 않았다. 일본 공사관은 1906년 2월 1일 통감부를 설치하기 전날 폐쇄하였고, 청국은 공사관이 없었고 당시 청국 군대 주둔 사령부가 있었다. 이를 제외한 7개 서양 공사관은 서울 정동(貞洞)에 밀집해 있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낮았기 때문에 특파대사(特派大使)나 특명대사(特命大使)를 파견한 대사관이 아니라 공사나 더 직급이 낮은 영사를 파견한 공사관 혹은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었기에 공식적인 외교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영국·청국·미국·독일 등 주한 외국공관들도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하는 등의 외교활동을 시도하였다. 이에 이강년과 같은 의병장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통고각국영사관문(通告各國領事館文)」을 짓게 되었다.

각국의 영사관에 통고하는 글

가만히 생각건대, 천지가 나눈 뒤로 온 천하만국의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운 자가 안녕을 지키고 유지해 가는 방법과 교린의 우의는 약(約)·신(信)·법(法)·의(義) 4개의 큰 글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서로 지키는 것을 ‘약(約)’이라고 하고, 속이지 않는 것을 ‘신(信)’이라 하고, 행할 만한 것을 ‘법(法)’이라 하고, 바름을 유지하는 것을 ‘의(義)’라 하니, 이것은 고금천하의 바꿀 수 없는 정론(定論)입니다.³⁶⁾

36) 竊惟肇判後，一天下萬國君君臣臣者，保安維持之道，與夫交隣之誼，在約信法義四大字而已。相守之謂約，不欺之謂信，可行之謂法，維其正之謂義，此古今天下不可易之定論也。

이강년은 각국의 영사관에 보내는 글의 첫머리에서 온 천하의 임금과 신하가 각각의 직분에 충실히 하는 나라가 안녕을 유지하고 교린의 우의를 다지는 원리로서 약(約)·신(信)·법(法)·의(義) 4가지를 제시한 뒤에 그것들에 대하여 각각의 정의를 내렸다. ‘약(約)·신(信)·법(法)·의(義)’는 원래 유인석이 을사늑약 직후 전국의 진신사대부들에게 통고하는 글에서 사용한 개념인데,³⁷⁾ 이강년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우리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기에 땅이 좁고 인물이 보잘것없어 비록 기술과 재주는 여러 나라들과 각축을 할 수 없지만, 의관문물(衣冠文物)과 예악장기(禮樂綱紀)는 선왕의 도를 따르고 선왕의 법을 지켰기에 천하에서 ‘소중화’라고 칭해진 지 지금까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만국이 조약을 수립한 초기에 배와 수레가 서로 왕래하고 물건과 재화(財貨)가 서로 접하여 각국과 두터운 교린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이 또한 10여 년이 되었는데, 유독 일본만은 밖으로 교린을 핑계 대고 안으로는 간악한 적을 불러들여 백방으로 흉악한 모의로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의복을 훼손시키고 남의 머리를 깎게 하고, 남의 옛 전장(典章)을 어지럽히고, 남의 전해져 오는 풍속을 변하게 하니, 어찌 만국의 약신(約信)의 법의(法義)이겠으며, 교린(交隣)의 우의가 실로 이와 같겠습니까?

외국으로 달아난 신하는 꺾어 사로잡고, 안으로 반역한 도둑과 결탁하여 남의 임금을 능욕하고, 남의 국모를 시해하며, 남의 강토를 삼키고, 남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남의 정부를 농락하고, 남의 신민을 핍박하니, 만국의 약신(約信)의 법의(法義)이겠으며 교린(交隣)의 우의가 실로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종당엔 남의 임금을 위협하여 보위를 추양(推讓)해 읊기고, 남의 조정을 핍박하고 차지하여 군대를 받아들이고는 ‘군대를 받아들이는 데는 인허(認許)가 있었다.’ ‘속국이 되겠다는 요청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니, 이것이 교린에서 신의를 들이는 본의(本意)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운 자가 의당 할 일

37) 『毅菴集』, 「通告一國摺紳士林書」, “今則締結亂賊, 陵國禍國, 無所不爲, 乃又兵脅君父, 五條迫急, 計吞全國, 以極肆虐, 都恃目前強力, 無復約信法義之近似, 如此貫盈罪惡, 猶可以國稱而得立於宇內乎?”

입니까?³⁸⁾

이강년은 우리나라의 국토나 인물·기술·재주 등이 다른 나라들과 각축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문화를 간직한 ‘소중화’라는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록 국력이 미약하여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등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문명국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언급이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교린을 닦은 지 10여 년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1882년(고종 19) 전문(全文) 14관(款)으로 이루어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후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 등과 조약을 맺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언급이다. 그런데 일본만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필두로 을사조약·정미조약에 이르기까지 불평등 조약을 넘어 국권을 침탈하는 늑약을 맺도록 강제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파병하여 우리의 풍속과 문화, 제도를 훼손하였다. 또 반역자 매국노와 결탁하고 임금을 능욕하고 국모를 시해하고 국토를 병탄하고 재정권을 박탈하고 정부를 농락하고 신민을 핍박하니, 국가 유지의 원칙인 약·신·법·의와 교린의 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발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고종을 폐위하고 순종을 옹립하였으며 동학농민전쟁 진압을 이유로 1894년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이후로 꾸준히 병력을 증강하였다. 1895년 외무대신 김윤식이 각처에 일본군이 주둔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지만, 고종은 일본군의 주둔을 경계하였고, 1896년에는 일본 공사에게 주둔군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였다.³⁹⁾ 이러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강년은 우리가 일본의 군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허가한 적이 없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또 일본이 속국이 되겠다는 우리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터무니없는 핑계로, 교린에서 신의가 없는 행위이며 임금과 신하가 각각의

38) 惟我國僻在海隅，壤土褊小，人物殘劣，雖以技才，不能角於諸國，而衣冠文物，禮樂綱紀，遵先王之道，守先王之典，見稱小中華於天下，累百年于茲矣。逮萬國立約之初，舟車相通，物貨相接，得與各國講修交隣之厚，亦有十餘稔，獨日本也，外託交隣，內招奸賊，百方凶謀，惹起禍孽。始焉毀人衣服，薙人頭髮，亂人舊章，變人遺俗，此豈萬國約信之法義，而交隣之誼，固當如是歟？誘執外逋之臣，締結內叛之賊，辱人君父，弑人國母，吞人疆土，奪人財權，弄人官府，迫人臣民，此豈萬國約信之法義，而交隣之誼，固安在哉？終焉威脅人國君，推遷寶位，逼據人廊廟，受納軍兵，曰：“受有認許。”曰：“聽爲屬國。”此乃交隣納信之本意歟？此乃君君臣臣者，所當爲歟？

39) 현광호(2014), 「대한제국이 주한 일본군의 활동」, 『인문학연구』 제48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직분을 다 하는 국가로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병을 막는다는 핑계로 촌락에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는 또 따라서 살해하니 또 마관조약(馬關條約)에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약속을 배반하고 신의를 버리고 법을 무시하고 의를 잃나니 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는 난신적자(亂臣賊子) 중에서도 가장 심한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민(臣民)에게는 영원히 하나의 하늘을 함께 일 수 없는 원수이며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에게서는 주살할 수 있는 원흉이자 대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자로서 심심하게 아무 일도 없다면,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운 커다란 경상(經常)이 없는 하나의 짐승일 따름입니다. 만국에 있어서 임금과 신하가 있는데도 분개하고 증오하며 성토하고 주살할 마음이 없다면 일본과 매한가지입니다. 온 천하가 일본이 된다면 그만이거니와 진실로 일본이 되지 않을 나라라면 어찌 의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⁴⁰⁾

이강년은 일본이 국왕과 백성들의 뜻에 반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에 항거하는 의병을 막는다는 핑계로 민간 마을에 방화하고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이강년은 그러한 민간인 살육이 일본과 청나라 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 존립과 교린의 원칙인 약(約)·신(信)·법(法)·의(義)가 없고 난신적자(亂臣賊子) 중에서도 가장 심한 자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따라서 그들을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이 주살해도 된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강년은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운 윤리가 없다면 짐승’이라고 단언하면서 일본을 주살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40) 託拒義旅，放火村閭，童穉婦女，從以廝殺，此又馬關條約，有一於此乎？其背約去信，蔑法喪義，無君無臣亂賊之最尤者。爲鄙國臣民者，萬世不共戴一天之讐，爲天下萬國人人，得誅之元惡大憝矣。在鄙國，臣子而沁沁焉無事，則無君君臣臣大經常之一禽獸耳。在萬國，有君臣者，而無憤疾討誅之心，則亦日本也。舉天下爲日本則已，苟不爲日本者，寧可不知義歟？

우리는 오백 년 열성조(列聖朝)가 배양한 존재로서, 삼천 리 예의의 나라의 적개심을 품은 대열에 있기에 충분(忠憤)에 격동되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일을 벌이니, 장차 죽일 대상은 저 만고에 죄가 가득차고 천고에 큰 악행을 저지른 임금과 신하가 없는 짐승 같은 도적 및 본국의 신민으로 심성을 바꾸어 도적에 붙어 함께 모의하는 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세에 대의를 펼쳐, 임금과 신하의 큰 의리와 충성과 반역의 큰 경계를 천지간에 명백히 세우니, 천하만국 교린의 우의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약(約)·신(信)·법(法)·의(義)의 큰 네 글자의 지극히 중요한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 귀국의 담당자에게 달려있음을 모두 밝게 알 것입니다.⁴¹⁾

이강년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를 ‘오백 년 열성조(列聖朝)가 배양한 존재로서, 삼천 리 예의의 나라’라고 존재 이유와 가치를 천명하고, 침략자 일본을 ‘만고에 죄가 가득하고 천고에 악행을 저지른 임금과 신하가 없는 짐승 같은 도적’으로, 매국노는 ‘심성을 바꾸어 도둑에 붙어 함께 모의하는 자’로 규정하며 주륙할 대상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임금과 신하의 대의, 충성과 반역의 경계를 밝히니 약(約)·신(信)·법(法)·의(義)가 국제 교린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귀국의 담당자에게 달려있다.’고 호소하며 글을 맺었다.

「통고각국영사관문」의 논리적 특징은 약(約)·신(信)·법(法)·의(義)라는 국제 교린의 원칙을 전제하고 그에 따라 일본의 침략 야욕과 만행을 조목조목 국제사회에 고발했다는 데에 있다.

41) 『雲岡先生遺稿』, 「通告各國領事館文」, 50쪽. “鄙等, 以五百年列聖朝培養之物, 在三千里禮義邦敵愾之列, 忠憤所激, 按住不得, 方有事, 在將廝殺, 彼萬古盈罪, 千古大惡, 無君臣之獸賊, 及本國臣民之換心性, 傳賊同謀者. 乃已由此, 伸大義於天下萬世, 使君臣大義忠逆大防, 立得天地間明白, 而使天下萬國爲有交隣之誼者. 知約信法義四大字之至重道理, 其在貴國執事者, 咸宜洞照.”

6. 친일 분자에 대한 효유문(曉諭文)

의병 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제의 의병 탄압과 별도로 의병 진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니, 선유 활동이 그중 가장 중점적이었다. 의병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경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 지역에 선유사(宣諭使)를 먼저 파견하고, 그 외의 지역은 관찰사가 관내 각 군을 순행하도록 하였다.⁴²⁾ 1907년 8월 26일 각도 선유문(宣諭文) 및 5도 별파(別派) 선유사로 경기도 선유사 정인흥(鄭寅興), 강원도 선유사 홍우석(洪祐皙), 경상북도 선유사 김중환(金重煥), 충청남북도 선유사 이순하(李舜夏) 임명 등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통감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선유사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각도 선유사들은 8월 27일에 임명되고, 8월 30일에 조서를 받았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첫째 의병을 선유하여 해산시킬 것, 둘째 일반 인민도 효유하여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안심케 할 것, 셋째 정부가 이미 행한 읍폐민막(邑幣民瘼)과 이국편민(利國便民)할 신법령의 반포에 대해 일반 인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노력할 것, 넷째 척유(飭諭)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이었다.⁴³⁾

강원도 선유사 홍우석은 민공호와 아울러 이강년을 주요 선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강년이 체천·단양 등지에서 모여든 의병들을 이끌고 호좌의진을 일으켜, 영월·평창·제천·단양·문경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⁴⁾ 이에 주천이 고향이었던 선유위원 권태준(權泰駿)을 10월 20일 주천 방면으로 잠입시켜 의병들의 정세를 탐문케 하였는데, 윤기영 의병 부대에 붙잡혀, 선유사 일행과 일본군이 싸리재[柵峴]를 넘어 주천 방면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실토하였다. 이에 이강년은 우선봉 백남규(白南奎)·좌선봉 하한서(河漢瑞)·우군선봉 권용일(權用侁)을 싸리재에 매복시켜 일본군 1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전과를 올렸다.⁴⁵⁾ 그러므로 이강년이 선유위원을 효유하는 글을 지은 시기를 볼 때, 그 대응이 매우 기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의병을 선

42)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7일, 「내부훈령」. “선유스를 파송한 외에 각도 관찰스에게 내부에서 훈령하고 각 관찰스가 각군에 순행하여 효유하는 전후 정형을 연속히 보고하라 하였다더라.”

43) 심철기(2014), 「한말 원주 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 방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5~217쪽.

44) 구완희(1997), 『韓末의 提川義兵』, 274~275쪽, 집문당.

45) 심철기(2014), 「한말 원주 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 방략」, 223~224쪽.

유하는 임무를 띤 선유위원을 역으로 효유하려 하였으니, 의병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수행하려 한 이강년의 투지를 잘 볼 수 있다.

선유위원(宣諭委員)을 효유하여 고하는 글 정미(丁未) 중양(重陽)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는 천지의 상경(常經)이니 임금의 명령이 있는데도 쫓지 않는 것은 반역이고 임금의 명령이 아닌데도 임금의 명이라고 쫓는 것도 반역이다. 우리 조선의 오백년 예악과 삼천리 강토가 저 왜국(倭國)에 삼켜져 더럽혀지니, 이것이 우리 임금의 명령이더냐? 모후의 시해와 군부(君父)의 치화(薙禍)가 우리 임금의 명령이더냐? 정부의 납세가 저 적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우리 임금의 명이더냐? 이것이 우리 임금의 명이 아닌 줄 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복구하는 자와 우리 임금을 위해 복수 설욕하는 자를 우리 임금이 금하여 못하게 하겠는가?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이 있는데 듣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일이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은 임금의 귀를 막는 자 때문이다.

선유위원이 와서 조령(詔令)을 빙자할 뿐만 아니라 조령을 위조한 것이다. 위조된 조령을 따르고 임금의 마음을 실행하지 않으니, 신하의 의를 잃은 자는, 실로 오랑캐의 당여(黨與)이다.

무릇 우리 조선의 신민 된 자들이 감히 고집불통 미련하고 현혹되어 상경(常經)이 없는 데로 귀착될 무리인가? 이처럼 분명히 고한 뒤에도 만약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의당 군사를 동원하여 먼저 토벌할 것이다. 각기 의당 명심하여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지 마라.⁴⁶⁾

이강년은 윗글에서 ‘군신 간의 대의’와 ‘상경(常經)’을 주지로 삼았다. 왜냐하면 선유사는 왕명으로 파견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군신 간의 대의’란 임금의 명

46) 『雲崗先生遺稿』, 『曉告宣諭委員文』, 『雲岡集』, 56쪽. “君臣大義, 天地之常經, 有君令而不從者, 逆也, 非君令而從以爲君令者, 逆也. 我朝鮮, 五百年禮樂, 三千里疆土, 爲彼倭之國吐吞污穢, 是吾君之令歟? 母后之被弑, 君父之薙禍, 是吾君之令歟? 政府稅納, 爲彼賊所權者, 是吾君之令歟? 此知非吾君之令, 則爲吾國復舊者, 爲吾君報讎雪恥者, 吾君其禁之而不欲耶? 不惟不禁, 亦恐不聞有事, 不聞有事, 以其壅蔽天聰者. 宣諭之來, 非特矯詔, 是僞詔也. 從僞詔而不體君心, 失臣義者, 實夷狄之黨與也. 凡爲我朝鮮臣民者, 其敢執迷撓惑, 而歸無常經之類歟? 如是曉告之後, 如有不義之人, 當移兵先討矣. 各宜銘肺, 毋至噬臍.”

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신하로서 가장 치욕적 개념인 ‘반역’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니, 임금이 명령을 하였는데 따르지 않는 것과 임금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명이라고 빙자하고 위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의 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탄된 것이 임금의 명령이냐고 반문하였다. 이어 왕후가 시해되고 단발령과 새로운 납세 제도 등이 제정 시행된 것이 임금의 명령인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임금의 명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를 위하여 법령과 제도를 이전과 같이 되돌리고 임금을 위하여 복수 설욕하는 행동을 임금이 하지 못하게 하였기에 하지 않는지 반문하였다. 이로 본다면, 이강년은 선유위원이 대한제국의 조정에서 선발 과견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임금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인하여 잘못 내려진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왕이 선유사를 과견하였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선유위원들이 조령을 빙자하고 위조하였다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그들을 과견한 왕의 책임 소재를 차단하고, 선유위원들을 더 이상 신하라고 할 수 없고 ‘오랑캐의 당여’라고 극력 비난하였다. 그리고 앞서 전제하였던 ‘상경(常經)’을 재차 강조하면서, 효유를 듣지 않는다면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이 글의 중심이 되는 개념은 ‘천지지상경(天地之常經)’이다. 이 말은 『한서』, 『동중서전(董仲舒傳)』에서 “춘추(春秋) 대일통(大一統)은 천지의 상경(常經)이고 고금의 통의(通誼)이다.”⁴⁷⁾ 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는데, 유인석(柳麟錫)이 이 개념을 중시하였기에 그의 여러 글에서 산견된다.⁴⁸⁾ 또 ‘치화(薙禍)’는 유인석과 곽종석(郭鍾錫)이 사용한 어휘이며,⁴⁹⁾ 우리나라를 ‘오백년예악(五百年禮樂)’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주로 유인석⁵⁰⁾의 글에서 볼 수 있다. 이

47) 春秋大一統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誼.

48) 「中華歌」·「與崔勉庵 甲辰九月」·「與中華國袁總統 世凱」·「答李敬器 甲寅九月十六日」·「答李敬器 甲寅九月十六日」·「散言」·「病牀記語 癸丑十二月十日」·「奉贈申劬齋 錫元 甲辰九月」·「崇華契序」·「雅峴學契序」·「宗華契序」·「書附崔汝疇所示冊子後」·「祭勉庵崔公文」·「龍湖處士許公墓碣銘 并序」·「橄菴處士尹公墓誌銘 并序」·「宇宙問答」·「道冒編下」(『毅菴集』.)

49) ○ 『毅菴集』, 「橄菴處士尹公墓誌銘 并序」. “甲午國變, 痛憤拍案下淚, 及薙禍作, 謂子孫曰, 吾生至八七, 豈可作毀形鬼, 從容以死而已, 因作誓辭篇以示志.”

○ 『俛宇集』, 「答文士憲 己酉」. “明末義士之殉於薙禍, 此可謂殺身以成仁.”

50) ○ 『毅菴集』, 「答邊德一 丁酉」. “苟能爲之, 下不失爲保衣髮守禮義, 置得華夏一區於舉天地黑陷之中, 進而而庶或可以討滅讎賊, 保濟君民, 興復五百年禮樂文物小中華之樣, 奉慰列先王之靈.”

○ 『毅菴集』, 「乙未毀服時立言」. “嗚呼慟矣! 四千年華夏正脉, 二千年孔孟大道, 本朝五百年禮樂典型, 家家數

는 단순히 표현상의 유사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군사적 관계를 넘어 학문적·사상적으로 강한 계통성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하겠다.

이강년은 선유위원과 함께 일진회를 가장 치명적인 친일분자로 인식하였기에 그들에 대한 효유문도 기민하게 작성하였다.

일진회는 1904년 8월 창립한 이후 1910년 9월 해산될 때까지 일제의 침략 정책에 협조한 친일 단체이다. 일진회는 한국에 친일 세력을 부식하고자 했던 일본 우익 세력의 의도와 대한제국 정권의 균열을 틈타 재기를 노렸던 동학, 독립협회의 잔존 세력의 이해 관계가 맞아 조직되었다. 처음에는 ‘유신회(維新會)’라는 이름으로 발기하였으나, 8월 20일에 ‘일진회(一進會)’로 개칭하여 창립식을 치렀고, 1904년 12월 동학 세력의 국내 조직 ‘진보회(進步會)’와 병합하여 통합 일진회를 조직하였다. 통합 일진회의 간부는 회장 윤시병, 평의원장 송병준, 지방총회장 이용구, 제술위원 홍공섭·염중모, 총대의원 윤갑병·윤정식이었다. 일진회는 독립협회에서 계승한 ‘문명화론’에 입각하여 활동을 펼쳤는데, 그들이 주장한 4대 강령은 ‘첫째 황실을 존중하고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할 것, 둘째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셋째 정부는 개선정치를 실시할 것, 넷째 군정과 재정을 정리할 것’이었다. 내각 개편, 황실 재정과 국가 재정의 분리, 조세 체제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은 황실 존중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제군주제의 권력 토대를 해체하려는 것이었다. 정부의 실책을 공격하여 개혁을 요구하고, ‘민권 우선적 애국론’을 강조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압박한 일진회의 활동은 초반에는 지방지회에서 환영 받았지만, 1906년부터는 일진회의 활동이 이권 도모 행위에 불과한 작폐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지방과 중앙 정계의 탄압을 받은 일진회는 일제에 더욱 결탁하며 1907년 이후 친일 활동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⁵¹⁾ 이에 이강년은 일진회의 준동을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十世冠裳法度，今焉絕矣。”

51) 김종준(2008), 「대한제국말기(1904~1910) 일진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태훈(2010),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자치 참정권 청원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33쪽.

일진회(一進會)를 효유(曉諭)하는 글 정미(丁未) 중양(重陽)

예부터 고집불통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여 패가망신에 이른 자를 어찌 한정하겠는가만 어찌 지금의 일진회(一進會) 같은 것이 있었던가? 일진회는 우리 조선의 신민이 아닌가? 네 조상 네 아버지 네 자손이 아닌가? 오백 년 우로(雨露)와 같은 은택을 입은 자가 아닌가? 어찌하여 왜의 옷을 입고 왜의 행동을 하여 왜의 머리가 되고 왜의 창자가 된다는 이름을 얻어 호랑이 앞의 창귀 노릇을 하는가?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한 짓이고 사세(事勢)에 얽매여 한 짓이고 또 무식하여 속아서 한 짓이기에 한때의 낭패는 이미 지나간 잘못에 속하니 속히 길을 고쳐 공(功)으로 속죄하는 것이 옳건만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못 속의 물고기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는가?

스스로 돌아보건대 통탄스러워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머금게 한다. 임진란 때 모화당(慕華堂)⁵²⁾은 왜국의 선봉장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의인(義人)이 되었다. 하물며 일진회는 예의의 나라에서 태어난 자들임에랴?

듣자 하니, 일진회 중에서 하는 말에 ‘곧 왜를 토벌하고 의병에 붙으려 하였는데 의병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 결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한하는데, 몹시도 모자란 생각이다. 밝음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면 의당 죄과가 있겠으나 밝음을 향하고 어둠을 등진다면 무슨 의심과 두려움이 있겠으며 누가 달가워하지 않겠는가? 각부의 순검(巡檢) 역시 그러하다. 각각 경계하고 유념하여 서로 이끌어 잘못에 빠지지 말지어다.⁵³⁾

52) 모화당(慕華堂): 김충선(金忠善)을 이른다.

53) 『雲崗先生遺稿』, 「曉諭一進會文 丁未 重陽」, 『雲岡集』, 58쪽. “自古執迷不悟, 以致亡身滅宗者何限, 而豈有如今日之會耶? 進會非我朝鮮臣民者歟? 非乃祖乃父之子若孫歟? 非五百年雨露之澤所霑者歟? 何乃服倭之服, 行倭之行, 得頭倭腸倭之名, 而爲虎前之俛鬼耶? 始焉爲口腹之所迫, 爲事勢之所拘, 抑爲不學之所惑, 一時之狼狽, 既屬前過, 幡然改途, 以功贖罪, 可也, 奈何不然, 而甘爲池中之魚耶? 自顧痛嘆, 令人飲泣也. 壬辰之慕華堂, 以倭國之先鋒, 猶爲我國之義人. 況進會是禮義邦所產者耶? 聞自進會中有言曰: ‘卽欲討倭附義, 恐義之不受未果.’ 不量之甚者也. 背明向暗, 當有罪科, 向明背暗, 有何疑懼? 有誰不屑耶? 各部巡檢亦然, 其各惕念, 毋至胥溺.”

이강년은 “예부터 고집불통 미련하고 깨닫지 못해 패가망신한 것으로 일진회(一進會) 같은 것이 없다.”고 극단적으로 비난하며 그들이 일본의 옷을 입고 일본인의 행동을 하여 “일본의 머리카락이 창자가 된다는 오명을 듣고 일본의 창귀 노릇을 한다.”고 개탄하였으니, 일진회의 작폐는 이 무렵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강년은 그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 ‘사세에 얽매어’, ‘무식하기에’라고 분석하고 속히 속죄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 순검(巡檢)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의병 탄압을 위한 정책으로 선유 활동과 함께 의병 부대의 핵심 전력인 해산 군인들을 의병에서 이탈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심한 결과 해산 군인을 경시사검과 순검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⁵⁴⁾ 군대가 해산된 상황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군인을 경찰로 다시 채용하여 그들을 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⁵⁵⁾ 이처럼 형성된 순검 역시 의병 탄압의 선봉이 되었다.

「효유일진회문」은 주로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의 앞잡이 짓을 하는 일진회를 준엄히 타이르되,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이해하려는 이강년의 포용력이 잘 드러나 있다.

7. 결론

이강년은 한말 의병장 가운데 비교적 많은 격문류를 저술하였다. 그의 격문류가 갖는 특징은 용도가 다양하며, 기민하게 작성되었으며, 적절한 형식과 구성·수사가 구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이강년의 격문류를 분석해 보면 그가 유인석의 학문적·문학적 맥락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병 전쟁이 무력뿐 아니라 학문·문화적 수단도 강구되었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54)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9일, 「시·소평론」. “각군에 의병과 화적을 진압하기 위하여 대구부 진위대에 소속되었던 장교와 스졸중으로 경시·순검 오십명을 슈용·홀터인즉 경비 오천환을 지발하라 하였다니 군대는 해산하고 경찰관리만 더 늘이면 의병과 화적이 저절로 업서질는지”

55) 심철기(2014), 「한말 원주 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 방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5~217쪽.

의병 전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력(武力)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휘자의 지적 능력을 중시하였다. 인적·물적 자원의 소모(召募)에 사류(士類)의 협조가 절대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사류를 설득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는데, 그 주요 수단은 여전히 문필(文筆)이었다. 이강년은 무인 출신으로서 다른 의병장보다 탁월한 전투력과 무사(武事) 운영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필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창의(창의)의 명분을 천명하고 소모(召募)를 호소하는 이강년의 격문은 난해한 용사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지적 수준이 상당한 사류(士類)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이등박문문(檄伊藤博文文)」에는 역사 상식인 최소한의 용사만 보인다. 그리고 각국의 영사관에 보내는 「통고각국영사관문(通告各國領事館文)」에는 용사가 없다. 서양인들에게 용사는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의병 와해를 목적으로 파견된 선유위원을 역으로 효유하는 「효고선유위원문(曉告宣諭委員文)」, 일진회를 효유하는 「효유일진회문(曉諭一進會文)」에도 용사는 없다. 친일 분자를 타이르는 글에 어려운 고사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강년의 격문류가 갖는 또 하나의 특성은 기민성이다. 전투와 마찬가지로 격문도 신속하게 작성 선포되어야 한다. 그의 격문은 대부분 1907년 7월과 9월에 작성되었다. 소모 격문은 연속적으로 작성 전포(傳布)된 것이지만 7월 13일 이후로부터 모두 7월 안에 저작되었다. 그리고 1907년 중앙절인 9월 9일에 「격이등박문문」·「효고선유위원문」·「효유일진회문」·「사줄서계문」 4편이 작성되었다. 「통고각국영사관문」은 작성 일자가 없지만, 글의 성격과 「격이등박문문」과 중복된 표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볼 때, 「격이등박문문」 작성 직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격문류는 소모 격문처럼 화급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적절한 시기에 작성되었다. 「격이등박문문」은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권총으로 저격하기 한 달 전에 작성되었다. 그리고 1907년 7월부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던 기간에 「통고각국영사관문」이 작성되었다. 선유사가 8월 30일에 조서를 받고 활동을 개시하였으니, 「효고선유위원문」 역시 매우 기민하게 작성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필력이 뒷받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강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던 날인 1908년 9월 12일에도 「고결팔역동지사우(告訣八域同志士友)」라는 글을 지었으니, 이로써 그의 필력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이강년의 격문류는 위정척사파, 특히 유인석의 격문류와 형식·표현·어휘 등에서 동

질성을 지닌다. 이는 이강년이 유인석을 통하여 위정척사파의 사상과 문학적 맥락을 충실히 계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郭鍾錫, 『俛宇集』.

柳麟錫, 『毅菴集』.

李康季, 『雲岡集』.

강민구(2020), 「제천의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東方漢文學』 82호, 동방한문학회.

구완희(1997), 『韓末의 提川義兵』, 집문당.

김상기(2019), 『의병 전쟁과 의병장』, 경인문화사, 2019

김종준(2008), 「대한제국말기(1904~1910) 일진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민(2021), 「韓末 檄文의 문학적 기능에 대한 고찰(1)-前期義兵 檄文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8호, 동방한문학회,

심철기(2014), 「한말 원주 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 방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태훈(2010),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자치·참정권 청원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현광호(2014),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인문학연구』 제48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강년(李康季) 격문류(檄文類)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질의서

우지영(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운강(雲崗) 이강년(李康季)은 일본의 만행이 극에 달하던 시기인 1896년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수십 차례의 전투를 벌였고, 1908년 제천 청풍에서의 전투 중 일본에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치르다가 목숨을 잃었던 순국선열입니다. 발표자의 기왕의 연구¹⁾에서는 이강년이 거병(擧兵)할 때의 심정을 담은 시, 전투 중 체포될 때 읊었던 즉흥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결연한 심정을 토로한 시 등의 작품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항쟁에 대한 의지를 뽐진하게 설명해 내었고, 가족과 동지들에게 영결을 고하는 두 편의 글을 통하여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의리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의식을 고찰해 내었습니다. 또한 소모(召募)와 성토(聲討), 통고(通告)와 효유(曉諭)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지어진 격문류를 분류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고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외침(外侵)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민족정신을 수호하고자 하였던 애국지사의 절절한 심경과 울분 및 결연한 사상과 의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많은 감동과 교훈을 줄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논문의 논지와 맥락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할 것은 없고,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바라는 점을 간단히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제천의 의병장 李康季의 衛正斥邪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82, 동방한문학회, 2020.

1. 격문은 전쟁이라는 혼란 상황에서 작성되는 군용(軍用) 문서로, 생사와 존망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렬하고도 호소력 짙은 수사가 동원되는 글입니다. 이강년의 작품에도 격문류의 이러한 문체적 특징이 효과적으로 잘 구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강년의 격문을 ‘이등박문을 저격한 격문(檄文)’,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통고문(通告文)’, ‘친일 분자에 대한 효유문(曉諭文)’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는 격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몇 편의 격문 이외에 혹 다른 용도와 목적을 위하여 쓰여진 격문류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강년의 격문류 16편은 불과 1년 남짓한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격문류가 집중적으로 지어졌던 시기를 이강년의 생애와 연관하여 다시 보충설명해 주신다면 이강년의 삶과 격문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3. 이강년은 당시 충북 제천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을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었고, 유인석 의병 부대의 유격대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강년이 유인석에게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고, 그의 격문류에 있어서도 많은 동질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간명하게 잘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신다면 이강년의 사상적 연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주제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양상과 그 성격

발표자 : 김항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 최보영(용인대학교 교수)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양상과 내용

김항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2. 체포의병에 대한 적용법리와 재판소의 구성
3.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양상
4. 판결문의 내용과 특징
5. 맺음말

1. 머리말

이강년은 1896년 의병을 일으킨 이래 고모성전투, 수안보전투, 제천 남산전투를 비롯하여 1907년 제천읍전투, 조령전투, 갈평리 전투, 괴산 연풍전투, 1908년 가평 용소동전투, 인제 백담사 전투, 제천 적성전투 등 수십 차례의 중요한 전투를 치르며 일제 침략에 저항한 의병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이강년의 활동과 생애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하지만 체포 이후 이강년의 재판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강년을 비롯하여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의병들의 판결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면서 의병을 군사적으로 ‘토벌’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의병들을 검거한 후 재판에 회부하였고, 일제에게 장악당한 재판소는 ‘피검자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의병들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를

1) 이구용, 「운강 이강년의 항일의병활동」, 『강원사학』 7, 1991 ; 박민영, 「운강 이강년의 생애와 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 구완희,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정당한 사법권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의병들의 항일투쟁에 대하여는 정당성은 훼손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의병은 재판장에서 유배나 징역형을 언도받거나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해진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기존 연구는 사법제도를 활용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세력을 통제하려는 대략적인 윤곽은 밝혀냈지만 세밀한 분석까지 이르지 못했다. 또한 의병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통감부기 일제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인 의병의 법적 처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는 통감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보호국화’를 수립하고, 식민지 무단통치의 토대를 구축해나갔지만, 의병 역시 격렬하게 일어났던 시기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시기 일제가 사법권을 장악하고 재판을 통해 의병을 탄압한 실체를 이강진 의진 참여자들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제의 사법제도 장악과정과 이후 의병에게 적용한 법리가 무엇인지 알아 볼 것이다. 판결 결과로만 따지면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내란 선고를 받기도 하고 강도 혹은 폭동죄를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판결을 시기별, 형량별, 지역별로 정리하여 판결의 전체적인 양상과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강년의 진 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할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소장 중인 『刑事判決原本』이다. 1906년부터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판결문을 모아둔 『형사판결원본』에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벌 조항 및 양형 이유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 중 의병관련 판결문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의병항쟁재판기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자료집 의병운동 I』(국가기록원, 2011)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병 연구의 보조자료로 이용되었을 뿐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형사판결 원본』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2. 체포의병에 대한 적용법리와 재판소의 구성

의병에 대한 처벌은 체포-조사-재판(원심-항소심-상고심)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갑오개혁 이후 1905년까지 형사 관련 법규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었지만 근대적인 형법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형사법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명률』을 일반법으로 하고 『대전회통』 「刑典」과 상황에 따른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법령들을 특별법으로 삼아 운용되는 수준의 「賊徒處斷例」에 의해 처리되었다. 홍주의병에 참가한 김복한의 경우 訴訟編의 “말로는 訴를 올리기 위해 왔다고 하고는 관청에 쳐들어 가 관리를 협박한 자에 관한 법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여 事理가 무거운 자의 죄”에 해당한다며 처벌받았다.²⁾

「형법대전」 이전 의병 활동에 대한 처벌은 『대전회통』이나 『대명률』에 근거한 「징역 처단례」에 따라 처벌하였고 「형법대전」 제정을 준비하면서 기존법규 중 범죄에 대한 엄형주의로 개정되었다.³⁾ 1900년 1월 11일과 1901년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賊盜處斷例」가 개정되고, 이후 「형법대전」이 반포 시행되면서 형사법들은 「형법대전」에 근거해 처벌받았고 의병도 그 대상이었다.

한국정부는 1900년 6월부터 통일적인 형법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05년 5월 「형법대전」이란 명칭의 형법을 반포·시행하였다. 「형법대전」은 총 5편 17장에 부칙 2개 조까지 전문 680개조에 달하는 형법으로, 종래의 6전 체제를 탈피하여 근대법적인 편찬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형법대전」은 형벌의 종류를 근대 형법과 마찬가지로 主刑과 附加刑으로 분류하였다. 주형은 사형·유형·역형·금옥형·태형으로 부가형은 면관·면역·몰수형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2) 「관결선고서 제14호」, 『刑事判決原本』, 고등재판소, 1896년 4월 7일.

3) 예컨대, 400냥 500냥 절도죄에 대해 태100 징역3년을 부과하던 것을 태100 징역중신으로, 1200냥 이상에 대해 태100 징역중신을 부과하던 것을 교수형으로 가중 처벌하였다. 그리고 절도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자는 태50에 그쳤던 것을 징역 10개월로 가중하였으며, 절도 재범자는 태100 징역중신형에 처하던 것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도면회, 「1894 1906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221쪽).

이중 의병에게 적용된 조문은 형법대전 제195조 내란죄였다. 제195조의 내용은 “政府를 傾覆하거나 其他政事를 變更하기 爲하여 亂을 作한 者는 絞에 處함”이었다.⁴⁾ 당시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가조직에 관한 범죄로 國體 및 政體를 變換하거나 정부를 顛覆하거나 정권의 일부를 滅殺하거나 施政의 방침을 改革하거나 國憲으로 정한 국민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직접 국가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산권이나 경찰권을 위해를 與함은 국사범이라 未稱하나니 此實 주의할 바”라고 하여, 비록 국가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경찰권을 상하게 하여도 정치적 목적이 없으면 국사범이 아닌 일반범죄로 정의하고 있다.⁵⁾ 즉, 단순한 국가기관 공격이 아니라 행위에 있어 ‘정치상의 목적’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시설을 공격해도 정치상 목적이 없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내란죄 외에 많이 적용된 강도죄는 「형법대전」 제593조에 근거하고 있다. 제593조는 “재산을 謁취할 계획으로 左開所爲를 범한 자는 首從을 불분하고 絞에 처하되 已行하고 未得財한 자는 징역중신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⁶⁾

폭동죄는 「형법대전」 제677조에서 규정되었는데 “多衆이 聚合하여 暴動을 行한 者는 징역 15년이고 附和隨行에 止한 者는 笞100에 處함이라”는 내용이다. 1908년 7월, 일제의 영향력이 강했던 「형법대전」 2차 개정 때 새로 생긴 조항으로, 일제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폭동죄의 경우 주로 의병에 단순 가담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용되었다. 실제 적용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괴의 행위를 방조하고 무장하고 각지를 嚮應배회한 자”로 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의병 처벌 규정은 「형법대전」에 근거하고 있었다. 일제는 「형법대전」이 전근대적이며 야만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근대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전근대적인 면을 존치하거나 확대하려 했다. 이는 일제가 한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는데 「형법대전」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정리하자면, 「형법대전」은 근대적 외형은 갖추었지만 내용상 전근대적 요소가 많았다. 또한 법률의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조각사유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법 규정을

4) 『韓末近代法令資料集』 4, 국회도서관, 1971, 205쪽.

5) 유성준, 『법학통론』, 조선교육회관, 1907, 137쪽.

6) 『韓末近代法令資料集』 4, 214 215쪽.

그대로 적용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일제는 재판권을 행사할 때 「형법대전」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도를 실행하고자 했고 이는 의병판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07년 7월 헤이그밀사 사건이 발생하자, 일제는 이를 빌미로 19일 고종을 강제퇴위시켰다. 나아가 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인 고위관료들이 대한제국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외교권에 이어 한국의 내정 문제까지 통감부가 관여하게 되었다. 일제는 정미조약 법령제정 및 행정상 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권, 사법과 행정의 구별, 고등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 일본인 한국관리에 대한 추천권 등을 명시했다. 그리고 부속 각서에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區裁判所의 설치 지역과 판사 검사 및 서기 등으로 채용될 일본인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⁷⁾ 그리고 부속 각서에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區裁判所의 설치 지역과 판사 검사 및 서기 등으로 채용될 일본인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⁸⁾ 이는 1907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 8호 「재판소구성법」(1908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구체화되었다.⁹⁾ 재판소의 명칭은 일본을 따라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 4종으로 했으며 3심제를 채택했다.

특히 정미조약의 부속각서에서 주목할 점은 3심제 도입을 명분으로 일본인 판검사의 법관 임용이 포함된 점이다. 감독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판권에 개입하던 단계에서 일본인 판검사를 직접 임명하여 재판권을 일제가 재판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단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 결과 1908년 1월경에는 대심원장과 검사총장이 내정되고 이후 감독관 및 판검사들의 선발에 들어가 4월경이 되면 인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때 임용된 일본인은 대심원장 및 대심원 검사총장 이하 감독관 34명, 판사 74명, 검사 32명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인은 판사 36인, 검사 9인에 불과했다. 명목상 한국재판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인이 재판소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¹⁰⁾

1909년 7월 24일 일제는 기유각서를 강요하여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를 개선하고 한국 신민과 아울러 외국신민과 인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과 한국 재정의

7) 문준영, 『법원과 경찰의 역사』, 역사비평사, 2010, 385쪽.

8) 문준영, 『법원과 경찰의 역사』, 역사비평사, 2010, 385쪽.

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7, 160쪽.

10) 문준영, 『법원과 경찰의 역사』, 389-390쪽.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위탁’받았다.¹¹⁾ 이에 따라 일본에게 사법권은 위임되고, 일본은 사법제도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였다.

한국의 사법권이 일본에 위임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1909년 10월 칙령을 공포하여 통감부 사법청을 설립하였고 나아가 통감 관리 아래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함과 동시에 통감부재판소령 등 제법규에 기초해 통감부 사법기관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1909년 11월 1일부터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개시하여 식민지 사법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해나갔다. 그 결과 1909년 11월 ‘사법, 감옥사무에 관한 일본국 칙령’이 공포되면서 법부는 1909년 10월 31일부로 폐지되고 11월 1일 통감부 사법청과 통감부 재판소령이 시행되어 재판, 감옥을 비롯한 모든 사법관련 업무가 통감부에 속하게 되었다.¹²⁾ 그 결과 일제는 한국의 사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양상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이강년의진에 관련된 인물들 33명을 확인 할 수 있었다.¹³⁾ 우선 이강년의진 참여자 판결의 시기별·혐의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판결의 시기별 분류는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판결일자는 사건일자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판결을 내릴 당시의 의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의병판결 결과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1) 『구한국관보』, 1909년 7월 24일.

12) 「사법, 감옥사무에 관한 일본국 칙령」, 『한말근대법령자료집』 9, 1쪽.

13) 문경시에서 발간한 『운강자료집』(2020)에는 모두 28명의 판결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이인영 같은 경우 이강년과 13도 창의군 등에서 함께 활동하였지만 이강년의진 참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였다.

〈표1〉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시기별·혐의별 판결

구분	내란	강도	폭동	살인	보안법	기타	계
1908	1 (3.03)	-	6 (18.18)	-	-	3 (9.09)	10 (30.3)
1909	4 (12.12)	1 (3.03)	4 (12.12)	1 (3.03)	-	-	10 (30.3)
1910	4 (12.12)	3 (9.09)	-	2 (6.06)	-	-	9 (27.27)
1911		1 (3.03)			-	-	1 (3.03)
1915		2 (6.06)			-	-	2 (6.06)
1918					1 (3.03)	-	1 (3.03)
계	9 (27.27)	7 (21.21)	10 (30.3)	3 (9.09)	1 (3.03)	3 (9.09)	33 (100)

출전: 「형사판결원본」/()는 %임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의병들의 판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죄목은 폭동이 다. 전체 판결 33건 중 폭동이 10건으로 30.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란이 9건으로 27.27%를 차지한다. 강도는 7건으로 21.21%이고 살인은 3건으로 9.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의병판결의 경향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1907~1910년간 의병판결을 분석해보면 강도(48.97%)>내란(22.8%)>폭동(20.36%)>살인(6.75%)>기타(1.1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¹⁴⁾ 일반적인 의병판결 비율과 이강년의진의 판결을 비교하면 폭동과 내란은 상대적으로 많고, 강도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강년의진의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인 된다고 보인다. 의병 판결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주요 의병장급 인사들이나 군자금 모금 활동 등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주로 내란죄 적용을 받았다는 점에서¹⁵⁾ 이강년의진은 의병항쟁에서 실질적 지도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14) 김항기, 「의병항쟁기 의병판결과 그 성격」,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124~126쪽.

15) 김항기, 「의병항쟁기 의병판결과 그 성격」, 130~132쪽.

시기별로 보면 이강년의진 참여 의병들의 판결은 1908년부터 시작되었다. 1908년은 모두 10건(30.3%)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내란은 1건, 폭동이 6건, 기타가 3건이었다. 기타는 불응위 2건과 방화 1건이었다. 1909년의 경우도 10건(30.3%)의 판결이 실시되었다. 내란과 폭동이 각 4건씩을 차지했고 강도와 살인이 1건씩이었다. 1910년은 9건(27.27%)의 판결이 있었고 내란 4건, 강도 3건, 살인이 2건이었다. 1911년은 강도 1건의 판결이 진행되었고, 1915년은 강도 2건, 1918년은 보안범위반으로 1건의 판결이 진행되었다. 판결의 대부분은 1908~1910년 의병항쟁이 가장 치열하게 실시되던 시기에 실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일제는 의병을 체포하고 재판에 넘겨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형량을 부과하였다. <표 2>는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의병들의 시기별 형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33건의 판결 중 태형으로 처리된 판결이 7건(21.21%)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하 유형/징역형이 5건(15.15%), 3년이하 유형/징역형이 5건(15.15%), 3년 이하 유형/징역형이 5건(15.15%)씩으로 뒤를 이었다. 사형을 언도받고 교형으로 처리된 건은 4건으로 12.12%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시기별·형량별 판결

구분	사형	유형/징역형							태형	무죄 (면소 포함)	미정	계
		총신	15년 이하	10년 이하	7년 이하	5년 이하	3년 이하	1년 이하				
1908	2 (6.06)	-	-	-	-	-	1 (3.03)	1 (3.03)	6 (18.18)	-	-	10 (30.3)
1909	-	-	-	-	-	5 (15.15)	4 (12.12)	-	1 (3.03)	-	-	10 (30.3)
1910	1 (3.03)	-	2 (6.06)	4 (12.12)	-	-	-	-	-	2 (6.06)	-	9 (27.27)
1911	1 (3.03)	-	-	-	-	-	-	-	-	-	-	1 (3.03)
1915	-	-	1 (3.03)	1 (3.03)	-	-	-	-	-	-	-	2 (6.06)
1918	-	-	-	-	-	-	-	1 (3.03)	-	-	-	1 (3.03)
계	4 (12.12)	-	3 (9.09)	5 (15.15)	-	5 (15.15)	5 (15.15)	2 (6.06)	7 (21.21)	2 (6.06)	-	33 (100)

출전: 『형사판결원본』/()는 %임

시기적으로는 1908년은 10건의 판결 중 6건이 태형이고, 사형이 2건이었다. 형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형의 대부분은 1908년에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형 6건 중 4건은 의병에 참여한 행위를 폭동으로 보는 인식하에 처리되었기 때문이고, 2건은 동아개진교육회와 관련하여 이강년의진에 해산군인을 보낸 사건이었다.¹⁶⁾ 1909년은 사형 및 10년 이상의 중형은 없었고 5년 이하 5건(15.15%), 3년 이하 4건(12.12%), 태형 1건(3.03%)이었다. 1910년은 사형 1건(3.03%), 15년 이하 4건(6.06%)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었다. 반면 면소를 포함한 무죄도 2건이 있었는데 이는 증거불충분 사건¹⁷⁾과 합방 이후 사면으로 인한 공소권 상실의 건이었다.¹⁸⁾ 1911년은 1건이고 사형이 었다. 이는 이강년의진의 중군장이었던 김상태 판결이었다.¹⁹⁾ 1915년은 15년 이하, 10년 이하가 각각 1건이었고, 1915년은 이강년의진 잔존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권회복운동 관련 건이었다.

의병판결에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부분은 의병에게 적용된 혐의이다. 적용혐의는 일제가 의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벌’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표3>은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의병들의 죄명별 형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33건의 판결 중 내란으로 처리된 판결이 9건(27.27%)이었다. 9건 중 사형은 1건이었고 15년 이하 1건, 10년 이하 1건 등 10년 이상의 중형은 3건이었다. 5년이하는 3건, 3년 이하는 1건, 공소권 소멸로 인한 면소도 1건이 있었다. 강도죄의 경우 7건(21.21%) 중 사형이 1건, 15년 이하 1건, 10년 이하 3건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은 5건이었다.

16) 「김용현, 조성윤 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940), 1908년 9월 9일, 공주지방법재판소

17) 「김병운 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886), 1910년 5월 2일, 공주지방법재판소

18) 「박득용 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244), 1910년 8월 29일, 경성공소원

19) 「김상태 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1172), 1911년 8월 4일, 대구지방법재판소

〈표3〉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죄명별·형량별 판결

구분	사형	유형/징역형(징)							태형	무죄	미정	계
		종신	15년 이하	10년 이하	7년 이하	5년 이하	3년 이하	1년 이하				
내란	1 (3.03)	-	1 (3.03)	2 (6.06)	-	3 (9.09)	1 (3.03)	-	-	1 (3.03)	-	9 (27.27)
강도	1 (3.03)	-	1 (3.03)	3 (9.09)	-	-	1 (3.03)	-	-	1 (3.03)	-	7 (21.21)
폭동	-	-	-	-	-	1 (3.03)	3 (9.09)	1 (3.03)	5 (15.15)	-	-	10 (30.3)
살인	1 (3.03)	-	1 (3.03)	-	-	1 (3.03)	-	-	-	-	-	3 (9.09)
기타	1 (3.03)	-	-	-	-	-	-	1 (3.03)	2 (6.06)	-	-	4 (12.12)
계	4 (12.12)	0	3 (9.02)	5 (15.15)	0	5 (15.15)	5 (15.15)	2 (6.06)	7 (21.21)	2 (6.06)	0	33

폭동죄는 10건(30.3%)으로 여러 죄명 중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낸다. 10년 이상의 중형은 없었으며 5년 이하 1건, 3년 이하 3건, 1년 이하는 1건이었고 태형이 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폭동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의병에 단순 가담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 받는 경우는 없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3건에 불과했지만 징역 5년형을 제외하면 15년형과 사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다음으로 판결의 전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4>는 이강년의진에서 활동한 의병 참여자들의 판결 내역을 판결일자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제천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경 7명, 영월 2명, 연풍, 청송, 서울, 가평, 청풍이 각각 1명씩이었다. 이강년의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의병들은 대부분 이강년의 활동 중심지였던 제천과 문경지역 출신이었다. 시기적으로는 1908년부터 1915년까지이다. 강점이후 까지 이어지는데 이강년의진 관련 마지막 판결인 1915년 김병우의 경우 이강년의진에 참여했던 의병들을 다시 규합해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려고 한 사건이었다.

〈표4〉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 내역

연번	성명	나이	출신지	혐의	형량	판결일자	판결문 내용
1	이강년	51	문경	내란	교형	19080922	수백명 무리를 소집하여 내란을 일으키어 2년간 수신회 토벌대와 교전 하였다.
2	정흥대	49	문경	방화		19081019	이인영과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화승총을 휴대 하고 대원 80여명과 폭동을 일으키고 문경읍내에 침입하여 순검의 집에 방화하였다.
3	김수동	26	단양	살인		19101007	폭도 수괴 이강년 부하가 되어 함께 총과 칼을 가지고 경북, 강원도 각 군 내에 난입하여 주민에게서 생필품을 강탈하고, 정인수, 정갑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하였다
4	김상태	50	단양	강도살인		19110804	폭도수괴 이강년의 부하에투입 부하 수백명과 총 칼로 협박하여 각지에서 민가에 난입하여 수차례강도 하였다.
5	강수원	34	제천	살인	15년	19100401	폭도 수괴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포군으로 화승총 1정을 받아 방두리에서 일본 순사를 포위 교전한 결과 순사 2명을 총살하여 태워버렸다
6	이효경	29	제천	내란(유)		19100404	제천일대에서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활동하였다
7	최옥영	37	문경	강도		19150507	안동일대에서 금전 탈취하였다
8	정중택	31	제천	내란(유)	10년	19100309	폭도 수괴 이강년 부하가 되어 조선을 독립시켜 인민을 고통에서 구할 목적으로 원주, 평창등 각 군을 횡행하면서 금품을 징발하였다
9	김흥기	34	영월	강도		19100401	제천일대에서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활동하였다
10	김춘삼	35	제천	내란(유)		19100419	총복 각 군을 배회하면서 군용금을 칭하며 민가에서 금품을 징발하고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주재소와 민가에 방화하였다
11	남도경	27	제천	강도		19100502	폭도수괴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같이 각지를 배회하며 금품을 겁탈하였다
12	안교봉	40	제천	강도	19150507	안동일대에서 금전 탈취하였다	
13	임영수	29	청송	내란(유)	5년	19090205	폭도 수괴 이강년의 부하 포군이 되어 총을 가지고 같이 예천군, 문경군 갈평리에서 수비대와 교전하였고, 가축(소) 절도를 수회하였다
14	김규항	30	서울	내란(유)		19090216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각지에서 봉기하고 있는 의병의 일군에 들어가 이강년의 지휘이래 무장한 동도 100여명과 각군을 횡행한 자이다
15	이만원	43	청풍	폭동방화		19090227	의병대장 이강년의 군에투입하여 부하수십명과 병기를 휴대하고 각군을 배회 소요하였다
16	채경묵	39	영월	살인		19090320	정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내란 수괴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총기를 휴대 강원도 각 군을 회행하다가 원주군 전치에서 일본군과 교전하고 의병이라 칭하는 김모를 앞내가를 삼으로 파 생매장하여 살해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17	이용업	50	단양	내란	19090911	도당 수십 명과 같이 총기를 휴대하고 풍기 토벌대와 교전하였다.	
18	남만귀	33	문경	폭동	3년	19090511	총기를 휴대하고 문경, 괴산군 내를 횡행하다 일본 수비대에 저항하였다.
19	박백현	28	문경	폭동		19090517	폭도의 수괴 이강년 부하 총, 칼을 가지고 경북, 강원, 충북을 횡행하였고 칠성암에서 일본 수비대에 저항 폭동을 행하였다.
20	곽이섭	44	문경	강도		19090731	10여명의 부하들과 진천, 음성일대에서 활동
21	김현습	25	제천	폭동	2년	19080902	포군과 담군으로 대오를 짓고 무리를 지어 총기를 가지고 영월군각소를 배회하고 양민을 납치하였다.
22	홍중선	72	가평	내란(유)		19090204	내란죄 수괴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음식징발에 응하는 등 동인의 내란행위를 방조한 자이다.

연번	성명	나이	출신지	혐의	형량	판결일자	판결문 내용
23	엄원선	26	제천	폭동	1년	19080904	포군이되어 폭도수십명과총기를 가지고여러지방을 배회하여소요하였다.
24	김병우	37	문경	보안법		19180305	이강년잔당과 결속
25	허준여	22	단양	폭동	태100	19080902	폭도의 위협으로 수중하여 영월 녹본리등지에 머물다 10일후에 틈을타서도망 귀가 하였다.
26	이용운	25	연풍(괴산)	폭동		19080902	폭도의 위협으로 부득이 수중하여 충주 성지동에 갔다가 무리가 일병과 교전할 때 탈출 하여돌아왔다.
27	황경문	37	제천	폭동		19080904	폭도수괴의 부하가되어 잡역으로 종사하면서 3일정도 수괴를 수행 지방을 배회 하였다
28	류진옥	28	제천	폭동		19081121	동리 거주 정덕관의 유인으로 폭도 수괴의부하로 수중하여 영월 영촌 각지로 수행 중 도망하여 귀가 하였다.
29	장인식	32	단양	폭동		19090405	폭도 수괴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순흥방면에서 일본군과 교전시, 덕현리에서 일본 헌병대와 교전시 도망쳤다.
30	조성윤	44	제천	불응위	태80	19080909	동아개진교육회원으로회장의위협으로 군인8명을폭도수괴가있는곳에 모송한 사실이 있다.
31	김용현	60	제천	불응위		19080909	동아개진교육회원으로회장의위협으로 군인8명을폭도수괴가있는곳에 모송한 사실이 있다.
32	박득용	24	제천	내란	면소	19100829	군자금에 제공하기 위하여 양민 2명을 묶고 구타, 겁탈하고 군내를 횡행하며 군 수품으로 마혜(麻鞋) 25족을 겁탈하였다.
33	김병운	39	제천	강도	무죄	19100502	증거불충분

형량별로 살펴보면 최고형인 사형을 받은 의병은 4명이었다. 출신지는 문경과 단양이 각각 2명씩이다. 이강년의 경우 “수백명 무리를 소집하여 내란을 일으키어 2년간 수십회 토벌대와 교전하였다”는 이유로 「형법대전」 제195조 내란율이 적용되었다.²⁰⁾ 정홍대는 8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상주·문경 등지에서 활약하였고 1907년 음력 8월 1일경에는 의병 30여 명과 함께 문경 읍내에 돌입하여 친일순검 박시영(林時永) 박세진(李世鎭) 집에 방화하여 모두 불태우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 후 1908년 10월 19일 대구지방 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방화죄로 중신형을 언도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1909년 2월 9일 대구공소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었다.²¹⁾ 김수동은 “이강년 부하가 되어 함께 총과 칼을 가지고 경북, 강원도 각 군 내에 난입하여 주민에게서 생필품을 강탈하고, 정인수, 정

20) 「이강년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158), 1908년 9월 22일, 경성공소원

21) 「정홍대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1155), 1909년 2월 9일, 대구공소원

갑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하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었다.²²⁾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김수동은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1910년 6월 6일 경북 영천군 두내면(豆內面) 반구(盤邱) 시장 부근에서 영천군 봉향면(奉香面) 상망동(上望洞)에 사는 정갑이(鄭甲伊) 및 상주군에 사는 정인수(鄭寅守) 등 두 사람을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되었다. 이 때 단발한 정인수를 보고 순사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정갑이 또한 밀정으로 의병활동을 정탐하러 온 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의병 5명과 함께 그들을 결박하고 영천군 호문면(好文面) 화기동(花岐洞) 지내(地內) 반구천(盤邱川) 제방으로 끌고 가 처단한 사건이었다. 김수동은 대구지방법 재판소에서 받은 교수형선고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12월 23일 대구공소원에서 원판결이 타당하고 공소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²³⁾

15년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병은 모두 3명이었다. 제천 출신이 2명이고 문경 출신이 1명이었다. 강수원의 경우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포군으로 화승총 1정을 받아 방두리에 서 일본순사를 포위 교전한 결과 순사 2명을 총살하여 태워”버렸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조력한 행위로 판단되어 2등 감형을 받은 결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²⁴⁾ 이효경은 이강년의 체포과정을 함께한 인물이다. 이강년이 체포되고 의진이 해산될 때 도주하여 은신한 이후 다시 권병하 등과 함께 군수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내란죄(이강년과의 활동)와 강도죄(군자금 모집)를 병합하여 적용받았고 형량이 더 높은 내란율이 적용된 사건이다.²⁵⁾ 최옥영은 이강년의진의 군사장 출신으로 권태준으로 이름을 바꾸고 숨어살다가 안동일대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었고 1915년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²⁶⁾

22) 「김수동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1541), 1910년 10월 7일, 대구지방법판소

23) 「김수동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1541), 1910년 11월 15일, 대구공소원

24) 「강수원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886), 1910년 4월 1일, 공주지방법판소

25) 「이효경판결문」, 『운강자료집』, 153~158쪽.

26) 「최옥영판결문」, 『운강자료집』, 209~219쪽.

10년형을 언도받은 경우는 모두 5명이다. 출신지역은 제천 4명 영월 1명이었다. 내란을 적용받아 유형 10년형을 언도받은 경우는 정중택과 김춘삼이 있다. 정중택은 “이강년 부하가 되어 조선을 독립시켜 인민을 고통에서 구할 목적으로 원주, 평창등 각 군을 횡행하면서 금품을 징발하였다”는 이유로 「형법대전」 제195조 내란율이 적용되었다. 정중택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금품을 징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죄가 아닌 내란율이 적용되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법관양성소의 교재로 사용되던 『법학통론』을 근거로 常事犯(국사범이나 정치범 이외의 일반 범죄를 범한 자)과 國事犯의 구분에 보도록 하겠다. 『법학통론』에 의하면 “국사범은 국가조직에 관한 범죄로 國體 및 政體를 變換하거나 정부를 顛覆하거나 정권의 일부를 滅殺하거나 施政의 방침을 改革하거나 國憲으로 정한 국민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직접 국가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산권이나 경찰권을 위해를 與함은 국사범이라 未稱하나니 此實 주의할 바”.²⁷⁾ 라고 하여 비록 국가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경찰권을 상하게 하여도 국사범이 아닌 상사범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⁸⁾ 재판부는 정중택이 ‘조선의 독립’이라는 정치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춘삼의 판결도 마찬가지로이다. “각지를 배회하며 금품을 겁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율이 적용되었다.²⁹⁾ 특히 김춘삼의 경우 원판결에서 “조동규와 같이 총기를 가지고 충북 각 군을 배회하면서 군용금을 칭하며 민가에서 금품을 징발하고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주재소와 민가에 방화하였”기 때문에 15년 유형을 선고받았으나³⁰⁾ 항소심에서 중범이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다.

임영수 등 5명은 5년형을 언도받았다. 임영수는 “이강년의 부하 포군이 되어 총을 가지고 같이 예천군, 문경군 갈평리에서 수비대와 교전하였고, 가축(소) 절도를 수회하였다”는 이유로 내란죄가 적용되었고,³¹⁾ 김규항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각지에서 봉기하고 있는 의병의 일군에 들어가 이강년의 지휘아래 무장한 동도 100여명과 각군을 횡행”

27) 유성준, 『法學通論』, 조선교육회관, 1907, 137쪽.

28) 김항기, 「의병항쟁기 의병판결과 그 성격」, 116~117쪽.

29) 「김춘삼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242), 1910년 4월 19일, 경성공소원

30) 「김춘삼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884), 1910년 3월 18일, 공주지방법판소

31) 「임영수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1155), 1909년 2월 7일, 대구지방법원

하였다는 이유로,³²⁾ 이용업은 “도당 수십 명과 같이 총기를 휴대하고 풍기 토벌대와 교전하였다”는 이유로³³⁾ 내란이 적용되었다. 이용업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³⁴⁾ 항소심에서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원심의 법리 적용이 「형법대전」 195조 내란율이 적용됐기 때문으로 이는 판사의 착오로 인한 건으로 보인다.

남만귀, 박백현, 곽이섭은 3년형을 언도받았다.³⁵⁾ 3년형을 선고받은 의병들 중 내란을 적용받은 경우는 없었고 모두 징역형이었다. 남만귀는 “총기를 휴대하고 문경, 괴산군 내를 횡행하다 일본 수비대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박백현은 “폭도의 수괴 이강년 부하 총, 칼을 가지고 경북, 강원, 충북을 횡행하였고 칠성암에서 일본 수비대에 저항 폭동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곽이섭은 “10여명의 부하들과 진천, 음성일대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3년형을 선고받았다.

2년형을 선고받은 의병들은 2명으로 “포군과 담군으로 대오를 짓고 무리를 지어 총기를 가지고 영월군각소를 배회하고 양민을 납치”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김현습과 “내란죄 수괴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음식징발에 응하는 등 동인의 내란행위를 방조한” 홍종선의 경우였다.³⁶⁾ 엄원선과 김병우는 1년형이었고 폭동과 보안법 관련이었다. 허준여, 이용운, 황경문, 류진옥, 장인식은 폭동죄로 태형 100도를 선고받았다.³⁷⁾ 폭동죄로 태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특징은 의병활동 중 집에 귀가하거나 도망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2) 「김규향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324), 1909년 2월 16일, 경성지방법판소

33) 「이용업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238), 1909년 10월 1일, 경성공소원

34) 「이용업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882), 1909년 9월 11일, 공주지방법판소9이 판결은 판사의 착오로 보인다 「형법대전 195조에 의하면 사형이나 유배형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5) 「남만귀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1157), 1909년 5월 11일, 대구지방법원 ; 「박백현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693), 1909년 6월 15일, 대구공소원.

36) 「김현습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940), 1908년 9월 2일, 공주지방법판소 ; 「홍종선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324), 1909년 2월 4일, 경성지방법판소

37) 「허준여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941), 1908년 9월 2일, 공주구재판소 ; 「이용운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941), 1908년 9월 2일, 공주구재판소 ; 「황경문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940), 1908년 9월 4일, 공주구재판소 ; 「류진옥판결문」, 『형사판결원본』(CJA0000940), 1908년 9월 4일, 공주구재판소

4. 판결문의 내용과 특징

1) 이강년 판결과 의병장들의 대응논리

이강년(李康年)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공포되고 유인석이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1896년 1월에 문경에서 봉기한 이래 지속적인 항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1908년 7월 2일에 제천 금수산의 작성(鵲城)에서 일본군과의 격전을 벌였고 결국 발목에 총알을 맞고 체포되었다. 수원의 일본수비대에 구류되었다가 같은 해 7월 8일에 서울의 일본군 헌병사령부로 압송되었다. 이곳에서 다시 평리원으로 옮겨져 9월 22일에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³⁸⁾

이강년 판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다.

용(隆)2 형검(刑檢) 제20호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북면 죽문동, 유생 이강년(李康年) 51세

위 내란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이강년(李康年)을 교수형에 처한다. 입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는 현 정부의 시정(施政)에 불만을 품고 정부를 뒤엎고 정사를 변경할 것을 기도하여 융희 원년(1907) 음력 7월 이후 호좌창의대장(湖左倡義大將)이라 스스로 칭하고 그 무리 수백 명을 소집하여 내란을 일으켜 융희 2년(1908년) 7월까지 충청, 강원, 경기 각 도를 횡행하며 수십차례 토벌대(討伐隊)와 교전하여 그 목적 수행에 종사하였으나 끝내 7월 2일 충청도 금수산(錦繡山) 부근에서 패전 후 체포된 자이다.

38) 『운강선생의일록(雲岡先生義日錄)』;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정음사, 1975; 윤병석, 『한말의병장열전』, 독립기념관, 1991; 김상기, 『보병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이강년 의진의 활동, 『지역문화연구』 9,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2010.

위 사실은 피고에 대한 한국주재헌병대 경성헌병분대장의 신문조서, 피고의 당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 증거가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그 행위가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단하고, 입수물건은 모두 피고의 소유로서 범죄에 관계된 것이므로, 제118조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스키무라(杉村逸樓)가 본 건에 관여함.

융희 2년 9월 22일

경성공소원 형사부

현재 국가기록원을 『형사판결원본』 등을 비롯한 형사재판 자료에서 이강년의 원심, 항소심 판결문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심에 나타난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단지 이강년에게 「형법대전」 195조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강년은 재판장에서 본인이 의병을 일으킨 본뜻이 5적을 죽이고 인민을 구제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³⁹⁾ 또한 자신에게 교수형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자신에게 교수형이 선고된 이유가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고 백성을 약탈했다는 점인데 자신은 그런일을 한적이 없다며 강변하였다.⁴⁰⁾ 나아가 사형집행 전 종제에게 남긴 유서에서 “포부를 다 펴지 못하고 적들에게 사로잡혀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음을 슬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죽은 뒤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 것 보다는 나라를 회복하고 보호하려다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⁴¹⁾

이강년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도나 금전을 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주요 의병장들도 이강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의병장 허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허위는 항소심인 경성공소원 재판에서 「형법대전」 제195조에

39) 「의병장불복」, 『공립신보』, 1908년 9월 30일

40) 姜致求, 「제천의 의병장 이강년의 위정척사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82, 2020, 146쪽.

41) 「의장유서」,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6일

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진다.⁴²⁾ 이에 허위는 “일찍이 범하지 않은 금전과 양곡 약탈, 인명을 살해한” 혐의와 일본인 판사만으로 이루어진 법정은 부당하다며 상고하였다. 허위의 상고심은 대심원 형사부에서 진행되었다.⁴³⁾

대심원은 원심판결서에 허위가 금전과 양곡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없고, 따라서 이에 의거하여 피고를 처형하기로 한 것이 아니니 본 상고의 이유는 전혀 피고가 오해한 것에서 나온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논지를 만들어 고의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본 상고 논지는 모두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며 첫 번째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심에서 피고를 심판할 당시에 본국 법관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인이었으니, 재판소의 구성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서 심판한 것은 법에 위배되는 점, 즉 일본인 판사만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므로 부당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구성에서 李冕宇라는 조선인 판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허위의 상고를 기각했다.⁴⁴⁾ 또한 일본인판사만으로 재판한다고 하여도 균등하게 법령에 의거하여 한국 판사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고를 심판함에는 무방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융희 원년(1907) 12월 27일 발포한 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의 제2조, 제17조, 제26조에 의하여⁴⁵⁾ 定數의 3인의 판사로 형사부를 조직하고, 또한 융희 원년 칙령 제72호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 번역관의 통역을 거쳐 심문한 후에 합의하여 판결한 것이 역시 기록에 비추어 일목요연하니 재판소의 구성 또는 심리 절차에 위배된 점이 없다고 재

42) 「隆熙 2년 刑控 第12號」, 『刑事判決原本』, 경성공소원, 1908년 9월 28일(CJA0000158).

43) 「隆熙 2년 刑控」 第12號, 『刑事判決原本』, 대심원, 1908년 10월 22일.

44) 李冕宇는 본관은 전주이고 아버지는 진사 李會來이다. 1894년 官立日語學校에 입학 후 1895년 3월 26일 日本으로 유학을 가서(이때 같이 과견된 관비 유학생은 劉文煥, 張燾, 洪在祺, 石鎮衡, 朴晚緒, 申佑善, 張憲植, 俞致衡, 梁大卿 등이 귀국하여 법관양성소와 보성법률전문학교의 교관이 되어 법학을 연구할 수 있는 최초의 진용을 이루었다.) 1896년 7월 25일 日本東京 慶應義塾 普通科 卒業 후 1899년 7월 22일 日本東京法學院大學 法律學全科 卒業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902년 8월 26일 農商工部 臨時博覽會事務所主事 敍判任官六等을 지내고 1904년 6월 18일 漢城裁判所檢事 試補敍奏任官六等을 지냈다. 변호사 명부에 따르면 홍재기 이면우 정영섭 3인이 각각 1, 2, 3호 변호사로 등록되었다.

45) 第2條 區裁判所는 判事가 單獨으로 裁判을 行하고 地方裁判所, 控訴院, 大審院은 定數의 判事로써 組織호 部에서 合議호야 裁判을 行호
第17條 各地方裁判所에 一個 或 數個의 民事部長及刑事部를 眞호 部는 三人의 判事로 組織호야 其一人을 裁判長으로 호

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허위의 상고는 기각하고 교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판검사들이 서로 바뀌어 가면서 의병을 일으킨 연유를 묻자, 허위는 “너희들은 비록 한국에서 났으나 한결같이 교활한 왜적의 走狗이니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나는 大韓國의 당당한 義兵將이다. 너희들과 변론하고자 하지 않으니 다시는 묻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면우라는 한국인 판사가 있다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재판관이 “義兵을 일으키게 한 것은 누구이며 대장은 누구이냐?”고 묻자 “義兵이 일어나게 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요, 대장은 바로 나다” 외치면서 “이토가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의병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의병을 일으킨 것이 이토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며 재판의 부당성과 의병 봉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⁴⁶⁾

전라북도에서 활동한 이석용도 재판에서 자신의 봉기 이유와 의도를 설파했다. 판결문에는 이석용의 11가지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일본 가옥의 방화, 군자금 모금 등이 집중적으로 기술되었다. 이석용은 유명한 의병장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의 구술이 신문자료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⁴⁷⁾ 이석용은 의병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너희 무리 일인을 배척하고자 한일이다”라고 답했다. 살인 방화 혐의에 대하여는 “군율에 의거하여 죄악이 중대한 자는 살해하고 불리한 행동이 있는 자에게는 불을 놓았다”며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항변하였다.⁴⁸⁾ 순사보조원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순사보조원으로 다니는 것을 누차 금지하였음에도 불응하여 그 집에 불을 놓았다”고 답했다.⁴⁹⁾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 타인의 금전을 불법으로 강탈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금전은 대한의 국세라 임금이 잃은 것을 신하가 취하며 아버지가 잃은 것을 아들이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불법이 될 리 없다”고 응수했다.⁵⁰⁾ 강도혐의 적용 부분에서도 “나는 남의 집 내당까지 침입하여 강도행사를 한 자는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채응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결문을 검토하면 채응언은 살인, 강도, 절도, 시신 훼손

46) 「왕산허위선생거의사실대략」, 『독립운동사자료집』 2, 242-245쪽.

47) 『신한민보』, 1914년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5호에 걸쳐 「의장리석용공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연재된다.

48) 『신한민보』, 1914년 5월 14일, 「의장리석용공판」.

49) 『신한민보』, 1914년 5월 21일, 「의장리석용공판」.

50) 『신한민보』, 1914년 5월 28일, 「의장리석용공판」.

손,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채응언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방화, 강도 살인 등의 죄는 증빙이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자신은 강도나 절도범이 아니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지도 않았으며 오직 충국애국의 혈성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대의에 따라 군율에 따라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재산 강탈이나 사람을 故殺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자나 배반자에 대한 처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는 국권을 회복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강도나 살인죄가 아닌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적용하라고 주장하였다.⁵¹⁾

이처럼 이강년을 비롯한 주요 의병장들은 의병항쟁은 강도가 아닌 정치적 사건임을 주장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로 대응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일제가 의병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재판장을 의병항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논파하는 곳으로 만들며 처벌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무력화시키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던 것이고 이 강년의 판결도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불응위율’의 적용과 처벌

김용현·조성윤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에 소장 중인 형사 판결문으로 관리번호 CJA-0000940-0035이다. 공주지방법재판소에서 생산된 문서이고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였다. 담당 재판관은 공주지방법재판소 형사부 판사 大橋織之丞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김용현과 조성윤은 동아개진교육회 회원이었다. 1907년 7월 13일 교육회 회장인 유해석의 위협으로 의병장 이강년에게 군인 8명을 보낸 혐의로 체포되었다. 동아개진교육회는 기본적으로 친일적 성격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의병에 찬성하는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이강년에게 보낼 수 있었다.

동아개진교육회는 공진회 해체 이후 보부상을 통할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전 상무사 간부인 이규항등이 전 참정 조병식(趙秉式)을 추대하여 ‘동아개진교육회’ 명의로 전국의 보부상을 통할코자 한 것이다. 일본은 1905년 11월 한일조약 직후 의병진압에 보부상을

51) 『매일신보』, 1915년 11월 6일, 「綬首臺上의 蔡應彦, 채응언은 사일 오후 두시 사형 집행 태연 자약히 삼십분 동안에 절명됨」.

활용하고자 했다. 이에 통감부는 당시 일진회장 이용구등에게 자위단을 조직하게 하고 보부상들을 이에 편제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개진교육회의 보부상 조직을 이용하고자 했다.

이에 부응하여 교육회 회장 조중응은 일진회와 경쟁적으로 통감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의병 무장력을 활용하고자 했다. 동아개진교육회는 의병, 특히 군대해산 이후 의병에 대해 ‘匪徒’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만약 보부상중 의병에 가담하는 자가 있으면 교육회 차원에서 ‘愚昧한 商民’으로 치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실제 보부상을 통한 의병집업은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육회 회의의 일부는 토벌에 참여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른바 ‘폭도’에 소속되는 경우가 있어 정치적 단결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⁵²⁾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형법대전」 678조를 적용하였다. 이 조문은 불응위율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0節 不應爲律 第678條 應爲치못할 事를 爲한 者는 笞四十이며 事理重한 者는 笞八十에 處함이라” 이 조문에 의해 김용현과 조성윤은 태 80에 처해졌다.

의병에게 병력을 보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처벌강도가 약하게 여겨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형법대전」 第610條 “人口를 買한 者는 笞一百이며 脅勒或譎計로 買한 者는 懲役一年에 處하되 本節諸條의 所爲를 知情하고 買한 者는 各히 賣한 者의 律에 一等을 減하고 牙保는 二等을 減함이라”와 동법 606조 “人家男女를 和誘호야肯諾을 得호고 賣호거나 買或轉賣호야妻妾或子孫을 作호는 者는 懲役二年이며 雇工或娼妓를 作호는 者는 懲役三年에 處호고 被誘호는 者는 各히 一等을 減함이라 但十二歲以下男女에는 第六百四條略人律에 依호야科斷호고 被誘호는 者는 不坐함이라”였다.

「형법대전」 第10節은 不應爲律이다. 不應爲는 『대명률』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不應爲조는 『大明律』, 刑律, 雜犯편에 “무릇, 당연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을 한 자는 태40의 형에 처한다. 율령에 정한 조문이 없지만 사리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사리상 중대한 것을 범하였으면 태80의 형에 처한다.”⁵³⁾고 규정되었다.

52) 조재근, 「대한제국 말기(1904-1910) 裸負商 단체의 동향」, 『북악사학』 5, 1998, 134~135쪽.

53) 凡不應得爲而爲之者 笞四十 謂律令無條 理不可爲者 事理重者 杖八十.(不應爲조에서는 事理의 輕重에 따라 笞40과 杖80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예가 『大明律』의 다른 조문에서도 발견된다. 刑律 詐

이 조항은 「형법대전」 제정 이전에도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독립협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898년 11월 11일 법무대신 한규설은 “...민중을 지휘하여 움직이고 높은 관리를 위협하여 다짐할 것을 들이대서 환란의 싹과 재앙의 기미가 당장 나타나게 된 문제는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같은 달 23일에는 ‘언로를 열고 진보를 이룩하도록 충고한 것과 같은 것은 이미 예견하고 있으니 잘 알고 물러갈 것이다.’라는 폐하의 비답을 삼가 받았으나 다시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금방 곧 받기하여 공동회(共同會)를 개설한 것은 그 사실이 명백합니다. 피고 이상재, 방한덕, 유맹, 정항모, 현제창, 홍정후, 이건호, 변하진, 조한우, 염중모, 한치유, 남궁역, 정교, 김두현, 김귀현, 유학주, 윤하영 등은 『대명률(大明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모든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자’의 율(律)에 비추어 각각 태형(笞刑) 40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며 독립협회 회원 처벌에 불응위율을 사용하고자 했다.⁵⁴⁾ 불응위율은 명확한 처벌사유 없이 ‘해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개괄적인 처벌규정이었다.

이후 1905년 재제된 「형법대전」은 『대명률』에서 존치하고 있는 개괄적 처벌규정인 불응위율을 여전히 차용하고 있다. 不應得爲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현대 형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不應爲조에서는 律令에 조문이 없어도 不應得爲에 해당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행위에 의할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자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 된다. 이는 罪刑法定主義의 현대 형법과 有罪必誅의 전통 형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⁵⁵⁾ 철저한 죄형법정주의가 실현되려면,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전제조건이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관철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요소인 ① 소급효금지, ②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성문법주의, ③ 명확성,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로 책임주의에 따른 범죄성립과 비난가능성의 핵심인 ① 행위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요구, ②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

偽 詐病死傷避事조에서는 관리가 질병을 사칭하여 직무에 회피함이 있으면 笞40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는 杖80으로 처벌하고 있고, 刑律 雜犯 夫匠軍士病給醫藥조에서는 군사가 주둔지에서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관사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면 笞40으로, 죽음에 이르면 장80으로 처벌하고 있다. 모두 事理의 輕重에 따라 笞40과 杖80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54) 『고종실록』, 고종 35년(1898), 11월 10일 기사.

55) 김대홍, 「조선시대 『대명률』 불응위조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49, 2014, 11쪽.

한 위법성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의 필요와 함께 ③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로 형벌의 정도와 범행간의 균형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어야 있도록 적절한 법정형의 형성과 함께 양형의 합리화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형법대전」의 법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형법대전의 입법자는 철저한 책임주의의 원칙이 관철된 죄형법정주의와는 거리가 먼 형법전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⁶⁾

5. 맺음말

이상으로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의병들에 대한 법률의 적용과 형량 및 그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일제는 1909년 11월 ‘사법, 감옥사무에 관한 일본국 칙령’이 공포되면서 한국의 재판, 감옥을 비롯한 모든 사법관련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형식상 ‘합법적’인 일본인 법관을 임용하고 재판을 통해 의병을 탄압해나갔다.

그 결과 의병 항쟁의 의미를 국가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으로 의미를 축소시킴으로써 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상사범 취급을 하면서도 사형의 비중은 12% 이상이었고, 형량이 가장 강한 강도유를 적용하여 내란죄 이상의 형량을 유지하였다.

이강년의진의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의병들의 판결은 1908년부터 시작되었다. 판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죄목은 폭동이였다. 다음으로 내란, 강도, 살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도죄가 중심된 전반적인 의병판결의 경향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요 의병장급 인사들이나 군자금 모금 활동 등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주로 내란죄적용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강년의진은 의병항쟁에서 실질적 지도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형량별로 살펴보면 최고형인 사형을 받은 의병은 4명, 15년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병

56) 불응위율은 지나치게 개괄적인 규정이어서 어떤 행위를 형법상 금하고 허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이를 데가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크레마지는 불응위율 폐지를 제안한바 있다.(허일태, 「형법대전(刑法大典)의 내용상 특징」 -적용범위와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 2008).

은 3명, 10년형을 언도받은 경우는 5명 등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2명이었고 나머지는 10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강년은 의병장으로서 의병항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폭동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강년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자신은 강도나 금전을 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강년의진 참여자들을 법조문에 의하면 원칙상 사형이나 징역 종신이상의 중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합쳐서 약 12%를 상회하는 정도만 이에 해당했고, 나머지는 주로 태형이나 심하면 징역 혹은 유형 10년 이하의 형벌을 받았다.

일제는 형사재판권을 통해 의병을 정치성이 없는 일반범죄화하여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다. 그 결과 의병을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國事犯보다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폭동죄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자료

『형사판결원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대한매일신보』

『신한민보』

유성준, 『법학통론』, 조선교육회관, 1907.

- 단행본 및 논문

강민구, 「제천의 의병장 이강년의 위정척사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82, 2020.

구원희,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김상기, 「『보병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이강년 의진의 활동」, 『지역문화연구』 9,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2010.

김대홍, 「조선시대 『대명률』 불응위조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49, 2014.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정음사, 1975.

문준영, 『법원과 경찰의 역사』, 역사비평사, 2010.

박민영, 「운강 이강년의 생애와 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윤병석, 『한말의병장열전』, 독립기념관, 1991.

이구용, 「운강 이강년의 항일의병활동」, 『강원사학』 7, 1991.

조재근, 「대한제국 말기(1904-1910) 裸負商 단체의 동향」, 『북악사학』 5, 1998.

허일태, 「형법대전(刑法大典)의 내용상 특징 - 적용범위와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 2008.

김항기,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판결양상과 내용」

최보영(용인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대한제국기 일제의 침략에 대항한 대표적 의병인 이강년 의진의 체포자들에게 내려진 판결 양상과 그 의미에 주목한 것이다. 기존 의병 연구가 의진 중심의 활약상과 일제에 가한 피해 정도 및 의진의 피해 규모 등 의병 활동 자체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의병 활동 중 피체된 개개인에게 취해진 근대적 법령 적용을 분석함으로써 의병의 활동에 주목하기 보다는 일본이 의병활동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한국 ‘보호국’ 방침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파해 친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기존 의병연구에서 단순히 ‘의진’으로만 거론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들의 활약상을 직접 거론하고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 내용과 형량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논문으로써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즉 이강년의 의병활동이 이강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름없이 죽어간 수많은 의병들 전체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 논문을 통해 이강년 의진의 활동이 일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토론자로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을 두서없이 제시하고자 한다.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첫째, 본 연구는 의병사 즉 저항사와 법제사를 융합해 일제와 의병의 대결 구도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대체로 의병사가 의병의 활약에 초점이 맞춰져 의병의 창 의 배경과 의병장의 생애 및 영웅담과 의병활동 및 일제에 가한 피해가 강조된 반면 본 연구는 여기에 이들에 대한 일제의 법적 처리를 통해 의병의 활동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의병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발표문에서도 법률 용

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2장의 「형법대전」 제195조가 내란죄라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두면서도 그 용어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란죄’가 정식 「형법대전」에 수록된 용어가 맞는지 궁금하다. 발표문의 9쪽에는 ‘내란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죄’와 ‘율’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같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둘째, 발표자는 제2장에서 체포의병에 대한 적용 범리로 내란죄, 강도죄, 폭동죄에 대해 소개 및 설명을 하며 내란죄는 국사범으로, 나머지 강도죄와 폭동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범죄로 의병의 활동과 의미를 폄훼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포함시킨 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다. 재판소구성법 내용은 일본이 한국의 사법제도를 강탈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 내용을 본 연구에 포함시킨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제3장은 이강년 의진에 참여해 법에 의해 처벌받은 33명의 의병을 시기별, 혐의별, 형량별, 죄명별로 정리한 것이다. 필자가 발표문에서 밝혔듯이 “판결일자는 사건일자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사건일자가 갖는 의미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강년 의진이 워낙 광범위한 지역과 시기에 걸쳐 활동한 것도 있지만 이들의 활동 시기 및 지역과 활약상을 피체자와 하나하나 연결해 분석하면 훨씬 더 역동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후 연구논문으로 발표할 때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 (발표문 6쪽) 발표자는 “의병에게 적용한 혐의를 통해 일제가 의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벌”하고자 했는가가 의병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연구의 결론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정리가 미흡해 보인다. 이강년 의진에 대한 일제의 법적용 사례의 분석 결과 타 의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아니면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넷째, 발표문의 4장 2절에서 ‘불응위율’을 다루고 있다. 근대적 형태의 죄형법정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당시에 일제는 의도적으로 이에 반하는 규정인 ‘불응위율’을 적용해 의병을 탄압했다는 고찰은 흥미롭다. 그런데 ‘불응위율’은 법률 적용을 위한 혐의라는 점에서 이미 3장의 판결양상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제3장에서 필자는 의병장 이강년에게 내란의 ‘혐의’로 교형을 내리는 등 33명에 대한 판결내역을 정리하고 있는데 태80을 맞은 불응위율의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절을 구성해 작성한 의도가 궁금하다. ‘불응위율’은 일제강점기 보안법과 같이 ‘이현령 비현령’의 법률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일제가 의병 탄압을 위해 활용한 법률로 판단된다. 본문에서도 이에 대한 서술은 있지만 정치한 분석과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의 촉박함과 지면의 한계는 있었겠지만 ‘불응위율’이 갖는 의미와 일제가 이강년 의진에 적용한 ‘불응위율’이라는 법리가 갖는 특이점이 무엇인지, 하나의 ‘절’로 구성할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발표자의 첨언을 듣고 싶다.

모두에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이강년 의진에서 활약한 의병 중 피체된 인물에 대해 천착해 일본이 이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악함으로써 의병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연구를 먼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운강기념사업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주제

독립운동사적지의 기억과 기념

발표자 : 김성진(의암류인석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자 : 엄원식(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독립운동사적지의 기억과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암류인석기념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진(의암류인석기념관 학예연구사)

- I. 서론
- II.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운영
- III. 교육프로그램 운영
- IV. 의암류인석기념관 활성화 방안
- V. 결론

I. 서론

오늘날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대중들의 문화 의식과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풍부한 체험을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공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발 맞춰 인물기념관 또한 특정 인물을 추모하고자 유품, 어록 등을 전시하는 일방적 공간에서 정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체험적 공간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인물기념관은 기념관의 한 부류로써 역사적 인물의 관련 자료 수집·연구·보존·전시·교육·추모하는 기관에서 전문적·학술적·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교육·문화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물기념관은 특정 인물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을 바탕으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하여 제공한다. 관람자들은 특정 인물의 역사적 업적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그가 남긴 모든 발자취로부터 그가 속했던 시대상을 습득하게 하며 그의 사상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해석적 접근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그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성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인물기념관은 설립목적과 설립 취지 및 특성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대의 흐름은 교육적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 한 번의 전시 관람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인물의 생애·업적·사상을 연구하고 탐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꾸준한 워크숍과 토론을 진행하며 교육적 요소를 채워나가고 있다.

의암류인석기념관은 단순히 기념적·추모적 성격을 넘어 체험요소를 통해 의암 류인석을 이해시키고 응용하게끔 유도하며 관람자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효과적인 체험 전시 공간은 관람자가 보다 새로운 것을 탐색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설립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념관 설립과정을 살펴봄으로서, 기념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고, 기념관이 나아갈 방향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한다.

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코로나-19 상황안에서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항일의병의 정신의 선양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구성

1.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건립 배경

춘천은 예로부터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의병로서 행동하였다. 19c 서구열강의 침입에는 화서학파를 중심으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고,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위기 속에서 을미의병·을사의병·정미의병 시기에 춘천의 의병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런 저항의 중심에는 의암 류인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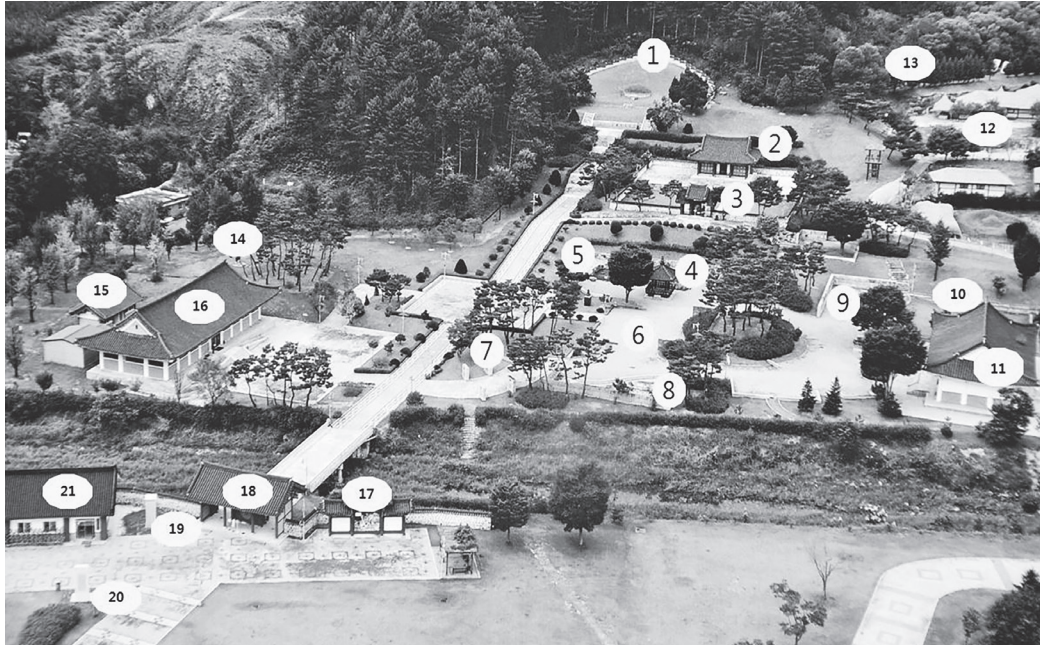
의암 류인석 선생의 본관은 고흥(高興), 자는 여성(汝聖), 호는 의암(毅菴)이다. 1842(헌종 8)년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태어났으며, 화서 이항로(華西 李桓老)의 문하에 들어가 배웠다. 선생은 민족 수난 극복의 지도이념으로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을 실천한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며 강원, 충청, 황해, 평안도 등과 중국 서간도에서 많은 구국인재를 길러낸 교

육자이다. 선생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1896년 2월 영월에서 호좌창의대장(湖左倡義大將)에 올라 제천, 충주를 중심으로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여 친일관료들을 처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친일 관군(官軍)에게 패하여 강원도, 평안도 등지로 이동하며 활동하다가 중국 통화현으로 망명하였다. 그 후 광무(고종)황제가 귀국을 권유하는 친서를 받고 일시 귀국하였다가 1898년 재차 중국으로 망명하여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0년 중국 청나라 의화단의 봉기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구국활동을 하다가 1908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이상설(李相高), 이범윤(李範允) 등과 함께 항일세력을 모아 1910년 6월 13도의군(十三道義軍)을 결성하고 도총재(都總裁)로 추대되었으며, 그 해 8월 국권마저 빼앗기자 민의를 모아 성명회(聲明會)를 결성하고 회장에 추대되어 활동하였다. 그 후에도 러시아 연해주, 중국 서간도 일대에서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1915년 3월 14일 중국 봉천성(현, 遼寧省) 관전현(寬甸縣) 방취구(芳翠溝)에서 향년 74세로 서거하시어 평정산(平頂山)에 안장되었다. 1935년 고향인 춘천시 남면 가정리 현 묘역으로 반장(返葬)되었고, 1962년에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2000년 3월에는 현 묘역이 강원도 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되었고, 2002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경내에 의암 선생의 애국 어록비가 건립되었으며, 2003년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새로이 단장되었다. 의암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중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암류인석기념관이 설립되었다.

2.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개관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설립은 조선 말기의 거유(巨儒)로서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하고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한말(韓末) 의병장 의암 류인석을 기리는 기념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수십 년을 거쳐 계승 발전되어온 그와 춘천 의병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은 없는 상황이었다. 춘천지역의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교육적인 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기억하고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과 의암 류인석의 애국정신과 의병의 항일투쟁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의암류인석기념관이 건립되었다. 2004년에 의암류인석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통해 묘역정비사업과 의열사 재단장, 의암기념관을 준공하였다. 부지면적은 85,995㎡(26,028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의암류인석기념관은 전시 공간인 의암기념관, 외부에는 강원도 기념물 제74호인 춘천의암류인석묘역(春川毅菴柳麟錫墓域)

〈그림 1〉 의암류인석기념관 현황도



〈표 1〉 기념관 현황표

연번	시설물 명칭	연번	시설물 명칭	연번	시설물 명칭
1	의암류인석묘소	8	의암연보조각벽	15	화장실
2	의열사	9	의암어록	16	의암기념관
3	의열문	10	교육광장	17	안내판
4	관일정	11	의병수련관	18	충의문
5	충효지	12	의병체험활동장	19	한국국민의회(성명회)선언문비
6	주제정원	13	국궁장	20	순국100주년기념어록비
7	관일약조각벽	14	백범고유문비	21	관리사무소

과 추모공간인 의열사, 충효지, 의암류인석 선생 관련 기념물, 의병정신과 교육을 진행하는 의병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관이 건립됨으로서 그동안 소홀했던 춘천의 항일 투쟁 정신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다. 또 의병과 독립운동 세분화된 테마를 가지고 전시된 유물과 전시를 바탕으로 의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에게 의병의 항일 투쟁의 역사를 전달하는 사회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념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운영인력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춘천시에서 춘천문화원으로 민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2007년에 1차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제5차 위탁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념관 운영인력은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기념사업팀과 시설관리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현재 팀장 2명, 학예인력 2명, 청소년 지도사 1명, 시설관리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의 고용 형태가 모두 비정규직이하는 점에서 한계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안정적인 콘텐츠 개발 및 발굴하는 학예인력은 물론, 지원 및 운영 인력의 안정적인 배치로 고용 안정을 통해 기념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지역연계 현황

의암류인석기념관은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연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과 강원대학교 사학과, 역사교육과와 MOU를 체결하여, 독립운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의암기념관 전시 현황

1) 상설전시

의암기념관의 상설전시는 개관 초기의 상설전시와 2015년 의암기념관 전체 리모델링을 통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상설전시를 구성하였다. 주로 문서와 서책 등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상설전시는 의암 류인석의 인물 중심의 상설전시 형태로 전시하여 미시적 관점으로 역사를 알려주는 방식의 전시 형태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적 인물의 가치를 전승하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수집·연구·보존·교육·추모하는 기관을 넘어 전문적·학술적·문화적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였다. 전시 주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중앙홀은 의암기념관의 홍보에부터 시작하여,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국내항일 운동의 전개, 국외항일운동의 전개, 유물 전시, 기획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는 현재 의암기념관 전시 구성이다.

〈표 2〉 의암기념관 전시 구성

구성	내용
중앙 홀	-기념관 홍보영상 -의병전도 -기념촬영공간
1.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병인양요에서 강화도 조약 -의병과 의병장 -화서학파의 활동 -의암류인석선생의 상소문
2. 국내 항일 운동의 전개	-을미사변에서 아관파천 -국내 의병관련 유물
3. 국외 항일운동의 전개	-경술국치에서 근대 -13도 창의군 관련 유물 -의암 류인석 관련 서적
유물 전시	-의암 류인석 관련 유물
기획전시	-기획전시

의암류인석기념관은 2018년 3월 국립박물관으로 등록을 진행하였다. 기념관은 의병의 역사 자료 수집·조사·전시와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호국보훈 가치 실현의 중심기관으로서 자료의 체계적 보존·발굴·수집을 통한 전시 및 연구 등에 유물을 활용하고 있다. 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총 318점이다. 추가로 자료를 구입할 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유물 기증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물을 소장 하였던 후손들은 이미 제천 의병전시관과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기증·기탁하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기념관에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관에서는 자료를 복제하거나, 새로이 자료를 제작하여 유물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의암류인석기념관 상설전시는 위의 표와 같이 구성된다. 중앙홀에는 의암류인석 기념관의 홍보영상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영상 정보를 통하여 기념관 홍보와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춘천의병전도를 제작 및 전시하여 의암 선생 뿐만 아니라 춘천의 의병항쟁의 역사를 과거 지도 위에 그려냄으로써, 지역의 의병항쟁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전시에서는 병인양요에서 강화도 조약이후의 사건을 패널로서 소개하고, 화서학파의 위정척사운동과 의암 선생 상소문을 통해서 의병활동의 정신을 전시하고 있다.

국내 항일 운동의 전개 전시에서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통해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의병의 애국정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전반적인 의병항쟁 과정과 그 속에 참여한 일반 민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투를 전시하고 있다.

국의 항일운동의 전개에서는 경술국치 이후 국내 의병활동이 불가능해지자 해외로 의병활동 기지를 개척하고, 13도의군을 조직과 성명회 활동을 중심으로 전시 패널을 구성하였고, 운현맹질(雲峴盟質), 관일약(貫日約), 의암집등 유물전시를 통하여 당시 국외 의병활동의 어려움과 의병조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정신을 소개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유물 전시에서는 당시 의병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하였고, 당시 춘천 가정리에서 의병훈련을 하던 훈련장 터에서 발견된 갈돌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의 전시는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수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관의 주요 전시 형태도 지역성을 담아내게 되며, 의암 선생의 애국정신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념관은 특정 사건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주요 주제가 전시의 핵심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에 의암류인석기념관은 의암 류인석의 항일투쟁 정신 이외에 교과서에 소개되어있는 의병투쟁의 역사와 관련하여 패널을 구성하고, 춘천의 항일투쟁의 과정을 전시실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개관 당시만 하더라도 기념관에서 확보하기 있는 유물은 춘천시와 춘천문화원 소장유물 그리고 기증유물 일부가 전부였기에 상설전시에 전시되어있는 유물들은 많지 않다. 그런 약점들을 상쇄하고자 기념관의 상설전시에 많은 복제유물과 영상물, 패널로 구성되어있다. 향후 기념관에서 자료구입과 기증운동을 통해 유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쇼케이스를 활용하여 상설전시에 추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상설전시는 유물 및 복제 유물, 패널 위주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전달 중심의 전시로 기획되어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패널들은 관람객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기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상설전시관 모두 전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으로 일관되게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의암 선생의 항일투쟁 정신을 기억하는 의미로 마무리되는 상설전시이기에 다른 기념관에서 추구하는 참여적인 체험공간을 전시실 내에 구성하기

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어두운 전시 구성은 지역민들이 항일 의병의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전시 공간에서 춘천의 애국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기획전시

의암류인석기념관에서 상설전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기획전을 구성하고 전시하였다.

〈표 3〉 기획전시 현황

구성	내용
의암 류인석 선생 기록화 전	- 의암 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화로 제작
춘천의병 초상화 전	- 춘천 출신 의병의 초상화 제작 - 춘천의병 후손에게 초상화 기증
춘천 의병 기획전	- 춘천의병을 소개하고 관련 사진을 전시

위의 표와 같이 의암류인석 선생 기록화 전, 춘천의병 초상화 전, 춘천 의병 기획전의 기획 전시를 통해 의암 선생의 중심의 전시가 아닌 춘천 의병의 역사를 춘천 시민과 관람객에 소개하여 지역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였다. 의암 류인석 선생 기록화 전은 의암의 일대기 중 대표적인 사전을 중심으로 화서학파의 상소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10개의 장면을 선정하여 의암 선생의 활동을 기록화로 제작하였다. 기록화를 통해 누구나 그림을 통해 의암선생의 활동과 업적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도로 제작하였다. 단순히 기획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소개하고, 의암 선생의 항일의병 활동을 교육하는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춘천의병 초상화 전은 3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전시를 진행하였다. 춘천 출신 의병들을 선정하고,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초상화를 제작하고, 후손들에게 기증을 통해서 춘천의 항일투쟁 역사를 기억하고, 선양하고자 기획전을 전시했다. 춘천출신 의병 30명을 선정하고, 초상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20분은 남아있는 자료와 후손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고, 나머지 10분의 춘천 의병 사진자료와 후손이 생존해있지 않아 10분은 공훈자료로 패널을 제작하였다. 기획전시를 통해 의암 선생 뿐만 아니라 다른 춘천의 알려지지 않은 의병들의 초상화를 제작하

여 춘천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의병의 역사를 제공했다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춘천 의병 기획전은 춘천의 의병활동을 발굴하고, 전시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애향심과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발굴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기획전은 의암 선생에 초점을 맞춰 당시의 의병활동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에는 좀더 다양한 의병의 역사와 나아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전시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와 공존이라는 주제와 함께 미래 세대들이 지향해야 하는 애국정신 계승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춘천의 항일투쟁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주제를 가지고 기획전을 진행하고자 한다.

3) 박물관 관람객 현황

〈표 3〉 기획전시 현황

연도	관람객(명)	증감	교육생(명)	증감	비고
2015	25,765	▲1%	4,566	▲1%	메르스 사태
2016	30,567	▲18.6%	5,167	▲13%	
2017	31,335	▲2.5%	5,671	▲9.75%	
2018	31,750	▲1.3%	6,340	▲11.8%	
2019	32,600	▲2.7%	6,571	▲3.64%	

의암류인석기념관은 위 표를 기준으로 매년 30,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관일로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 관람인원은 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은 매년 6,000여명을 배출하였다. 매년 관람객과 교육생 증가한 이유는 춘천교육지청과 협약을 통해 춘천 관내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꾸준히 관람객과 교육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람객과 교육생 수가 크게 줄었다.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방문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Ⅲ. 교육프로그램 운영

1.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전통을 지키려는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정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힘으로 작용해 왔으며 외부세력의 침략 속에서는 저항과 투쟁을 통해 선양되어 왔다. 따라서 민족정기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시기에 보다 선명하게 들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정기 선양교육에 있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념관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당일 프로그램으로 강의, 만들기, 체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감각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당일형 프로그램은 예약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4월~10월에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정기의 중요성과 민족정기 선양의 필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민족이 지향할 바를 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념관의 민족정기 교육프로그램이 주는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살아왔던 선열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고 느끼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들이 원래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선열들의 수많은 피와 땀이 서려있다는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교육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억압적인 교실을 벗어난다는 느낌으로 자유로운 행동 관찰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환영 받는 학습방법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습방법을 위한 좋은 체험학습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효과적인 역사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시설 현황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교육시설로는 의병수련관의 강당과 의병체험장의 교육활동실이 있다. 의병수련관은 100명 내외의 인원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의병수련관은 교육문화시설로 지난 2011년에 준공되었다. 의암 류인석 선생이 태어난 가정리에 의병

역사를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의병정신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되었다. 지상1층 연면적 228㎡로 조성되었다. 의병체험장 교육활동실은 기존의 생활관을 리모델링 하여 체험프로그램 진행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곳에서는 의병수첩 만들기, 심의 만들기, 의병신포 만들기등 의병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간이다.

3. 의암류인석독립운동교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의암 류인석 선생의 항일 의병투쟁과 관련한 역사 교과와 연계하여 문화 예술 체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운영과정은 4월부터 10월까지 초 중 고등학생의 체험 예약을 통하여 운영된다. 교과 과정에 맞는 독립운동역사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항일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지역사를 알리고 애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시간으로 운영을 한다. 교육내용은 독립운동사 강의, 의병수첩만들기, 사당배례, 국궁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강의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병의 역사적 사회적 특징을 탐구하며 의병의 항일투쟁 정신을 학습한다. 또한, 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당시 의병의 생각과 활동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방법
의병 류인석 독립운동 교실	의병수첩만들기	전통 제본인 오침제본을 체험하고, 의병 및 독립운동 기념일에 대해 확인	체험
	의병무기체험	의병무기 중 하나인 국궁에 대해 알고, 의병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체험	체험
	의병(독립운동사) 특강	초등학교 사회교과와 연계하여 의암 류인석의 의병활동과 항일 독립운동사 강의를 듣고 지역과 국가 정체성을 이해	강의
	사당배례	우리지역 독립운동가 의암 류인석의 나라사랑정신을 이해	체험

4. 토요일의병놀이마당

토요일의병놀이마당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26명 내외의 가족이 참가하여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의병난타와 국궁체험,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장점은 가족 단위로 동일한 경험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증진시킬수 있다.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공통의 체험을 통해서 각자의 느낌과 감성에 맞닿은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건강한 관계의 밑거름이 된다.

구 분	시 간	내 용	진행 방법
오전 1부 국궁 교육	10:30 ~ 11:30 (60)	- 대체 프로그램 : 의병수첩·의병신표만들기 - 국궁 이론 및 실습	체험
오후 2부 의병난타 국궁 교육	14:00 ~ 15:00 (60)	- 의병난타 안전 교육 - 의병가, 춘천아리랑 부르기, 난타 실습	체험
	15:00 ~ 16:00 (60)	- 대체 프로그램 : 의병수첩·의병신표만들기 - 국궁 이론 및 실습	체험

5. 청렴교육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암 류인석 선생의 항일투쟁 정신과 청렴정신을 융합하여 공무원으로서 역량 강화와, 연수를 통하여 청렴정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6.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

박물관은 지역사회에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또한 박물관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박물관이 문화예술교육장소로 인식됨에 따라 박물관을 찾는 중요한 이유로서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시의 형태를 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함의를 담고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박물관에서는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나 자연재를 통하여 인간의 문화와 역사, 자연의 생태와 역사에 대한 안목을 확대·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적극적인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확대·심화는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것은 다시 지역 수준과 국가 수준에서 주민이나 국민들이 처해 있는 인간적, 자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박물관 교육 자체가 발전할 수 있으며, 더불어 박물관도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박물관이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고, 평생 교육의 배움터가 됨으로써 박물관은 학교와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IV. 의암류인석기념관 활성화 방안

1. 재난 대비 중장기 발전 방향

2021년은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 재난으로 박물관 미술관들이 종래의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특정 박물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 재난 수준의 상황으로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겪는 시련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이에 따른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금년 상반기를 보냈다. 각급학교의 교육현장도 사이버강좌,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강좌운영이 일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의암류인석 기념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있다. 기존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신청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박물관의 모든 과정이 관

람객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학습이 일어날 수 있듯이 온라인 박물관에서도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모든 것에서 방문자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즉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관람객이 의암류인석기념관을 방문했던 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다고 해도 일반시민 강좌의 상설 온라인 강좌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교육프로그램 담당자가 해당 강좌의 강사와 온라인 강좌운영의 매개역할을 하여 사이버강좌를 운영하든지, 강의 녹화영상을 업그레이드하든지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학생 및 가족 대상 체험프로그램의 온라인 운영,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등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2. 홍보

의암류인석기념관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기존의 보도자료 발송과 언론매체의 보도, 리플렛, 강연 등을 통한 홍보 방식은 한계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의암류인석기념관은 먼저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대응 가능한 홈페이지를 2020년에 구축하였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설치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예약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블로그를 통하여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춘천시민 뿐만아니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서 교육 예약이 들어오고 있다. 호국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념관에서 의암 선생의 호국정신을 알리기 위해선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기념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온라인 홍보를 활용하고 있다.

3.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의암류인석기념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은 축소 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체험 키트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동영상 업로드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램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이 들어오면 학교별로 교구재를 전달하고, 온라인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달 형식의 교육이기에 강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불가능하기에 교육 기관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있다. 나아가 기념관 역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해야 한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념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에 각 연령별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교육을 위한 시설물들이 기념관에 구축되어야 하며 연령별 교육에 필요한 교구재들도 제작해야 한다.

4. 온라인 해설 운영

의암류인석기념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향후 온라인 교육과 함께 온라인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자체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면, 관람객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다. 영상의 길이가 길면 지루할 수 있기에 주제별 전시해설을 기획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고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된다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호국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인력 부분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경우 사업이 다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비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고, 특히,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로 계약되어 있어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예사 두 명이 사업과 행정을 맡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외부 강사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의 전문가의 고용안정에 기여가 필요하다.

6. 지역 역사와 연계

지속 가능한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의병 콘텐츠와 춘천 지역 내 역사와 유적과 연계하는 정책사업이 필요한데 이

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단체와 MOU 체결을 통한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과 소관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춘천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류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주제를 기획하여 전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춘천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다. 박물관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의암류인석기념관은 춘천의 의병장인 의암 선생을 선양하고, 항일투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기념관은 한말 병인양요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 안에서 화서학파로서의 의암선생과 위정척사사상을 중심으로 의병투쟁을 하는 역사를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병투쟁과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의병의 역사를 배우며 스스로 애국정신과 애郷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암류인석기념관의 운영과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 보았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기념관이 나아가야 할 비다면 전시와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호국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념관에서 의암 선생의 호국정신을 알리기 위해 선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기념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온라인 홍보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비대면 속에서도 관람객들이 기념관을 접하도록 한다. 의병투쟁과 독립운동과 관련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넷째, 기념관과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기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시행한다. 기념관의 프로그램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여 풍부한 콘텐츠 제작과 전시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념관에 더 많은 유물들이 확충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들이 구축된다면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이며, 지역의 대표적인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참고 문헌

논문

김명식, 「전쟁기념관의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17, 2016.

박규성, 김선희, 「현충시설 기념관의 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보훈논총』 16, 한국보훈학회, 2017.

채혜선, 『온라인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위한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의암류인석기념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독립운동사적지의 기억과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엄원식(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의암류인석기념관(이하 의암기념관) 김성진 학예사의 발표문은 기념관을 운영하는 실무자로서 상세한 설명과 본문에 소개된 시설의 곳곳에서 그간 고민의 흔적을 발견했고 체험관련 부분도 활발하게 잘 진행하는 것 같아 보기에 좋았다. 4장의 활성화 방안에서는 재난대비 중장기 발전방안 부분에서 온라인 운영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부분은 기념관 운영의 적극대응의 좋은 사례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암기념관의 근무인력은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팀장과 연구사, 시설기사 등 모두 8명 정도이나 주요 업무는 연구사 2명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조속한 기간 내에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9년 공립박물관의 등록이나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등록 등은 운영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발표문을 토대로 두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개진에 앞서 독립운동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립운동사적지는 크게 보아 현충시설에 해당된다. 현충시설이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하는데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로 구분된다. 독립운동시설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확인이 된 독립운동시설은 모두 963곳이다.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북 대구	경남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계
83 (8.6%)	97 (10.1%)	50 (5.2%)	50 (5.2%)	87 (9.0%)	188 (19.5%)	150 (15.6%)	105 (10.1%)	138 (14.3%)	11 (1.1%)	963

독립운동의 성지답게 경북과 대구지역이 약20%로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며 이중 경북에만 162곳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탐,비석	조형물	공원장소	기념관	사당	동상	생가	계
568 (58.9%)	11 (1.1%)	128 (1.3%)	69 (7.2%)	45 (4.7%)	95 (9.9%)	47 (4.9%)	963

독립운동시설은 탐과 비석 등 석물이 가장 많고 기념을 할 수 있는 공원, 그리고 개인의 동상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할 부분이 기념관 부분이다. 여기에 69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을 포함하면 이 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본다.

기념관의 성격을 토대로 분류를 해 보면, 의병관련, 3.1운동관련, 한말구국, 학생운동, 문화, 의열투쟁, 애국계몽, 민족주의 운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병관련으로는 소충사(임실), 왕산허위선생기념관(구미), 운강이강년기념관(문경), 의암기념관(춘천), 일광정시해기념관(고창), 자양영당(제천), 전해선기념관(장수), 청송항일의병기념관공원(청송) 등 모두 8곳이 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곳은 강화3.1운동기념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대전3.1의거기념관, 밀양독립운동기념관, 백당기념관(곡성), 안성3.1운동기념관, 애국지사박준승기념관(정읍), 오방최홍룡기념관(정읍), 유관순열사기념관(천안),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수원) 등 모두 11곳이다.

한말구국 관련은 고하송진우선생기념관(담양), 광주백범기념관(광주), 수당이남규선생고택맞기념관(예산), 한용운선생기념관(인제) 등 4곳이다.

학생운동 관련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광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나주) 2곳이다.

의열투쟁 관련으로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서울), 박열의사기념관(문경), 백정기의사기념관(정읍),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 의열기념관(밀양), 충의사(예산) 등 모두 6곳이다.

애국계몽 관련은 가람문학관(익산), 덕산학교기념관(청주), 도산안창호선생기념관(강남), 조소앙선생기념관(양주), 한서남국역기념관(홍천), 함석헌기념관(도봉구), 홍암나철기념관(보성) 등 모두 7곳이다.

민족주의운동 관련은 국채보상운동기념관(대구),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양평), 백산기념관(부산), 서재필기념공원(보성), 의암손병희선생유허지(청주) 등 모두 6곳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관련은 건재정인승선생기념관(장수),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영암), 외솔기념관(서울), 운동주문학관(서울), 이육사문학관(안동), 최용신기념관(안산), 필경사(당진) 등 7곳이다.

대체적으로 기념관의 성격별로 비슷한 수량을 보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2000년 이후에 각 지역별로 꾸준하게 건립되고 있다. 의암기념관은 건립시기가 제천의 자양영당, 문경의 운강이강년기념관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안다. 현재 문경의 운강이강년기념관은 문경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해 춘천의 의암기념관은 다른 기념관과는 조금 다르게 춘천문화원에서 민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된 배경과 전시관 자체적으로는 직원이 몇 명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인력은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약 천여 곳 있는데 관람객이 연간 5만명 이하가 60~70%에 달하는 줄 안다. 미술관은 박물관에 비해 더더욱 관람객이 적은 편이다. 하물며 기념관은 연간 5만명을 넘기기가 어렵다. 의암기념관도 2019년 32,600명에 머무르던데 관람객 숫자 만으로만 보자면 기념관 규모와 인력 등 운영대비 관람객 숫자만으로 보자면 하루에 90명 정도 찾는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념관 건립 또는 기념물 조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고민이 없이 건물만 짓는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문제이다.

—
2부 발표토론문
—

제5주제

이강년의진에서 활약한 인물의
1910년대 이후 항일투쟁

제6주제

운강 이강년 의병장 자료 현황과 과제

제7주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말 의병운동 서술 현황과 과제

제8주제

문경의병과 아리랑



제5주제

이강년의진에서 활약한 인물의 1910년대 이후 항일투쟁

발표자 : 이성우(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토론자 : 강윤정(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李康季義陣 참여자의 1910년 이후의 항일투쟁

이성우(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 머리말
2. 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 조직
3. 풍기광복단·광복회 참여와 조선독립후원의용단 조직
4. 맺음말

1. 머리말

한말의병은 1894년 일제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甲午變亂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10년 한일강제병탄을 전후한 시기까지 전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경북지역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安東義兵을 비롯해 李康季義陣·申丕石義陣·山南義陣 등이 활동한 지역이다. 봉기지역도 안동·예안·예천·봉화·영주·의성·청송·영양·영해·영덕·영천·경주·포항·김천·선산 등 경북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봉기했다.¹⁾ 이처럼 경북지역은 한말 의병전쟁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말 국권회복운동 뿐만 아니라 1910년대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성격은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독립운동 방략으로 제시된 獨立戰爭論으로 알 수 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 식민통치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한말 국권회복운동

1) *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본고는 이성우 논문(「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이후의 활동」, 『국학연구』37,국학진흥원, 2018; 「1910년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민단조합」, 『한국근현대사연구』8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경북지역 의병전쟁 연구 성과는 김희곤 논문(「경북지역 의병연구의 성과와 과제」, 『경북유림과 독립운동』, 경인문화사, 2015) 참조.

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권회복운동은 국권회복이라는 목적은 같았으나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방법과 이념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국망에 직면하면서 계몽운동의 실력양성이나 의병전쟁의 무력투쟁만으로는 식민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독립전쟁론으로 귀결되었다. 독립전쟁론은 국외에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이룬다는 방향이었다.²⁾ 따라서 한일강제병탄이 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비밀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국내는 일제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통치로 독립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말 국권회복운동을 계승해 비밀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이들 비밀단체들의 활동은 1919년 3.1운동으로 민족역량을 결집시키는 架橋역할을 담당했다. 1910년대 국내 비밀단체들의 목적은 독립전쟁을 실현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국외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1910년대 국내 비밀단체는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로 나뉘어 조직되었으며 의병계열은 復辟主義, 계몽운동계열은 共和主義 이념의 단체로 조직되었다. 독립이라는 목적은 같았으나 조직주체와 이념상으로는 별개의 단체들이 조직된 것이다.

그러나 의병계열의 독립운동단체는 계몽운동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³⁾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한말 의병전쟁 과정에서 큰 희생을 치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병계열은 獨立義軍府·豐基光復團·民團組合 정도의 단체만이 조직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북벽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단체는 경북지역이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풍기광복단은 경북 풍기, 민단조합은 경북 문경에서 조직되었으며, 독립의군부는 서울에서 조직되었으나 경북지역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이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은 이강녕의진 출신이었다. 독립의군부 경북지역 조직은 崔旭永, 민단조합은 李

2) 윤병석, 「1910年代의 韓國獨立運動試論」, 『사학연구』 27, 한국사학회, 1977, 69~72쪽.

3)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단체에 대해서는 권대웅(『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과 박걸순(「1910년대 비밀결사의 투쟁방략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논문 참조.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단체는 다음과 같다. <의병계열> 독립의군부·민단조합·풍기광복단·선명당·이증연의 비밀결사. <계몽운동계열> 대동청년단·달성친목회·조선국권회복단·조선국민회·천도교계열의 비밀결사·배달모임·흰얼모·송죽회·기성불단·조선산직장려회·단천자립단. <의병전쟁 계몽운동 계열 연합> 광복회.

東下가 조직했는데, 이들은 이강년의진의 군사장과 참모였다. 따라서 독립의군부 경북지역 조직과 민단조합은 이강년의진이 중심이었다. 이강년 의진 참여자들은 1913년 1월에 조직되는 풍기광복단에도 참여했으며 1915년 7월(음)에 조직되는 광복회에도 참여했다. 1919년 3.1운동 후에는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강년의진 참여자들은 1910년 한일강제 병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강년의진 참여자의 1910년대 이후 활동은 의병참여자들의 1910년대 독립운동과 조선독립후원의용단 연구에서 일부 진행된 바 있다.⁴⁾ 그러나 이들 연구는 경부지역 의병참여자들의 1910년대 활동과 의용단 활동을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강년의진 참여자들의 1910년 한일강제 병탄 후 활동을 국내독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2. 獨立義軍府와 民團組合 조직

1) 독립의군부 조직과 거병추진

한말 후기의병은 1909년 10월 이후에는 침체단계에 접어들었다. 일제에 의해 대부분의 의병장이 체포되었고, 일제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병들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소규모 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에도 채응언·강기동·김정환·이진룡·한정만 등이 황해도·평안도·강원도

4) 권대용, 「한말 일제강점 초기 의병계열의 민족운동」, 『한말경북지역 의병사연구』(안동독립운동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2009.10.07.)); 이성우,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이후의 활동」, 『국학연구』37, 국학진흥원, 2018; 이성우, 「1910년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민단조합」, 『한국근현대사연구』8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안동사학』8, 안동사학회, 2001.

5) 본고는 이강년 의진 출신들의 활동을 국내 독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이강년 의진 출신들은 1910년 한일강제병탄 대부분이 국내독립운동단체에 참여했고, 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강년 의진 출신의 김택진은 자정순국했으며, 姜炳旭은 1915년 소백산 일대, 金命立은 1910년 경북 봉화일대, 李圭洪은 1913년 만주로 망명한 이상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

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이어갔다.⁶⁾ 이처럼 한말 의병은 1894년 갑오변란 이후부터 1915년 蔡應彦 의병장이 체포될때까지 20여년간 항일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었다. 한말 의병들은 의병항쟁 이후 국외망명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이어가거나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지속했다. 이강년 의진 참여자들은 대체로 후자에 해당한다.

이강년 의진 참여자들은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의병봉기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1910년 작성된 「通文」이 주목된다.⁷⁾ 「통문」의 작성일자는「庚戌年 七月」이며 내용상으로 보면 국망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통문」은 순종이 거병을 독려하는 내용이다.「卿을 宣諭使로 임명하니 해산군인 등 忠義가 있는 백성들로 의병을 모집하라」는 것이다. 통문의 말미에는「庚戌七月 起義日 循環用之」라는 내용과 同志人 3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通文」에 수록된 동지인은 姜來永·姜炳修·姜炳旭·姜炳裕·金斗活·金喆相·盧炳大·柳時淵·李康夏·李兢宰·李圭海·李起夏·李明宰·李相協·李成宰·李承宰·李永宰·李容曄·李殷和·李應洙·李鍾國·李芝元·徐相業·安在極·張性德·張翰文·丁喜燮·周九相·韓良履·許達이다. 통문에는 총 31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金斗活이 두 번 수록되어 있어 30명이 된다.⁸⁾

6)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87~288쪽.

7) 「通文」은 「召募檄文」과 함께 이강년 후손이 소장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는 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8) 「통문」 수록자 중 姜炳修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姜炳修는 경북 문경출신으로 이강년의진에서 활동한 공훈이 인정되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건국포장, 2021년). 姜炳修의 이강년의진 참여기록은 「雲崗先生倡義錄」에 나와 있다. 그런데 『운강선생창의록』에는 이강년의진의 전개과정에서는 從事 姜秉秀·姜炳秀, 「중사부」에서는 姜炳秀로 기록되어 있다. 「중사부」의 기록을 보면 “姜炳秀號信菴居聞慶且戰且退暫不離側本晉州(강병수 호는 信庵이며, 聞慶에서 살았다. 한 편 싸우며 한 편으로 퇴각하는 중에도 잠시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본은 晉州이다)”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晉州姜氏司直公派譜에는 姜炳修(乙酉(1885년)生)와 姜炳雲(壬午(1882년)生, 號信菴)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병운은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강년 의진에 참여한 姜炳秀의 號 信菴은 오기로 보인다. 문제는 경북 상주출신으로 姜順必도 이강년의진과 풍기광복단, 광복회의 공훈이 인정되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독립장, 1966년). 姜順必은 광복회 활동 중 체포되어 1921년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7, 1990, 329쪽). 그런데 姜順必은 광복회 관련 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1918년 공주지방법원에서 기소되지 않았으며, 면소판정을 받고 풀려났다(「예심종결결정서」(공주지방법원, 1918년 10월 19일). 그런데 姜順必은 姜秉秀·姜秉洙·姜順弼·姜炳洙·姜秉洙 등의 異名을 사용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7, 329쪽). 경북 문경 출신의 姜炳修와 한자만 다른 이명을 사용한 것이다. 풍기광복단과 광복회에 참여한 강순필과 관련된 기록에서도 <표>와 같이 이름(한자)이 많은 차이가 있다. 晉州姜氏司直公派譜에 기록된 姜炳修라는 이름은 독립운동 관련 기록에는 찾아지지 않는다. 「운강선생창의록」의 姜秉秀라는 이름은 민단조합 관련 기록에서 찾아진다. 광복회 관련기록(일제강점기)에서는 姜順

「통문」은 순종의 밀지를 받고 작성했는지 순종의 이름으로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모두 동의를 하고 직접 수락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盧炳大(이명:盧炳植·盧炳稷)는 1907년 의병을 모집해 충북 보은과 청주, 경북 상주일대에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1908년 9월 1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유배 10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1910년 한일강제병탄을 계기로 풀려났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1910년 7월(음) 동지인 30명을 중심으로 의병봉기가 추진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동지인 30명 중 강내영·강병수·강병욱·강병유·김철상·이금재·이규해·이상협·이성재·이승재·이지원·서상업·안재극·허달은 이강년의진 출신이었고¹⁰⁾ 이승재·이극재·이명재는 이강년의 아들이다.¹¹⁾ 통문의 작성과 거병추진이 이강년의진 참여자들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李起夏와 李康夏가 포함되어 있는 것

지만 찾아진다. 이를 통해 보면 광복회 활동 당시에는 姜順必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주지방법원의 예심종결결정서와 형사사건부의 姜順弼과 姜順必은 동일인으로 독립운동과는 관계없는 同名異人이다. 강순필은 광복회에서 장승원 처단에 참여하는 등 의열투쟁을 벌였다. 일제는 장승원 처단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장승원 처단에 직접 참여한 강순필을 체포한 상황에서 면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강순필은 독립의군부 경북지역 조직과 풍기광복단(姜炳洙) 등 복벽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단체에서 이강년의진 출신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했으며 활동지역도 경북 북부 지역이었다. 「운강선생창의록」에 기록된 姜秉秀와 姜炳秀는 동일인이며,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이강년의진 참여자들과 의병봉기를 추진하며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姜秉秀와 姜炳秀는 姜順必(독립장, 1996년)으로 여겨진다.

<강병수(강순필) 성명관련 기록>

성명	전거	비고
姜秉秀	운강선생창의일록	
姜炳秀	운강선생창의일록	
姜順弼	예심종결결정서(1918.10.19)	면소, 경북 봉화 재소면
姜順弼	형사사건부(1918.08.29)	면소, 강원 고성 상동면
姜順必	형사사건부(1918.08.19)	공주검찰이송
姜秉秀	「고제5044호」(1918.03.11)	민단조합
姜順必	광복회 판결문(1919.09.22, 1920.03.10, 1920.09.11, 1920.11.04.)	
姜順必	고등경찰요사(1934)	경북 상주 함창
姜炳洙	광복단약사(1945)	풍기광복단, 사형
姜秉洙	광복회부활취지 및 연혁(1945)	

9) 「盧炳大 판결문」(공주지방재판소, 1908년 09월 14일); 송상도, 『기려수필』, 131쪽.

10) 『雲崗先生倡義日錄』의 將任錄·參謀部·從事部·坐從事部 참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295~307쪽).

11) 『全州李氏孝寧大君靖孝公派世譜』 券一之二, 淸權祠, 2009, 30~31쪽.

도 주목된다. 이기하는 金山義陣에 참여했으며 이강하는 김산의병장 李起燦의 아들이기 때문이다.¹²⁾ 이를 통해 보면 이강년의진 출신들은 1910년 한일강제병탄을 전후한 시기에 도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병봉기를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실제로 거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盧炳大는 1911년 李東下와 함께 경북 풍기에서 자금을 모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李東下·韓翊源과 함께 경북 상주 공격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으며, 10월에는 李東下·具東植·孫日鉉·姜奉周·金正五 등과 경북 선산에서 자금모집을 추진했다.¹³⁾ 1912년 11월(음)에는 姜奉周·孫了得·李東下·許燦 등과 함께 경북 안동의 풍남에서 자금을 모집했다.¹⁴⁾ 당시 활동은 자금모집이었다. 그러나 노병대가 한말 의병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병봉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노병대의 활동이 통문을 작성한 이들이 계획했던 거병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노병대와 함께 활동한 이동하가 이강년 의진에서 참모로 활동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강년 의진 참여자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된다.

이러한 활동은 1912년 조직되는 독립의군부 참여로 이어졌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 9월 서울에서 고종의 밀명을 받은 郭漢一·李弼과 같은 재야유생과 李明翔·田鎔圭 등 전직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독립의군부는 조직된 후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에 李承烈·尹尙普·林炳瓚을 ‘巡撫大將’에 임명해 조직을 확대했다. 독립의군부의 府員확보와 조직 확대는 辭令書를 전달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형식이었다. 사령서는 ‘勅命’의 형식으로 발행되었고, 발행일 뒤에 조선왕실을 뜻하는 ‘昌德宮(순종: 필자주)·德壽宮(고종: 필자주)’이 표기되었다.¹⁵⁾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조직은 1913년 3월(음) 경북 문경에 거주하던 崔旭永(이명: 崔泰俊)에게 독립의군부 ‘사령서’가 전달되면서 시작되었다. 최옥영은 ‘대정 2년(1913년: 필자주)에 李太王殿下의 密使라 칭하는 金在性에게 勅命이라 일컫는 「사령서」를 받고 그때부터 국권회복에 뜻을 두었다’고 한다.¹⁶⁾ 그에게 사령서를 전달한 이는 金在性(이명: 金雲老)이다. 김

12) 李起燦, 『止山遺稿』, 「家狀」.

13)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99쪽.

14) 「盧炳大 판결문」(1913년 05월 21일 대구지방법원; 1913년 06월 05일, 대구지방법원).

15)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 224, 역사학회, 2014, 172~173·179쪽.

16) 「金在性 판결문」(고등법원, 1915년 11월 4일); 「崔旭永·安教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자, 「暴徒李康年の 軍師長」.

재성은 1913년 3월(음) 서울에서 곽한일과 전용규를 만났다. 곽한일과 전용규는 김재성에게 ‘民權을 단합하기 위해 昌德宮에서 칙명을 발표하였으니 경북 문경의 최옥영에게 칙명을 전달해 달라’고 의뢰했고, 김재성은 이를 최옥영에게 전달했다.¹⁷⁾

최옥영이 받은 사령서는 국왕의 명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 곽한일과 이석, 전용규 등 서울에서 독립의군부 조직을 주도한 이들은 1913년 2월부터 4월까지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사령서를 교부했다.¹⁸⁾ 따라서 최옥영이 받은 사령서도 이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최옥영이 서울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이들과 연계되어 있었고, 사령서를 받고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북지역 독립의군부는 1913년 3월(음) 이후 조직되기 시작했다.

최옥영이 사령서를 받은 것은 그의 의병경력 때문이었다. 그는 1907년 이강년 의진에 참여해 軍師將을 역임했다.¹⁹⁾ 최옥영이 거주했던 문경은 한말 李康季·李麟榮 의병대가 활동했던 지역이다. 최옥영은 경북 문경출신이었다.²⁰⁾ 따라서 문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옥영에게 사령서를 전달한 김재성과의 관계도 이강년 의진에서 맺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재성은 1907년 8월 盧炳大·林容憲 등과 함께 속리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대장을 맡았으며, 충북 보은·청주, 경북 상주, 경남 거창·안의 등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다.²¹⁾ 김재성과 노병대가 활동한 지역은 이강년 의진이 활동한 지역이기도 했다. 따라서 김재성은 최옥영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독립의군부의 칙명을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²²⁾ 최옥영은 독립의군부원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노병대의

17) 「金在性 판결문」(고등법원, 1915년 11월 4일); 「崔旭永·安教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18)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185쪽. 곽한일·이석·전용규 등은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후 60여 통의 사령서를 교부했다(「곽한일·이석·이정노·김재순 판결문」(1913년 8월 13일, 경성지방법원). 따라서 경북지역에서도 최옥영 외에 사령서를 교부 받은 인물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최옥영만이 파악된다.

19) 「崔旭永·安教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자, 「暴徒李康年の軍師長」.

20) 최옥영의 본적은 충북 제천면 고명리로 되어 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그러나 판결문에는 그의 주소가 慶尙北道 聞慶郡 永順面 白浦里로 되어 있다(「崔旭永·安教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이를 통해 보면 최옥영은 경북 문경출신으로 여겨진다.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투옥 중 순국했다.

2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상북도 독립운동사』 I, 385쪽.

22) 김재성과 이강년 의진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노병대는 이강년 의병진에 佐從事로 참여했다고 한다

소개로 이중호를 동지로 규합했다고 한다.²³⁾ 이를 통해 보면 김재성과 노병대, 최옥영은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김재성도 '임자년 선달에 시종 田鎔圭에게 충북 懷仁 淸州 報恩郡 獨立義軍府 招討使로 임명한다는 사령서를 받았다'고 한다.²⁴⁾ 그렇다면 김재성도 최옥영에게 사령서 전달을 의뢰받을 때 본인도 사령서를 수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재성도 최옥영에게 사령서를 전달한 후 충북지역에서 동지들을 규합했다. 그는 1914년 8월 충북 괴산에서 鄭雲淇·李相坤·孟宜燮 등에게 '본인은 李太王殿下의 내명을 받고 의병을 일으킬 계획이며, 지금 서울에서는 각도에서 모인 학자 2~3백명이 병사를 비밀리에 모집 중'이라며 동지로 규합했다.²⁵⁾ 이처럼 독립의군부는 최옥영을 경북지역 책임자로 임명해 조직을 확대했다. 그러나 책임을 최옥영에게 맡겼을 뿐 경북지역 의병전쟁이 독립의군부가 조직되는 배경이었고, 핵심적인 역할을 이강년 의진 참여자들이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경북지역 독립의군부는 조직된 후 부원확보에 주력했다. 최옥영은 1913년 6월(음) 柳承晩(경북 안동 내남면)·李中和(경북 예안군)·趙監役(산청군)·金秉淵(강원도 강릉)·李仁和(미상), 7월(음)에는 이중호를 동지로 규합했다. 시기는 알 수 없으나 廉石龍(강원도 원주), 安敎奉(충북 제천)등도 동지로 규합했다.²⁶⁾ 당시 최옥영이 규합한 인물은 17여 명에 이른다.²⁷⁾ 최옥영은 사령서를 받은 후 강원도 강릉·원주, 경북 안동·예안, 충북 제천 일대에서 독립의군부원을 규합했던 것이다. 최옥영은 동지들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군사를 들어 內亂(의병봉기;필자주)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죽기로 보좌하기로 했다'고 한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단체』, 96쪽). 그러나 노병대가 이강년 의진에 참여했다는 근거인 『운강선생장외록』에 노병대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김재성 의병이 활동한 지역은 이강년 의진의 활동지역에 있었다. 이를 통해 보면 김재성·노병대는 이강년 의진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3)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 「暴徒李康年の 軍師長」.

24) 『매일신보』 1915년 9월 2일, 「自稱 義兵大將」. 김재성은 최옥영에게 사령서전달을 의뢰 받으면서 본인도 사령서를 수령했다. 김재성이 받은 사령서는 그에게 충북지역 '招討使'에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옥영도 경북지역 초토사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5) 「鄭雲淇 李相坤 孟宜燮 판결문」(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5년 3월 4일).

26) 「최옥영·안교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 「暴徒李康年の 軍師長」.

27)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 「暴徒李康年の 軍師長」.

다.²⁸⁾ 이를 통해 보면 최옥영은 擧兵을 추진했고 이는 의병봉기를 의미한다. 이는 독립의 군부의 조직 목적이기도 했다.

독립의군부는‘(인재를 모아) 단체 조직→(일본정부에) 서면상신·(연설 등으로) 독립 사상 고취→(시기를 보아) 독립선언→(列國과 협조해) 독립달성’한다는 방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復國’이었고, 황제를 다시 추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독립의 군부는 ‘擧兵’을 추진했다.²⁹⁾ 최옥영도 독립의군부의 최종 목적인 ‘의병봉기’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옥영이 부원들을 확보한 지역을 보면 경북 안동·예안, 강원도 강릉, 충북 제천 등이다. 그는 경북 문경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경북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충북 등지에서도 부원들을 확보했다. 이는 이강년·이인영 의진과 13도창의대진소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부원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옥영은 동지들을 규합하며 의병봉기를 위해 화승총과 군도 등을 구입했다.³⁰⁾ 그리고 1914년 5월, 강원도 원주의 具聖會에게 자금을 모집했으며³¹⁾ 1914년 10월 安敎奉·廉石龍으로 하여금 안동 풍남면의 柳準榮·柳純榮으로부터 자금을 탈취하도록 했다.³²⁾ 같은 해 12월에는 姜順必·李湜宰·安敎奉·廉石龍 등과 충북 제천의 근북면사무소를 공격해 자금을 탈취하기도 했다.³³⁾

1914년 12월에 거행된 근북면사무소 자금탈취 사건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첫째는 활동지역이 충북지역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충북 지역은 김재성이 사령서를 받았다. 그런데 김재성은 1914년 8월(음) 충북 괴산에서 金殷佐·金萬鍾(이명:金永伯)·李相坤·鄭雲淇·孟宜燮 등과 의병봉기를 추진하던 중 체포되었다.³⁴⁾ 이들이 피체되면서 충북지역 조직은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28)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 「暴徒李康年の軍師長」.

29)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171·181~185쪽.

30)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자, 「暴徒李康年の軍師長」.

31)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자, 「暴徒李康年の軍師長」.

32) 「최옥영·안교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33) 「최옥영·안교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ノ件(『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内地 二』). 고제 5044호는 『현대사자료』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50~53쪽).

34) 「김재성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10월 11일); 「鄭雲淇·李相坤·孟宜燮 판결문」(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1915년 3월 4일); 「金在性 판결문」(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1915년 7월 29일). 김재성은 1915년 8월 16일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1915년 11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 순국했다(「김재성 판결문」(고등법원, 1915년 11월 4일).

에도 자금모집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북지역 조직과 충북지역 조직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이식재·강순필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식재는 문경출신으로 이강년의 병장의 조카이다. 그는 1914년 11월 문경에서 최옥영의 권유를 받아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후 근북면사무소 공격에 참여했다.³⁵⁾ 강순필은 살펴보았듯이 문경출신으로 이강년의 진에 從事로 전투중에도 이강년의 곁을 떠나지 않은 핵심 참모였다.³⁶⁾ 강순필은 국망 이후에도 문경지역을 중심으로 金落文·盧炳大·李東下·金東淵 등과 활동을 벌였다.³⁷⁾ 강순필이 이들과 함께 활동을 벌인 것도 이강년 의진에서 맺어진 인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노병대·이동하·강순필과 활동을 벌인 김낙문은 1908년 단식 순국한 金舜欽의 아들이며, 이강년 의진에 참여해 단양·충주·청주전투 등에 참여했던 이였다.³⁸⁾ 이동하는 이강년 의진의 참모로 활동했으며, 이강년이 피체된 후에는 최옥영과 함께 재기를 도모하기도 했다.³⁹⁾ 또한 노병대와 함께 1911년 7월 경북 상주읍 공격을 수립했으며, 1911년에는 경북 풍기에서 자금을 모집했다. 같은해 10월에는 具東植·孫日鉉·姜奉周·金正五 등과 경북 선산에서 자금모집을 추진했다.⁴⁰⁾ 이를 통해 보면 경북지역 독립의군부는 이강년 의진과 관련된 이들이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민단조합의 조직과 성격

민단조합은 1914년 9월 李東下가 경북 문경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했다고 한다.⁴¹⁾ 그러나 민단조합은 1914년 9월에 조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단조합이 1914년 9월에 조직

35)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52쪽.

36) 朴貞洙, 『雲崗先生倡義日錄』(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252·272·299쪽).

37)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51~52쪽.

38) 권대웅,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103쪽.

39)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52쪽.

40)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99쪽.

41) 민단조합이 1914년 9월에 조직되었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동하는 이강년의진의 참모장을 역임했으며 이강년이 피체된 후 崔旭永·李明先 등과 재기를 도모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1912년 7월과 10월 盧炳大·具東植·孫日鉉·姜奉周·金正五 등과 경북 상주와 선산에서 자금을 모집하다 실패했고, 權秉七·趙鏞弼·金聲秋 등과 만주로 망명했다. 이동하는 회인·통화·유하 등지에서 머물다 1914년 9월 귀국해 민단조합을 조직했다는 것이다(권대웅,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101쪽).

되었다는 견해는 이동하가 만주에서 국내로 돌아온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근거는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ノ件(이하 「고제 5044호」)’이다.⁴²⁾ 그러나 「고제 5044호」를 보면 ‘이동하·이은영, 간도에 있는 이세영은 대정 4년(1915년;필자주) 중 서로 通牒하여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民團組合」이란 비밀결사를 기획하고 李東下는 충청남도, 殷榮은 충청북도, 世榮은 경상북도의 각 民團組合長이 되어 격문을 배포하고 동지의 규합에 노력하였다’고 한다.⁴³⁾ 특히 같은 자료 이동하 부분을 보면 ‘이동하(필자주)는 대정 3년(1914년;필자주) 9월 歸鮮하여 경상북도 문경 안동 충청북도 충주 경기도 여주의 각 지역을 배회하며 동지를 방문하고 대정 4년(1915년;필자주)에 이르러 민단조합을 기획하였으나 금회사건이 발각되어(1918년; 필자주) 1월 23일 체포되었다’고 한다.⁴⁴⁾ 이처럼 「고제 5044호」만으로 한정하더라도 민단조합은 1915년에 조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⁵⁾

이러한 점은 이동하의 행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동하는 국내로 돌아와 활동하던 중 1918년 1월 체포되었다. 그는 당시 충북 제천경찰에 체포되었고, 1918년 5월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재판을 받았다.⁴⁶⁾ 그의 청주지청 판결문에는 민단조합 조직시기와 관련된 단서가 있다. 판결문을 보면 ‘이동하는 1915년 9월경부터 1916년 1월까지 경남 밀양 하동의 金炳斗·朴宗湜, 충북 횡간의 李鍾冕 등을 규합해 ‘朝鮮獨立義軍’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해 조선의 독립을 꾀하고 국권회복을 도모’했다고 한다.⁴⁷⁾

「고제 5044호」를 보면 이동하는 1914년 9월에 귀국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만주 망명이나 귀국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그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1915년 9월이다. 이

42)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ノ件(1918.03.11.)」,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二』. 「고제 5044호」는 『현대사자료』에도 수록되어 있다(강덕상 편, 『현대사자료』25, 50~53쪽). 「고제 5044호」는 1918년 1월 충청북도경찰이 민단조합원인 이석재·이동하·김낙문을 체포하고 조사한 내용을 3월 11일 조선총독 및 정부총감 등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이밖에도 내무성 경무국장이 외무성 정무국장에게 보고한 문건(「警秘 第二六號 朝鮮人概況 送付ニ關スル件(1918.03.26.)」(『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歐米(七雜))』)이 있으며, 경상북도 경찰부에서 작성한 『고등경찰요사』에도 민단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449~450쪽). 그러나 이 두자료는 고제 5044호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고제 5044호가 민단조합과 관련된 대표자료라 할 수 있다

43) 「고제5044호」(강덕상 편, 『현대사자료』25, 50쪽).

44) 「고제5044호」(강덕상 편, 『현대사자료』25, 52쪽).

45) 『고등경찰요사』에는 이동하가 1915년에 민단조합을 조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449쪽).

46) 「李東下 판결문」(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1918년 5월 30일).

47) 「이동하 판결문」(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1918년 5월 30일).

동하가 당시 조직한 조선독립의군은 민단조합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민단조합은 1915년 9월경에 조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민단조합에 참여한 김낙문과 이식재의 참여시점과도 일치한다. 김낙문은 ‘이동하의 부하 盧炳大·金東淵·姜順必 외 10여명과 기맥을 통하고 대정 3년(1914년; 필자주) 말까지 그들의 회의장소를 제공했으며 이후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고 한다.⁴⁸⁾ 또한 이식재는 ‘1914년 11월 이강년의 군자장이던 최옥영으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을 준비 중이니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가입했으며, 1914년 12월 최옥영·강순필 등과 충북 제천의 근북면사무소를 공격해 자금을 탈취한 후 김낙문의 권유를 받아 同年(1915년; 필자주) 8월 이동하의 불온한 계획(민단조합; 필자주)에 참여했다’고 한다.⁴⁹⁾

이처럼 이식재는 1914년 11월 독립의군부에 참여했고, 같은 해 12월 근북면사무소를 공격한 후 민단조합에 참여했다. 즉 이식재는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후 민단조합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근북면사무소 습격은 1914년 12월에 있었다. 따라서 이식재 기록의 同年은 1915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식재는 1915년 8월에 민단조합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고제5044호」를 보면 민단조합은 1915년에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동하는 1915년 9월 조선독립의군을 조직했으며 이식재는 독립의군부 활동 후 1915년 8월 민단조합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보면 민단조합은 1915년 8~9월경에 조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민단조합이 조직되는 시점에 경북지역에는 이미 독립의군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최옥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동하와 최옥영은 이강년의진 출신이고, 이동하는 만주로 망명하기 전 최옥영과 함께 재기를 도모하기도 했다.⁵⁰⁾ 그런데 이동하는 이강년의진 출신들과 독립의군부와 별개로 민단조합을 조직했다.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은 모두 의병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이념이나 투쟁방략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동하가 별개의 의병계열 단체를 조직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활동과 관계가 깊다. 경북지역 독립의군부는 민단조합이

48) 「고제5044호」(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52쪽).

49)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52쪽. 「고제5044호」에 의하면 이식재가 민단조합에 참여한 시기를 ‘同年 8월’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동년’은 191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식재가 민단조합에 참여한 시기는 1915년 8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민단조합이 1915년에 조직되었다는 다른 기록들과도 부합된다.

50) 「고제5044호」(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51쪽).

조직되기 직전에 큰 위기를 맞았다.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핵심인물인 최옥영이 피체되었기 때문이다. 최옥영은 독립의군부 활동이 발각되어 1915년 4월 피체되었고, 같은 해 5월 공주지방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 받았다.⁵¹⁾ 이처럼 이동하가 민단조합을 조직한 시점에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원들이 체포되면서 크게 와해된 것이다. 그런데 이동하는 이은영 등 경북지역에서 독립의군부 활동을 벌였던 이들과 밀접한 관계였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독립의군부 조직을 계승해서 활동을 벌였고, 단체 이름을 민단조합이라 했던 것이다. 이식재가 최옥영의 권유에 의해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후 민단조합에 가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⁵²⁾

그러나 단체이름만 민단조합이라 했을 뿐이며 활동은 독립의군부 활동이었다. 이는 이동하의 민단조합 조직 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하의 판결문을 보면 그가 1915년 9월부터 1916년 1월까지 활동하면서 조직한 단체는 민단조합이 아니라 ‘조선독립의군’이었다. 이동하가 조직한 ‘조선독립의군’은 독립의군부를 말한다.⁵³⁾ 독립의군부는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의병봉기’를 추진했고, 이들이 봉기하고자 했던 의병은 ‘獨立義軍’이었다.⁵⁴⁾ 이를 통해 보면 이동하는 국내로 돌아온 후 독립의군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동하의 군자금 모집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동하는 1915년 12월 權寧直을 밀양에 파견해 朴仁根·金康年·柳永奉을 고종의 勅命으로 서울로 오게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義軍府正尉·義軍府參尉·義軍府參領에 임명한다는 사령장을 교부한 후 자금 제공을 약속받았다. 사령장에는 ‘덕수궁’이라는 인장도 날인했다.⁵⁵⁾ 그런데

51) 「최옥영·안교봉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5년 7월 16일). 최옥영의 본적은 충북 제천군 제천면 고명리로 되어 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권, 1986). 그런데 그의 판결문의 주소는 경북 문경군 영순면 백포리로 되어 있다(「최옥영판결문」(1915년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 이를 통해 보면 최옥영은 경북 문경출신으로 여겨진다.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투옥 중 마포형무소에서 순국했다.

52) 「고제5044호」(강덕상 편, 『현대사자료』25, 52쪽).

53)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163쪽. 독립의군부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성우 논문 각주 1 참조. 독립의군부는 거병을 목적으로 했다. 독립의군부는 의병계열이 조직한 단체이다. 그럼에도 ‘義兵’이란 명칭 대신 ‘獨立義軍’을 사용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립의군부를 전환기 의병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의병계열이 국망 이후 독립군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홍영기, 「1910년대 전남지역의 항일비밀결사」, 『전남사학』19, 전남사학회, 2002, 405쪽).

54) 「慎懼堂年記」(필사본), 1919. 「신구당연기」는 이식의 손자인 이완희(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거주)가 소장하고 있으며, 제자가 스승의 시문과 연보를 정리한 것이다.

55) 권대용,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108쪽;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25, 52쪽. 고제 5044호에 의하면 당시 이동하의 사건일시에 대해 ‘同年 12月 21日경’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이미 ‘대정 5

당시 이동하가 교부한 사령장의 관제는 독립의군부 「管見」의 관제였다. 이동하는 민단조합을 조직한 후에도 '의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독립의군부 관제를 시행했으며, 독립의군부와 같이 칙명 형식의 사령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자금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보면 이동하는 귀국한 후 독립의군부 활동을 했으며, 민단조합 조직 후에도 독립의군부 활동을 지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과의 관계는 민단조합원으로 알려진 이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민단조합원으로 알려진 인물은 姜鳳周·姜順必·金落文·盧炳大·李東下·李湜宰·李殷榮·李世永·趙鏞弼·崔旭永 등이다.⁵⁶⁾ 이동하는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했으며, 최옥영은 군자장, 이식재는 이강년의 조카였다. 이세영은 이강년의진의 監軍將, 강순필은 이강년의진에 從事, 조용필은 召募로 참여했다. 이처럼 민단조합은 이강년의진의 의병세력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으며 충남(이동하)·충북(이은영)·경북(이세영)에 組合長을 두었다는 것이다.⁵⁷⁾ 이들 중 이은영과 이식재는 김낙문의 권유를 받아 이동하의 계획에 가담했으므로 민단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⁵⁸⁾ 그러나 노병대는 이동하가 망명하기 전 벌였던 자금모집 사건이 발각되어 1913년 5월 21 대구지방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최옥영은 근북면사무소 공격 등이 발각되어 1915년 4월 피체되어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⁵⁹⁾ 노병대와 최옥영의 활동은 독립의군부 활동이었으며, 이미 피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단조합에 참여할 수 없다.

나머지 姜順弼·姜奉周·李世永·趙鏞弼도 민단조합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과 관련된 자료에서 민단조합과 관련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세영은 가장 잘못 알려진 인물이다. 이세영은 1897년 육군 참위, 정위를 역임했으며, 1906년 민중식 의진에 참여했다. 그는 1907년 7월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監軍將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좌군장을 맡아 90

년 3월 16일 보고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 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동하가 활동을 시작한 1915년 9월과 1916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고제 5044호」에 기록된 同年은 1915년임을 알 수 있다.

56)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93~94쪽; 권대웅,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101~107쪽.

57) 권대웅,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101~107쪽.

58)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5, 52쪽.

59) 『매일신보』 1913년 5월 24일자, 「十三代の 强盜」;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자, 「暴魁李康年の 軍師長」; 「최옥영·안교봉 판결문」

여명의 의병을 이끌었으며 1913년 독립의군부에 가맹했으나 만주로 망명해 이동하를 만나 민단조합에 참여해 경북지역 조합장을 맡았다고 한다.⁶⁰⁾ 그러나 이세영은 이강년의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세영은 1906년 홍주의병에 참여한 후 체포되어 황해도 해주로 유배되었으며, 1908년 풀려난 후 충남 청양에서 誠明學校를 설립해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1909년에는 대한협회 지회를 설립해 계몽운동을 전개했으며 1911년 만주로 망명했다.⁶¹⁾

따라서 이세영은 이강년의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강년 의진에 감군장과 좌군장을 역임한 李世榮은 충북 제천 출신의 의병장이다. 홍주의병 출신의 李世永은 德水李氏인데,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李世榮은 慶州李氏이기 때문이다.⁶²⁾ 또한 홍주의병 출신의 李世永은 민단조합이 조직되던 시점에 만주에 있었다. 따라서 홍주의병 출신의 이세영이 이강년의진과 민단조합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姜順弼·姜奉周·趙鏞弼의 민단조합 참여문제다. 이들이 민단조합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 이들을 민단조합원으로 보는 이유는 이동하와 자금모집을 함께 했다는 것이며, 근거는 「고제 5044호」이다. 강봉주는 1911년 10월 이동하·노병대 등과 자금을 모집했고, 강순필은 1914년 11월 최옥영과 함께 근북면사무소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강봉주는 이동하, 강순필, 최옥영과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민단조합원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조용필도 이동하와 함께 만주로 망명했기 때문에 민단조합원으로 분류한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이동하와 최옥영이 민단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강봉주의 활동은 이동하의 만주망명 이전의 활동이고, 강순필의 경우는 민단조합이 조직되기 전 최옥영과 벌인 독립의군부 활동이다. 조용필도 이동하와 망명을 했을 뿐 민단조합원이라는 근거는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민단조합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민단조합에 참여한 이는 김낙문·이동하·이식재·이은영 정도이다.⁶³⁾ 그렇다면 민단조합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자료가 있다. 민단조합 직인이 찍혀 있는 「管見」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민단조합의 직

60) 권대웅,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102·104쪽.

61) 송용재 편, 『홍주의병실록』, 443~449쪽.

62) 朴貞洙, 『雲崗先生倡義日錄』(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 249쪽). 충북 제천출신의 李世榮은 이강년의진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63) 일제도 민단조합 관련인물을 이동하·이은영·김낙문·이식재·이세영으로 파악하고 있다(『국역고등경찰요사』, 450쪽).

인이 찍혀 있는 「管見」이 소장되어 있다.⁶⁴⁾ 「관견」은 독립의군부의 운동노선과 활동이 수록된 자료이다. 그런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관견」의 작성일시는 1914년 2월(음)이며, 민단조합의 직인이 찍혀 있다.⁶⁵⁾ 규장각 소장 「관견」은 1914년 2월에 작성된 「관견」을 이후 필사했거나 이미 배포된 「관견」에 민단조합 직인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민단조합이 독립의군부의 「관견」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단조합이 독립의군부 관제를 이용해 동지들을 규합하고 자금을 모집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민단조합의 직인이 찍혀 있는 「관견」으로 볼 때 민단조합이라는 단체명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동하는 「고제 5044호」(1918년 3월)가 작성된 후 재판(1918년 5월)을 받았다. 특히 이동하를 체포한 곳은 충북 제천 경찰이었고 「고제 5044호」도 충북경찰에서 작성했다. 재판도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루어졌다.⁶⁶⁾ 그런데 이동하의 판결문에는 민단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 또한 이동하와 함께 체포된 김낙문·이식재·이은영도 1918년 5월 예심에서 면소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⁶⁷⁾ 이를 통해 보면 일제도 민단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듯하다. 이동하는 국내로 돌아온 후 독립의군부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1915년 4월 최옥영이 피체되면서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원들이 체포되었다. 따라서 이동하는 독립의군부 활동을 벌이던 김낙문·이식재·이은영과 독립의군부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독립의군부원들이 체포된 상황에서 독립의군부라는 단체명을 사용할 수 없어 민단조합이라는 단체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단조합이 활동을 시작한 1915년 8~9월도 주목된다. 경북지역에서 광복회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광복회는 1915년 7월 15일(음, 양력 8월 25일) 대구에서 조직되었다. 광복회는 의병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대체로 의병계열이 중심이었다. 최옥영이 피체되고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조직이 크게 와해되는 시점에 광복회가 조직된 것이다. 광복회에는 정운기·강순필과 같이 독립의군부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참여했다. 이처럼 강순필·정운기는 1915년 4월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조직이 와

64) 권대용,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98쪽; 「관견」(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상백古 951.06 G994).

65) 「衣帶詔」(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000768-000);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166~167쪽.

66) 「이동하 판결문」(1918년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67) 「김낙문·이식재·이은영 형사사건부」(국가기록원소장).

해되자 광복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동하는 1915년 8월 광복회가 조직되는 시점을 전후해 광복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단체이름을 민단조합이라 한 것이다.

민단조합을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와 별개의 단체로 볼 수도 있다. 독립의군부가 와해된 뒤 이동하·이은영·이세영 등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북을 아우르는 새로운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단조합은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없다. 이동하가 귀국 후 조직한 단체가 ‘조선독립의군’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민단조합을 조직한 후에도 자금을 모집하며 ‘義軍府’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독립의군부 ‘관견’의 관제를 따랐다. 독립의군부와 같이 칙명을 이용해 사령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모집과 동지들을 규합했다. 이를 통해 보면 민단조합의 활동은 1915년 8월 이후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단조합원으로 알려진 이들이 1913년 3월(음) 이후에 전개한 활동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활동이며, 이동하·김낙문 등이 1915년 8월 이후에 전개한 활동도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3. 풍기광복단 · 광복회 참여와 조선독립후원의용단 조직

1) 풍기광복단과 광복회 참여

이강년 의진 출신 출신 강순필·조용필은 1913년 1월 경북 풍기에서 조직되는 풍기광복단에 참여했다. 풍기광복단은 경북과 충청도 지역의 인물들이 주축이었다. 특히 이강년의 진·홍주의병 등 한말 의병전쟁에 참여했다가 생활근거를 잃은 의병적 기질의 인물들이 중심이었다.⁶⁸⁾ 풍기광복단은 채기중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채기중은 1873년 7월 경북 함창에서 태어났다. 채기중이 태어난 함창은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이 주둔했던 지역이고, 의병전쟁 때까지 전란이 거듭되던 곳이었다. 또한 일제가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던 고장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채기중은 34세 되던 해인 1906년에 풍기로

68) 조동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민족주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지식산업사, 1989), 262~264쪽; 양한위, 「양벽도공제안실기」.

이주하였다. 채기중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은 풍기로 이주한 이후부터였다.

경북 풍기는 『정감록』에 十勝之地로 알려진 곳으로 전국에서 많은 이주민이 모여들었던 곳이다. 이주민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지사들에게는 은거하기에 좋은 장소였다. 채기중은 이곳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규합해 광복단을 조직했다. 풍기광복단은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일본인이 경영하는 중석광에 광부로 잠입해 활동하기도 했으며, 부호들을 대상으로 자금 수합을 벌이기도 했다.⁶⁹⁾ 그러나 강순필과 조용필이 풍기광복단에 참여하는 계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풍기광복단에 참여한 이들이 주로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의병적 성향이 인물들이 중심이었다는 단서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강년의진에 참여했던 강순필과 조용필이 북벽주의 계열의 풍기광복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강순필과 조용필은 1915년 7월 15일(음) 대구에서 조직되는 광복회에도 참여했다. 광복회는 朴尙鎭·禹在龍 등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단체이다. 광복회원들은 ‘우리는 大韓獨立權을 광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일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子子孫孫이 계승하여 不俱戴天의 원수 일본을 완전 축출하고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절대불변하고 일심전력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한다고 서약한 후 광복회를 조직했다.⁷⁰⁾

광복회는 독립군을 양성해 무력이 준비되면 일제와의 전쟁을 통해 독립을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광복회의 투쟁강령은 ‘무력준비·무관양성·군인양성·무기구입·무력전’이었다. 투쟁강령은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한 방략이었고, 대부분이 무력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독립군을 양성하고 자금을 조달해 군비를 갖춘 뒤 日帝와 一戰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韓人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자금을 조달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방략을 수립했던 것이다. 따라서 광복회는 ‘슐’라는 온건한 명칭을 사용한 반면 편제는 ‘사령관·사령부·사령관·지휘장’등 군대식 조직체계를 갖추었다.⁷¹⁾ 광복회는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 중 유일하게 전국적 조직을 갖추었고 군자금 모집과 의열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69) 조동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263~264쪽.

70) 光復會, 「決議」, 『光復會』, 1946년 10월.

71) 우재룡, 『백산실기』.

광복회를 조직한 이들이 참여했던 단체는 북벽주의 노선의 獨立義軍府·豐基光復團·民團組合, 공화주의 노선의 達城親睦會·朝鮮國權恢復團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조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연합해 광복회를 조직했다. 강순필과 조용필은 독립의군부와 풍기광복단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이들 단체들이 연합해 광복회가 조직되면서 광복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강순필은 광복회에 참여한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광복회는 친일세력에게 민족적 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전라도의 徐道賢·梁在學, 경상도의 張承遠, 충청도의 朴容夏 등을 처단했다. 강순필은 장승원 처단에 참여했다. 장승원은 한말 허위 추천으로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장승원은 허위가 의병을 봉기하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의병봉기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밀고하기까지 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장승원은 조선왕실의 재산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경북 왜관의 金堯賢의 처를 구타해 사망시키는 등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친일인물이었다.

강순필은 1917년 11월 10일(음력, 9월 23일) 채기중·庾昌淳·林鳳柱와 함께 장승원 처단에 참여했다. 이들은 장승원을 처단한 후 그의 집과 마을 어귀에 ‘나라를 광복하려 함은 하늘과 사람의 뜻이니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에게 경계하노라(白維光復 天人是符 聲此大罪 戒我同胞), 경계하는 이 광복회원(聲戒人 光復會員)’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형선고문을 붙이고 돌아왔다. 광복회의 장승원 처단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친일파를 처단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였다.

조용필은 군자금 모집에 참여했다. 군자금 모집은 광복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군대를 양성해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광복회의 군자금 모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광복회원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하기도 했으며, 일제의 현금수송마차를 공격해 자금을 탈취하기도 했다. 일본인 소유의 광산을 공격하거나 중국지폐를 위조해 正貨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의연금 모집이었다. 전국의 자산가들에게 의연금을 요청하는 ‘통고문’을 보내고, 광복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의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자산가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애국심’에 호소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었다. 전국의 광복회원들이 지역의 자산가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산가들에게 광복회 명의로 통고문을 발송하는 것이었다. 조용필은 경상도 지역에 발송된 「경고문」

발송에 참여했다. 조용필은 1917년 10월 채기중·유창순·尹昌夏 등과 함께 「경고문」을 작성했으며,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 경북 함창·상주 일대에서 경북지역 자산가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했다.

2)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조직.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이하 의용단)은 1920년 9월 결성되어 1922년 12월까지 활동한 비밀단체였다.⁷²⁾ 의용단은 서로군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주요 구성원 대부분이 경북지역 출신이었다.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로 의용단에 참여한 이는 申泰植(이강년의진)·金奎憲(안동의진)·徐相業(이강년의진)·韓良履(이강년의진)·金龍煥(이강년의진, 김상태의진)·金秉東(이명:金炳東, 이강년의진)·金會文(이명:金賢東, 김상태의진)·許達(이강년의진) 등이다.

신태식은 문경 출신으로 1907년 8월 이인영의 격문을 받고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이강년의진과 연합해 갈평전투를 비롯해 죽령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후군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피체되었다.⁷³⁾ 그는 1918년 1월 풀려났으며 1920년 9월, 경북 김천에서 金燦奎·李應洙와 함께 의용단을 조직했다. 신태식은 경북단장, 김찬규는 경남단장, 이응수는 경북지역 총무를 맡아 경북 안동·영천·군위·영일·영덕 등을 중심으로 단원과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

김규현은 안동 출신으로 金誠一 후손이다. 1896년 안동의진에 참여했으며 안동의진 해산 후에는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갈평·마고성·제천·평창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다. 한량은 예천 출신으로 1905년 이강년의진에 종사관으로 참여했으며, 원주·단양·제천·문경 등에서 활동했다. 1908년 청풍 까치성전투에서 패한 후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암살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상업은 문경 출신으로 1907년 이강년의진에 참여해 문경·제천 등지에서 활동했으며, 한량이에 의해 의용단에 가입했다. 김용환은 이강년의진과 김상태의진에서 활동했고, 김희문은 김상태의진에서 활동한 후 의용단에 참여했

72) 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안동사학』 8(안동사학회, 2001) 참조. 조선독립후원의용단의 조직과 활동은 심상훈 논문 참조.

7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 333~334쪽.

다.⁷⁴⁾ 이밖에 김병동과 허달은 이강년의진의 좌중사부에 참여해 활동했다.⁷⁵⁾

이처럼 의용단은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중심이었다. 이는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국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문」에 수록된 이들은 대부분이 이강년 의진 출신들이었다. 이를 통해 보편 의용단을 조직한 이들은 이미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부터 관계를 맺었던 이들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의용단에 참여한 이응수와 이종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응수와 이종국도 의용단원인 서상업·안재극·한양이·허달 등과 함께 「통문」에 수록되어 있다.⁷⁶⁾

이응수와 이종국도 1910년 한일강제병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강년의진 출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응수의 부친은 1907년 정미조약에 항거해 투옥 중 순국한 지사였고, 이강년의병장의 친족이었다.⁷⁷⁾ 따라서 이강년의진 출신들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의용단은 김찬수·신태식·이응수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단체였으며, 경북지역이 중심이었다. 신태식은 경북단장, 이응수는 경북지역 총무국장이었다. 이들은 이강년의진과 관계가 깊었다. 따라서 의용단은 이강년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고,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징을 가졌던 것이다.

의용단의 또다른 특징은 1915년 조직된 광복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의용단에는 梁漢緯·李庭禧·朴琥鎭·朴敬重이 참여했다.⁷⁸⁾ 박호진은 박상진의 동생이고, 박경중은 박상진의 아들이자 이정희의 사위였다. 즉 이정희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과는 사돈간이다. 의용단의 자금모집은 광복회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의연금 모집 대상자를 조사하고 통고문을 발송한 후 단원들이 찾아가 수령하는 형식이었다. 통고에는 의용단의 단체명을 밝히고, 자금 요구액을 기입하고, 경고문구와 수신대상자를 명시했다.

74) 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249~257쪽.

75) 『雲崗先生倡義日錄』(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1984, 304쪽)

76) 「通文」(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장).

77) 「慶北重大陰謀 犯罪內容大略(下)」, 『매일신보』 1922년 12월 22일자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앞의 책, 332쪽. 이응수의 부친은 李建頤으로 알려져 있다(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254쪽). 그러나 『매일신보』와 『고등경찰요사』에는 보안회 부회장을 역임한 李源弼로 기록되어 있다.

78) 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264쪽;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332쪽.

이러한 방법은 광복회 의연금 모집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의용단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양한위·이정희·박호진·박경중 등 광복회와 관련이 있는 이들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양한위는 의용단 가입 직전 권영만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광복회의 의연금 모집 방법이 의용단에 그대로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구의 鷄林旅館이 주목된다. 鷄林은 경주를 말하는 것으로 박호진이 대구로 이감된 박상진의 옥바라지를 위해 1920년경 설립한 여관이었으며, 당시에도 박호진이 경영하고 있었다.⁷⁹⁾ 의용단은 자금수납처를 이정희·박경중으로 하기도 했다.⁸⁰⁾ 이를 통해 보면 의용단의 자금모집 중심에는 계림여관이 있었고 계림여관은 의용단의 활동 거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용단원들이 일제에 피체된 곳도 계림여관이었다. 의용단원 李太基·金思默·張鐸遠·郭珪은 1922년 11월 28일 계림여관에 머물던 중 일제에 피체되었고, 이후 이응수를 비롯해 의용단원들이 피체되었다. 일제는 박상진 동생이 운영하고 광복회와 관련이 있던 이정희 출입이 잦은 계림여관을 주목했고, 이곳에서 의용단원들을 체포하고 단서를 확보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강년의진 참여자들의 활동을 1910~20년대 국내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강년의진 참여자들은 1910년대 독립의군부·풍기광복단·민단조합·광복회에 참여했으며, 1920년대 초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 참여했다. 이강년 의진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참여한 단체는 독립의군부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 9월 서울에서 곽한일·이식과 같은 재야유생과 이명상·이인순·전용규 등 전직관료출신들이 조직했다. 독립의군부는 조직된 후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역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독립의군부의 부원확보와 조직확대는 ‘칙명’의 형식으로 발행된 사령서를 전달하는 방

79) 「慶北重大陰謀 犯罪內容大略(上)」, 『매일신보』 1922년 12월 21일자.

80) 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263쪽.

식으로 이루어졌다. 경북지역에서는 문경에 거주하고 있던 최옥영이 사령서를 받았다. 그가 사령서를 받은 것은 의병경력 때문이었다. 그는 1907년 이강년 의진에 참여해 군사장을 역임했다. 그가 거주했던 문경은 한말 이강년·이인영 의병부대가 활동했던 지역이다. 따라서 최옥영은 이강년 의진에 참여했고, 이를 계기로 독립의군부 경북지역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다. 따라서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에는 이강년의 조카 이식재, 이강년의 참모 강순필, 단식 순국한 김순흙의 아들 김낙문 등 이강년의진 출신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경북지역 독립의군부는 1915년 4월 최옥영이 체포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피체되지 않은 이들이 민단조합이란 단체명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민단조합은 1914년 9월 조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민단조합을 조직한 이동하가 만주에서 귀국한 시점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판결문에는 1915년 9월부터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민단조합원 이식재는 1915년 8월에 가입했다. 따라서 민단조합은 1915년 8·9월 경에 조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단조합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와 이념과 투쟁방향이 같다. 그럼에도 이동하는 독립의군부와 별개의 조직인 민단조합을 결성했다. 이것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활동과 관련이 있다.

경북지역 독립의군부는 최옥영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최옥영이 1915년 4월 피체되면서 경북지역 독립의군부는 큰 위기에 처한다. 최옥영이 체포되고 조직이 와해되는 시점에 경북지역에서는 광복회가 조직되기도 했다. 광복회는 1915년 8월 25일(음력 7월 15일) 의병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 조직된 단체였다. 이를 계기로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에서 활동하던 이들 일부가 광복회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동하는 1915년 8월 이후 광복회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의군부원들과 함께 활동을 재개했고, 단체명을 민단조합이라 했다.

그러나 단체명만 민단조합이라 했을 뿐 활동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 활동이었다. 이는 이동하가 귀국한 후 조직한 단체가 '조선독립의군'이라는 점, 민단조합 조직 후에도 독립의군부 관제인 「관견」을 따르고 있다는 점, 또한 독립의군부와 같이 칙명의 형식으로 사령서를 교부하고 동지들을 규합했다는 점 등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민단조합은 별개의 단체로 볼 수 없으며, 1913년 3월(음) 이후 조직된 경북지역 독립의군부가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순필과 조용필은 풍기광복단과 광복회에 참여했다. 풍기광복단은 1913년 1월 경북 풍기에서 조직된 복벽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단체였다. 강순필과 조용필이 풍기광복단에

참여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풍기광복단이 의병전쟁에 참여했거나 의병적 성향의 인물들이 중심이었고, 구성원 대부분이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강년의진에 참여했던 강순필과 조용필이 풍기광복단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풍기광복단과 민단조합에 참여했던 이들은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되는 광복회에도 참여했다. 광복회는 한말의병전쟁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조국의 독립이라는 명제하에 연합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였다. 따라서 풍기광복단에 참여하고 있던 강순필과 조용필이 광복회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광복회는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다. 따라서 단체명은 ‘회’라는 단체명을 사용했으나 조직은 군대식이었다. 광복회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와 전쟁을 전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강순필과 조용필은 광복회에 참여한 의열투쟁과 자금모집에 주력했다. 강순필은 칠곡부호 장승원 처단에 참여했으며, 조용필은 경북지역 군자금 모집에 참여했다.

이강년 의진에 참여했던 신태식·서상업·한양이·김용환·김병동·허달 등은 1920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을 조직했다. 의용단은 1920년 9월 결성되어 1922년 12월까지 활동한 비밀단체였으며 서로군정서 지원활동을 벌였다. 의용단은 1920년대 초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비밀단체였다. 이처럼 이강년의진 참여자들은 1910~20년대 국내독립운동 단체에 참여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1910년대 복벽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단체인 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은 이강년의진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다.

참고문헌

- 권대웅, 「일제하 항일독립운동단체 「민단조합」, 『한국학보』 74, 일지사, 1994.
「한말·일제강점 초기 의병계열의 민족운동, 『한말 경북지역 의병사 연구』, 안동독립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2009.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권영배, 「「산남의진(1906~1908)의 조직과 활동」, 『역사교육논집』 16, 역사교육학회, 1991.
- 김희곤, 「「경북지역 의병연구의 성과와 과제」, 『경북유립과 독립운동』, 경인문화사, 2015.
- 박결순, 「「1910년대 비밀결사의 투쟁방략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신규수,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하여」,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日帝下 獨立義軍府에 관한 研究」 『역사와 사회』 22, 국제문화학회, 1999.
- 심상훈, 「「1920년대 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안동사학』 8, 안동사학회, 200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 경상북도, 2012.
- 이상찬,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90.
-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 224, 역사학회, 2014.
『광복회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이후의 활동」, 『국학연구』 37, 국학진흥원, 2018.
「1910년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민단조합」, 『한국근현대사연구』 8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 조동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민족주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89.
- 홍영기, 「1910년대 전남지역의 항일비밀결사」 『전남사학』 19, 전남사학회, 2002.

李康季義陣 참여자의 1910년 이후의 항일투쟁

강윤정(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성우 선생님은 그동안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경북지역 연구도 진행하여 「경북지역 의병참여자들의 의병전쟁 이후의 활동」, 「1910년대 경북지역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민단조합」과 같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논문은 그 연장선에서 이강년의 진에서 활약한 의병들의 1910년 이후 활동에 주목한 글입니다. 본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필자는 「李康季義陣 참여자의 1910년 이후의 항일투쟁」이라는 주제 아래 이강년 의진에서 활약한 인물들의 활동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① 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 ② 풍기광복단·광복회 참여와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 활동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참여인물이 다른 풍기광복단·광복회와 조선독립운동후원 의용단을 하나로 묶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 이성우 선생님의 논지에 따르면 일제강점 후인 1910년 7월(음) 이강년부대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병봉기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1912년 독립의군부 참여로 이어졌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지역 독립의군부 활동의 시작은 최옥영이 중심에 있어, 의병거의가 독립의군부로 이어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1의 연장선에서 독립의군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독립의군부가 무너진 뒤 민단

조합과 광복회에 나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된다면, 1910년대 문경지역 인사들의 관계망 혹은 활동 지향 등이 좀 더 명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 문경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의 심화·확장적 측면에 기여하기 위한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필자는 1910년대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북지역 인물들의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문경출신 독립운동가와 관련하여 문경지역에서 연구분야 확장·심화차원에서 연구가 가능한 인물이나 단체가 있다면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제6주제

운강 이강년 의병장 자료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심철기(연세대학교 사학과 객원교수)

토론자 : 원재영(연세대학교 강사)



윤강 이강년 의병장 자료 현황과 과제

이성우(연세대학교 사학과 객원교수)

1. 머리말
2. 이강년 의병장 연구현황
3. 이강년 의병장 자료현황과 과제
4. 맺음말

1. 머리말

1895년에서 1910년까지 국내에서 전개된 의병운동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크게 3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조선의 가치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을미의병,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을사의병, 정미의병은 우리 항일무장투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병운동은 1910년대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병운동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한 인물 중 한명이 바로 이강년 의병장이다. 이강년 의병장은 을미에서 정미의병까지 전 시기 걸쳐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또한 관련자료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도 되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의병연구²⁾, 호좌의진 연구³⁾ 등에서 함께 연구

1) 구완희, 「이강년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천의병의 종합적 이해』, 1996.

2) 구자일, 「韓末 醴泉 義兵戰爭」, 『안동사학』 6, 안동사학회, 2001 ; 권대웅, 「정미의병기 경북북부지역의 의병전쟁」, 『지역문화연구』 6,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7 ; 이성우, 「1910년대 경북지역 獨立義軍府의 조직과 民團組合」, 『한국근현대사연구』 8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3) 장승순, 「한말 충청지역 의병운동의 민중운동적 성격」, 『忠北史學』 24, 충북대학교 사학회, 2010 ;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구완희, 「제천의병과 거문돌 마을의 博約齋」,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가 진행된 경우는 많으나 이강년 의병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이강년 의병장 관련 기존 자료에 대해 좀더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나가기 위해서는 자료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강년 의병장 연구진척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연구현황, 자료현황, 앞으로의 과제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이강년 의병장 관련 자료현황 및 새로운 자료의 발굴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자료의 성격을 분석해 본다. 둘째, 이강년 의병장 연구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방향과 자료분석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이강년 의병장 연구현황

이강년 의병장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연구는 이강년 의병부대의 전투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 홍순옥(洪淳錫)의 연구가 있다.⁴⁾ 이 연구는 1907년~1908년 전투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일본군 기록인 『朝鮮暴徒討伐誌』를 중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강년을 주목한 것은 일본군을 상대로 전과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의병부대는 일본군과 전투에서 제대로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신돌석(申堧石) 의병부대, 민공호(閔肯鎬) 의병부대, 노병대(盧炳大) 의병부대, 허위(許蕙) 의병부대, 이강년 의병부대는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특히, 이강년 의병부대는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일대를 중심으로 문경, 단양, 영춘, 영월 등 약 200리 전선에서 싸운 기록이 일본군 자료로 남아 있었다. 이를 통해 이강년 의병부대의 부대이동, 전투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본측 자료를 통해 이강년 의병부대의 활동을 파악한 연구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2

2019.

4) 홍순錫, 「義兵 李康季部隊 戰鬪考(一九 七~一九 八)(上)」, 『군사』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2.

년에 발표된 정제우의 박사학위논문은 이강년 의병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첫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⁵⁾ 이 연구를 통해 이강년 의병장의 가계와 성장, 을미의병(병인년 1896년) 활동, 정미의병(1907년, 1908년) 활동, 순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이강년 의병장 연구에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진연구자 중에서도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3년 발표된 전문진(田文鎭)의 석사학위논문은 이강년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이었다.⁶⁾ 이 석사학위 논문은 전문역사잡지에 수록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⁷⁾ 이 논문은 『운강선생창의일록(雲崗先生倡義日錄)』, 『기려수필(騎驢隨筆)』(송상도(宋相燾)), 『운강선생문집(雲崗先生文集)』(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소의신편』(이소옹(李紹膺)), 『정미년창의가(丁未年倡義歌)』(신태식(申泰植)), 『매천야록(梅泉野錄)』(황현(黃玟)),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도 『운강선생창의일록』이 핵심자료였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강년 의병장의 가계와 성장, 의병부대의 조직 등을 파악하였다. 의병부대의 조직은 부대구성, 여러 의병장과의 제휴관계, 군수조달 문제 및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이강년 의병장이 을미의병기에는 존왕양이적 토왜국수(討倭國讐)의 성격으로 의병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정미의병기에는 여러 의병부대와 합진, 연진의 필요성, 일반민들의 참여유도 등 대성적 성격으로 나갔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이강년 의병장은 의병운동을 척사론적 한계성을 극복하여 민중적 공감대를 이룬 독립전쟁으로 승화시켰다고 분석하였다.⁸⁾ 이는 정제우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신진학자가 이강년 의병장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철학, 문학에서도 이강년 의병장을 주제로한 논문이 발표되었다.⁹⁾ 먼저, 철학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외세의 침략에 대한 영남 유림의 대응논리를 분석한 논문이었다.

5) 정제우, 『舊韓末 義兵將 李康季 研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6) 전문진, 「韓末 李康季 義兵部隊의 組織과 活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전문진, 「韓末 李康季 義兵部隊의 組織과 活動 : 한말 이강년 의병부대의 조직과 활동」, 『釜大史學』 19,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5 ; 田文鎭, 「韓末 李康季 義兵部隊의 組織과 活動」, 『역사와 세계』 19, 효원사학회, 1995.

8) 田文鎭, 「韓末 李康季 義兵部隊의 組織과 活動」, 『역사와 세계』 19, 효원사학회, 1995, 531쪽.

9) 이동희, 「韓末 外세 侵略에 대한 嶺南 儒林의 義理學的 대응」, 『哲學論叢』 13, 영남철학회, 1997 ; 盧仁淑, 「雲崗 李康季 漢詩 研究」, 『한국어문교육』 9,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0.

분석된 의병장은 김도화(金道和) 의병장, 김도현(金道鉉) 의병장, 허위 의병장, 이강년 의병장으로 이강년 의병장만을 분석한 논문은 아니었다. 이강년 의병장의 대응논리를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한 자료는 『운강선생창의일록』 등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의병운동의 정신적 바탕에는 ‘척양척왜’라는 배타의식에서 출발한 주자학적 민족주의가 토대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병운동은 힘의 배양과 근대사상의 고취, 민족국가의식의 각성에 중요한 촉진요소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¹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새롭게 발견된 격문 등을 분석하여 의병운동사에 빈 부분을 메우고자 한 연구가 있다.¹¹⁾ 이 논문에서 새롭게 발견된 격문은 「원주창의소(原州倡義所) 통문(通文)」, 이강년 의병장의 「격고각도열읍문(格告各道列邑文)」이다. 이강년 의병장의 격문은 『운강선생문집』에 5종, 『운강선생창의일록』에 4종이 수록되어 있다. 『운강선생문집』에 수록된 격문은 1907년 10월 모일에 작성된 「격고각도열읍문」, 각국영사관에 통고한 「통고각도영사관」, 선유위원회에 깨우쳐 고한 「효고선유위원」, 일진회에 효유한 「효유일진회」, 날짜 미상인 「통고문」이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는 각도열읍에 고하는 격문인 「격고각도열읍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보내는 격문인 「격이등박문(格伊藤博文)」, 군사들에게 경고한 「경계사졸문」, 팔도(八道) 동지들에게 영결하는 글인 「고결팔역동지문」이 있다. 이 연구에서 소개한 「격고각도열읍문」의 내용은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수록되어 있지만 『운강선생창의일록』에는 연도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운강선생문집』에 실려 있는 「격고각도열읍문」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격문에는 말미에 ‘永曆五 丁未年 6월 모일 호좌창의장 이강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격문은 1907년 제천의림지 영호정에서 호좌창의군을 결성 할 당시 각도에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파악하였다.¹²⁾

10) 이동희, 「韓末 외세 侵略에 대한 嶺南 儒林의 義理學的 대응」, 『哲學論叢』 13, 영남철학회, 1997, 84~85쪽.

11) 김성근, 「원주창의소와 이강년의 격문을 통해 본 제천 의병운동사」, 『지역문화연구』 2,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3.

12) 김성근, 「원주창의소와 이강년의 격문을 통해 본 제천 의병운동사」, 『지역문화연구』 2,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3, 46~47.

둘째, 목활자본으로 전해지던 이강년 의병장 자료집의 저본이 된 필사본 자료인 『운강집』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¹³⁾ 『운강집』은 목활자본으로 전해지던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운강선생문집』, 필사본으로 전해지던 『운강선생유고』를 합쳐 편집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여 이강년 의병장의 의병활동 부분을 서술한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운강선생유고』에 부록된 『창의사실기』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창의사실기』가 상황을 구체적 자료를 밝혀가면서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묘사한데 비하여 『운강선생창의일록』은 그렇지 못하였다. 둘째, 『창의사실기』에서 논란이 될 만한 또는 감추고 싶은 사항은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 삭제되었다.¹⁴⁾ 셋째, 구체적 전공(戰功)부분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 넷째, 권용일 백남규 이만원 등의 활약상이나 밀지 이야기처럼 『창의사실기』에서 보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것이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 더 첨가되었다.¹⁵⁾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창의사실기』가 투박할지는 모르지만 투쟁현장의 분위기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자료는 필사본 자료인 『운강선생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일대 의병부대를 탄압한 일본군 보병제14연대에서 작성한 『진중일지』를 분석하여 이강년 의병부대의 활동을 재조명한 연구이다.¹⁶⁾ 이 『진중일지』는 총14권으로 되어 있으며 1907년 7월 23일 동원령을 받은 날 부터 1909년 6월 19일 부대 복귀까지 근 2년간의 기록이다. 이 진중일지에는 각종의 명령, 부대 위치, 전투 상황, 전투 중에 생긴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25매에 달하는 전투상황도는 칼라 판으로 되어 있어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자세하다.¹⁷⁾ 이 『진중일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강년 의병장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¹⁸⁾ 또한 이강년 의병장의 마

13) 구완희, 「한말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의 생애와 『운강집(雲岡集)』」, 『지역문화연구』 6,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7.

14) 삭제된 내용은 의병부대 상호 간의 갈등, 의병부대가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 민가 소각, 의병활동자금을 강제로 징수, 개화세력과의 충돌 등이었다.

15) 구완희, 「한말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의 생애와 『운강집(雲岡集)』」, 『지역문화연구』 6,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7, 106~107쪽.

16) 김상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본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활동」, 『지역문화연구』 9,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0.

17) 김상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본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활동」, 『지역문화연구』 9,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0, 64쪽.

18) 파악한 이강년 의병부대의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강년 의병부대는 문경일대의 전선을 절단하

지막도 알 수 있다. 이강년 의병장은 수비대장의 심문에 을미년(1895년)부터 13년간 시종 일관 국가를 위해 신력을 다했으나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체포되었음을 크게 아쉬워했다. 또한 명성황후의 시해와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에 항거하였음을 밝혔다.¹⁹⁾

최근에는 이강년 의병부대의 운영과 전술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²⁰⁾ 이 연구는 이강년 의병장이 남긴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속오작대도」는 병학지남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병학의 연장에서 작성되었다. 군사의 편제로부터 시작하여 행군 및 전투 수행 방법, 지휘관의 덕목 등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를 간략히 추린 것이었고, 정규 군대의 편성 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의병전쟁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 의병은 기관총까지 동원하는 일본군의 압도적 화력과 맞서야 했다. 의병들은 성능차가 천차만별인 다양한 무기를 아울러 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격전을 수행해야만 했다. 또한, 의병에 가담한 해산군인들로부터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전술을 익혀야 했다. 그러한 현실이 속오작대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속오작대도에 나오는 전투 부대 단위인 초(哨)는 의병 전쟁의 현장에서 사용했던 초의 규모와 크게 다르다. 의병전쟁기에 초는 속오작대도에 나오는 최소 전투 단위인 대(隊)의 규모에 가까운 10명 남짓한 전투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속오작대도에 나타난 지휘의 기본 원리는 의병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평범한 민간인을 병사로 만드는 첫걸음이 제식훈련인 것처럼, 속오작대도에는 농민 포수들을 의병전쟁의 전선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군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고 전신주를 뽑음으로써 일제의 통신을 두절시켰다. 또한 신돌석(申玆石) 변학기(邊學基) 의병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순흥군아와 분파소를 공격하였으며, 영천의 수발동 전투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제14연대 제1대대는 적성전투에서 의병을 대패시키고, 문경의 사불산에 있는 대승사와 금룡사를 공격하는 등 집중적인 추격과 공격을 통하여 이강년 의병부대의 근거지를 점령해갔다. 1908년 1월초에는 수비대를 3개조로 재편성하여 순흥과 단양, 청풍을 거쳐 강원도 산간지역인 영월, 정선, 횡성 일대까지 집중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등 이강년 의병부대 탄압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강년은 일본군의 집중적인 추격과 공격에도 1908년 7월까지 항전하였다. 그러나 1908년 7월 2일 일본군 제23연대의 제천수비대와 교전 중에 부상을 입고 체포되고 말았다(김상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본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활동, 『지역문화연구』 9,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0, 64쪽 88~89쪽).

19) 김상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본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활동, 『지역문화연구』 9,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0, 89쪽.

20) 구완희, 「이강년의 「속오작대도」와 의병 활동의 실제」, 『조선사연구』 29, 조선사연구회, 2020.

원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속오작대도가 갖는 의미를 의병전쟁의 현장과 직접 관련 짓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무인인 이강년이 이해하고 있었던 전통적 군사 운용의 기본 원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²¹⁾

문학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이강년 의병장의 위정척사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²²⁾ 이 연구는 이강년의 시문 분석을 통하여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이 어떠한 양상으로 그의 이념적 토대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고, 그가 기병하고 체포되고 사형당할 때의 심정을 노래하고 서술한 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의 진솔한 정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군사의 징발과 군수품의 조달 및 승전을 목적으로 집필한 격문의 분석을 통하여 그 문학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²³⁾

이처럼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에서도 진행되었다. 주로 이강년의 의병장의 생애, 의병부대 전투상황, 의병부대 운영, 위정척사사상, 문학적 특징 등을 밝혀냈다. 주로 『운강선생창의일록』, 『운강선생문집』 등을 분석한 연구였으며, 추가적으로 일본측 자료인 『조선폭도토벌지』, 『폭도에 관한 편책』, 『진중일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는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의병전쟁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3. 이강년 의병장 자료현황과 과제

1) 기존 연구자료

앞서 연구현황에서 보았듯이 이강년 의병장 연구에는 이강년 의병장이 남긴 기록, 주변 사람들이 정리한 기록, 일본군 기록 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자료들

21) 구완희, 「이강년의 「속오작대도」와 의병 활동의 실제」, 『조선사연구』 29, 조선사연구회, 2020, 101~102쪽.

22) 姜玟求, 「제천의 의병장 이강년(李康奉)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東方漢文學』 82, 동방한문학회, 2020.

23) 姜玟求, 「제천의 의병장 이강년(李康奉)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東方漢文學』 82, 동방한문학회, 2020, 135쪽.

의 성격에 대해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발굴가능하거나 활용가능한 자료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강년 의병장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는 『운강선생창의일록』이다. 이 자료는 박정수(朴貞洙)와 강순희(姜順熙)가 공동 편집한 것으로 유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1948년 겨울 예천 용궁의 나암재(蘿菴齋)에서 목활자본 『운강선생창의일록』으로 간행되었다. 『운강선생창의일록』은 날짜별로 의병 사실을 기록하고, 말미에 보유 편을 두어 순흥 의병장 김휘정, 안동 선비 김수락, 정희섭, 이규홍, 이상의, 김현주, 윤명섭, 이기문, 장선우, 윤치해, 이승재 등에 관한 간단한 기사와 운강이 남긴 격문 4건, 의병부대의 주요 책임자들을 기록한 『장임록(將任錄)』과 『지(識)』 『발문(跋文)』 찬조한 이들의 명단인 『연관인명록(捐款人名錄)』을 나열하였다.²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을미의병 시기 이강년 의병장이 독자적으로 고향 문경(聞慶)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의 앞잡이 안동관찰사 김석중(金奭中) 등을 베어 농암(籠岩) 시장에 높이 매달아 의병부대의 기세를 높였다는 것이다. 둘째, 병신년(1896년) 2월 6일 제천에 가서 유인석 의병부대의 유격장으로 수안보(水安堡) 전투 등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중군장 안승우 등의 제천 패배 이후에는 유인석 의병장은 요동으로 향하고, 이강년 의병장도 군사를 해산하고 유인석의 뒤를 따라 요동 땅을 머물면서 내외지사들을 역방하여 천하대사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셋째,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날 무렵, 단양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기다리던 이강년 의병장이 의병을 다시 모집하자 김상태 이만원 등 수십 명의 의병장들이 호응하였다. 넷째, 정미년(1907년) 7월 5일, 군사를 거느리고 제천(堤川)에 들어가 사방에 격문을 보내고 7월 11일에는 고종으로부터 이강년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 조국의 자주독립을 보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밀지를 받았다. 이강년 의병장이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민공호, 김상태 등의 의병들이 모인 진중에서 칙서를 읽으니, 장졸이 모두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서하는 동시에 이강년을 도창의 대장(都倡義大將)으로 추대하고 그 휘하에 뭉쳤다. 다섯째, 1907년 8월 3일에는 갈벌전투에서 대승하여 일본군 지휘관 호코타(戈田) 소좌 등을 죽이고 10월 1일에는 죽령에서 수

24) 구완희, 「한말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의 생애와 『운강집(雲岡集)』」, 『지역문화연구』 6,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7, 102쪽.

백의 적을 목베고 용소동 서벽(西壁) 내성 재산 전투 등 대소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수많은 적을 죽였으나, 불행하게도 무신년(1908) 6월 4일, 청풍의 까치성에서 적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체포되었다. 동년 9월 19일, 적의 형틀에서 순국할 때까지 적의 갖은 괴변과 유혹에도 추호도 마음을 동요치 않고 추상 열일과 같이 적을 호령하다가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²⁵⁾

다음으로 『운강선생문집』이 있다. 여기에는 이강년 의병장이 직접 남긴 『시』, 『서』, 『격문』, 『축제문』, 『명(銘)』 등을 수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분야에서 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행장』, 『묘갈명』, 『전(傳)』, 『만(輓)』 65건, 『뇌문(誄文)』, 『제문』 22건, 『발문』, 『지(識)』, 『연관인명록』 등을 수록하였다. 이강년 의병장이 직접 남긴 자료에 비하여 부록인 『행장』 이하의 글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⁶⁾

세 번째로 필사본인 『운강유고』 3책이 있다. 이 『운강유고』는 목활자본인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운강선생문집』의 저본이 된다. 『운강유고』 1책은 이강년 의병장이 남긴 글을 『시』, 『서』, 『문』, 『제문』, 『명』, 『잡저』로 나눠 수록하였고, ‘부록 권2’로 이정규가 지은 이강년 의병장의 행장을 덧붙였다. 제2책은 ‘부록 권2’로 박정수와 강순희가 편집한 『창의사실기』, 강순희의 『발문』, 민순호의 『운강사실추록(雲岡事實追錄)』으로 구성되었다. 제2책은 이강년 의병장의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운강선생창의일록』과 비교하여 의병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3책은 ‘부록 권3’으로 48건의 『제문』과 34건의 『만사』가 수록되어 있다.²⁷⁾

『운강선생창의일록』, 『운강선생문집』, 『운강유고』는 이강년 의병장을 연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측 자료를 이용하여 이강년 의병부대의 전투상황, 부대운영 등을 분석하였다. 일본측 자료는 일본군경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의병과의 전투상황, 전투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기록하고 있어 의병전쟁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하다. 주된 자료는 한국주차군 및 일본경찰

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집, 1970, 209쪽.

26) 구완희, 「한말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의 생애와 『운강집(雲岡集)』」, 『지역문화연구』 6,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7, 103쪽.

27) 구완희, 「한말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의 생애와 『운강집(雲岡集)』」, 『지역문화연구』 6,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7, 103쪽.

등에 의해 작성된 『폭도에 관한 편책(暴徒に關する編冊)』,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 『폭도사편집자료(暴徒史編輯資料)』 등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폭도에 관한 편책』은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에서 편집한 자료로 의병을 진압한 일본제국주의 측의 시각에서 작성된 자료이다. 이 『폭도에 관한 편책』은 각 지역의 경찰서에서 작성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의 경찰이 의병 관련 정보를 내부(內部) 경무국으로 보고한 문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상 시기는 1907년에서 1910년 무렵까지로 대한제국 군인들의 군대 해산에 대한 저항 및 군대 해산 이후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의 활동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부대의 전투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체포자 및 귀순자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어 이강년 의병부대에 참여하였던 의병들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철저하게 진압군이었던 일본군경의 입장에서 작성되었기에 당시 전투상황이 일본군경 입장에서 서술되었고, 인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도 오류가 나타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진압한 측에서 작성한 1차 자료로 의병활동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강년 의병부대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많이 활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 활용가치는 매우 높은 편이다.²⁸⁾

다음으로 『조선폭도토벌지』가 있다. 이 자료는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의병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병하였던 한국주차군(1910년 강제병합 이후 조선주차군) 소속 부대들의 전투상황 및 의병봉기 원인²⁹⁾ 등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1913년 3월 30일에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발간하였으며, 독립운동사편찬위원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폭도토벌지』도 의병 진압의 한 축이었던 한국주차군에서 작성하였기에 철저하게 일제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폭도

28) 왕현종 등, 『원주정미의병연구』, 원주시, 2008

29) 한국주차군에서 파악하고 있던 의병봉기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 군대의 해산에 즈음하여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는 단체 해산 후 은사금을 소비해서 의식에 궁한 자요 하사줄을 주뇌(主腦)로 해서 그에 부화뇌동하여 그 배하로 모인 자. ② 지방에서 명망이 높은 유생 또는 양반으로서 완고하고 시세의 추이를 모르며, 새로운 시정 방침을 좋아하지 않아 도당을 모아서 쫓겨난 자. ③ 정치적 야심을 품고 만일을 요행삼아 다른 소요에 편승한 자. ④ 종래 화적이라 칭하고 각지를 횡행하며 약탈을 일삼던 자로서 시세를 이용해서 의병이라 자칭한 자"(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조선폭도토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 3집, 1971, 663쪽).

에 관한 편책』과 함께 통감부와 한국주차군 등의 침략 지배기구가 각지에서 전개되었던 의병전쟁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연월일별로 의병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과 그 지역의 의병장 및 의병부대의 규모, 진압군으로 파견된 일본군의 주요부대, 의병과의 전투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적 특성은 앞서 말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병측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병의 전국적인 활동상황과 각 시기에 따른 의병부대의 성격변화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일본군이 의병부대를 진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였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강년 의병부대 등의 각 시기별 흥망과 전투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세 번째로 『폭도사편집자료』가 있다. 이자료는 1907년에서 1909년간에 각지에서 전개되었던 의병전쟁 상황에 대하여 각도 관찰사와 3개 도의 경찰부장이 당시의 내부대신이었던 송병준(宋秉峻)과 내부 경무국장인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앞으로 보낸 보고서를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모은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는 1907년 7월부터 1908년 8월까지의 의병전쟁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대한제국 관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는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전투상황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관찰사에 의해 파악되고 있던 당시의 의병거의 원인과 주요 의병장의 동태 등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폭도사편집자료』는 이강년 의병부대 등의 거의 원인과 민공호, 이인영, 이은찬 등 의병장들의 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은 기존 이강년 의병장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자료가 되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첫째, 의병부대의 봉기과정과 이후 의병전쟁의 전투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의병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의병장들과 그들의 성격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고, 의병부대가 일본군경과의 케릴라전을 전개하였던 것 이외에 이주 일본인 응징, 부일 한인 응진, 귀순 의병 응징, 일제 시설파괴 등의 전투외적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셋째, 각 의병부대가 의병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전술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지역에 의병부대에서 의병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 의병진영 간의 연합작전을 제안하는 내용, 군수품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 친일행위를 금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 등의

각종 격문을 발송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선동하고 있었다.³⁰⁾

2)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활용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중요하다. 새로운 자료로는 각 의병부대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 의병부대 진압군이었던 한국주차군 및 일본경찰에 의해 작성된 문서, 일제의 의병진압에 협조하고 있던 대한제국 정부에서 작성된 문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사회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제국 정부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 및 부세장부 등의 문서, 통감부 및 조선총독부에서 파악하고 있던 대한제국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문서, 사상적 측면을 알 수 있는 지역 유생들의 문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에 대한 발굴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병부대 내부에서 생산한 문서들에 대한 발굴이다. 의병들은 자신들의 투쟁 내역을 기록한 일기류, 문집류 등을 남겼다. 이러한 자료들은 주로 의병항쟁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의 후손에 의해 비밀리에 소장되어 오다가 공개되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대부분 을미의병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또한 이 자료들은 한말 의병항쟁 전시기에 걸쳐 생산된 의병측 자료의 전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¹⁾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의병부대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료의 발굴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항쟁 지역에 대한 조사, 의병 후손에 대한 조사, 일제측 자료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 소장된 자료 및 일제가 의병진압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³²⁾

둘째, 의병과 관련한 정부 측 자료는 주로 규장각, 독립기념관 등에 많이 소장되어 있

30) 유한철, 「1907~1910년 강원도 의병진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180쪽.

31) 의병측 자료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3,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 박성수 손승철,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의병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등에 공개되었다.

32) 「(전략) 노획품은 30년식 연발총 1정, 동 탄환 55발, 모젤총 1정, 동 탄환 48발, 피스톨 1정 탄환 7발, 마원 경 1개, 수통 1개, 혁대 2개, 은시계 1개, 금화 19원, 서류 약간, 외잡품 약간이었다(후략).」에서 보이듯이 일제는 진압과정에서 의병 자체 내부 문서를 입수하고 있었다(『暴徒討伐景況 第42號』 『폭도에 관한 편책』, 「1908년 3월 12조, 제13사단참모부의 경무국에의 통보」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제10권, 1981, 42~44 쪽).

으며, 이미 많은 자료들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규장각, 독립기념관 등의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이 조사되어 있고, 또한 해제집도 발간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한 의병자료의 재발굴이 가능하며 새로운 자료발굴의 바탕이 될 수 있다.³³⁾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강년 의병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는 있다. 그것은 『폭도격문(暴徒檄文)』, 『유경기대소민인등(諭京畿大小民人等)』, 『유충청북도대소민인등(諭忠淸北道大小民人等)』, 『유강원도대소민인등(諭江原道大小民人等)』, 『면죄문빙철(免罪文憑綴)』, 『지령급보고(指令及報告)』, 『청원서(請願書)』, 『정미년 창의가(丁未年 倡義歌)』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도격문(暴徒檄文)』은 1908년부터 1909년에 걸쳐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에 의해 발표되었던 격문 약 30건을 모아 놓은 책으로 정미 의병 당시 의병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³⁴⁾

『유경기대소민인등(諭京畿大小民人等)』, 『유충청북도대소민인등(諭忠淸北道大小民人等)』, 『유강원도대소민인등(諭江原道大小民人等)』은 일제가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해 8월에 대한제국의 군대인 중앙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마저 해산시키자 원주(原州) 강화(江華)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해산군인 및 지역민들이 연합하여 봉기한 정미의병이 발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순종 황제가 내린 유서(諭書)이다.³⁵⁾

『지령급보고(指令及報告)』는 1901년과 1907년에 각 지방의 세무감(稅務監), 세무관(稅務官)이 탁지부(度支部)에 올린 보고서와 이에 대한 탁지부의 지령, 각 지방민인의 소장(訴狀) 및 청원서와 이에 대한 탁지부의 지령 등을 각 지방별로 모은 책으로 총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3책과 제6책에는 의병의 세무서습격, 우편취급소 파괴 등 의병활동과 관

33) 의병자료 조사와 관련해서는 홍순권, 「규장각 소장의 한말의병운동 관계자료에 대한 조사 보고」 『규장각』 14, 1991 ; 김순덕, 윤대원회 2인, 『한말의병 관계문헌 해제집』, 민음사, 1993 ; 오영섭, 「남북한 민족운동사 관련자료의 현황과 과제 -한말 의병운동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8 등이 참조된다.

34) 『暴徒檄文』(규장각도서 NO.15253)

35) 『諭忠淸北道大小民人等』(규장각도서 NO.15265/15278) 『諭江原道大小民人等』(규장각도서 NO.15270/15280) 『諭京畿大小民人等』(규장각도서 NO.15263/15276)

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의병의 일제 침략기구에 대한 투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³⁶⁾

『청원서(請願書)』는 대한제국 시기 내각총리대신 혹은 의정부참정대신 앞으로 보내진 진정서(陳情書), 청원서(請願書)를 모은 것으로 총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⁷⁾ 이 중에서 의병 항쟁과 관련된 것은 제6책과 제7책이다. 제6책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의한 피해 실태와 배상요청 등에 대한 청원서를 모은 것이고, 제7책에는 1907년부터 1908년까지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에서 유민방지(流民防止)에 대한 방안 등을 포함한 의병진압에 관한 방책을 제시한 것 등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던 조선민들의 피해상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병과 반대편에서 일제의 침략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던 일진회의 의병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의병진압책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면죄문빙철(免罪文憑綴)』은 의병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의병들을 선유(宣諭)하여 귀순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발급하였던 면죄문빙형식(免罪文憑形式)과 면죄문빙(免罪文憑)을 받았던 자들에 대한 기록이다.³⁸⁾ 『통감부내거안(統監府來去案)』은 1906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의정부 및 내각과 통감부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모은 것으로 총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⁹⁾ 이 중에서 12책은 1907년에서 1908년 사이 폭도나 내란범의 명목으로 체포된 의병들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그들의 활동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자료는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의 성향과 그들이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배경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정미년창의가(丁未年倡義歌)』는 가사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1907년 정미의병 당시 영서와 영동지역을 오가면서 활동한 의병부대의 활약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특히 1907년 12월 서울진공작전을 위해 양주에 모였을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의병부대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들과 그들이 유숙했던 곳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1907년 정

36) 『指令及報告』(규장각도서 NO.26079-v.1-5)

37) 『請願書』(규장각도서 NO.17848-v.1-7)

38) 『免罪文憑綴』(규장각도서 NO.26712)

39) 『統監府來去案』(규장각도서 NO.17850-v.1-12)

미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의병들의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⁴⁰⁾ 이전까지 일제측의 자료를 통해 설명되어진 의병항쟁의 전개과정을 의병측 입장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

지금까지의 의병 관련 자료의 발굴이 주로 의병항쟁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병봉기의 배경이 되는 당시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사상적 배경에 대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의 발굴을 통해 의병의 전투과정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의병부대간의 연합 및 해체 등등 전투외적인 상황도 밝힐 수 있어 원주정미의병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9세기 말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한다면 일본 현지에 소장되어 있는 의병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현지의 자료발굴에 있어 앞서 말한 일본군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주차군, 한국주차헌병대 등 의병진압부대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발굴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병항쟁의 전체적인 모습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의병진압부대와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파악하고 있던 조선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 즉 당시 한국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 육 해군 일기자료 등은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은 육군성대일기(陸軍省大日記)에 있는 자료들일 것이다. 육군성대일기는 1868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20여 종류의 공문서를 통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육군성대일기에는 그냥 밀대일기(密大日記)라는 것도 있고, 중국본토지역에 있던 사령부와의 교신이 오고간 문서의 약자인 육지밀(陸支密)도 있으며, 만주지역 일본군 곧 관동군과의 공문서인 육만밀(陸滿密)도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의 동향을 보고한 문서도 합철되어 있는 『밀대일기』에는 조선주차군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병과의 전투상황 보고서인 ‘전투상보(戰鬪詳報)’ 등이 실려 있어 원주정미의병에 관한 내용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밀대일기』는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파악하고 있던 조선의 각 지역에 대한 자료들도 있다. 그러한 자료로 의

40) 『丁未年 倡義歌』(독립기념관 자료번호 1-000723-000)

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내병기류수입관계잡찬(韓國內兵器類輸入關係雜纂)』과 도쿄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명치41년 공문잡찬(明治41年 公文雜纂)』 卷19 등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의병의 직접적인 전투와 관련된 자료는 아니지만 의병의 무기 구입과정, 지방민의 일본과 조선정부의 정책에 대한 태도, 각지 인민들의 경제생활의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의병전쟁이 전개될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일체측 자료가 되겠다. 직접적인 의병전투와 관련 없는 자료의 수집도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의병전쟁에 대한 연구가 전투사, 탄압작전사 중심의 의병전투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의병전쟁과 지역사, 그리고 의병전쟁의 사회사적 기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국내에 남아있는 지역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파악한 지역 자료도 적극 활용해야만 의병전쟁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4. 맺음말

이강년 의병장 관련 자료의 조사 발굴에 있어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이는 발굴할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병항쟁에 국한하지 말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중반까지 의병항쟁에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 이외에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지역 전반에 걸친 자료의 발굴과 의병항쟁 이후 전개되는 독립운동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자료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자료 발굴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의병부대의 조직, 봉기, 전투전개과정에 대한 자료의 발굴이다. 이 부분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고 또 관련 자료의 발굴도 상당 부분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자료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정미의병에 있어 해산군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의병봉기는 그들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지역 민인들에 대한 자료발굴도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발굴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선 관에서 파악하고 있던 각종 보고서류, 부세장부 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더불어 을미의병부터 정미의병까지 활동한 의병장 및 그들의 가문에 대

한 조사와 그들이 가졌던 학맥을 파악하여야 한다. 더불어 그들이 남긴 문집 등을 발굴한다면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의병항쟁의 현장을 답사하여 의병항쟁 지역에 대한 조사, 의병 후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의병항쟁 지역에 소장되어 있거나 의병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조사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윤강 이강년 의병장 자료 현황과 과제

원재영(연세대학교 강사)

발표자인 심철기선생은 한말의병에 관한 연구자로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바 있습니다. 본 발표문은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여기에 활용된 자료의 현황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본 발표문에 더해 몇 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발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발표문에는 필사본 자료인 <윤강집>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3쪽) 지금까지의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의 기본자료로 <윤강선생창의일록>, <윤강선생유고>, <윤강선생문집>을 활용하여 그의 행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선 언급한 연구에서의 지적처럼 이들 자료는 각각의 자료들이 지닌 장점과 한계가 분명하다고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들 자료를 통한 연구에서는 그의 행적에 관한 사실관계의 선후가 애매한 경우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이를 다른 입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활용된 주요 자료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 및 이를 통한 세밀한 분석을 통한 교차 비교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작업의 하나로 기존의 자료 외에 이강년 의병장과 관련된 여러 자료집 간행된 바,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간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종합하여 기존에 수집된 자료들을 시계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이를 통해 이강년 의병장의 행적을 더욱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금까지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연구는 그의 군사활동과 순국과정만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사활동은 주로 일본군과의 교전 과정에 대한

서술에만 집중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의 군사 활동이 장기간 가능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수 있겠으나, 이를 뒷바침하는 군자금의 있었기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쉽게 가능합니다. 의병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민폐를 끼치지 않고 부호들로부터 出捐을 통해 마련했다고 간략히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발표문에서도 앞으로의 과제로 언급한 것처럼 의병봉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는 그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도 연관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강년 의병부대의 장기간의 활동속에 부호들로부터 出捐만으로 군사 활동에 소요되는 많은 군자금의 마련이 가능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기며, 당시 국가의 부세체계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이를 군자금으로 확보하려 했다던가? 하는 군자금의 확보와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7주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말 의병운동 서술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이광현(성주고등학교 교사)

토론자 : 조철호(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항일 의병 운동 서술 현황과 과제

-주요 의병장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이광현(성주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항일 의병 운동 서술
3. 학교 현장에서 항일 의병 운동 교수·학습의 실제
4. 역사교육에서 항일 의병 정신 선양을 위한 제언
5. 나오며

1. 들어가며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면서 여러 차례 박열의사기념관을 견학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관람객을 보기 힘들었다. 박열의 항일 정신에 더해 가네코 후미코, 후세 다츠지를 통해 보편적 인류애를 지닌 실천하는 민주 시민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교육장이라 생각하는데 찾는 이가 많지 않아 늘 안타까웠다. 그런데, 박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관련 도서가 출간되면서 찾는 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안동의 석주 이상룡 생가(임청각)도 마찬가지다. 고즈넉하던 곳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언급된 이후 찾는 이가 부쩍 늘고 해설사까지 위치하게 될 정도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급기야 생가의 허리를 끊고 놓였던 철로까지 이전하게 되었다. 박열기념관, 임청각에 분 변화의 바람은 대중의 관심에서 온 것이다.

그럼 이제 일제의 침략이라는 나라의 위기를 맞아 분연히 떨쳐 일어나 치열하게 싸운 경북인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경북인의 높은 관심 속에 기념되고 관련 유적지는 교육 문화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선뜻 긍정의 답을

내진 못할 것이다. 상주교육지원청 교육관 뜰에 외롭게 서 있는 노병대 의병장의 기념비를 보면서,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문경 오미자 터널 위에 조용히 방문객을 기다리는 이강년 의병장 유적지 고모산성 정상에 서서 선뜻 경북인의 항일 의병 정신이 오늘을 사는 경북인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북인의 항일 의병 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그 자부심이 경북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생활 속에서 문화로 소비되는 변화의 신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경북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역사교육의 최전선인 학교 현장에서부터 미래 경북을 이끌 학생들에게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보고 경북인의 항일 의병 정신을 오늘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항일 의병 운동 서술

2.1.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항일 의병 운동 서술 현황

교과서가 학교 교육의 유일한 교재로 군림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항일 의병 운동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제대로 된 항일 의병 운동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로 총 9종이다. 검정 교과서의 특성상 집필 기준을 준수하는 한 내용 구성, 서술 방식이나 표현, 자료 선정 및 제시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기준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기준
<p>나.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p> <p>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고, 개항 이후 정치적 사건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의 관련 속에서 각 주체가 지향하는 움직임과 연동하여 서술한다. 이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외세의 침략성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준다. 근대화 노력과 서구 문물 수용에 따른 사회 문화적 변화를 아울러 설명한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질서의 동요와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을 서술하고,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 국권 수호 운동을 당시 근대화 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한다. 우리 영토로서 독도의 역사적 위상과 이 시기 일제가 행한 독도 편입의 불법성 및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제시한다.</p>

한국사 집필 기준에 따르면 애국 계몽 운동과 더불어 국권 수호 운동인 항일 의병 운동은 근대화 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평등 의식의 확산 속에 평민 의병장 신돌석, 머슴 의병장 안규홍의 활약상을 강조하거나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춰 여성 의병장 윤희순을 발굴해 서술한 것이 그 사례이다. 한국사 집필 기준에 따른 검정 교과서 9종의 소단원 및 주제 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의병 운동 관련 단원 및 주제 구성 현황

출판사	소단원명	주제 구성	분량(쪽)
금성출판사	국권 수호를 위한 항일 의병	을미의병의 봉기 을사의병의 봉기 정미의병의 봉기 호남 의병 전쟁의 전개 항일 의거 활동의 전개	4
동아출판	항일 의병 운동과 의열 투쟁	일본에 맞서 의병 운동이 일어나다. 의병 운동이 다시 일어나다. 의병 운동,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다. 자신을 바쳐 일본에 맞서다.	4
리베르스쿨	항일 의병 운동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일어나다. 을사늑약을 계기로 을사의병이 일어나다. 정미의병이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다.	2
미래엔	항일 의병 전쟁	항일 의병이 일어나다. 평민 의병장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다.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다. 일제, 수많은 의병과 양민을 학살하다. '의병은 우리 민족의 정수이다.' 항일 의거 활동,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하다.	4
비상교육	항일 의병 운동과 의열 투쟁이 전개되다.	단발령과 의병 봉기 을사늑약과 의병 재기 일본의 의병 진압 의열 투쟁의 전개	3
씨마스	항일 의병 투쟁의 전개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다. 의병 투쟁이 전국에서 일어나다. 해산 군인이 의병 투쟁에 합류하다. 의병 연합 부대, 서울진공작전을 펼치다. 일본이 호남 의병과 양민을 학살하다.	4
지학사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나다. 의병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하다. 호남에서 의병 투쟁이 계속되다. 항일 의거 활동이 일어나다.	3
천재교육	항일 의병 운동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저항하다. 을사의병, 평민 의병장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다. 정미의병,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다. 일본의 탄압으로 의병 활동이 위축되다.	2
해냄에듀	의병, 국권 회복과 자유를 위해 싸우다.	대한제국은 어떻게 국권을 빼앗겼을까? 의병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의병 운동은 어떻게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였을까? 의병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3

주제 구성면에서 의열 투쟁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의병 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원인, 전개 과정, 영향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 면에서는 2~4쪽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4쪽 분량의 출판사 경우에는 의열 투쟁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 경우이기에 실제 항일 의병에 대한 분량은 대체로 2~3쪽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이 내용 요소를 줄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을 강조함에 따라 2~3쪽 수준의 분량마저도 본문 분량은 더욱 줄고 다양한 탐구 활동 자료로 채워져 있다.

용어 면에서 한말 항일 의병은 ‘의병 운동’, ‘의병 투쟁’, ‘의병 봉기’, ‘의병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의병 전쟁’의 경우는 미래엔 출판사 1종에서만 소단원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개는 ‘의병 운동’이나 ‘의병 봉기’가 정미의병(후기 의병)시기부터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같은 교과서 내에서 ‘의병 전쟁’이란 용어를 구분해 사용한다.

의병 운동을 이끈 의병장에 대한 서술은 본문 내용, 자료(사진, 초상화, 기록화, 사료 등 사진·그림 자료나 읽기 자료), 지도 표기 등으로 제시된다. 교과서에 실린 의병장들을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출판사별 의병장 서술 현황(※경북 출신 음영 처리)

의병장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육	해냄에듀	누계
고광순					자료					자료1
권세연	자료									자료1
기삼연					지도	지도				지도2
기우만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6
김덕제			지도				지도			지도2
김도화					본문 지도					본문1 지도1
김동식			지도		지도		지도			지도3
김복한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6
김수민							지도			지도1
노병대			지도				지도			지도2
노응규	자료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자료1 지도8
노희태		자료								자료1
문석봉					지도					지도1

의병장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육	해냄에듀	누계
민궁호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자료2 지도	본문 지도	지도	지도	자료2 지도9
민종식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지도	본문8 지도9
신돌석	본문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자료2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9 지도9 자료7
심남일					지도					지도1
안규홍	본문	자료 지도	지도	본문 지도	지도	지도	지도		본문 지도	본문3 자료1 지도8
양혁진	지도							지도		지도2
원용팔					지도					지도1
유명규	지도				지도			지도		지도3
유인석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자료2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자료2 지도	자료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지도	본문8 자료9 지도8
윤희순				자료						자료1
이강년	자료2	자료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자료 지도	지도		지도	자료4 지도7
이범운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5
이설					지도					지도1
이세영	자료									자료1
이소응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본문8 지도8
이인영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자료	본문 자료2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본문9 자료4 지도8
이진룡					지도					지도1
임병찬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9
정용기	지도	자료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자료1 지도7
정한용	자료									자료1
정환직		자료 지도								자료1 지도1
주용규	자료									자료1
전해산 (전기홍)	본문 지도	자료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본문 지도	본문2 자료1 지도8

의병장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육	해냄에듀	누계
차도선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9
최문환					지도					지도1
최익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자료2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지도 자료	본문 자료2 지도	본문 지도	본문 자료 지도	본문 지도	본문8 자료8 지도8
허위	본문 자료		본문 지도	지도	지도	본문 자료	본문 자료2 지도	본문	본문 지도	본문6 자료4 지도5
홍범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본문 지도	지도	지도	본문1 지도9

2.2. 경북 출신 주요 의병장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과 문제점

학생 교육적 측면에서 지역 의병장의 활약상은 지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북 출신으로 교과서에 언급된 의병장은 영덕 출신 신돌석(9종), 구미 출신 허위(8종), 문경 출신 이강년(8종), 영천 출신 정용기(7종), 상주 출신 노병대(2종), 안동 출신 권세연(1종), 김도화(1종), 현풍 출신 문석봉(1종), 영천 출신 정환직(1종)으로 총 9명이다. 경남 출신인 노응규, 정한용을 더하면 경상도 출신 의병장이 총 11명이 실려 있다.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 실린 의병장 40명 중 가장 많은 수이다.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여 의병장만 100여 명 체포하거나 학살했을 정도로 맹렬하게 투쟁한 전라도 의병장들이 총 8명만 소개된 점과 비교하면 오히려 전라도 지역에서 서운해할 수준이다. 경북 출신 의병장들의 의병 운동이 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북 출신 의병장에 대한 서술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의병장인 신돌석은 유생 출신 의병장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평민 출신이라는 특징과 ‘태백산 호랑이’라 불리며 유격전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점이 주목받아 9종 교과서 본문에 모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전투 기록화, 초상화, 흉상, 기념비 등 다양한 그림 자료와 사진 자료를 더해 소개되고 있다. 신돌석에 대한 서술은 나무랄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신돌석 다음으로 본문에 많이 언급된 허위부터 바로 고개를 가웃거리게 된다.

허위는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펼칠 때 선발대를 이끌고 서울 근처까지 진격해 일본군과 교전을 펼쳤다. 9종의 교과서 본문 모두에 ‘서울진공작전’이 언급되고 허위가 거명된 것만 6종에 이르며 지도를 통해 소개된 교과서도 5종에 이른다. 하지만 출판사별 지도를 비교하면 4종(미래엔, 리베르스쿨, 지학사, 해냄에듀)의 교과서에는 경기도 포천으로 표기되어 있고, 1종(비상교육)에는 경상도 선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허위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개해 처음으로 의병 투쟁에 나선 때는 김산의진(의병장 이기찬)의 참모장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김산은 지금의 경북 김천이다. 고종이 강제로 퇴위 되고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되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허위는 경기도 연천 포천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킨다. 의병장 허위에 대한 지도 표기가 이렇듯 다른 이유는 의병 투쟁을 지도에 표시하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검인정 체제에서 집필 기준을 준수하면 교과서 내용 구성은 출판사에 자율권이 부여되기에 이를 문제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역사적 사실 이해 면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경북 김천과 선산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김산군과 선산군으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김산의진에서는 의병장이 아니었기에 지도에 표기한다면 의병장으로 거명한 경기도 연천 포천 지역으로 표기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이강년의 경우 교과서 본문에 언급된 경우는 없지만, 7종의 교과서에서 의병 활동 현황 지도에 표기하고 있고, 3종의 교과서에는 관련 자료가 정리되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금성출판사 교과서에는 동상 사진과 함께 격문이 사료로 소개되고 사료 분석 활동을 통해 의병 봉기의 원인을 묻는 학생 탐구활동 자료로 실려 있다. 동아출판사 교과서에는 한쪽 면을 채운 의병 관련 읽기 자료에 대표적인 4명의 의병장 중 한 명으로 이강년을 소개하면서 주요 활동 및 평가까지 정리되어 있다. 비록 본문에 서술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해당 주제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때 더 자주 활용되기에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지도 표기 내용에 있다. 문경 출신으로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강년을 정작 문경 지역 의병장으로 표기한 교과서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9종의 교과서 중 7종의 교과서 지도에 이강년이 표기되어 있지만 3종(미래엔, 비상교육, 해냄에듀)만 문경으로 표기하고 충청도 제천(지학사, 동아출판사), 강원도 인제(리베르스쿨, 씨마스), 경상도 풍기(비상교육)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이강년이 경상·충청·강원 지역을 무대로 폭넓은 활약을 보인 탓이다. 비상교육의 경우 문경과 풍기에 모두 표기하기도 하고, 격문과

동상 사진까지 실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경우에 정작 지도 자료에는 이강년을 표기하지 않았다.

정환직 정용기 의병장의 경우도 본문에 언급된 교과서는 없다. 다만 동아출판사 교과서에 경상도 지역의 대표 의병장으로 부자지간에 의병장으로 활동한 점이 읽기 자료로 간단한 설명글과 함께 지도에 표기되고 있다. 지역별 대표 의병장을 정리해 소개한 출판사의 편집 의도가 엿보이는데, 문제는 같은 쪽에 정리한 이강년을 충청도 의병장으로 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강년이 경북 의병이 아님을 강조하는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러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유명세가 있는 의병장은 그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면 1~2종 교과서에 서술된 경북 출신 의병장의 경우는 제대로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상주 출신 노병대의 경우 2종의 교과서에서 지도에 등장하는데 모두 충청도 보은에 표기되어 있다. 상주시에서 교육지원청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역 출신 의병장으로 기념하고 나라 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속리산에서 거병해 상주 청주 김천 성주 등에서 활약한 노병대 의병장의 행적을 고려하면 출판사의 서술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경북 현풍(현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출신 문석봉은 비상교육 1종의 교과서에서만 지도에 소개되는데 대구와 고령 사이 지점(현풍에 표기하려는 의도로 추측)에 표기하고 친절하게 지명을 ‘유성’이라 적고 있다. 이는 문석봉이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공주부 유성(현재 대전 유성구)을 표기하려다 출신 지역인 경북 현풍과 혼동한 것으로 추측되는 명백한 오류라 할 수 있다. 권세연, 김도화의 경우 안동의진의 1대, 2대 의병장으로 안동부까지 일시 점령했다는 점에서 그 업적이 적지 않은데도 각각 1종의 교과서에서 지도에 소개되고 있다. 김도화의 경우에는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유생 의병장이 중심이 된 을미의병을 서술하며 본문에 유인석, 이소응처럼 9종의 교과서에 모두 언급된 의병장들과 나란히 나열되어 반갑기까지 하다.

유림의 본향으로서 대의를 위해 일어난 유림 출신 의병장이 경북에 많은데, 백과사전식으로 교과서에 모두 나열해 소개될 수는 없겠지만 교과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의병장도 여럿이다. 영양 출신으로 안동부 점령, 태봉 전투 등에서 활약했으며 도해 순국으로 장렬히 최후를 마친 벽산 김도현, 퇴계 가문 출신 의병장으로 국권 피탈 후 자정 순국을 실천하여 큰 울림을 준 향산 이만도 등은 지역에서의 유명세에 비해 교과서에 서술이 전무한 상황이다.

많이 언급된 의병장 중 신돌석과 이강년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강년 의병장이 교과서에서 적게 기술된 이유는 무엇일까? 의병장으로서의 활약 면에서만 본다면 결코 뒤쳐지지 않지만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보면 신돌석만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항일 의병 운동의 주된 서술 기조는 시기별로 구분해 을미의병은 유생 중심으로 붕기, 을사의병은 유생과 더불어 평민 의병장의 출현, 정미의병은 해산 군인까지 합류하며 의병 전쟁으로 확대, 호남 의병의 치열한 항쟁, 국외 망명과 독립군 형성을 특징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 해당 시기별 대표적 인물이 소개되는데 을미의병 시기에 유인석, 이소응 등이, 을사의병 시기에 최익현, 신돌석 등이, 정미의병 시기에 이인영, 허위 등이 언급된다. 무관 출신으로 유인석 문하에 들어가 활동해 제천과 단양 지역의 의병장으로 인식¹⁾되는 이강년을 을미의병 시기 대표적 유생 의병장으로 소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해산 군인들의 합류가 돋보이는 정미의병 시기에는 원주 진위대를 이끌고 붕기한 민공호 부대를 자료로 소개하면서 연합 작전을 펼친 의병 부대 중 하나로 1종의 출판사(씨마스)에 이름이 언급된 게 전부이다. 13도 창의군의 결성과 서울진공작전은 비중 있게 다루어져 호서창의대장 이강년을 다룰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서술할 경우에도 호서창의대장 이강년은 언급 없이 교남창의대장 신돌석이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내용²⁾이 강조되는 것도 집필 기준과 무관하지 않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경북 출신 의병장에 대한 서술은 전체적으로는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술 기준에 따라 역사적 사실 이해에 오해를 일으키거나 오류가 있어도 문제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1)) 강민구, 「제천의 의병장 이강년의 위정척사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회, 2020.
 2)) 제7차 교육과정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92쪽

3. 학교 현장에서 항일 의병 운동 교수·학습의 실제

3.1. 고1 한국사 수업에서의 항일 의병 운동 수업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을 학습자가 길러야 할 중요한 역량³⁾으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역사 교과와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체계는 영역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 기준으로 소주제별로 제시되어 있다.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 고등학교 한국사 항일 의병 운동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⁴⁾

소주제	학습 요소	성취기준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러일 전쟁, 을사늑약, 국권 상실, 항일 의병, 애국 계몽 운동, 독도와 간도	[10한사02-04]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내용을 파악한다.

고등학교 한국사는 대체로 1학년에 주당 3차시 수업을 하게 된다. 학기 초에 수립하는 교과 진도 운영계획은 17주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된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항일 의병 운동은 1차시 내외 분량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음은 필자의 2021학년도 한국사 교수학습 운영 계획표를 편집한 것이다. 항일 의병 투쟁과 관련한 수업은 프로젝트 활동을 포함해 2차시로 계획되어 있다.

3))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2018, 142쪽

4))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2018, 145쪽, 147쪽

〈표 5〉 2021학년도 고1 한국사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예시)

출판사명(저자)		○○출판(○○○ 외 9인)		주당 단위수		3		예정 진도		p.8 ~ p.141			
								○○출판(○○○ 외 9인)				3	
								○○출판(○○○ 외 9인)				3	
기준반 : (1)학년 (4)반 (월, 화, 목)요일													
2021학년도 한국사 1학년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지도교사 ○○○													
담당학급 1학년 1, 2, 3, 4반													
교과 한국사													
기준반 : (1)학년 (4)반 (월, 화, 목)요일													
출판사명(저자) ○○○출판(○○○ 외 9인) 주당 단위수 3 예정 진도 p.8 ~ p.141													
주	월 일	단 원	성취기준 번호	평가 및 교과통합	교과연계 창체/계기교육	예정 시수	실시 시수	증 감 사 유					
1	3/1~3/5	I-01.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10한사01-01]			2 2	2 2	3.1 삼일절 3.2 개학 및 입학식					
...													
15	6/7~6/11	II-03.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10한사02-03]	서·논술형2		3 39							
16	6/14~6/18	II-04.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10한사02-04]			3 42							
17	6/21~6/25	II-04.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10한사02-04]	역사 프로젝트	독도1	3 45							
18	6/28~7/2	II-05. 개항 이후의 경제적 변화	[10한사02-05]			3 48		6.30~7.2 지필2회(전학년)					
19	7/5~7/9	II-06. 개항 이후의 사회·문화의 변화	[10한사02-06]	역사수행 포트폴리오	보건1	3 51		7.7 인천시교육청(3학년)					
20	7/12~7/16	II-06. 개항 이후의 사회·문화의 변화	[10한사02-06]	프로젝트형 수업		3 54		7.16 방학식					

별도 수행 활동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수업은 1차시 내외로 계획될 것이다. 그리고 시기별 의병 투쟁의 원인과 특징, 의병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역사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은 학습지를 완성한 후 최근에 강조되는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마인드 맵, 주장글쓰기, 기사문 작성, 만평 그리기 등)을 진행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역의 의병장이나 의병 투쟁에 대해 조사하고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실제 의병 운동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 '지역 의병 운동 답사 계획 수립' 활동지에 이강년 의병장 관련 내용을 입혀 작성한 예시이다.

〈표 6〉 2021학년도 고1 한국사 항일 의병 운동 수행 활동지(예시)

항일 의병 주제 답사 계획서	
주제	문경 의병 로드: 길 위에서 만나는 이강년 의병장
일정	2021년 8월 15일(일) 09:00~17:00
답사 코스	운강이강년선생기념관 → 도태장터 → 농암장터 → 고모산성 → 문경세재(조령전투) → 갈평전적지 → 적성전투 전적지 → 김룡사
사전 조사(인물)	윤강 이강년
사전 조사(사건)	- 을미사변, 단발령과 을미의병 -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과 정미의병 - 13도 창의군 결성과 서울진공작전 - 조령전투 -갈평전투 - 적성전투
코스 소개 (주소, 내용)	- 운강이강년선생기념관(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96) - 농암장터(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안동관찰사 김석중 처형 - 고모산성전투(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일본군 및 관군과 첫 교전 (이하 생략)
담당 업무	교통편 확인, 고모산성 발표 담당
사후 활동	의병장 이강년 캐릭터 버튼 제작
진로 연계 활동 계획	산업디자이너로 이강년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 상품 개발

역사 교사가 지역사와 관련한 프로젝트 수업을 수행평가 등으로 계획하지 않는다면, 1차시 내외의 수업 시간 동안 의병 운동에 대한 이해에 더해 지역 출신 의병장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 본문이나 학생 활동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들은 지역 출신 의병장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의병 운동 수업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을 통해 이강년을 비롯한 지역 출신 의병장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고 가슴에 새길 수는 없는 것일까?

3.2.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통한 항일 의병 운동 교육

학교의 교육활동은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사 수업 시간을 통한 지역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수업 시수가 부족하더라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보완하거나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 동아리 활동이 그 대표적이 경우이다. 하지만 역사 동아리 회원들만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보다 전체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현장의 상황은 입시와 맞물리며 진로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제외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표 1>의 범교과 주제 학습에

배정된 시간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교과 수업 시간에 포함해 진행하지 않으면 범교과 주제 학습 시간을 다 채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표 7〉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⁵⁾

안전 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 금융 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

하지만 조금만 준비한다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 정신을 실천한 의병 정신을 민주 시민 교육의 주제로,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희생한 의병의 삶을 인성 교육 주제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뜻있는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4. 역사교육에서 항일 의병 정신 선양을 위한 제언

• **의병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 기준을 분명히 하되 분량을 기대하지 말자.**

한국사 교과서에서 항일 의병 운동의 시기 구분과 시기별 특징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주요 의병장에 대한 서술은 최초 거병 지역, 주요 활동 지역 등 출판사 별로 다양하다. 이는 오류의 문제라기보다 활동 영역이 넓었던 의병 운동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독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사실 이해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 의병장 이해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처음 봉기한 지역으로 표기하는 등 서술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출신 지역이나 주요 활동 지역에서 의병장을 기념하고 교육하는 것은 수업 중 역사 교사의 부연 설명이나 교과서 밖, 학교 밖의 지역 사회에서 얼마든지 강조하면 되는 것이다. 구국의 의지로 일어난 의병이 특정 지역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그분들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라 믿는다.

교과서에서 의병 운동에 대한 분량을 늘이는 방법으로 지역 출신 의병 운동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미 7차 교육과정 시기에 존재했던 ‘한

5)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7, 53쪽

국근현대사' 과목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한국근현대사 과목은 선택 교과로 한국사에서 전근대사 영역을 빼고 근현대사 영역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검인정 교과서로 총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되었는데 필자가 확인한 2종(대한교과서, 금성출판사)의 경우 의병 운동에 대한 분량이 의열 투쟁을 포함해 6쪽으로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4쪽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분량은 아니다. 또한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내용 요소를 줄이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에 분량을 늘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 의병 운동에 대한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자.

교과서에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서술 분량을 더 늘이기 위한 노력이 효과가 없다면 수업 시간에 지역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역사 교사의 수업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가 기본 교재이긴 하지만 교과서가 전부 아니기 때문이다. 성취기준에 맞춰 지역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 조사하고 스토리텔링 활동 작품을 제작하는 등의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지역 출신 의병장을 조사해 관련 유적지를 정리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결해 스토리텔링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평가로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선택형 방과후 수업에서 최근 역사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상이나 웹툰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중 역사 관련 내용을 편집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역사적 사실을 UCC나 웹툰, 노래 등으로 바꾸는 활동 등이다. 이미 독립운동가 관련 다양한 웹툰이 제작되어 있는데 의병장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를 소재로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려면 지역에 대한 교원의 이해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 연구 성과가 연수 등의 형태로 교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독립운동사가 교원직무연수로 개설되고 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에 의해 지역의 독립운동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수행 활동으로 활용되고, 체험학습장으로 독립운동기념관을 찾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

• **진로 선택 과목 개설 및 선택을 통해 지역사를 의미 있게 다뤄보자.**

현재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시행 중이고 2025년도부터는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 선택권 강화에 대한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준비 부족과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의 반대 여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큰 흐름은 정해진 것이고 안일한 대처로 이미 개정 교육과정 시행 과정에서 한 번의 타격을 입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에는 역사 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된 것에 만족한 채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정작 역사 과목이 좀 더 많이 선택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2022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 고시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된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역사교육계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사를 필수에서 제외하자는 주장과 한국사 수업 시수를 4단위로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역사 교사와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 여론의 못매를 맞고 한국사 필수 배제 주장은 수그러들었지만 수업 시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교육부 내에서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다. 역사교육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없다면 한국사 자체를 배우지 않는 학생이 다시 나올 수 있고, 항일 의병 운동이 다른 주제와 함께 1차시에 간단히 다뤄지고 넘어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에 묻혀 관심이 덜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바로 진로 선택 과목에 역사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는 점이다. ‘역사 탐구’, ‘한국 문화사’, ‘여행 세계사’ 등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제 중심으로 탐구 활동을 펼치는 ‘역사 탐구’ 과목에서 지역의 항일 의병 운동을 주제로 관련 독서, 조사 보고서 작성, 답사, 홍보 영상 제작, 진로 연계 활동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역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학계와 지역 사회의 분위기 조성 과 협력이 필요하다.

• **의병 정신 함양을 위한 학교-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하자.**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업시수 증감 20%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자율화가 가능하지만 교과 내용이나 성취기준을 다 가르치는 문제, 교사

수급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 일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그나마 교사가 바뀌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학교자율과정), 전북(자율학교), 충북(자율탐구과정)처럼 학교가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⁶⁾

역사교육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여전히 국정 교과서이고, 2022년도부터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들어간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교육 내용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프랑스처럼 자유발행제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현행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학교와 지역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어떨까?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이 교육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다.⁷⁾

대학 입시에서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지만 절대평가로 치러지면서 입시 부담이 현격히 감소했다. 이런 조건에서 역사 학습 본래의 의미를 살려 지역사와 같은 지역교육과정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지역사 학습은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고, 체험 가능한 ‘지역 사회’를 학습 대상으로 삼아, 그 시공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룩하였으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⁸⁾ 지역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의병 정신을 가슴에 새긴 지역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성찰하는 교육과정을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인정제 교과서로 지역 교과서까지 발행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미 부산교육청에서는 ‘부산의 재발견’과목의 중학교용 인정교과서를 발간했고, 광주교육청에서 개발한 ‘5·18민주화운동’과목의 고등학교 인정교과서를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신은희, 「지역교육과정의 성찰과 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충북 워크숍 토의자료, 2021, 8쪽

7)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8) 유승광,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역사와 담론』 44, 2006

• 지방 자치 시대에 발맞춘 항일 의병 운동 콘텐츠 개발에 힘쓰자.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응답하라 1919!’라는 주제로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1,000명을 30여 개 팀으로 나눠 릴레이 해외 독립운동 탐방을 진행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라는 주제로 독립운동길 학생순례단 50명이 6박 7일 일정으로 중국 내 경북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가 불가능해지면서 도내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답사는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관광 및 체험학습 콘텐츠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문경새재 ‘한양 과거급제길’, 전남 담양 ‘문화재와 함께 하는 의병로드’ 투어 등이 좋은 사례이다. 항일 의병을 주제로 한 관광 콘텐츠로 개발된다면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독립전쟁 체험프로그램 중 ‘태봉전투장’은 항일 의병 연합부대의 태봉전투를 기념해 명명한 것처럼 이미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 시민교육 관점의 지역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자.

교육과정의 전통적인 개념은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제시해 놓은 공식 체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곧 학교교육과정이라고 볼 정도로 강력한 규정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개념이나 이해도는 교사나 학교 상황, 지역에 따라 다르고 때로는 국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지방분권이 활성화된 나라들은 교육과정을 단위이나 학교교육과정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교육과정으로 보고 교육과정의 성격도 “교육과정 → 교과서 → 수업”에서 “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 → 교육활동과 수업”, 즉 학교가 학생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활동과 수업으로 만들어내고 있다.⁹⁾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자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 자치, 교육 자치에 걸맞게 교육과정 자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권한 이양을 적극적으로 요

9)) 신은희, 「학생 발달과 교사교육과정」 전북 교사교육과정 연수자료, 2021, 7쪽

청하여 학교 운영과 현장의 교육과정 권한 강화가 시대 흐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제도 사이에서의 협치를 의미한다. 운영과 집행 권한을 분점하며, 공동책임을 지는 제도 운영 및 정책 집행 방식을 말한다. 학교와 교사만의 역할과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일의병 운동을 다룬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버넌스는 학교(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의 교육 공동체가 역할과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은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 주체이자 책임자이다. 시민이 역사를 알고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책무와 명분을 지니고 역사적 실천의식을 보인 항일 의병 정신을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지역교육과정으로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교육활동의 주체이자 학습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5. 나오며

경북 지역의 항일 의병 운동과 주요 의병장의 행적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 적지 않은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검인정 교과서 체제라 교과서 집필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출판사별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봉기 지역이나 주요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표기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주제에 따라 선택 또는 제외되고 있다. 심지어 지역 표기에 오류가 존재하기도 한다. 의병 운동에 대한 서술 기준을 분명히 하여 사실 이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강조하는 근대화 운동과의 관련성, 내용 요소를 줄여가는 개정 교육과정의 추세, 과거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경우처럼 전문 교과로 다룰 때도 분량은 별 차이가 없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교과서의 분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병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병 정신을 선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교과서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역사는 알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학생과 시민 사이에 넓게 형성되어 있다.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 배경이자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의 역사 수업을 어렵고 재미없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역사 과목들은 소수만 선택하고 있으며, 진로 선택 과목에 역사 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학교 밖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을 보며 열광하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학교의 역사교육으로 옮겨오기 위한 교사, 학교, 지역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역사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역사 수업을 통해 지역의 항일 의병 투쟁에 대한 수행 활동을 실시하고, 역사에 관심 많은 학생에게는 방과후 수업이나 역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교는 범교과 주제 학습이나 이미 부여된 교육과정 자율권을 활용해 항일 의병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하는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에 역사 관련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지자체, 지역 대학, 시민 단체 등)는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축적된 연구 성과를 교원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항일 의병 관련 유적지를 문화 체험 콘텐츠로 개발해 학교의 교외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이 유기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는 역사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항일 의병 운동이 포함된 학교-지역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실 수업과 동아리 답사, 수련 활동 등 교외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 지역의 의병 운동이 활용된다면 의병 정신의 선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2017.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2018.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 신은희, 「학생 발달과 교사교육과정」 전북 교사교육과정 연수자료, 2021.
- 신은희, 「지역교육과정의 성찰과 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충북 위크숍 토의자료, 2021.
- 유승광,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역사와 담론』 44, 2006.
- 양정현, 「역사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대안 모색」 『역사와 세계』 53, 2018.
- 황현정, 「역사 교사의 교육의 자율권과 자유발행제 탐색」 『역사와 교육』 16, 2017.
- 이형빈, 「학교의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한 학교교육과정 개발 가능성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4, 2020.
- 손찬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탐색」 『교육비평』 40, 2017.
- 강민구, 「제천의 의병장 이강년의 위정척사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회, 2020.
- 구완희, 「단양 지역의 한말 의병항쟁」 『중원문화연구』 13, 2010.
- 김철민,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한말호남의병 서술 분석」 『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제 11회 의병의 날 기념 학술포럼 자료, 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항일 의병 운동 서술 현황과 과제

조철호(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토론 1. 경북 출신 의병장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제각각인 이유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경북 출신 주요 항일 의병장에 대한 서술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다른 지역 의병장으로 소개되거나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른 지역으로 소개되는 것은 의병 운동의 특성상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거나 여러 차례 거병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석봉 의병장의 경우처럼 지역 설명에 대한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한말 의병 운동이 향토방위의 개념을 넘어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연대 투쟁을 펼치고, 국권 피탈 후에는 국외로 망명해 독립군으로 무장 투쟁을 이어간 점을 고려할 때 출신 지역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국권 수호를 위해 펼쳐 일어난 의병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2. 교과서 서술을 넘어선 의병 운동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역사교육은 역사를 소재로 하여 인간을 교육하는 활동이다. 즉 인간의 과거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기초로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장시키며, 바람직한 역사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이 역사교육이라 할 수 있다. 지식에 방점을 둔다면 각 의병장에 대한 꼼꼼한 서술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중요하다. 사고력과 통찰력 나아가 가치관과 태도에 방점을 둔다면 의병장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보다는 의병 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추체험할 수 있는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활동 중심 수업 등으로 학교 현장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세밀한 서술은 오히려 한국사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사 교과서의

한정적인 지면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 기술이 되어야 할지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다.

토론 3. 지역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가능한가?

의병운동에 대한 선양 방향에 대해 좋은 제언을 해 주었다. 한국사 교과서 서술에 의병운동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병운동에 대한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학교-지역교육과정 개발, 항일 의병 운동 콘텐츠 개발 등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상향식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시민교육 관점의 지역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미스터 선샤인’ 같은 좋은 드라마 한 편이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듯이 다양한 방향에서 의병운동에 대한 좋은 제언들이 무르익기를 기대한다.

제8주제

문경의병과 아리랑

발표자 : 김연갑(아리랑학교 교장)

기미양(아리랑학교 이사)

토론자 : 권갑하(시인, 문화콘텐츠학박사)



문경아리랑과 의병

—융합 콘텐츠 ‘아리랑나라**’ 1차案—

김연갑(아리랑학교 교장)

기미양(아리랑학회 이사)

- I. 머리말
- II. 아리랑과 의병의 접점
- III. 문경아리랑의 정체성
 - 1. 새재에 대한 원상의식(原傷意識)
 - 2. 아리랑고개는 문경 ‘새재’
 - 3. ‘아리랑+고개’ 합성
- IV. 의병사와 이강년
 - 1. 의병 역사
 - 2. 운강 이강년 선생
- V. 아리랑 이해를 위한 카-콘텐츠
 - 1. 아리랑의 카-콘텐츠
 - 2. 2019년 문경새재아리랑제 수록 ‘의병아리랑’
 - 3. 아리랑 어록
 - 4. 의병 이해를 위한 카-콘텐츠
 - 5. 의병 어록
- VI. 아리랑과 세계의 저항가
 - 1. 아리랑의 저항사
 - 2. 세계의 저항가, 혁명가
- VII. 벤치마킹 대상 해외 콘텐츠
 - 1. 퓨처 라이브러리 ‘종이책’ 프로젝트
 - 2.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 3. 노래의 인간띠 혁명
- VIII. 맺음말

I 머리말

발표자는 “우리는 아리랑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몇 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공감을 얻어내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오늘 이 발표도 이를 화두로 하게 되지만 정곡(正鵠)의 해답은 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아리랑이 ‘저항의 노래’로서 당대의 병과 함께했다는 사실과, 이를 대의로 현재화 할 필요가 있음은 제시할 수는 있다.

발표자에게 주어진 표제는 ‘문경의병과 아리랑’이다. 이를 키워드로 제시하면 ‘문경’, ‘의병’(이강년), ‘아리랑’이다. 이는 문경지역 의병과 아리랑의 융합을 통한 ‘문경의병의 아리랑화’ 또는 ‘문경의병아리랑의 문화콘텐츠화’ 일 것이다. 소임이 이러하기에 함께 발표된 주제와 같이 사료 발굴을 통한 의병사의 새로운 성격 규명 같은 결과 도출이나 기존 논의의 수정 보완에 따른 논쟁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발표자의 능력 한계로 의병 분야보다는 아리랑 분야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종의 결과 또한 각 키워드의 정보나 지식의 접점인 ‘문경의병아리랑’이란 콘텐츠, 그리고 이의 실행 대상인 ‘문경의병아리랑제’ 기획안(案)일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주제의 융합 조건인 의병과 아리랑의 접합 지점을 먼저 살피게 된다. 그리고 타 장르 또는 해외 콘텐츠(content)¹⁾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benchmarking)²⁾을 통한 최종의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아리랑’과 ‘의병’은 각 단일 주제로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두 주제를 융합한다고 한다면 쉬운 대상이 아니다. 전자는 생활적이어서 상투적이어서 친근함이 있으나 후자는 특별한 상황으로 무겁고 서늘한 대상이다. 그러나 민족사적 관점에서는 동등한 무게를 갖는다는 점과 또렷한 빛깔과 선명한 이정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융합의 당위는 분명하다고 본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트랜섬(Transum)적 사고³⁾를 한다면 융합의 결과는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1) 콘텐츠(content)는 각종 매체가 최종 소비자(end user)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다. 저작물, 창작물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언론 및 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뉴스 등의 정보와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각종 창작물을 의미한다. 책이나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포함 된다.

2) 상대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며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기법이다

3) Wertheimer, Michael, Fundamental Issues in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2, 69~89쪽

감동 기재의 합이기 때문이다.⁴⁾

발표자는 다른 분야나 다른 나라 콘텐츠에서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실행하는 꿈을 꾸고 있다. 지식 노마드로서 문화론과 민요론의 공진화(供進化) 논리로 기존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편견의 공격에 포기하지 않고, 독립적 길로 아리랑문화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지역 아리랑을 주제화한 축제 개발이다. 이 글 역시 문경아리랑의 주제에 의한, 문경아리랑을 위한, 문경아리랑축제를 향한 의지로 마련하려 한다.

탁월한 보편성(excellent universality)을 속성으로 갖는 아리랑과 정의군 대장 ‘의병 이강년’을 융합하는 안(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리랑의 의병(이강년)화’ 또는 ‘의병(이강년)의 아리랑화’일 것이다.

II 아리랑과 의병의 접점

아리랑과 의병은 나름의 아우리(Aura)를 갖고 있다. 이 아우라는 각각에서 발산되는 분위기로써 영감의 원천 또는 공감력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는 스토리텔링⁵⁾이나 콘텐츠의 소스로서 멀티유즈로의 효용성을 이르는 말일 수 있다. 그래서 ‘원 소스 멀티유즈’ 개념으로 확장력을 갖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제작될 수가 있었다. 특히 10여 지역에서 고유 지명을 부여한 행사(축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상에서 두 소스의 아우리를 확인할 수가 있다. 바로 본고는 문경의 아리랑과 의병 이강년의 아우리를 주제화 하여 새로운 축제 기획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개의 소재와 주제를 융합한 축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의 해결은 각

4) 주먹에 쥔 바둑 알은 퍼도 그 수가 동일하다. 부분의 합은 전체와 동일하다는 앤섬적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관련 실체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트랜섬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랑은 당연히 인간 사고로 형성된 문화실체임으로 개별적 아리랑을 주목하기 보다는 통합체로서의 아리랑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려주는 이론이다. 당연히 ‘의병’ 역시도 마찬가지다.

5) 의도된 이야기와 이야기하기의 결과물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고 한다. 문경의 이야기에 아리랑을 이면화 하거나, 아리랑 이야기에 문경을 이면화 하여 문경아리랑을 알리고 있다. ‘허버트아리랑’이나 ‘아리랑고개는 문경새재’ 같은 몇몇 사례들이 스토리텔링의 예일 수 있다.

소재의 문화적 공통점과 세부 요소들을 이해하여 융합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아리랑’과 ‘의병(이강년)’에 대한 키워드와 키컨텐츠를 정리하고 이해해야 한다.⁶⁾

1. 아리랑과 의병의 문화적 공동인자

아리랑(문경)과 의병(이강년)의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동시대 같은 공간에 존재했었음을 전제로 한다. 의병들에 의해, 의병들의 가족들에 의해, 또는 의병들을 기억하려 하는 후인들이 지어 부른 아리랑의 존재한다.

“할미성 꼭대기 진을치고 / 倭兵丁 오기만 기다린다⁷⁾
귀약통 남날개 양총을매고 / 벌업山 接戰에 勝戰을했네”
우리나 부모가 날기를제 / 成大將 주자고 날길렀나⁸⁾

문경 마성 할미성(고모성) 이강년 장군의 왜병과의 접전과 춘천 성익현 부대의 벌업산 접전을 노래한 아리랑 일절이다. 비록 20여년이 지난 뒤의 기록이지만 기록자가 당시 불린 노래라고 하였다. 그 내용에서 아리랑이 의병 사연을 노래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도 문경과 춘천지역에서 그 역사와 함께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아리랑과 의병사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는 두 주제 모두가 ‘민족(民族)’ 개념으로 수식되는 대상이다. ‘민족의 노래’, ‘민족 운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전국민에 의한, 전국적인 현상임을 말한다. 보편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존재와 그 가치가 부각되는 시기가 한말이란 시점이다. 거칠게 정리하면 을미의병 기발(起發)이 1895년이고, 전통적인 아라리에서 대중적인 아리랑으로의 출현인 H. B. 헬버트 채보 아리랑이 1896년에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 시기는 ‘아리랑’이란 음가(音

6) 이는 곧 아리랑리터러시와 의병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7) <동아일보 기자 지방순례>, 동아일보, 1925년 3월 16일자

8) 차상찬, 《開關》 1923년 12월호

價) 외에 ‘아리랑’, ‘아로롱’, ‘아라성’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불렸다. ‘의병’ 역시도 ‘충의군’ ‘유회군’ ‘의려’ 등 여러 호칭이 있었다.

세번째 공통점은 일제강점기 탄압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아리랑은 친일화를 위한 권장이란 역현상이 있었지만 ‘우회(迂廻)한 항일’이나 ‘항일적 아리랑’은 판매금지나 삭제 등의 탄압을 받았다. 의병은 무조건 탄압과 무시의 대상이었다. 이 역시 공통점이다.

네번째 공통점은 해방후 일시적이지만 왜곡의 대상이었던 점이다. 아리랑의 경우, ‘기생의 노래’라는 취급이 그 하나이고, 의병의 경우 ‘民亂⁹⁾’이라는 표현 등이 그렇다. 우리 스스로의 인식 부족이 낳은 결과이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본격적인 학계의 관심이 있게 된 시점이 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부터라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로 두계 이병도(李丙燾, 1895~1989)에 의한 ‘국사대관(國史大觀)’이 1954년 발간되고 논고 <아리랑 曲의 由來>¹⁰⁾가 발표된 것이 1956년 이란 사실이다.

여섯번째는 국민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관심의 보편화 시점이 비교적 늦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 라는 점이다. 1989년 3.1운동 70주년을 맞으며 독립운동사 측면의 관심과 의병봉기 100주년인 1995년이 있어 언론의 연재기사¹¹⁾ 등이 관심을 촉발시킨 시기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 축제화 하고, 1993년에 제천 의병연구회가 노촌 이구영의 ‘호서의병사적(湖西義兵事蹟)’을 발간하고 같은 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義兵篇’이 발간되는 등의 동향이 이를 알려준다.

일곱번째는 현재적으로 남북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개념, 전개과정(시대구분), 성격 변화 등에서 우리와 다르다. 당연히 사회주의 이념의 관점을 부여한 결과이다. 단적으로 아리랑의 발생을 1489년 황해도 연안 김막동 지휘의 농민폭동 사실의 ‘성부와 리랑’설화로 보는 것과 우리는 고려말 정선 ‘거칠현’설화로 보는 차이가 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칭¹²⁾도 각각 다른 거에서 알 수 있다. 역시 의병에 대한 인식도 주체, 전개과정,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한은 동학농민전쟁의 한 지류로 보는 시각에서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9) 1954년 이병도의 ‘國史大觀’에서 쓰인 표현이다.

10) 1956년 발표된 이병도의 ‘斗溪雜筆’에 수록된 수필이다.

11) 1989년 2월~12월까지 ‘의병전쟁’이 윤병석 조동걸 박성수에 의한 집필로 연재되었다.

12) 우리는 ‘서정민요 아리랑’이고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으로 등재하였다.

여덟번째는 두 장르 모두 내 외적 혼종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장르 외적으로는 아리랑의 경우 다른 민요와의 혼종이고, 의병은 다른 구국운동과의 혼종성이다. 장르 내적으로는 아리랑의 경우 인접 지역 아리랑과 선후, 선율, 사설, 성격에서 혼종하고 있다. 의병의 경우도 내적으로는 지역성, 지도자에 의한 성격에서 서로 혼종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국지적이 아닌, 국가적 또는 민족적 향유 대상이고 투쟁 대상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장르 간에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아홉번째는 해외동포사회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정서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동시대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이 그렇다.

열번째는 민족사적 염원인 남북통일에 저력으로 기여할 것이란 점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미래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유일한 의병의 활동 장면. 1907년 양평에서 맥켄지가 찍었다

열한번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의외로 외국인에 의해 그 가치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아리랑은 1896년 H. B. 헬버트에 의해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쌀과 같다”는 평가였고, 의병은 1907년 F. A. 맥켄지(Mckenzie)에 의해 “조국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의 군대(The Righteous Army)”라는 개념으로 세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는 공통점은 첫번째와 관련을 갖는데, 아리랑과 의병은 영원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연구와 사업을 통한 의미화가 지속될 것이고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관심도 확대될 것이란 사실이다. 이 같은 공통점은 두 주체가 나름의 브랜드를 갖는

대상임을 확인시켜 준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융합의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Ⅲ 문경아리랑의 정체성¹³⁾

문경아리랑은 ‘아라리’에서 ‘아리랑’으로의 전환을 촉발시킨 변혁성(變革性)을 속성으로 지닌 노래다. 이런 속성을 부여받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새재’가 갖는 원상의식, 즉 아픔이 배어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경아리랑이 ‘새재’의 고개로의 환치로 아리랑과 합성하여 ‘아리랑고개’가 탄생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문경아리랑이 민족 시어(詩語) ‘아리랑고개’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앞의 두 가지 사실로 하여 해석의 확장성이 무한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고개의 나라이다. 또한 민족사적 수난으로 고개는 이별과 정한의 상징으로 기층화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문화적으로 ‘열린 장르’로 표현될 만큼 무한한 해석의 대상이 된 것이다.

1. 새재에 대한 원상의식(原傷意識)

거칠게 정리하면 이렇다. 신립장군과 문경새재 여귀(女鬼)사연¹⁴⁾과 임진왜란 대패로 인한 상실감이 서려있다. 그리고 ‘고종실록’ <聞慶賊變>의 활빈당 당수 자박뽕 등의 활동과 그 희생, 1871년 신미 동학봉기 때의 문경출신 이필재 등의 순교와 희생¹⁵⁾, 을미의병¹⁶⁾으로 인한 이강연 등의 희생¹⁷⁾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그리고 6.25 한국전쟁 기간 조령전투를 비롯한 옥녀봉전투 오정산전투 새봉전투 등의 상처도 서려있다. 이러

13) 필자는 문경새재아리랑의 역사, 정체성에 대한 몇편을 글을 썼고, 문경새재가 아리랑고개의 실지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아리랑고개의 실지연구>, 아시아강원민속학, 제32집, 2019, 2

14) 문경시지, 문경시, 1994, 964~965쪽

15) 문경시지, 문경시, 1994, 191~194쪽

16) <阿朗歌>- “아르랑아르랑 아라리요/ 마고자실갑에 洋銃을매고/ 북망산 接戰가세/아르랑아르랑 아라리요// 古阜白山 接戰時에/ 알뜰한軍兵이 다죽었네” 춘천과 문경지역에서 불려진 의병전 때의 민요로 알려진 것이다.

17) 문경시지, 문경시, 1994, 194~202쪽

한 희생으로 인한 상실감은 박달나무가 공출되어 ‘다나가’는 것과 같이 ‘문경새재는 상실의 고개’로 인식되었다. 결국 상실감이 원상의식이 되고, 근대 민족의식의 확대 과정에서 다시 강화되었다.¹⁸⁾ 그 결과 정서가 고착하는 동안 일종의 수난 체험형 크로노프(chronotope)¹⁹⁾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²⁰⁾

현재 문경아리랑 사설의 정전(canon)은 <문경아리랑노래비>에 수록된 3수이다. 당연히 첫 수는 ‘문경새재 박달나무는 ’이다. 그런데 이 첫 사설의 딸림형은 대단히 많다는 사실에 시각을 좁혀야 한다. 그만큼 전파력을 발휘했다는 것으로 이 노래의 기층성과 분포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1920년대 이전의 기록에 ‘문경새재 **는 **로 다나간다’형이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주목이 된다. 왜냐하면 ‘문경새재 **는 **로 나간다’를 ‘단어들의 집합(a group of words)’으로 ‘공식구 이론’(Oral formula theory)으로 구사(adjustment)한 것이다. 이는 바로 공식구의 자유로운 적용(adjustment)이다. 1923년 채록된 <聞慶謠>에서 확인이 되듯 ‘다나간다’형 노래가 ‘문경의 노래’로 정형화되고, 민중정서가 ‘상실(喪失)의 고개’로 맥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아리랑고개는 문경 ‘새재’

아리랑은 고개의 노래다. 고개라는 말에는 그 너머의 저쪽을 향한 지향적 사고가 지배한다. 그렇다고 이쪽과 저쪽을 경계(境界)하는 분리의 언어는 아니다. 경계(警戒)해야 함은 극단의 마주침이 아니라 이쪽의 끝과 저쪽이 반드시 마주하여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고개는 처음이고 끝인 곳으로 새로운 시작, 변혁이 태동하고, 다시 상생이 구현되는 곳이다. 산의 나라에 살고 있는 지정학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유독스레 고개를

18) 이는 오늘의 시점에서 재해석된 다음의 문경새재 “여러 방면의 인간 삶이 당대 현실과 관련을 맞으려 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고난의 고개로서 영남대로의 중허리를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다. 그 마루턱은 늘 구름에 가려있는데, 그 너머 아득한 북쪽이 서울이며, 거기가 당대의 핵심부이고, 현실을 만지고 주무르고 죽이고 살리는 일들은 모두 문경새재 너머에서 이루어졌다.”(김훈, <문경새재는 몇 구비냐?>, 자전거여행, 2000, 235쪽)

19) 크로노토프는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말한 시간(chronos)과 공간(topos)이 결합된 개념이다. 예술작품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한 크로노토프 안에서 예술가의 영감으로 부피가 생기고 살이 붙어 현실에 실체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조성명, <철도와 문학>, 인천문학, 2005. 2 378쪽

20) 이면상의 월북 이후 북한에서의 작곡 작품 중 <관혁악 문경고개>가 있다. 이는 한국 전쟁 중 북한군의 패전을 형상화 한 조기천 작사 가요 <문경아리랑>의 관현악 작품이 이를 알려준다.

표현하는 한자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 고개 령(嶺), 고개 상(峙), 우뚝 솟을 치(峙), 고개 재/점(岾), 고개 현(峴) 등 피산(山)이 쓰인 이상의 한자어가 그것이다. 이 중 문헌상 ‘치’는 영남지방에서 주로 쓰이는데, 울치(蔚峙) 울치(栗峙) 팔량치(八良峙) 등 하나의 접미어로 이루어진 지명이다. 그에 비하여 관북지방에서는 치에 ‘령’을 중복하여 쓴다. 후치령(厚峙嶺) 주치령(走峙嶺) 등을 쓴다. ‘점’은 문경새재의 일반적 표기인 조령(鳥嶺)과 함께 초점(草岾/역새풀 고개)으로 부른 예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개에 이별과 정한의 정서를 부여하여 가까이 하고 살아왔다. 단적으로 ‘아리랑고개’를 갖고 있음에서 알 수가 있다. 북한에서조차 아리랑고개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다. “아리랑고개는 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희망을 안겨주는 고개를 의미하고,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는 큰 재난과 준엄한 시련을 넘기는 상징적인 고개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아리랑고개가 그만큼 넘기 어렵고 힘들면서도 일종의 희망을 안겨주는 상징적인 고개라는 것을 말해준다.”²¹⁾

그런데 이 아리랑고개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아리랑연구 초기에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민요학자 임동권에 의한 관심이었다. 그의 아리랑에 대한 첫 논문 ‘아리랑의 기원에 대하여’²²⁾에서인데, 아리랑연구는 반드시 ‘아리랑’의 어원과 ‘고개’의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단언한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럴만도 한 것이 그는 문경아리랑(새재소리 또는 새재아라리)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경아리랑에는 ‘고개’인 ‘새재’를 본향적으로 갖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새재’를 ‘고개’로 환치시키고 아리랑과 합성시킨 민중들의 민요적 발상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일부에서는 이를 비정한 이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외에도 1920년대 초 일본인의 기록이 앞서 확인된다.

“조선에 조령(鳥嶺)이라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에서 ‘아라랑’이라고 하는 나무가 나왔는데, 이 나무는 13道の 빨래 방망이로 사용되었다. 이는 천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전국에서 쓰이고 있다.”²³⁾

21) 윤수동, 「조선민요 아리랑」, 국학자료원, 2011, 96쪽

22) 임동권 <아리랑의 기원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창간호, 1969, 23p

23) 大喜多筆一, 『新朝鮮』, 鮮滿協會, 1921년. 62쪽

‘鳥嶺’과 ‘아리랑’을 연관 지었다. 나무 이름이 ‘아리랑’이라 한 것은 의외이나 ‘박달나무’에 대한 오해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접근은 이방인으로서 “문경새재 박달나무는/ 흥 두께 방망이로 다 나간다”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이해한 결과일 수도 있고, 당시 조선인들에게서 들어 알게 된 결과 일 수도 있다. 경북궁 중수 7년 동안 대들보 같이 번듯한 용재(用材)가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작은 도구들의 자루 몫²⁴⁾으로 쓰이는 실정을 상실감으로 표현 것인데, 여기에 바로 ‘문경새재’가 본사설에 나오고 그 후렴에 ‘이리랑고개’가 나오므로 자연스럽게 문경의 고개 ‘조령’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 국문학자 김재철이 다시 거론했다. “경복궁을 중수 할 때 팔도 인민들이 그役に 從하려고 서울에 왔을 때에 우선 嶺南地方 사람들이 勞役이 마치 아리랑고개 넘어 가듯이 괴롭다는 의미로 ‘아령’ 혹은 ‘아리랑’이라고 부르자 타도 사람들도 이에 따르게 된 듯하다.”²⁵⁾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조령’이나 ‘새재’를 건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북궁 중수 기간 삼남의 부역군들이 아리랑고개를 넘는 것과 같이 부역이 힘들다고 하여 문경아리랑과 새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한편 이 상과 같은 정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도 있어 눈길이 간다. 승려 시인 유엽이 남긴 <민요 아리랑에 대한 私考>에서다. 1955년의 기록이다.

“고개라는 말이 공교히 곡조(曲調)의 곡자(曲字)를 ‘구비’라고 해서 고개를 연상하게 하고, 또 자연계의 ‘재’(嶺)라는 말과 통할 뿐만 아니라, 구비와 재는 돌거나 넘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경험적 기억회상작용(記憶回想作用)에서 이별의 한(恨)을 또 한 번 연상하게 함으로써 ‘문경새재’ 같은 험준하고 불상사가 많던 이야기를 빚어낸 자연계의 지리적 고개를 끌어다가 아리랑고개인 한과 정의 정신적 고개와 결부시킨 것은 작시기교(作詩技巧)로써 있을 수 있는 ‘뗏’드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당시 기록에는 주(柱)가 아니라 ‘檀木 五千斤’이란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근(斤)으로 묶여 공출 당했던 것이다. 공사 기간의 한 기록에는 이라 했다. 이 공사과정에서 박달나무가 험값으로 베어져 나간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25) 김재철(金在喆/1907~1933) 1930년 7월 《조선일보》에 발표한 <民謠 「아리랑」에 對하여>

이상과 같이 많은 이들이 사설을 통한 이해와 경북궁 중수 공사와 관련하여 문경새재의 ‘새재’ 고개와 아리랑고개를 연관지었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이 이를 구체화 하지 못한 것은 문경아리랑(새재소리/새재아리리)를 주목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번에는 이를 주목하기로 하자.

3. ‘아리랑+고개’ 합성

아리랑고개는 ‘아리랑’+‘고개’의 합성명사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아리랑에 ‘고개’가 합성했는가 문제이다. 역으로 왜 고개에 ‘아리랑’이 합성되었는가라는 의문도 마찬가지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아리랑의 첫 기록 소재 <아리랑>을 살펴야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와 ‘문경 새재 박달나무’인데, 여기서 아리랑과 고개(문경새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고개는 바로 ‘문경새재’이다. 그렇다면 아리랑에 ‘고개’가 복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재하는 고개인 문경새재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이 된다. 이 관계의 성립은 반드시 ‘문경새재~’ 사설이 아리랑과 고개의 합성이전에 존재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문경새재’ 사설은 추정으로는 1886년이고, 문헌자료로 확인되기로는 1896년 이고, ‘아리랑고개’는 1911~1912년 총독부 조사 <俚謠 俚諺及 通俗的 讀物 等 調査>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주목되는 사실은 현재 경북 문경새재 일대에서 <문경새재아리랑>이 전승되고 있다는 것과 그 대표사설이 “문경새재 박달나무는 흥두깨방망이로 다나간다”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경새재는 경북궁 중수와 관련이 있는 유일한 고개²⁶⁾이고, 둘째는 실재의 고개 문경새재 일대에서는 ‘문경새재소리’ 또는 ‘새재아리리’로 불렸을 것이고, 셋째는 그래서 ‘문경새재는 아리랑고개’라는 임계상황이 있게 되었을 것이다. 넷째는 이런 임계상황의 변화 과정 또는 전승의 지역적 확대로 문경새재라는 보조관념은 약화 또는 잠복되고 원관념 ‘아리랑고개’만 남게 되었다. 다섯째는 이후 보조관념 ‘문경새재’는 대표사설에서 일반 사설 초두(初頭)로 존재하다 잠복, 전승력을 상실했다. 여섯째는 이런 과정에서 원관념 ‘아리랑고개’는 아리랑의 핵심 술어 또는 독립적인

26) 문경새재 제2관문에 세워져있는 <문경새재아리랑>비(碑)에는 대표사설 외 3수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문화어로 인식되었다. 즉, ‘아리랑은 고개의 노래’라는 표현 등으로 일반화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Ⅳ 의병사와 이강년

1. 의병 약사

한말 의병은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에 항거하여 재야 지식층과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의용병(義勇兵)이다. 근대의병운동은 4단계로 진전되었다. ①초기단계(1895.10~1896.5) ②재기단계(1905.4~1907.7) ③고조단계(1907.8~1909.10) 그리고 ④전환단계(1909.11~1915.7)이다. 초기단계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봉기한 을미의병운동이다. 명성후 살해와 단발령 강행을 계기로 봉기하였다. 이때 “내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는 철저한 주자학적 윤리관과 단발로서 상징되는 개화 개혁을 일본화 야만화로 보는 개혁 반대운동이다. 특히 국모살해에 대한 대일복수(對日復讐) 의식을 포괄하는 무장투쟁이었다. 따라서 초기의 의병운동은 개화세력과 척사세력 곧 동족간의 무력대결의 양상을 띠었다.

이 을미의병은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생들을 의병장으로 하고 주로 일반농민과 동학농민 등 평민들을 의병대원으로 구성되었다. 충청도 제천의 유인석(柳麟錫) 부대, 강원도 춘천의 이소응(李昭應) 부대, 경상도 선산의 허위(許篇) 부대, 전라도 장성의 기우만(奇宇萬) 부대 등이며, 이들은 충주를 비롯한 지방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고 친일관리와 일본인들을 처단하였다. 그런데 의병대장 유인석 휘하에서 충주전투의 선봉장으로 맹활약한 평민 출신 김백선(金伯善)이 “평민이 양반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군율로 처단되어 양반 평민간의 신분적 갈등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아관파천을 계기로 친일내각이 붕괴되고 단발령이 철회된 뒤에 국왕의 해산 권고에 따라 귀향하였다. 이후 의병운동은 일부 잔여세력에 의해 ‘화적’ 또는 활빈당(活貧黨)으로 명맥을 이었다.

재기단계의 의병운동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봉기하여 을사조약(乙巳條約)을 통하여 본격화된 을사의병운동을 말한다.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일제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승인받고 강제로 을사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보호국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소 자결 언론활동을 통하여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을사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였으며,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한 국권을 실력의 양성으로 회복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일어난 을사의병은 보호조약의 폐기와 친일내각의 타도를 목표로 무장항전을 벌였다. 대한매일신보가 “을미지거(乙未之舉)는 나라의 원수를 갚음을 의(義)로 삼았고 금년지거(今年之舉)는 국권회복을 명(名)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을미의병은 국수보복(國讐報復)을, 을사의병은 국권회복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투쟁대상도 일제와 매관관료로 더욱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의병의 본격적인 국권회복운동은 을사보호조약을 계기로 을사의병의 거병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위정척사론자가 의병장으로서 지도부를 형성하고 농민과 포수 등 평민을 대원으로 하여 편성되었다. 민종식(閔宗植) 부대, 최익현(崔益鉉) 부대, 신돌석(申弼石) 부대, 정용기(鄭鏞基) 부대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고조단계 의병운동은 일제가 강요한 고종퇴위 정미 7조약 군대해산을 계기로 더욱 고조된 정미의병운동을 말한다. 1907년은 일제가 영일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영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교전국이던 러시아와 러일협약을 맺어 만주이권의 분할에 합의했다. 또한 러시아지원국이던 프랑스와도 불일협약을 맺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 기세에서 고종을 퇴위시키고, 차관정치를 실시했으며, 한국군대까지 해산시켰다. 이렇게 대한제국을 형해화(形骸化) 시켰다.

일제는 2만명의 한국군을 이미 1905년에 절반으로 감축하여 8,800명에 불과하였다. 고종의 퇴위와 군대의 해산으로 고조된 정미의병은 그 규모와 성격면에서 전쟁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군대의 해산으로 일제가 의병의 직접적인 교전상대로 부각되어 의병운동은 ‘국권방위전쟁’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군대해산 당일 서울의 시위대 소속 한국군 1,600여명이 봉기하여 시가전을 벌였다. 이로부터 원주진위대 강화 홍주 진주 안동분건대 등 각 지방의 진위대가 봉기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항일전선에 합류하였다. 지금까지 의병 진압에 나섰던 한국군인들이 의병의 항일전선에 합류함으로써, 의병부대는 우수한 지휘관과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여 의병의 전술과 화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13도의병 연합부대가 편성되고, 서울진공작전이 추진되었다. 관동의병대장 이인영(李仁榮)은 서울주재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공법상 전쟁단체로 인정하고 성원해

줄것”을 호소하고, 전국 각지의 의병장에게 의병의 연합전선을 요청하는 통문을 보내었다. 이에 응하여 1907년 12월에 전라도의 문태수(文泰洙), 충청도의 이강년(李康年), 강원도의 민공호(閔肯鎬), 경상도의 신돌석, 평안도의 방인관(方仁寬), 함경도의 정봉준(鄭鳳俊), 경기도의 허위(許爲), 황해도의 권중희(權重熙) 등 의병장들이 양주에 집결하였다. 이들 중 군인출신인 민공호와 평민출신 신돌석 외에는 모두 유생출신이었다. 이곳에 모인 전국의병 연합부대는 총병력 48진 1만여명으로 해산군인이 약 3천명에 달했다.

이 시기 의병의 계층별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이 때에도 의병의 핵심적 전투력은 초기 및 재기단계처럼 평민(특히 포수)이었으나 해산군인이 부각되었고, 의병장도 양반 유생 외에 민공호를 비롯한 해산군인과, 신돌석·김수민(金秀民)·홍범도(洪範圖) 등 유력한 평민의 병장들이 크게 부상하였다. 13도의병 연합부대가 해체된 뒤, 허위부대는 임진강유역을 중심으로 경기도·황해도 일대에서, 이강년부대는 충북·경북·강원도 접경지인 소백산 일월산 일대에서, 민공호부대는 강원도 영월·홍천·원주·횡성·울진 일대에서, 기삼연(奇參衍) 부대와 전해산(全海山) 부대는 전라도 일대에서 일본군에 강력한 항전을 계속하였다. 홍범도와 차도선(車道善)은 산포수부대를 이끌고 함경도·평안도에서 활약했고, 이범윤(李範允)은 러시아령 연추(煙秋)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전환단계의 의병운동은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 이후 곧 합방 전후의 의병운동을 말한다. 해산군인들을 흡수하거나 인접부대와 연합작전을 펴면서 1908년과 1909년에 의병 활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의병항전이 격화되자, 일제는 종래의 1개 사단과 군대해산 때에 증파된 1개여단 외에 기병 1개 연대와 보병 2개 연대를 증강하였다. 그리고 1908년 말에 전국 51개 관구에 헌병과 보조원 6,600여 명을 배치하고, 전국 70개 경찰서에 5,000여명의 경찰을 배치하였으며, 이들 군대와 헌병 경찰을 한국주차군 사령부가 통일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였다.

1909년 의병항전의 중심이 호남지방으로 옮겨졌다. 일제는 보병 2개 연대(2,260여명)와 공병 1개 소대를 전라남북도에 투입하여, 헌병 및 경찰과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2개월간 ‘남한대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일본군경은 전라남북도 일원의 의병출몰지역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마을 집집마다 빗으로 빗듯 전후좌우로 수색 체포 살육을 반복하여 의병과 주민을 무차별 탄압하는 소위 ‘교반적(攪拌的) 방법’이라는 잔인무도한 새 전법으로 토벌작전을 벌여 의병을 진압하였다. 이 작전으로 인하여 103명의 의병장과 4,138명의

의병이 살육 또는 체포되었다.

1909년 9월 10일의 ‘남한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의병부대들이 국외로 이동해 갔다. 의병장 유인석은 이미 1896년 일제와의 지구전(持久戰)을 위한 근거지 건설을 구상하였다. 1907년 정미 7조약 이후에 구체화되어 13도 의병에 의한 서울진공작전의 ‘즉전즉결책(卽戰卽決策)’을 비판하고, 백두산 중심의 근거지 건설과 일본에 대한 지구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1910년 이후 유인석 부대와 이진룡(李鎭龍) 부대와 조병준(趙秉準) 부대 등 많은 의병부대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서간도 북간도와 러시아령 연해주로 이동하였다. 이들 의병부대 일부는 독자적으로 보수적인 독립군으로 성장해 가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일제와 근대전의 수행을 목표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있던 애국계몽파와 연합하여 근대적인 독립군으로 전환되어 가기도 했다.

한편 이 때 북계책(北計策)으로 북천지구전(北遷持久戰)이 제시되었다. 이는 동남지역의 의병부대를 북쪽으로 옮겨 백두산 주변지역에 의병 근거지를 만들어 항일지구전(抗日持久戰)을 편다는 계획이다. 이 북계가 만전의 계획이 되는 이유로서, 첫째는 지리적 조건으로 백두산 부근의 제읍(諸邑) 곧 무산 삼수 갑산 장진 강계 등은 절험하여 요충지가 될 만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적 조건으로 서북인은 강용(強勇)하고 서북지방은 서북간도로 이어져 무장투쟁의 대중적 기반을 만들기가 용이하다. 셋째로 국제적 조건으로 필요시 청국 러시아와 제휴할 수가 있고, 넷째로 주체적 조건으로 삼수 갑산 북청은 이미 의병활동이 성하고, 장진 강계도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운강 이강년 선생

운강(雲崗) 이강년(李康年)선생(1858~1908)선생은 문경 출신 의병이다. 구한말 항일 구국운동을 주도하여 광복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경북 강원 충청 지역에서 13년간 의병활동을 벌인 조선조 효령대군 후손으로 어려서 유학과 병법에 조예가 깊었다. 21세 때인 1879년 무과에 급제, 선전관을 역임하는 등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갑신정변후 친일파 책동이 심해져 정국이 혼란해지자 1884년 관직을 버렸다. 그리고 1894년 동학군에 투신, 구국운동에 나섰다. 2년 뒤인 1896년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제천의 유인석 의병부대와 합류, 유격장이 되었다. 이후 일제의 병참기지를 공격하는 등 용맹을 떨쳤다. 그러나 조정의 의병해산 권유로 의병대를 해산하고 소백산에서 10년간 은둔생활을 했다.

그 후 1904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다시 의진에 참여했다. 제천에서 기병하여 제천성 전투를 비롯해서 문경 갈평리대첩, 서울진공연합작전 같은 의병전을 치렀다. 그러던 중 1908년 7월 제천의 작성전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부상을 입고 피체되었다. 그러므로 南道民들은 그의 충의에 감탄하고 일본인들도 그의 智勇을 두려워하여 현상금을 내걸기도 하였다. 許蔭와 李康季이 차례로 궤하여 의병들은 사기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해 9월 23일 사형을 선고받고, 10월 13일 51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V 아리랑 이해를 위한 키-센텐스

아리랑과 의병문화는 전형적인 메타문화(meta culture)이다. 그런가 하면 중층적 유기체로 이미 있었던 것이 새로운 것을 있게 하고, 동시적이고 역동적인 선후 관계의 양상을 가지며, 변화와 지속에서 확대 재생산 되는 프렉탈(fractal)이다. 또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트랜섬문화이기도 하다. 이런 공통된 성격에서 문화적 융합은 가능하다.

의병과 아리랑의 융합을 위해서는 상호 주제의 키워드와 키센텐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아리랑과 의병에 대한 의미를 지닌 변별 단서로서의 키워드와 이를 주어로 한 키센텐스는 두 주제를 융합하는데 필요하다. 보편적 원리를 유지하는 형질 또는 본질을 담은 단어 또는 단문이다. 키워드는 주제어로서 상징성이 강하고 키센텐스는 내용의 축약으로 서사적인 문장이다.

두 주제의 키워드는 ‘문경’ ‘아리랑’ ‘의병’ ‘이강년’이다. 그런데 키센텐스는 키워드를 주어로 한 많은 단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문경’과 ‘이강년’은 ‘아리랑’과 ‘의병’이란 두 주제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주로 ‘아리랑’과 ‘의병’을 주어로 하는 키센텐스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두 주제의 의미망을 이해하고, 융합 콘텐츠의 서사 구성상 유용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리랑의 키-센텐스

아리랑은 한국인의 眞言이다²⁷⁾
아리랑은 苦難의 꽃이다
한민족은 아리랑共同體이다
아리랑은 ‘한국의 窓’이다
아리랑은 무한한 문화적 생산력을 갖고 있다
아리랑은 또 하나의 한국이다
아리랑은 ‘역사’ ‘민족’이 수식된 정치적인 용어다
아리랑은 민족 항일 조국의 의미로 ‘발견된 개념’이다
아리랑은 민족공동체 힐링 아트(healing arts)이다
아리랑은 문화영토의 넓이와 역사의 깊이가 쌓은 탑이다
아리랑은 조선인 역사의 메타포(隱喻)로 존재한다
아리랑은 영화이고 나운규이다
아리랑은 전통과 계보를 가진 歌謠群이다
영화<아리랑>은 統攝을 앞당겨 실천한 문화콘텐츠이다
아리랑은 ‘역사의 노래’, ‘노래의 역사’이다
아리랑에는 종교적 에토스(ethos)가 담겨있다
아리랑은 한국의 집단적 아이덴티와 밀착된 또 하나의 國歌이다
아리랑은 디아스포라 역사로 하여 ‘民族’을 선점했다
아리랑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자문케 하는 문체적 노래이다
아리랑은 시인이 노래하고 역사가 기록한다
아리랑은 한계효용체감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전승력을 갖고 있다
아리랑은 부르는 사람, 향수하는 사람들에 의한 진실의 음역이다
아리랑은 국내외 음악인들로부터 많은 해석이 가해지는 노래이다
아리랑은 증충적 미디어 회로를 통해 그 맥락을 들어낸다

27) 각 센텐스에 대한 주를 생략했다. 본고에서는 학술적 엄밀성을 요하는 논의이기 보다는 융합 콘텐츠를 위한 이해의 한 단서로 제시할 뿐이기 때문이다.

아리랑 정신은 이념 통합이다
 아리랑은 민요의 정수(精髓)로 종가적(宗家的) 위치에 있다
 아리랑은 실체론을 넘어 관계론으로서 ‘공통된 미래’의 가교이다
 아리랑은 무문자(nonliterate) 시대와 문자시대를 관통한 노래이다
 아리랑은 472년간의 실록 2,077책에 기록되지 않은 口碑實錄이다
 아리랑은 해외 동포사회의 ‘고국문화’ 유전자(meme)이다
 아리랑은 시간의 풍화작용을 비껴가는 신비의 노래다.
 아리랑, 민요적 흥과 멋,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리랑은 ‘新生兒性울음 현상’으로 각인된 노래이다.

2. 2019년 문경새재아리랑제 수록 ‘의병아리랑’

1) 문경의병아리랑

후렴-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얼씨구 아라리가났네
 에해야 우리네 의병장보시라/13도 창의군 의병장이시다
 농민군 동학대로 왜군을 쳐내고/을미적 의기로 유격장되셨다
 아느냐 의병장 우리이강년/ 경상이나 충청이며 강원까지도
 보았느냐 일구공팔 눈물바다를/ 의병장 이강년통곡이로다
 나간단 우리도 그정신따라/ 올려라 고하라 이강년정신을

2) 공주의병아리랑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났소/우금치 고개를 어서나넘세
 녹두꽃밭 이강토를 지키는이들/ 너도나서 나도나서 농민군일세
 서울진격 호령으로 기포령따르니/남북에서 모이니 태산을세웠다
 백산죽산 봉기로다 우금치항전/청천하늘 의기는 별만큼총총이라
 우금치 건너땅 왜군관군태산이네/이기고 지는것은 내것이아니다
 휘호리친 불벼락은 녹두꽃쓸었네/일어나라 서가라 의병으로나가라

3) 춘천의병아리랑

후렴-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났네/인제땅 넘어 백두산도 넘네
백척간두 위태로운 제천성끄안고/ 목터지게 토왜외친 의암이시다
찬서리 벗은몸에 조국을세기고/이고지고 눈물삼켜 북으로북으로
압록강 건너건너 서간도땅에/내일은 찾으리나 내나라내땅
또한번 각오로 해삼위가시니/ 흐터진 위인세력 다시뭉쳤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경술년망국/13도 의군총재 허망하도다
지사여 역사여 모이고또모여/남은목숨 남은결기 태우고태우리

3. 아리랑 어록

아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 할만한 ‘아리랑 말’네 가지를 제시한다. ‘김산의 song of arirang’은 중국에서 항일운동 중 수형 생활 중에 인식한 아리랑의 성격을 1940년 표명한 일부 내용이다. ‘작곡가 이흥렬 <아리랑의 세계화>’는 우리나라 초기 서양음악 전공자로 1960년 아리랑에 대한 음악적 특징을 제시한 어록 일부이다. ‘미국 반전음악가 피터 시거의 증언’이다. 아리랑을 반전음악으로 세계에 알린 음반에 수록된 발언이다. ‘이종철 국립민속박물관장 주장’은 아리랑이 동포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 말들은 이것만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텔링이 나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만한 키워드를 담고있는 발언이라 수록한 것이다.

1) 아리랑연합회

“아리랑은 이별 애수 정서인 한(恨)의 수렴체(收斂體)로, 모순에 대한 저항과 생동의 발현체(發顯體)로, 좌와 우의, 최고와 최저인 극단의 차단체(遮斷體)로, 고난과 역경에 대한 극복의지의 추동체(推動體)임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

2) 김산

“조선에 민요가 하나 있다. 그것은 고통 받는 민중들의 뜨거운 가슴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옛 노래이다. 심금을 울려 주는 아름다운 선율에는 슬픔이 담겨 있듯이, 이것도 슬

픈 노래다. 조선이 그렇게 오랫동안 비극적이었듯이 이 노래도 비극적이다. 아름답고 비극적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300년 동안이나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애창되어 왔다.²⁸⁾

3) 영화 감독 나운규

“동무들아 결코 실망하지 말자. 우리의 고유한 기상은 남성적이었다. 민족성이라 할까 할 그 집단의 정신은 의협하였고 용맹하였던 것이니 나는 그 패기를 영화 우에 살리려 하였던 것이외다.”²⁹⁾

4) 작곡가 이흥렬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서에 가장 잘 적응(適應)하는 곡조를 가지고 있다. 아리랑의 곡조는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 있다. 이것이 아마도 다른 민요보다도 유난히 외국에 소개될 수 있었던 까닭이라고 하겠다. 요즘 우리의 생활 주변에 파고들고 있는 새로운 감각에서 볼 때 아리랑은 큰 애조(哀調)가 지나치다는 감이 있으나 다른 민요보다 훨씬 파퓰러 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중략) 서양음악은 7음계의 장 단조가 있어 변화무쌍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유음악은 5음계 밖에 없어 단조롭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이 지니고 있는 센티멘털은 놀라운 경지라고 하겠다.”

5) 미국 반전음악가 피터 시거

“한국인이 부르는 노래에 ‘아리랑’이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왔다고 하는데,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에는 부르지 못하게 탄압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고 갈라져 살고 있지만, 두 나라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 때문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28) 아리랑, 님 웨일즈 지음, 조화우 옮김, 동녘, 1992, 개정증보판, 44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6쪽) In Korea we have a folksong, a beautiful ancient song which was created out of the living heart of a suffering people. It is sad, as all deep-felt beauty is sad. It is tragic, as Korea has for so long been tragic. Because it is beautiful and tragic it has been the favorite song of all Koreans for three hundred years.

29) 나운규, <아리랑과 社會와 나>, 삼천리 제7호, 1930, 7, 53쪽

아닌가?”

6) 국립민속박물관장 이종철

“우리민족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근대사를 몸으로 부딪치면서 살았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록되고 있는 ‘아리랑’ 노래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의 삶과 애환이 ‘아리랑’ 노래에 압축되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민족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적 키워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문화 프리즘을 통해 드러나는 이민과 적응의 역사는 우리민족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타민족과 타문화의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하여 왔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한인동포 생활문화’ 그 자체이자 상징이기도 합니다.”

4. 의병 이해를 위한 키-센텐스

‘의병’은 관변사료, 선행연구의 보편적 술어다
부름을 기자리지 않고 싸우는 백성군대이다
의병은 정의군(The Righteous Army)이다
‘그저 아무개’, ‘그저 의병’으로 불렸던 그들이다
의병은 감격과 숭배의 대상이다
직업은 의병, 희망은 독립이다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요 국성(國性)이다
의병은 누란(壘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이들이다.
의병은 자발적 민군으로 국가의 정수이다
의병은 의로운 일을 위해 조직된 군대이다
의병전쟁은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뿌리다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
의(義)로운 싸움은 비록 지더라도 이기는 것이요,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항중 항몽 항청 항일 투쟁에서 강한 국민성을 갖게 되었다

어느 침략자로부터도 정복당하거나 굴복하여 동화되지 않았다
 의병의 탁월한 활동은 임진 병자 양란의 의병과 한말의 의병이다
 의병은 우리 민족에만 있었던 민족 저항운동이요 구국 운동이다
 의병전쟁은 독립군운동과 광복군운동으로 이어졌다
 독립운동자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의병전에서 비롯되었다
 옥구 주도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 문경 민단조합(民團組合) 결성
 유력한 의병진은 유인석 이강년의 호서진영이다
 이강년의 탁월한 용병술과 카리스마적 위상은 분명하다
 을미의병은 국수보복 을사의병은 국권회복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
 목적은 승리가 아닌 투쟁 그 자체이다
 의병은 성패를 초월하여 떨쳐나선 결사항전
 복수와 토적(討賊)은 춘추대의(春秋大義)다
 성패와 이둔(利鈍)은 돌아볼 것이 없다-기우만
 세계 열국과 만국공법을 통행해야 한다-최익현
 의병을 국제법상 전쟁단체로 인정하라-이인영
 온 나라가 결기(決起)하는 것
 의병은 지구(持久)하여 기회를 기다리는 것
 백두산 주변에 근거지를 얻는 것
 의병은 정의를 위해 충의를 다하여 싸우는 병졸이다
 의병은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군대
 의병 의거는 봉건적 모순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했다
 의병은 절대 독립을 위한 저항의 시대를 열었다
 의병은 제천 유인석에 문경 이강연이로다
 의병은 괴변 層生疊出 철퇴로다
 의병은 단발 왜화 인륜 파멸 항거이다
 의병은 倭觀察 倭郡守 倭守丞 피살이로다

호좌의진 유격장은 李康季이로다
 의병의 전력 열악 용병술도 무지리다
 의병 거의는 삼천리강토 야만세상 저지로다
 의병은 정의의 擧義, 土賊 會盟이다
 의병은 복고주의 척사론에 종속성이 限界였다
 의병은 화적의 조직화와 의적화로 活貧黨을 있게 했다
 의병은 반봉건 반제 반일운동의 주축이다
 의병은 民亂 火賊 東學軍 活貧黨을 낳았다
 의병은 누적된 민중 저항의식을 주도했다
 의병은 민족사의 역동적인 모습을 과시 한다
 의병은 外敵에 의해 해산된 痛恨軍이다
 의병은 국가징발 아닌 자원종군 민군이다
 천지대운 일대변혁 의병이 주체이다
 유일한 무관출신 의병장 운강이라
 운강 이강년 도태장터 창의로다
 친일내각 타도와 일본세력 구축이다
 운강 이강년 전투지는 고모산성
 일본군은 정예군 의병대는 만백성
 이강년 문경 장악, 신태원 고모산성 장악
 부대 편성표 '속오작대도'라
 6월 1일은 의병을 기리는 '의병의날'이다

5. 의병 어록

1) 윤경선생에게 내린 고종 칙령

“아! 나의 죄가 크고 악이 충만하여 황천이 돌보지 않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강한 이웃이 틈을 엿보고 역적 신하가 권세를 농락하여
 4천 년을 내린 종묘 사직과 3천 리 넓은 강토가 하루 아침에

오랑캐의 지역이 되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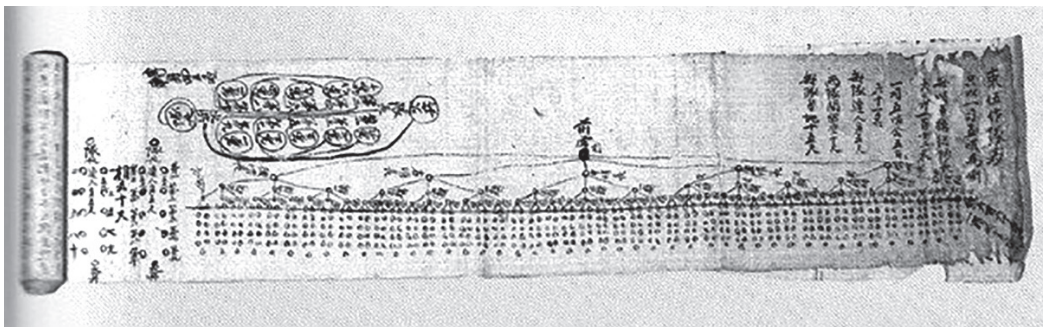
생각하면 나의 실낱 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으나
종묘 사직과 만백성을 생각하니 이것이 애통하도다.

선전관 이강년으로 도체찰사를 삼아 지방 4도에 보내니
양가(良家)의 재주 있는 자제들로 각각 의병을 일으키게 하며
소모장(召募將)을 임명하되 인장과 병부(兵符)를 새겨서 쓰도록 하라.

만일 명을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와 수령들을 먼저 베이고
과직하여 내쫓을 것이며, 오직 경기(京畿) 진영의 군사는
나와 함께 사직에 순절할 것이다.”

2)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의병전술에 관해 속오작대도. 단양 금채동에 은신 중에 자기 수양과 학문연구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의병 전술에 관해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를 만들어 훗날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하였다. 선생의 친필로 남아있는 이 속오작대도는 의병조직도, 행진법, 진격과 후퇴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00년대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속오작대도는 한지에 830여 자의 글과 군사들의 운용법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561명의 의병을 일사영(一司營)-오초(五哨)-3기총-3대로 편성한 군사 체계와 행진법, 과 징을 치는 금고령 등이 기록돼 있다.



“병사가 대장을 위해 죽고, 대장이 기총(旗總)을 위해 죽고, 기총이 초장(哨長)을 위해 죽고, 초장이 영사(營司)를 위해 죽고, 영사가 주장(主將)을 위해 죽고, 주장이 의(義)를 위해 죽는다면 막강한 군대가 될 것”

3) 운강선생의 재판관 꾸짖음

“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어찌 의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가! 나는 왕실의 후손으로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다가 불행히 잡힌 몸이 되었으니

빨리 죽여주기를 바란다. 선비에게는 죽음을 줄지언정

욕을 보여서는 안 되는 법이다.”

4) 운강선생의 재판장 꾸짖음

“임금의 마음을 받들어 국가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한 것이 역적이냐?

원수인 적의 세력에 의지하여 임금을 협박하여

적을 섬기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이 역적이냐?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섬멸하고 5, 7적 죽여

국가에 보답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한 것이다”

5) 운강선생 유서에 이르시길

“내가 노력하여 토벌한 지 13년에 원수의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도리어 살해를 당하게 되었으니 천운을 어찌하랴!

우리나라 2천만 동포가 장차 차례로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6) 유묵과 유적

저서 운강문집(雲崗文集)

운강선생창의일록(雲崗先生倡義日錄)

전승비(문경 갈평) 기념비 2개소(기념관)

전적추모비(제천 의림지) 기적비 시비(독립기념관)

7) 도체찰사 이강년선생 묘소

오호라 간곳이 없으면 올 것이 없는 고로

국운(國運)이 순탄치 못하여

잇을 수 없는 일제 한(限) 품고

지하에서도 공의 의기 진동하도다

8) 화북 명륜회 기록

진리에 무성(無聲)이 대성(大聲)이요

무광(無光)이 대광(大光)이라

先生의 보국(保國) 충절(忠節)에

더없는 대광(大光) 대성(大聲)을 남기셨다.

9) 운강선생 남기신 시 3편

一편

무정하다 탄환이여

발목을 상하여 나아갈 수 없구나

차라리 심장에나 맞았으면

욕보지 않고 요경(瑤京)에 갈 것을³⁰⁾

二편

일평생 이 목숨 아껴본바 없거늘

30) 번역의 버전이 4종이다. 번역 주취의 차이에 의한 결과인 듯하다.) 1. 탄환은 참으로 무정도하지복사빠 다
쳐 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그쳤네만약에 심장을 꿰뚫었더라면 욕됨 없이 하늘로 갈 수 있었을 것을2. 탄환
의 무정함이어발목을 다쳐 나갈 수 없구나차라리 심장에 맞았더라면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을3. 탄환
이여 자못 무정하여라복사빠만 상하게 하단말가긴목을 뚫었던들 욕됨이야 없을 것을

죽음 앞둔 지금에서 삶을 어찌 구걸하라만
오랑캐 처부술길 다시 하기 어렵구나
이 몸 비록 간다해도 녀마저 사라지랴³¹⁾

三편

우리나라 이천만 민족이
장차 나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니
이것이 제일 원통하도다

10) 「매천야록」 이강년 條

“의병장 李康季이 7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聞慶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起兵한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돌아다녔다. 그러므로 南道民들은 그의 충의에 감탄하고 일본인들도 그의 智勇을 두려워하여 후한 현상금을 내건 후 결국 그를 체포하였다. 이때 許蔦와 李康季이 차례로 패하여 의병들은 사기를 잃고, 또 이런 시기에 金泰元마저 패하여 사망하였다.”

11) 황해도 의병약서책(義兵約誓冊)

- ① 적진에 임하여 패하여 물러가는 자는 참수한다(臨賊退敗者斬)
- ② 민간에 폐를 끼치는 자는 참수한다(民間作弊者斬)
- ③ 주장의 명령을 한 때라도 어기는 자는 참수한다(違主將一時之令者斬)
- ④ 군기를 누설한 자는 참수한다(漏洩軍機者斬)
- ⑤ 처음에 약속했다가 뒤에 가서 배반하는 자는 참수한다(始約終背者斬)
- ⑥ 논상에 적 사살 으뜸이고, 목 베는 것 다음이다(論賞時射殺者爲首斬首者次)
- ⑦ 적의 재물을 획득한 자는 그 재물을 전부 상금으로 준다(得敵人財物者無遺賞給事)
- ⑧ 남의 공을 빼앗은 자는 비록 공도 상을 주지 않는다(奪人之功者雖有功不賞事)

31) 또 한 편의 번역이 있다. 오십평생 죽기를 각오로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국난을 당하여 어찌 구차히 목숨 구할 마음 가지랴 군사들 다시 일으켰으나 끝내 나라 회복키 어려우니 지하에서도 칼 속의 단심은 여전히 남아있으리

12) 의병 처변삼사(處變三事)

- ①거의소청(舉義掃淸):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하자.
- ②거지수구(去之守舊): 국외로 망명해서 대의(大義)를 지키자.
- ③자정치명(自靖致命): 의리(義理)를 간직한 채 스스로 자결하다.

13) 趙愛永 歌詞

총끝에는 칼을 꽂아 번개처럼 번쩍이며
의병이 숨었는가 살살이도 뒤지는데
누구든지 붙잡히면 뽕뽕 묶어 끌고 가서
무등화 대추남계 상하 엮이 묶어놓고
독립군의 행방대라 장작불을 붙였으니
도규석씨 아저씨가 혼절하고 말았고야
나라 잃은 슬픔일새 감인왜란 애통하다
야수광란 왜병앞에 청년의병 가시는가

14) 歌辭 李康季歌

운강선생 이강연은 효령대군 직손이라
춘추대의 의리명분 존화양이 계승했네
항일투쟁 선명하고 강도 한층 더했으니
고종칙령 받자웁고 13년을 투신했네
무과급제 절충군행용양위 부사고 선전관
토적 복수 결의하고 항일전쟁 전개하다
경북 강원 충청의진 중국까지 가고오고
武勢 크고 대단하니 문경 일대 소문났네
고모성에 포진하여 기발하니 충천이라
친일 관찰 김석중을 농암장터 효수하다
원주 충주 일본군은 기병 산포 공병까지
왜사령부 몰려오니 청천벽력 구름이라

제천의병 유인석과 시제맹약 하였더니
 문경 평천 조령전에 애써 쓸어 승전하고
 단양 금채동 전투 전술 꺾하여 작성하니
 속오작대 편제 전술 독창 전법내셨더라
 춘천 의병 성익현과 서벽 전투 해냈는데
 병졸 散卒 彈資결핍 이어져 썸을 할꼬
 병사들의 기세봐라 화승총에 작대기라
 왜병은 신식무기 38소총 기관총이라
 적성전투 달려가니 신태원이 물린뒤라
 큰일났다 이지경에 적성전투 실패로다
 운강선생 아차하여 복숭아뼈 총알맞고
 어찌어찌 추스르다 운강의진 해산이라
 슬프고도 애통하다 왜총으로 멈춰서니
 일구공팔 유월 사일 수비대에 체포로다
 폭도토벌지 조선편책 토벌지정 창의록
 창의일록 서용사졸 고결팔역동지도라
 창의일록 사적에는 좌중사도 담았다네
 운강 의진 주무대는 소백산 태백산록
 고종 칙령 들어있고 유서까지 있으셔라
 사천년 종묘사직 삼천리 강토 지키리니
 이강년 도체찰사 사직 순절하라신다
 이 조서는 비밀하여 모든 일을 거행하라
 통한의 유서에는 천운을 한탄하니
 적도를 섬멸 못해 되려 내가 당했도다
 2천만 동포님네 나처럼 죽지마소
 내 천운 다했으니 새천운 맞으소서
 그 시월 처형이라 51세 순국이라
 의병장 이강년에 내란죄가 웬말인가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장군이시다
무정타 총알이여 복승뼈만 뚫었느냐
신복을 뚫었던들 욱됨이나 없을 것을
아껴본바 없는 목숨이니 삶을 어찌랴만
오랑캐 처부술길 다시 하기 어렵구나
오랑캐 처부술길 다시 하기 어렵구나
이몸 비록 간다한들 냇마저 사라지랴
여러날 숨고숨어 상주 화북 安葬이라

15) 유일한 의병 현장 사진

1907년 촬영된 한 장의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의병은 12명. 뒷줄에 있는 3명은 얼굴만 조금 보인다. 나머지 9명은 비교적 복장, 얼굴, 머리의 모습, 들고 있는 총, 허리에 찬 탄띠 등이 확인된다. 이 중 돋보이는 의병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 군복을 입은 이다. 우리는 이 의병을 해산당한 대한제국 군인으로 본다. 다음은 왼쪽에서 세 번째 의병 얼굴은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소년병이다. 어린 소년이 어떤 과정과 이유로 의병에 가담하였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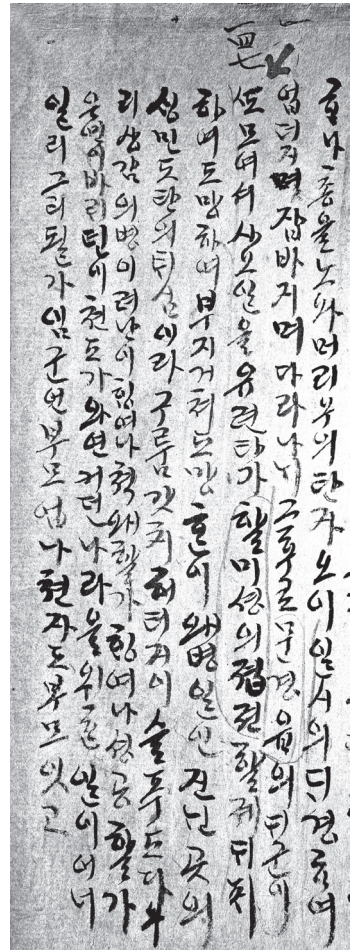
12명의 의병은 사진을 촬영한 시기와 지역, 해산 군인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13도(道) 연합 의병 세력 일부일 것으로 추측한다. 현재 이 12명의 의병 중 한 명의 이름도 알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아주 소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의 우리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영웅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독립운동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진 촬영자는 영국 런던 데일리메일 신문기자 프레더릭 매켄지(1869-1931)다. 그는 1904년, 1906년, 1907년 세 차례나 우리나라에 와 러일전쟁, 을사늑약 후의 상황, 의병운동의 전개 과정과 일제의 진압 등을 보도했다. 마지막의 1907년 의병운동 취재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는 의병 활동 지역을 따라 이동하면서 경기도 양평에서 의병 경계병을 만났다. 이 때 경계병 5, 6명이 다시 나타났다.

“5, 6명의 의병들이 마당에 들어서더니 열을 지어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18 26 세 사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중 한 청년의 얼굴이 잘생기고 흰칠했는데, 구식 군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군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초라한 누더기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누구도 가죽 장화를 신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의병들에 의해 그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매켄지와 의병 모두가 사진이 훗날 얼마나 의미있게 활용될지 몰랐을 것이다. 모든 교과서에 유일한 의병 현장 모습 사진으로 수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진은 1908년 뉴욕에서 발행된 책 ‘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에 수록해 ‘역사적 순간’으로 남겼다. 나아가 ‘타임스’ 주간판 편집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상해임시정부와 프랭크 스코필드 등 친한 반일적 선교사 등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1920년 ‘한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간행하기도 했다. 당시 영국은 많은 나라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과도 ‘영일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분투하는 한국인을 찬조”하기 위한 분명한 활동인 것이다.

매켄지가 찍은 12명의 의병 사진은 120여 년이 지나 재현되었다. 작가 김은숙은 이 사진을 보고 의병 소재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역사 연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소설,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문학과 예술의 중요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상상력이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Ⅵ 아리랑과 세계의 저항가

1. 아리랑의 저항사

최종의 콘텐츠의 완성에서 소재와 주제의 주종에서 아리랑을 주로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접근이 유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리랑의 역사에서 ‘아리’를 여음으로 하는 민요가 고려가요 ‘청산별곡’으로 변이 되어 궁중가요로 불리는 시기를 ‘아리’시대로 구분한다. 그리고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라는 ‘아라리(哦囉哩)’라는 음가의 여음으로 불리는 고려말로 부터 17세기까지를 ‘아라리’시대라고 한다. ‘아리랑’시대는 18세기 아리+‘랑’(‘령’ ‘룽’ ‘성’ 등)의 음가로 불리는 시기를 말한다. 이 중에 ‘아라리’시대는 강원도 정선에 전해지는 ‘거칠현(居七賢)’ 전설³²⁾에서 그 면모가 확인 된다. 즉, 무력으로 역성혁명을 한 이성계를 피해 정선 남면 두문동³³⁾에 전오륜 외 6인³⁴⁾이 숨어와 살게 되었다. 이들은 때때로 고려왕조를 그리워하며 시회(詩會)를 열어 시를 읊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일부 평민들이 이들이 읊은 시를 풀이하여 자신들이 부르는 민요에 엮어 불렀다. 이 중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사설 중 하나가 아라리 제1절인 다음의 사설이다.

눈이올라나 비가올라나 역수장마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모여든다

고려말의 암울한 시운(時運)을 표현한 사설이다. 결국 1392년 조선이 개국되어 새로운 5백년을 맞았다. 조선 5백년사에 아리랑이 담기게 되었다. 이 정황은 1935년 역사학자 김병곤(金秉坤)이 <武政과 아리랑>에서 대략적으로 기술하였다. <每日申報> 1935년 8

32) 전설은 “지역의 자연물들을 비롯한 자연지리적 대상들을 문화적 사물로 의미전환을 시켜주며 인문지리적 대상으로 재창조 해주는 구실을 감당하는 동시에, 지역의 말 없는 문화유산과 자취 없는 인물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 속에 살아 있도록 재조명 해준다.”(구비문학유산과 지역문화의 상생적 관계, 임재해, 『구비문학연구』 14집, 2002, 8쪽)

33) 집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일컬어 '두문불출(杜門不出)'이라한다. 여기에서 두문동이 유래하였다. 사마천의 《사기》 권68 상군열전 '公子虔杜門不出已八年矣'에서 유래된 것이다.

34) 두문동실기(杜門洞實記)에는 거칠현이 고려말 두문동칠십이현(杜門洞七十二賢)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월 22부터 4회에 걸쳐 기술한 글 첫 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李朝 五百年史 중 第一期 무단정치 살육시대 ‘아리랑’이란 노래도 人民들이 自家自身的 生命이나마 保全하려 하든 一種의 계신적(戒愼的) 민요이었다.”³⁵⁾

아리랑이 러말선초 무단시대의 민중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경계하며 살자는 내용을 담아 부른 노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人生觀이 一般 人民의 머리 속에 자리잡게 되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말을 듣지도 말고 내 뜻을 남에게 말할 必要도 없다는 一種 厭世主義 비슷한 思想이 一部 人民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 마침내 ‘啞而龔, 啞而龔, 啞而龔이야 啞而龔 고개나 노다 가세’라는 民謠가 생긴 것이다. 實로 危險千萬한 世上이니 병어리 되고 귀먹은 체 하여 百年一生을 탈 없이 지나리라는 것이다.”³⁶⁾

무력에 의한 탄압에 대해 귀먹어리 처럼 들은 체 않고, 병어리처럼 말하지 않는 처신도 소극적인 저항의 한 방식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했다. 곧 이때의 아리랑은 저항의 노래, 저항적 성격의 노래인 것이다.

이후 아리랑의 성격이 둔으라져 발휘 된 상황은 400여년 후에 확인된다. 경복궁 중건(1865~1872)³⁷⁾ 7년 공사 현장에서 부른 아리랑인데, 바로 다음의 사설이다.

문경 새재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로 다나간다

이 사설은 문경의 새재 주변(상 하초리)에서 불러 온 ‘새재소리’ 또는 ‘새재아라리’의 대표사설이다. 문경 새재의 특산품인 박달나무가 하잘 것 없는 공사장 도구 자루로 잘려 나

35) 金秉坤, <武政과 아리랑>, <每日申報> 1935년 8월 22일자

36) 金秉坤, <武政과 아리랑>, <每日申報> 1935년 8월 30일자

37) 대원군은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조선조 체제를 다시 굳건히 세우려 했다. 경복궁 중건은 그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가는 상실감³⁸⁾이 담겼다. ‘새재아리랑’은 조선조말 문경 새재 일대와 7년 동안 이 지역을 오간 삼남의 부역군들이 불렀다. 이들에 의해 서울 경복궁 준건 공사장에 전해져 공사장의 부역군, 잡역부, 관리, 그리고 전국에서 동원된 놀이패며 소리패들이 함께 불렀다. 나아가 공사장 주변 일대의 다양한 군상들도 불렀다.³⁹⁾

이 사설에 대해 1930년 김재철은 <민요 아리랑에 대하여 II>에서 이 사설에 대해 그 성격을 말한 바 있다.

“직접적으로 민중이 시대에 반감을 표시한 것이다. 풍자적으로 시대에 대한 반감의 노래이며 원망의 노래가 분명하다.”⁴⁰⁾

‘시대의 반감’, ‘원망의 노래’라고 하였다. 우리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책 토목공사를 강행하여 원성을 산 ‘대원위분부(大院位分付)’에 반감을 담아 부른 노래다. 이 지점에서 ‘다나간다’⁴¹⁾의 표상성(representation)은 상실감으로 보게 된다. 반강제적인 동원으로 부모처자를 두고 문경새재를 넘는 부역군들로서는 지역 특산물 박달나무가 집중 공출되어가는 상실감을 표현한 노래에 동병상련의 처지였다. 곧 아리랑에 얹어 조정에 저항 한 것이다.

아리랑의 이 같은 저항성은 외침에 의한 국가적 위기에도 각성의 기재로 기능했다. 바로 한말 의병전에 함께한 사실이다. 의병들이 불렀을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이 불렀을 수도 있다. 그리고 후대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해 불렀을 수도 있다. 현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병 관련 아리랑 사설은 문경지역에서부터 확인 된다. 이어서 춘천 지역에서 부른 것이다. 전자는 1923년 차상찬(車相瓚, 1887~1936)이 ‘聞慶謠’로 기록⁴²⁾하고, 1926년 송석하가 다시 기록한 것이다.⁴³⁾

38) 7년간의 박달나무 집중 공출로 생태계를 상실하여 집단 서식지를 잃게 되었다. 오늘날 문경 새재에 박달나무가 없는 이유이다.

39) 이를 계기로 접변과 변이가 이뤄지게 되었다. 바로 경기 잣은아리랑의 형성이다.

40) 김재철, <민요 아리랑에 대하여 II>, 조선일보, 1930, 7, 11~16

41) 문경새재 A는 B로 다나간다’는 이 시기 공동체에게 공감을 주는 ‘구전공식구’이며, 동일한 율격 조건하에서 규칙적으로 사용한 시어들로서 포물라(formula)이다.

42) C.S.C(차상찬)生, <多情多淚한 慶北 民謠>, 『開闢』, 1923년 6월호

43) 송석하, <聞慶의 表裏>, 동아일보, 1926년 3월 16일자

聞慶 새재 덕무푸레/ 말채 쇠채로 다나간다
 聞慶 새재 박달나무/ 북바디 집으로 다나간다
 黃柏나무 북바디 집은/ 큰아기 손목이 다녹아난다
 할미성 꼭대기 진을치고/ 倭兵丁 오기만 기다린다⁴⁴⁾

1, 3절의 ‘다나간다’와 ‘다녹아난다’는 ‘문경 새재 박달나무는/ 흥두개 방망이로 다나간다’의 딸림형이다. 이런 딸림형은 일종의 공식구 이론(Oral Formula Theory)으로 체계적인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동체의 습관과 어법에 의해 암기와 체화(absorbing)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곧 공식구의 자유로운 적용(adjustment)이다. 민중들이 본 가사를 오랜 시간 숙지(memorizing)와 체화(absorbing)한 결과이다. 결국 ‘다나간다’와 ‘다녹아난다’는 상실감의 표현으로, 이를 이어 “할미성 꼭대기 진을치고/왜병정 오기만 기다린다”라고 하여 또 다른 상실감을 표현하였다. 이 4절 사설⁴⁵⁾은 조선조말 문경 의병과 관련하여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자 차상찬도 “丙申年 義兵 때에 난 소리”⁴⁶⁾라고 하였음에서도 확인이 된다. 다만 ‘할미성’과 ‘고모성’에 대한 혼동이 있는데, ‘한양사적(漢陽事蹟)’⁴⁷⁾에도 ‘할미성 접전’으로 나와 이강년 대장의 첫 전투지인 현 고모산성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록자의 주장대로 1895년 을미의병 이듬해 병신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문경 조령에는 의병들이 운영한 관방척후소(關防斥候所)⁴⁸⁾를 두고 접전 상황 등을 파악하여 각 진영에 알렸다. 일본군 보병제14연대와와의 대치상황이다.

春川아 鳳儀山 너잘있거라/ 新延江 배터가 하직일다

44) <동아일보 기자 지방순례>, 동아일보, 1925년 3월 16일자
 45) “고려왕조시대와 조선왕조시대 기록에 ‘아리랑’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문자 채록을 게을리한 것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발명되고 한자도 널리 보급된 조선왕조시대에 오면 임진왜란 때의 아리랑 가사에 ‘할미성 꼭대기 진을 치고/ 왜병정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의 사실이 채록되어 있다.” 신용하, <연가에서 민족가요로... 아리랑 진화에 숨은 인물>, 주간조선, 2021 08 16. 이 주장은 매우 무리한 주장이다.
 46) 1923년 c. s. c생의 <多情多淚한 慶北의 民謠>, 『開闢』, 1923, 6
 47) 170쪽의 장편으로 기록된 이 ‘한양사적’ 146쪽과 147쪽에는 을미의병 이전의 패한 원인을 제시하고 드디어 영남대장 이강년이 등장하는 장면이 서술돼 있다. <이강년 의병대장 할미성 접전 기록 발견>, 경북일보 2018년 05월 27일
 48) 김희곤 편, 『한말의병일기』, 국가보훈처, 157쪽

귀약통 남날개 양총을매고/ 벌업山 接戰에 勝戰을했네
우리나 부모가 날기를제/ 成大將 주자고 날길렀나⁴⁹⁾

춘천아 봉의산아 너잘있거라/ 신연강 배터가 하직일세
우리나 부모가 날길으실제/ 성대장 주려고 날길으셨나
귀약통 남날개 양총을매고/ 벌업산 대전에 승전을했네⁵⁰⁾

춘천의병은 1896년 양력 1월에 춘천부 유생 정인회(鄭仁會, 1868 1902)가 관군 성익현(成益鉉)과 상인 박현성(朴玄成)을 포섭하여 일부 군인과 포군 등 400여 명과 함께 춘천관찰부를 습격, 점령하고 관아를 임시 의병본영으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이 노래 사설의 서사는 봉의산 산성안에 의병진영을 설치하고 이소응(李昭, 1852 1930)을 대장으로 추대하여 봉의산 정상에서 거의서천제(舉義誓天祭)를 지내고 주길리 뒷산 벌업산(보납산) 전투지로 향하는 의병대를 그렸다.

이 사설에 대해 “당대 애창되던 아리랑에 의탁했다”는 해석과 함께 ‘의병아리랑’이라고 호명하였다. 1923년 기록자 차상찬도 “그 때 춘천에는 이러한 아리랑타령이 유행하였던 듯하다. 당시 의병이 경군에 敗하고 또 先鋒將 成氏의 패함이 있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비로 1896년 1월의 을미의병 때 춘천진위대 벌업산 전투상황을 아리랑에 얹어 불렀다. 오늘의 관점으로는 당대 아리랑과 의병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것이다.

성익현(成益鉉)을 ‘성대장’으로 제시했다. 성대장은 무인이지만 신망이 있어 유림과 통하고 상인(商人) 중 담력있는 이들을 포섭하여 춘천부민과 연결하여 봉기 3일만에 5, 6천의 의군을 모은 인물이다. ‘성대장 주려고 날길으셨나’라는 대목에서 화자가 성대장 휘하의 의병임을 알게 한다. ‘벌업산 접전’이란 표현은 1895년 12월 이소응부대의 서울 진격 중 가평 벌업산에 대치한 관군과의 전투이다. 그리고 ‘승전을 했네’라고 한 것은 이 때 진눈깨비로 화승총⁵¹⁾을 쓰지 못해 패전한 상황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 패전의 회한(悔恨)

49) 차상찬, 《開關》 1923년 12월호

50) 송석하, 《신동아》 1936년 3월호

51) 화승총은 의병전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던 무기 칼, 활, 죽창, 곤봉, 돌까지 무기로 활용했다.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사용하던 무기류로는 주력인 화승총을 비롯하여 대완총(大腕銃)과 같은 구식대포, 활, 칼, 창 등의 재래식 무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곤봉과 돌까지 무기로 활용하였을 정도였다.

을 드러낸 것이다. 이 두 지역의 아리랑은 일본의 침략과 이에 굴복한 조정의 무능에 대한 민중의 아리랑을 통한 저항이었다. 역사적 경험으로 저항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이름이기도 하다.

의병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합방 압박에 굴복했다. 1910년 한일 합방조약이 체결되어 식민지로 전락轉落하고 말았다. 이 때 기독교 단체가 시위에 나섰다. 이 시위에 함께한 노래가 아리랑이었다. 일제 기록 <韓日協約發表後の 基督教徒의 俗謠宣傳에 관한 件>(憲機第一五四七號)에는 협약에 반대하는 기독교도들이 부른 노래 ‘アラランノ俗謠ヨリ’라고 표기한 것이다.

1. 노세노세 소년시절에 놀고보세/ 노백(老白)이 되면 못노나니
2. 이런 세상이 어떤세상이뇨/ 세상을 포박(捕縛)하는 일본세상
3. 한일간 협약이 누구탓인가/ 우리 동포의 미개 때문아닌가
4. 마셔라 마셔라 마셔버리자/ 있는 돈으로 술이나 마시자
5. 마시고 써보자 돈아껴무엇하리/ 있어야 끝내는 일본수중인걸
6. 마셔라 마셔 마셔버리자/ 매일매일 취하여 장취(長醉)해볼까⁵²⁾

4절까지는 비탄적인 회한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런 처지가 일제에 의해 있게 된 것이라고 하고, 마지막 절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고 있다. 기독교적 현실 고백인 것이다. 이 같이 한일병탄조약에 대한 시위에서도 아리랑이 함께 하였다.

시위는 집결하여 해산 할 때까지 대오를 유지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노래가 필요하다. 바로 아리랑이 이런 구국 시위에서도 함께한 것이다. 역동적인 근대사 전개 과정에서 민중이 택한 가장 절실한 공시매체(公示媒體)가 아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52) <韓日協約發表後の 基督教徒의 俗謠宣傳에 관한 件>, 憲機第一五四七號. 黃海道延安邑內ニ於テハ今回日韓協約發表ノ結果耶蘇教徒ハ左記譯文ノ俗謠ヲ唱ヘ老幼ヲ問ハス三 伍 集マリ高聲ニテ吟シ居レリ. 又白川郡南山面附近ニ於テハ二三面長及里長等集合シ協約ニ對シ復讐的政策ヲ施サン事ヲ耶蘇教信者ニ訴ヘタリ. 左記(「アララン」ノ俗謠ヨリ)一. 遊ハン 少年時代ニ遊ヒ見ン老白ニナラハ遊フ能ハス二. 此世界ハ如何ナル世界ソ(票+飛)泊中央日本ノ世界三. 今年ノ新條約發布セラレタルハ誰ノ爲メソ我同胞未開ノ爲メ四. 飲マレ 金アル丈ケ皆飲マレ五. 飲ンテ見テ使ツテ見ン金ヲ辛抱シテ貯蓄セハ終ニハ日本人ノ手中ニ行キテ失フノミ六. 飲マレ 毎日長醉飲マンカナ. 明治四十二年八月四日

아리랑을 저항의 노래로 드러낸 계기는 1926년 10월 영화<아리랑>개봉과 주제가<아리랑>의 출현이다. 조선총독부가 청사를 완공하고 식민정책 수행 준비 완료를 선언하는 시기 영화<아리랑>은 탄생되었다. 감독 시나리오 주연 각색 주제가 작사로 1일5역을 맡은 나운규의 항일의식이 담긴 작품이다. 당시 일제에 의해 황폐해진 농촌 현실을 그려 '농촌비가'로 표현한 주제가 아리랑은 영화 보다 앞서 전국을 돌았다.

1. 나를버리고 가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나리
2. 豊年이 왔다네 豊年이왔네/ 이강산 삼천리 豊年이왔네
3. 청천 하늘엔 별도만코/ 우리네 살림사리 말도만네
4. 십리길 멀다고 우는님아/ 이날이 지며는 어이하리
5. 먼동이 트네 먼동이트네/ 미친님 꿈에서 깨어났네
6. 문전에 옥답은 다팔아먹고/ 거러지 생활이 왜일이나
7. 외딴의 기럭아 웨우느냐/ 네 짝을 일코서 웨우느냐
8. 원수로다 원수로다/ 총가진 포수가 원수로다
9. 방향의 길잃은 이내몸도/ 내 짝 잃코서 이꼴이라⁵³⁾

개봉 당시 3일간의 단성사에서는 이 외의 가사가 불렸을 수도 있다. 개봉 당일 새벽에 불온한 가사가 문제되어 영화 전단지 1만매가 압수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전단지 압수라는 탄압은 이후 가역반응(可逆反應)이 일으며 아리랑을 지하의 노래로 변하게 하였다. 이런 정황으로 더 강한 항일 가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 한 예가 1931년 주제가 <아리랑>을 수록한 조선가요연구회 편 『精選朝鮮歌謠集』에 이런 가사가 있다. 출판 후 이를 칼로 오려 내거나 검게 칠하여 복자(覆字)하였다.

싸우다 싸우다 아니되면/ 이세상에다 불을 지르자

53) 함흥군 함흥면 하동리 채록 <아리랑 9편>. 김소운, 『언문구전조선민요집』, 제일서방, 1933, 540~541쪽. 기미양, <영화 아리랑 주제가 연구>, 성균관대 국문과 석사논문,

식민지가 된지 20년이 지난 이 세상이 싸우고 싸워야 할 처지인데, 이러지도 못할 처지니 세상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방화를 할 만큼 격렬한 적대감을 아리랑을 통해 토로한 것이다. 이후 이런 아리랑 가사가 문제되어 많은 음반⁵⁴⁾과 출판물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아리랑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국가 위란을 맞아 민중의 역량을 동원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편가치를 인정받은 아리랑의 틀을 활용하였다. 민중의 생활 감정과 관심사를 친숙한 율격으로 전해주는 공시대체로 보편화한 것이다.

한 때 일부 인사들이 아리랑 성격의 일부를 전체로 오해하여 亡身亡家亡國之荒音⁵⁵⁾으로 또는 文弱한 詩라고 비판하며 부르지 말자거나 개작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리랑의 생산 양식이 공동작이며 전승 주체가 민중이고, 전승 범주가 민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아리랑은 민요를 초월(超越)했다’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2. 세계의 저항가, 혁명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민요⁵⁶⁾ 아리랑과 ‘진정성’이라는 감동과 영감의 원천인 정의군 ‘의병’의 결합은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는 문화원리로 스토리텔링을 넘어 의미있는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하기와 놀이하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⁵⁶⁾ 의병 이강년의 존재는 장엄한 서사(敍事) 그 자체이고, 속오작대(東五作隊)는 기발한 놀이(게임)의 소재이다. 팩트이면서 이야기이다. 여기에 이미 기층화 된 민요 아리랑이 스민다면 의미있는 문화콘텐츠의 탄생은 기대할만 하다. ‘의병 이강년의 아리랑화’ 또는 ‘아리랑의 의병 이강년화’는 이를 말하고 싶게 하고, 듣고 싶어 하게 하여 소통하게 하게하는 것이니 스토리텔링으로, 문화콘텐츠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의병은 혁명군이다. 그 저변에는 저항정신이 농후하다. 아리랑은 혁명의 노래이다. 이

54) 빅터 레코드社가 製作한 민요 ‘아리랑’, 동아일보 1933 09 13. 소리板 受難時代; 「아리랑」等 四種押收, 取締規則制定以後 二千枚處分, 全部가 思想問題關係, 東亞日報 1933.9.13

55)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음악은 민요이다. 누가 가사를 썼는지, 누가 곡을 지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정체불명이지만 민중에게 이미 체화되어 언제든 집단적 함성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이 그 전형적인 민요이다.

56) 호모 나렌스(Homo Narrans)와 호모 루덴스(Homo Ludens)로 말해진다.

저변에는 저항성이 농후하다. 이런 본질적 성격에서 두 소재의 결합은 의미있는 콘텐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혁명과 저항을 주제로 콘텐츠화 한 작품들을 살펴 사례로 삼을 필요가 있다.

폭압과 침략에 맞섰던, 자유를 갈망했던 민중들의 든든한 힘은 저항성과 대동성을 지닌 음악이었다. 저항하고 대동함으로서 또 다른 상생을 찾기 위해서다. 프랑스혁명도, 그리스 민주화운동도, 아르헨티나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음악은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연결의 끈이었으며, 약해지지 말자는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깨어 있는 지들에게는 합성이며 메아리인 노래가 있었던 것이다.

1) ‘라 마르세예즈’

일어나라, 조국의 청년들아/ 영광의 날이 왔노라
우리에게 맞서 저 폭군들의/ 피 묻은 깃발이 올랐도다(반복)
들리는가 저 들판에서/ 고향치는 흥폭한 저들의 소리가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대오를 갖추라
전진 전진 저 더러운 피가/ 우리의 깃발을 적시도록

프랑스혁명은 ‘라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로 상징된다. 프랑스 혁명기 초기 전투중에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795년 7월 혁명 6주기를 맞아 프랑스 國歌로 선포했다. 이후 많은 작품에서 이를 주제화 했다. 작곡가 살리에리(1750~1825)는 오페라 <파리미라>에 썼다. 1833년에는 작곡가 슈만(1810~1856)이 <비인의 시육제>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괴테의 <헤르멘과 도로테아>에서 사용하는 등 많은 작품에서 사용되었다. 이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으로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에서다. 나폴레옹 대군의 러시아 침공 실패를 앞에서 ‘라미르세예즈’가 찾아지며 러시아 국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여 러시아의 승리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러시아 혁명초기 러시아 국가 ‘인터내셔널가’가 아닌 ‘라미르세예즈’가 국가로 오해할 정도로 널리 불렸다.

이 외에도 영화 ‘카사블랑카’,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2007년 영화 ‘라비앙 로즈’ 등에 차용되어 ‘작품 속의 더 유명한 작품’으로 존재하고 있다.

2) '라 쿠카라차'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소꿉놀이 어린이들 뛰어와서 쳐다보며
싱글벙글 웃는 얼굴 병정들도 싱글벙글
빨래터의 아낙네도 우물가의 처녀도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얼굴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희한하다 그 모습
쓸 데 없는 빗같은 것이라네

누군가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사람
그는 바로 셔츠를 벗은 판초 비야라네
이미 카렌사의 군대가 도망가 버렸네
판초 비야의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네

1910년 멕시코혁명 당시 불린 노래이다. 스페인 전래 민요가 멕시코 혁명 군가로 발전한 노래다. 농민군이 정부군에 맞서 싸운다는 풍자 가요다. '라 쿠카라차'는 바퀴벌레라는 뜻의 스페인어다. 바퀴벌레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멕시코 민중이라는 해석이 있다. 끈질긴 생명력이 죽음을 불사하는 혁명군을 상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은색 망토 구멍에 머리만 내밀고 행군하는 농민군은 멀리서 보면 바퀴벌레와 흡사하다. 그러나 혁명군의 영웅인 판초 비야를 바퀴벌레에 비유한다는 게 정설이다. 빈농 출신인 판초 비야는 한때 산적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날린다. 악질 농장주나 탐관오리 집을 털어 빈민들에게 나눠준 덕분이다. 1910년에는 민중 수탈에 항거해 혁명전쟁에 가담한다. 투옥과 미국 도피 등 시련도 겪었지만 1913년부터는 전쟁 영웅으로 부상한다. 신출귀몰한 게릴라전에서 연승을 거둔 결과다.

참전 6개월 만에 멕시코 북부 농민군 총사령관에 오른다. 부하 병력은 1만여 명에 달한다. 미국 남부로 진격하기도 한다. 반혁명군 지원을 응징하기 위해서다. 판초 비야는 10년간 농민혁명군을 이끌다 암살된다. 이 혁명가는 19세기 말 반봉건 반외세 농민항쟁을 이끈 전봉준 장군과 닮았다. 민요 '과랑새'에는 그를 상징하는 녹두장군이 들어간다.

아리랑도 일제 강점기에는 저항 가요로 바뀌는데, 외세에 맞서 민족을 통합하는 힘 때문이다.

3)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카테리니행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내 기억 속에 남으리

카테리니행 기차는 영원히 내게 남으리.

함께 나눈 시간들은 밀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당신 역에 홀로 남았네.

가슴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남긴 채 앉아만 있네.

가슴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소아시아 카오스섬에서 태어나 독재에 저항하다 여러 번 투옥되며 민족해방전선인민군 소속의 미키스 테오도라키스(mikis theodorakis) 작곡이다. 반 나치 활동으로 투옥 중에 작곡을 했다. 작곡가의 이런 이력에서 '기차는 8시에 떠났네(To traino feygei stis ochto)'가 단순한 연인을 그리는 애절한 사랑 노래가 아님을 알게 한다.

1940년대 초 나치 독일이 그리스를 침공하자 한 청년이 반 나치 독일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기 위해 카타리나행 기차를 타고 떠났다. 이 청년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8시 기차로 떠나는 연인을 향해 애절하게 안녕을 빌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돌아 올 연인을 기다렸다. 이 레지스탕스 청년과 이를 기다리는 연인의 사연을 그린 노래다.

1964년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Zorba the Greek, Alexis Zorbas)'의 영화 음악이다. 인생의 행

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완벽한 자유를 구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인가를 묻는 영화이다. 1985년 아그네스 발차의 ‘조국이 가르쳐 준 노래(Songs my country taught me)’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졌다. 노래에 등장하는 ‘카테리니’는 독일과 싸울 그리스 민병대의 최종 집결지였다. 2차 대전의 격변기의 그리스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널리 불렸다. 그리이스의 젊은 레지스탕스의 사랑을 통해 나치 독일에 대한 저항을 담은 애잔한 노래이다.

이 노래는 많은 나라의 유명 가수들이 불렀다. 그러나 그리스 쏘푸라노 아그네스 발차와 역시 그리스 대중가수인 하리스 알렉시우가 부른 것이 유명하다. 그리스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노래라서 그럴 것이다.⁵⁷⁾

4) ‘관타나메라’

관타나모의 여인이여/관타나모의 시골여인이여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오/야자수가 자라는 마을 출신이랍니다
야자수가 자라는 마을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내 영혼의 시를 나누고 싶어요/ 관타나모의 시골여인이여
나의 시는 신선한 초록색이며/ 나의 시는 불타는 진홍색입니다
나의 시는 신선한 초록색이며/ 불타는 진홍색입니다
나의 시는 상처입은 사슴입니다/ 산에서 피난처를 찾는

7월이면 난 1월처럼 흰 장미를 키우겠어요
내게 손을 내민 성실한 친구를 위해
이 땅 위의 가난한 사람들과 내 행운을 나누고 싶습니다.
산 속의 냇물이 바다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군요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관타라메라 관타나모의 농사짓는 아낙네여

57)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sbs <백야>의 배경음악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조수미도 음반에 수록했다.

‘관타나메라(Guantanamera)’는 쿠바의 전통민요 선율에 호세 마르티(Jose marti)⁵⁸⁾의 시를 얹은 노래다. 가사를 쓴 호세 마르티는 쿠바의 국민영웅이며 독립운동가이다. 1853년 쿠바 산티아고에서 태어났다. 당시 침략자 스페인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17세 되는 해에 스페인 총독에 의해 추방당하고 남미의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12년간 뉴욕에 정착하면서 평소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재능을 살려 시와, 소설, 평론, 등 70여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1894년 뉴욕에서 쿠바 혁명당을 조직하고 계속 망명운동을 한 그는 42세 되는 1895년 미국의 도움을 받아 혁명군을 모집하여 스페인군에 결사 항쟁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고향인 산티아고시 동쪽에 위치한 관타나모에서 전사를 하였다. 마르티는 조국해방의 큰 뜻을 가슴에 묻은 채 세상을 떠났다. 마르티의 사상은 쿠바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지금까지도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다. 조국에서 역사상 가장 추앙 받는 혁명가와 문학가로, 그리고 쿠바를 비롯해 전 남미가 애창하는 민요 ‘관타나메라’ 작사자로 이름을 남겼다. 이 노래는 궁극적 평등 속에서 혁명적 정체성을 표출한 호세 마르티의 대표 작품이다.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 직후, 이 노래는 전세계로 다시 전파되었다. 세계적인 반전 가수 피터 시거(Pete Seeger, 1919~2014)⁵⁹⁾가 다시 불러 반전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어 1966년 남성 3인조 보컬 ‘샌드 파아퍼스’가 다시 불러 세계적인 팝으로 변신시켰다. 저항과 혁명의 주체가 작사한 노래로서 혁명가의 존재와 함께하는 실체이며 상징이기도 하다.

5) ‘탄넨바움’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네 빛
 쓸쓸한 가을날에나 눈보라 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르구나

58) 쿠바 혁명과 노래를 말 할 때는 호세 마르티와 함께 체 게바라를 말한다. 전자와는 ‘관타나메라’, 후자와는 ‘사령관이여 영원하라’이다. 1967년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처형당할 때 “지금의 실패는 결코 혁명의 종말이 아니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59) 피터 시거는 1954년 아리랑을 불러 반전 평화의 노래로 전파했다. 1941년 발행된 님 웨일즈의 ‘아리랑’을 읽고 영감을 얻은 후 한국전쟁 중 남북이 함께 부른다는 사실에 노래의 힘을 잘 보여주는 노래라며 음반화 하기도 했다. 아리랑이 월남전 반전 행사장에서 연주된 사례이다.

음악교과서에도 수록된 노래다. 독일 민요 ‘오 소나무(O Tannenbaum)’가 원곡이다. 서정적이고 약간은 쓸쓸하기도 한 이 노래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고 있다. 앞에서 살핀 노래들과는 다르게 여러 번의 개사로서 전파되어 강력한 음악이 되었다. 그 첫 번째 버전은 1889년 영국의 짐 코넬이라는 사람이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탄넨바움’에 가사를 달아서 ‘적기가(Red Flag)’를 만들었다. 이 곡은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영국 노동당의 행사에서도 자주 불리게 되었다.

1920년 일본에도 전해졌다. 일본어 가사를 짓고, 3박자인 곡을 가사의 운율에 맞춰 4박자 행진곡으로 바꿨다. 제목은 전혀 다르게 ‘아카하타노 우타(赤旗の歌)’로 바뀌 일본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애창곡이 되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전파 되어 ‘소나무’와 ‘적기가’⁶⁰⁾로 불렸다. 일제시대 항일운동 과정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에게 불린 ‘적기가’이고 북한에서는 혁명가요로 불리고 있다. 대규모의 교향곡이나 오페라의 화려함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민요지만 이 소박한 형식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고귀한 자와 천한 자를 가리지 않는 대중성을 담보한다. 소박한 형식에 담겨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결국 민중들의 절실한 염원을 담게 된 것이다.

잘못되고 모순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민요라는 형식을 빌려 민중들의 염원을 담은 노래가 불리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통속적이고 민족적 성격을 담은 노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역사를 목도한 민중들의 노래는 후대의 유전자 속에 진실의 기억을 아로 새겼다.

이상에서 살핀 세계적인 저항가 또는 혁명가는 일정 부분 아리랑과 유사함을 확인 했다. 이들 저항가가 세계적인 콘텐츠에 주제나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도 마찬가지다. 이들 노래는 ‘의병아리랑’ 관련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에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60) 영화 <실미도>에서는 ‘적기가’로 불렸다.

Ⅶ 벤치마킹 대상 해외 콘텐츠⁶¹⁾

기발하고, 가치있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는 완성된 문화콘텐츠이다. 인간 생명의 한계인 ‘백 년’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백년을 준비하여’ 또는 ‘백년 후 개봉’이란 말에 매력을 갖게 되는 이유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이 그렇다. 이 성당은 1882년 가우디의 스승이었던 비야르가 설계를 시작한 이래 43년간 이 공사에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친 공사임에도 136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이 기약되지 않은 상태다.⁶²⁾ 이 성당의 건축과정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완공해 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 ‘백년의 약속’이 있다. ‘오늘이 미래에게 주는 선물로 표현되는 ‘퓨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이다.

1. 퓨처 라이브러리 ‘종이책’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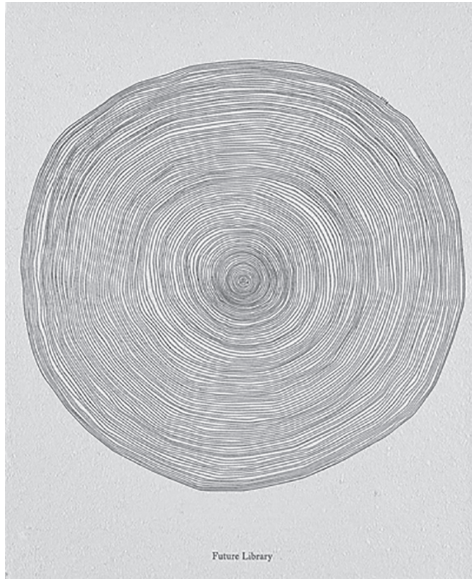
2014년 여름,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 북쪽에 위치한 숲 노르드마루까(Nordmarka)의 작은 공터에 천 그루의 작은 가문비 묘목들이 심어졌다. 이 묘목들은 백 년 뒤 나무가 되어 종이책을 만들기 위해 심어진 것이다. 백 년을 바라보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퓨처 라이브러리(Future Library) 사업이다. 스코틀랜드 생태 예술가 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에 의해 제안되었다.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해 새로운 작품을 쓰게 하고 이 원고를 받아 봉인한 후 100년인 2214년 종이 책으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100년 후 인쇄 될 종이는 2014년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 노르드마르카(Nordmarka) 숲에 심은 1,000 그루의 가문비나무로 만들어진다. 이 나무들 역시 미공개 원고와 함께 100년 간 자리를 지키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책으로 탄생하는 소중함과 기다림을 알게 해주는 기획이다.

61) 미래적인, 후대를 위한 프로젝트 “오늘이 미래에게 주는 선물”, 미래지향인 공공예술 프로젝트 벤치마킹 사례이다.

62) 그의 사후, 스페인 내전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 불에 타 사라져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의 정신을 계승한 후배 건축가들의 기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성당의 건축은 계속되었다.

이 계획은 한 가지 메시지를 목표로 하였다. 백 년 동안은 노르웨이 숲은 보호될 것이라는 생태학적 관점이다.

“종이 책은 미래에도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숲은 보존되어야 한다.”



퓨처 라이브러리 '종이책' 트로베크트 포스터

노르웨이 오슬로 시(市)가 지원하고 ‘퓨처 라이브러리 신탁(Future Library Trust)’이 운영한다.⁶³⁾ 작가의 원고는 금년에 완공된 오슬로 다이히만 도서관 ‘침묵의 방(Silent Room)’에 보관되기 시작했다. 작품 내용은 2114년까지 비밀에 부쳐진다.⁶⁴⁾ 이미 선정한 7편의 작품은 지난해부터 유리 상자에 담아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전시했다. 이 전시 공간은 명상실처럼 신비롭고 상상을 자극하도록 꾸며졌다고 한다.⁶⁵⁾

백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향하는 이 프로젝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 빛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뎌야만 하는 순간을 기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마 이 프로젝트는 백 년 동안의 긴 기도에 가까운 어떤 것이라고 나는 이 순간 느끼고 있다.”⁶⁶⁾

63) 2019년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선정되어 원고가 보존되어있다.

64) 이에 대해 실천적인 매개체인 책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와 독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책이 신비로운 분위기 속 시간의 비트리를 뒤집어 쓴 채 승배의 대상(페티쉬)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65) 2019년 우리나라 작가 한강씨도 퓨처 라이브러리 다섯 번째 작가로 선정되어 미공개 원고가 침묵의 방에 보관되어있다.

66) 작가 한강 인터뷰 여성신문, 4월 26일 온라인 기사

2.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⁶⁷⁾

‘엄마에게 치유와 격려를, 아이에게 사랑과 교감’을 목적으로 ‘세상에 너를 위한 단 하나 뿐인 자장가’를 작사 작곡하는 기획이다. 2011년 미혼모가 전문 음악인과 함께 자신의 아기를 위한 자장가를 직접 작사 작곡하여 완성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이다. 주최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카네기홀이다. 카네기홀은 연주회뿐 아니라 음악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뮤지컬 커넥션’(Musical Connection)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신모가 전문 음악인과 협업해 자기 아이를 위한 자장가를 직접 작사 작곡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바로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Lullaby Project)’다.

이 ‘자장가 프로젝트’는 작곡가 토마스 카바니스(Thomas Cabaniss)가 2011년 뉴욕 제이코비 의료센터(Jacobi Medical Center)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많은 십대의 미혼 산모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카바니스는 이를 위해 임신모가 자신의 아기를 위한 자장가를 작곡하고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고안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아기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스스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실험은 참가자들의 성취감으로 이어지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카네기홀의 ‘자장가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해당 지역 음악인과 1:1로 연결된다. 참가자는 작사를 하고, 예술가는 작곡을 돕는 형태로 진행된다. 완성된 자장가는 카네기홀 음원 공유 채널인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에 업로드 되었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주제로 벤치마킹 되어 비국에 확대되었다. 2012년부터 뉴욕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 교도소에서 ‘라이커스 섬 자장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감 기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해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수감자 어머니들이 아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이끌었다. 이어 위성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2018년까지 15개 지역에서 350여 명의 임신모가 자신의 자장가를 완성했다. 특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市)의 비영

67) SEM프로젝트 <음악너머>가 이를 벤치마킹하였다. 음악가들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보듬어주거나, 새로운 사고나 감정을 촉발시켜 사람들의 일상이 좀 더 건강하고 풍요로와 질 수 있도록 하는 음악운동이다.

리 합창 음악기관 ‘보컬 에센스’(Vocal Essence)에서는 뉴욕시 공립학교인 ‘롱펠로우 고등학교’(Longgellow Alternative High School)와 협업해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10대 미혼모 4명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시기에 위성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1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발의한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만장일치로 채택돼,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한 것에서 시작했다. ‘엄마의 작은 노래’라는 타이틀로 전업주부, 워킹맘, 다문화가정 엄마, 육아 휴직 중인 아빠 등 다양한 층의 부모 9명이 참여해 음악가들과 협업하여 자장가를 만들었다.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는 2011년 미국에서 청소년 미혼모 시설을 돕기 위해 시작됐으며 미혼모가 전문 음악인과 함께 자신의 아기를 위한 자장가를 직접 작사 작곡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성공했다. 그동안 자장가 프로젝트는 25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각 지역에서 자장가 창작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3. 인간띠 노래혁명

국경을 맞댄 세 나라가 노래로 독립을 쟁취했고, 이를 잊지 않기 위해 ‘인간띠 노래혁명(The singing revolution of human belt)’ 행사를 축제화한 경우가 있다. 바로 유럽 북쪽에 있는 발트해를 끼고 있는 구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세 나라 에스토니아⁶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다.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민족운동을 벌인 이들 3국은 유사한 역사 과정을 갖고 왔다. 중세 이후 독일,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 같은 5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것이다.

13세기 초에는 덴마크가 에스토니아 북부 지역을 장악했고, 이어 독일 주교단과 기사단이 분할점령하여 16세기 중반까지 지배를 하였다. 그리고 다시 스웨덴의 침략으로 지배를 받았다. 그러다 1710년 러시아 피오토르(Piotr) 대제가 발트해에 항구를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합병시켰다. 이후로 1918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발트 3국은 독립을 했

68) 최근 고대 한민족사를 연구하는 단군학회 발표(신용하) 결과로 에스토니아는 고조선의 후에 아말족의 한 갈래로 보고 있다.

다, 그리고 다시 1939년 독일과 소련의 협정으로 3개 공화국으로 편입시켰다. 이후 50년 동안 스스로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독립을 위해 투쟁해 왔다. 이렇게 주변 강대국에 시달려 온 세 나라의 운명은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있다.



발트3국의 '인간띠 노래의 혁명' 모습

이 세 나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인간띠 노래' 운동이 일어났다. 독일과 러시아가 비밀협약을 맺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50년이 되는 1989년 8월 23일, 노래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남쪽에 있는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서부터 시작하여 라트비아 리가를 거쳐 에스토니아 탈린에 이르는 620km의 200여만명이 인간띠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독립을 요구하였다. 어린이나 어른, 나이 많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합창을 하였다. 이를 '노래의 인간띠 혁명'이라고 한다. 이 저항운동은 다양한 시위로 4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다. 마침내 소련은 이들의 독립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3국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시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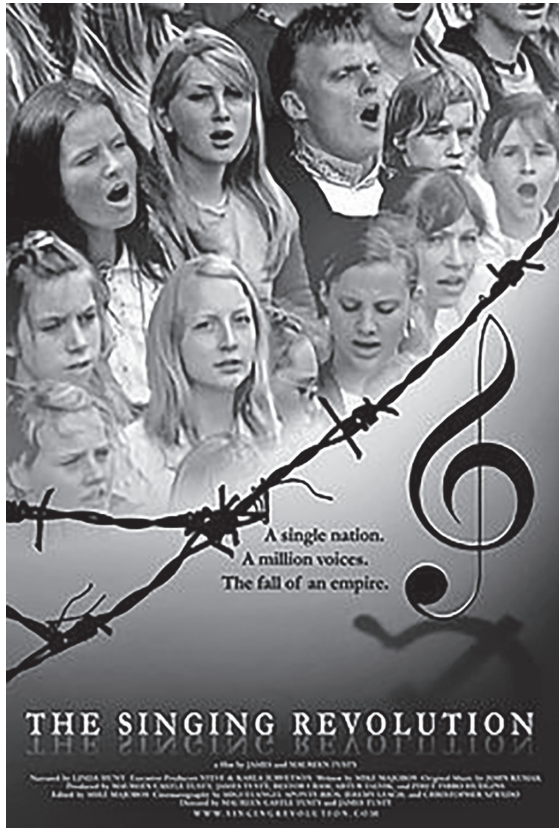
드디어 리투아니아는 1991년 3월 11일, 에스토니아는 8월 20일, 라트비아는 8월 21일 각각 독립을 하였다. 대부분의 혁명은 증오를 기반으로 한다. 증오는 보복을 부른다. 살인과 방화, 그리고 극단으로 치달은 증오는 다시 반혁명을 불러일으켜 급기야 전쟁으로 치닫기도 한다. 그러나 발트 3국은 희망을 노래하며 평화적으로 독립을 쟁취했다.

사실 발트 해 지역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손꼽힌다. 특히 에스토니아에서는 유서 깊은 노래 축제를 매년 열어왔다. 이 잔치에는 전국의 에스토니아인은 이웃 라

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사람들도 참여하고, 해외동포들도 찾아와 1주일간 노래의 향연을 벌였다. 원래 1869년 에스토니아 타르투(Tartu)에서 시작된 축제는 민속의상을 입고 민요와 합창곡을 부르며 국가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 축제에서 주로 부른 노래는 에스토니아 알로 마티센(Alo Mattiisen)이 작곡한 다섯 곡의 애국가(patriotic song)이다. 1988년 5월 타르투 민속음악제에서 발표한 곡으로 참가자들은 이 노래를 합창했다. 이 노래가 에스토니아는 이웃 발트 국가에 퍼져나간 것이다.

이 ‘발트 3국의 인간띠 노래 혁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10년 일제의 병탄이 있게 되자 이에 저항하여 제일 먼저 시위를 벌인 이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도 해외동포들이 아리랑 인간띠로 통일을 염원하는 문화혁명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띠 노래의 혁명’ 포스터

VIII 맺음말

아리랑은 탁월한 보편성으로 하여 중국의 ‘모리화(茉莉花)’나 일본의 ‘사쿠라(あいだき)’ 이상으로 세계에 알려진 노래다. 의병은 정의를 위한 자발적인 민병대로 레지스탕스⁶⁹⁾나 파르티잔⁷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조직이다. 아리랑은 민중성이 그 본질이다. 의병은 출신 성분의 차이를 극복한 조직임이 그 본질이다. 아리랑은 함께하는 대동정신을 그 가치로 한다. 의병은 정의를 위한 헌신을 그 정신으로 한다. 아리랑은 모두가 향유(享有)하는 대상이다. 의병은 진정성에 의한 선양(宣揚)의 대상이다. 이 두 주제의 관점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이 때문에 아리랑과 의병을 융합한 ‘의병아리랑’이란 이익 지향이 아닌 가치 지향의 주제이다. 이 지향을 콘텐츠 개발이나 활용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앞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한 세 가지 프로젝트 즉, 퓨처라이브러리 ‘종이책’프로젝트,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노래 인간띠 혁명’은 그 성격이 모두 가치 지향적이다. 이제 이를 주목하여 시사점을 찾아 ‘의병아리랑’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 최종의 프로젝트 ‘의병아리랑***’(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고를 맺고자 한다.

1. 세 가지 사례의 시사점

제시한 세 가지 사례를 차례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퓨처라이브러리 ‘종이책프로젝트’에서 얻은 시사점이다. 이는 의병아리랑 주제를 미래에 보내는 타임캡슐화이다. 공모나 그 외의 방식에 의한 선정작인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를 타임캡슐에 넣어 묻는 이벤트를 할 수 있다. 충실한 현재의 작품이 미래에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네기홀 자장가프로젝트’에서 얻은 시사점은 ‘의병아리랑 노랫말짓기’이다. 특별한 의병 사연이나 증언을 채록하여 노랫말로 삼아 의미있는 ‘의병아리랑’(Arirang of righteous army)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역시 노력에 따라서는 아리랑의 의미있는 확장이 될 수

69) 레지스탕스(resistance)는 1940년 독일 점령하의 파리에서 지하 저항운동을 통한 대독 항전조직이다.

70) 파르티잔(Partizan)은 소련 침투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원들이 조직화하여 추축국의 점령에 대한 민중 봉기를 지휘한 조직이다.

있다.

마지막 ‘안간띠 노래혁명’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국내외 그린피스운동단체, 해외동포 단체, 전국 아리랑단체, 의병단체가 ‘인간띠 아리랑혁명(The singing revolution of human belt)’을 이룰 때 까지 정기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 기점은 어디든 가능하나 최종 지점은 판문점이나 DMZ여야 한다. 행위의 대의가 평화와 통일이기 때문에 이들 장소를 주목하는 것이다.

2. 실행 주체

세 가지 사례의 시사점을 ‘의병아리랑**’(案)에 적용하여 실행한다. 주체는 현재로서는 실재와 가상의 기구가 있다. 실재는 ‘아리랑학교’이다, 가상은 ‘아리랑나라’라는 조직이다. 전자는 이미 5년간 7개 아리랑 지역 단체 간의 활동으로 맺은 인적 네트워크이다. 언젠게든 상설 기획팀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조직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일종의 대안학교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예컨대 브라질의 ‘삼바학교’ 같은 경우다. 세계적인 축제나 성공한 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후자는 프로젝트 ‘아리랑나라***’(案)을 수행할 가상의 공동체 또는 조직이다. 이 공동체의 명칭은 ‘아리랑나라(Arirang nation)’이다. 곧 임의적이고 임시적인 가상국가(假想國家)이다. 조직은 대통령, 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정도를 매년 임명하고, 나름의 업무와 권위를 부여한다. 또한 이 나라(행사)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비자(visa)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목적과 자격이 한정된다. 당연히 행사를 몇 년 앞두고 평화운동가, 세계적 명사, 버스킹 아티스트, 초청 아티스트 등 조건을 갖춘 이들이 입국(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⁷¹⁾

71) ‘아리랑나라’ 가상 국가 조직과 비자 발급 조건은 매 해 주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2000년 아리랑학교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예산확보 문제를 들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번 기회를 통해 3년 기획으로 다시 준비하려 한다. 결코 예산이 문제만은 아니다. 얼마나 실현 가능한 기획안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3. ‘아리랑나라’ 위치

‘아리랑나라’는 문화공동체의 임시적 국가명이다. 이 공동체는 지역공동체나 이념공동체에 의한 문화적 체계(cultural system)로 구축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운영되어야 하기에 위치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장소성을 갖게 된다. 구체적이고 독특하여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지표면의 일정 구역이어야 한다. 바로 문경 고모성(姑母城/Gomo Castle/할미성)으로 정한다. 우선 이 장소는 의병시대 “고모성 꼭대기 진을 치고/ 왜병정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아리랑 사설화로 ‘역사성’을 갖는 곳이다. 또한 한국 전통신앙의 한 형태인 성황신의 당집이 보존되어 있어 ‘장소감’도 있는 곳이다.

고모산성은 마성면 신현리 고모산(姑母山)에 있는 신라시대 석성이다. 삼국시대 축성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말기 의병 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서쪽은 절벽을 그대로 이용하여 바깥쪽만 쌓는 편축식(片築式)이고 삼면은 지세에 따라 성벽 안팎을 쌓는 협축식(夾築式)으로 성벽을 쌓았다. 해발 231m에 전체 둘레가 1,300m에 달하는 대형 성곽⁷²⁾이다. 면적은 110,326㎡이다.

이 안에 가설 국가 부서를 설치하고 의례가 가능한 공회당 등을 설치한다. 또한 행사 내용에 따른 색선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공간은 3개월 정도의 자체 숙식 등과 본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초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매년 범위를 넓히고, 조정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장소성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리랑나라***’⁷³⁾ 기획안(案)

본고의 결론이다. 최종안으로 ‘아리랑나라’에서 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앞에서 제시한 고모산성에서 아리랑나라에서 주최하는 100일의 행사다. 이 행사 명칭을 ‘아리랑나라***’로 할 수 있다. 행사는 아리랑의 탁월한 보편성에 정의로운 군대(이강년)’를 융합한 안(案)의 실행이다.

‘아리랑나라***’의 주제는 ‘아리랑의 민족성과 보편성, 그리고 정의의 실현’이다. 이를

72) 고모성의 규모는 전남 진도 남도석성과 중세 영국의 성들에 비하면 넓은 큰이다. 다만 고모산성은 성체 유적은 없어 유럽의 탑 같은 성체가 없어 매력은 없다.

73) ‘***’는 대제전, 웨스티벌, 축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未定 상태이다.

내재화 한 내용은 당연히 앞에서 살핀 세계적인 저항(혁명)의 노래를 부각시킨다. 레지스탕스(resistance)⁷⁴⁾나 파르티잔(Partisan)⁷⁵⁾ 주제의 콘텐츠를 유치한다. 앞에서 살핀 세 가지 사례의 시사점에서 창출한 프로젝트도 중요하다. 또한 장소성을 유념하여 유럽의 성(城)에서 이뤄지는 수문장교대식(守門將交代式) 같은 상징적이고 매력이 있는 행사를 초청하여 경연을 벌인다. 다른 나라 성안에서 개최하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거나 초청할 수도 있다. 중국 ‘만리장성 뮤직 페스티벌(Great Wall Festival)’이나 포르투갈 ‘모데모 벨로성축제(Montemor-o-Velho Castle)’ 같은 실경 무대작품 등이 있다.

소주제는 ‘인류 평화와 남북통일’이다. 그린피스운동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도 부각시킨다. 당연히 휘날레는 ‘인간띠 의병아리랑혁명’을 실현한다. 180여 개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참여한다면 통일을 염원하는 인간띠 행사는 각별할 것이다. 이 시대의 의병 정신이 통일 운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프로젝트로 마련한 ‘의병아리랑’을 부르며 의미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유럽에는 작은 성체를 웨스티벌 공간으로 활용한다

74) 레지스탕스(resistance)는 2차 대전 때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권력이나 침략군에 대한 비합법적이고 비밀스러운 저항 운동 또는 단체이다.

75) 파르티잔(partisan)은 대개 이념적 항쟁의 성격을 띤 소규모 무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말 한다. 권력이나 정치적 탄압에 맞서 무력 항쟁을 하는 사람들에서 비롯되었으며, 게릴라전과 같이 적진의 후방에서 기습, 침투 등을 통한 소부대 비정규전을 벌이는 사람들을 뜻한다.

본고는 논문이기보다는 프로젝트 기획안(案)이다. 그것도 1차안이다. 당연히 전국 아리랑 단체와 의병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세계의 음악단체와 그린피스단체의 의견도 참고해야 한다. 통일을 염원하는 해외동포들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장소 고모산성의 사용 허가와 접합성도 논의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벤치마킹 사례에서 얻은 안에 대한 실행가능성 검토와 실행을 위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우선은 아리랑학교에서 맡아 논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다. 이는 면밀한 기획 후 기획예산처와 문광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논의와 펀딩(funding)도 기획할 수 있다.

이런 정황이기에 본고의 결론은 논의의 결과를 제출하기 보다는 1차안으로 제안 정도가 된다. 정리하면 아리랑과 의병의 접점과 그 성격에 따른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마련한 융합 프로젝트(콘텐츠) '아리랑나라***' 1차 시안인 셈이다. 최종 안이 완성될 때까지 검증과 보완을 계속 하여 '아리랑나라'에 이관할 것이다.聞

참고문헌

단행본

- 『新朝鮮』, 大喜多筆一, 鮮滿協會, 1921
『언문구전조선민요집』, 김소운, 제일서방, 1933
『斗溪雜筆』, 이병도, 수선사, 1956
『아리랑』, 님 웨일즈 지음, 조화우 옮김, 동녘, 1992
『문경시지』, 문경시, 1994
『구비문학연구』, 임재해, 14집, 2002
『한말의병일기』, 김희곤 편, 국가보훈처, 2011
『조선민요 아리랑』, 윤수동, 국학자료원, 2011

논문집

- 한국민속학 창간호, 임동권 1969

정기간행물

- 동아일보, 송석하, '聞慶의 表裏', 1926 3 16
開闢, 차상찬, 1923년 12월호
開闢, c. s. c생, '多情多淚한 慶北의 民謠', 1923, 6
동아일보, '기자 지방순례', 1925 3 16
조선일보, 김재철, 民謠 「아리랑」에 對하여, 1930 7 14
삼천리, 나운규, '아리랑과 社會와 나' 1930 제7호
동아일보 '소리板 受難時代', 1933 09 13.
每日申報, 김병곤, '武政과 아리랑' 1935 8 22

문경의병과 아리랑

권갑하(시인, 문화콘텐츠학박사)

<문경아리랑과 의병-융합콘텐츠 ‘아리랑나라**’ 1차안>은 발표자(김연갑, 기미양)께서 그동안 연구, 추진해온 ‘아리랑 운동’의 결정판 같은 모델로 보여 집니다. 그만큼 초대형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거론한 바처럼 130년 넘게 계속되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 프로젝트에 비견될 개념입니다. 100년 뒤의 ‘아리랑’을 담보하고 노래 문화의 대중성을 꾀며 의병과 아리랑 단체,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대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치화하고 아리랑과 의병 콘텐츠 개발의 시야를 넓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의병 단체, 아리랑 단체, 해외 동포들의 논의 등 국가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델의 밑그림 속에서 개별 콘텐츠를 개발해갈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시대의 현실과 대중적 유인성, 세계적 확장성이 큰 콘텐츠를 축적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것인지는 예산 문제를 비롯해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병의 역사나 아리랑 문화는 문경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산업화하는 하는 것이 문화콘텐츠화 목적인데요. 오늘날 문화콘텐츠는 무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애니메이션, 모바일콘텐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등 다양한 형태로 OSMU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형실경공연 같은 콘텐츠보다는 디지털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관련하여 두 가지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의병과 아리랑의 융합 콘텐츠화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개발의 우선순위에 있는 콘텐츠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를 먼저 여쭙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어떤 것이 가능할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논문 거듭 감사드립니다.

—
부록 : 자료소개
—

격고각도열읍문

이승재(운강의 長子)의 죽음을 알리는
통고문

취정록

송상도의 '기려수필'에 기록된
운강 이강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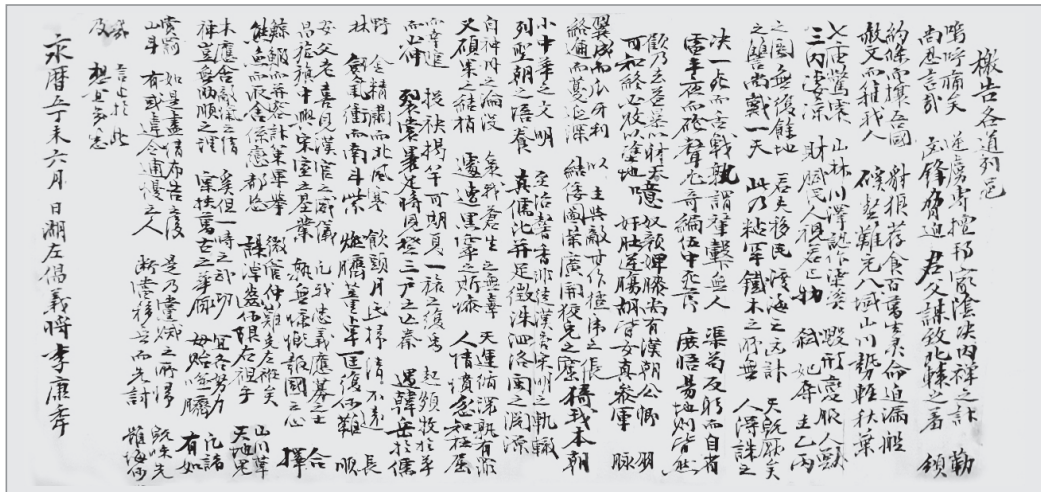
유방집



격고각도열읍문

‘격고각도열읍문’은 운강이 1907년 8월 15일 제천 천남 연합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8월 19일 영월 주천 강가에서 40여 의진의 군례를 받아 호좌창의대장으로 등단 후 발표한 격문이다.

원문은 「운강유고」와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수록되어 있으나 년도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운강의 서명이 없다. 아래에 소개된 ‘격고각도열읍’ 격문은 년도와 날짜 운강의 직함과 성명이 실려 있다. 따라서 원자료로 보여진다.¹⁾



원자료-격고각도열읍문(53×24cm)

檄告各道列邑

각도 여러 고을에 격문으로 고한다.

嗚呼痛矣 尙忍言哉

1) 원자료(격고각도열읍)는 김성근(사료수집연구가)님이 소장하고 있다. 원자료와 국역해석문을 제공해 주신 김성근님께 감사드립니다.

逆虜專擅邦家陰決內禪之計 凶鋒脅迫君父謀致北轅之羞
 勒約條而攘吾國 頒赦文而箝我人
 豺狼荐食百萬生靈命迫漏船
 碛壑難充八域山川勢輕秋葉
 七廟驚震 三內淒涼
 山林川澤認作漆溪
 財賦民人視若己物
 毀形變服人獸之關無復餘地
 殺妃辱主乙丙之讐尙戴一天
 若夫移民渡海之凶計
 此乃粘罕鐵木之所無
 天旣厭矣 人得誅之
 決一死而舌戰孰謂輦轂下無人
 雷乎夜而破聲尤奇編伍中死節
 渠苟反躬而自省
 庶悟易地則皆然
 顧乃去益暴以射天
 可知終必敗以塗地

아아, 슬프구나.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리오.

역적들이 나라를 멋대로 하여 몰래 내선(內禪)²⁾의 계책을 결정하고

흉악한 칼끝으로 협박하여 군부(君父)를 북원(北轅)의 치욕(恥辱)³⁾에 이르게 하였도다.

역지로 약조(約條)하여 우리나라를 이양(移讓)하고

-
- 2) 내선(內禪) : 임금이 왕세자에게 양위(讓位)는 하였으나 아직 즉위(卽位)의 예(禮)를 올리지 않은 것을 말함.
- 3) 북원(北轅)의 치욕(恥辱) : 왕(王)의 대가(大駕)가 북쪽으로 끌려가는 치욕. 즉 금(金) 나라 군대가 남하(南下)하여 송(宋) 나라 수도 변경(汴京)을 함락시키고 송의 휘종(徽宗)과 함종(欽宗)을 체포하여 북으로 돌아간 일을 말한다.

사문(敎文)⁴⁾을 반포하여 우리에게 재갈을 물렸구나.
 여우와 살쥬이가 끊임없이 백만 백성들을 침범하여 목숨이 물 새는 배와 같이 긴박하고,
 깊은 골짜기 같은 욕심을 채우지 못하여 온나라 산천의 형세가 가을 낙엽처럼 가볍구나.
 칠묘(七廟)⁵⁾가 크게 놀라고 삼내(三內)⁶⁾가 처량하구나.
 산림과 천택(川澤)이 어두운 골짜기가 되었고
 재부(財賦)와 민인(民人)을 자기 물건처럼 보는구나.
 형체를 훼손하고 옷을 갈아입으니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더 이상의 여지가 없고,
 비(妃)를 죽이고 임금을 욕되게 한 을병(乙丙)의 원수⁷⁾와 아직도 같은 하늘을 지고 있구나.
 만약 저 이민(移民)들이 바다를 건너는 흉악한 계책대로라면
 이것은 바로 점한(粘罕)⁸⁾과 철목(鐵木)⁹⁾도 없던 바로다.
 하늘이 이미 실증을 내니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한 번 죽기를 결심하고 설전을 벌이니 누가 서울¹⁰⁾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밤에 우리가 치고 찢어지는 소리는 기특하게도 편오(編伍)¹¹⁾가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도다.
 저들이 참으로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반성하여
 깨닫고 처지를 바꾸어 그렇게 하기를 바라노라.
 도리어 갈수록 포악해져 하늘을 쏘았으니¹²⁾
 끝내는 반드시 패해서 땅에 거꾸러질 것을 알겠도다.

4) 사문(敎文) : 죄수를 석방할 적에 임금이 내리던 글이다.

5) 칠묘(七廟) : 종묘를 말한다.

6) 삼내(三內) : 내금위 삼번(內禁衛三番)의 준말. 금군청(禁軍廳)의 금군은 7번(七番)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내금위는 3번을 차지하고 있다.

7) 을병(乙丙)의 원수 : 1905년~1906년을 말한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이 1905년에 있었다.

8) 점한(粘罕) : 금나라 장수 완안종한(完顏宗翰)의 여진 이름으로 금나라의 종실(宗室)이며, 알리불과 함께 송나라를 공격하였다. 알리불이 송 태종의 자손들을 거의 다 죽였다.

9) 철목(鐵木) : 원(元) 나라 임금을 가리킨다. 철목은 고려 때 원나라의 침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서울 : 원문은 연곡(輦轂)이다. 연곡은 원래는 천자(天子)가 타는 수레를 가리킨다. 서울의 별칭이다.

11) 편오(編伍) : 군대

12) 하늘을 쏘았으니 : 하늘은 임금을 뜻하기도 하므로 반역을 말한다.

噫, 奴顏婢膝尚有漢朝公卿
奸肚逆腸胡皆女眞參軍
羽翼成而爪牙利
脈絡遍而蔓延深
以主與敵甘作猛虎之佞
結倭圖榮廣開狡獪之窟
猗我本朝 小中華之文明 列聖朝之培養
至治馨香非徒漢唐宋明之軌轍
眞儒比并足徵洙泗洛閩之淵源
自神明之淪沒 又碩果之結梢
哀我蒼生之無辜 遽遭黑宰之斯慘
天運循環孰有罪而幸道
人情憤忿知極屈而必伸
投袂揭竿可期夏一旅之復禹
裂裳裹足將見禁三戶之亡秦
起頗牧於草野 遇韓岳於儒林
金精肅而北風寒 劍氣衝而南斗紫
飲頭月氏掃清不遠
燃臍董卓匡復何難
長安父老喜見漢官之威儀
順昌旌旗中興宋室之基業
凡我忠義應募之士 孰無慷慨報國之心
合鯨鯢而并容計策畢舉
擇熊魚而取捨係戀都忘
微管仲難免左衽矣
誅淖齒下限右袒乎
山川草木應含敵愾之情
天地鬼神豈無助順之理

奚但一時之武功 實扶萬古之華脈
 宜各努力 毋貽噬臍
 凡諸賞罰 有如山斗
 如是盡情布告之後 有或違令違慢之人
 是乃黨賊之所歸 斷當移兵而先討
 毀昧先幾 雖悔何及
 言止於此 想宜知悉
 永曆 五丁未 六月 日 湖左倡義將 李康季

아, 종의 얼굴과 계집종의 걸음걸이¹³⁾로 한(漢)나라 공경(公卿)을 섬기니¹⁴⁾
 간사한 마음을 바꿔 먹고 어찌 모두 여진(女眞)의 참군(參軍)¹⁵⁾이 되었는가?
 우익(羽翼)을 갖추고 발톱과 어금니를 날카롭게 하여
 즐기처럼 두루 사방으로 깊이 뻗었구나.
 임금을 적에게 주고 사나운 호랑이의 창귀(佞鬼)¹⁶⁾를 달게 여기며
 왜(倭)와 결탁하여 영화로움을 도모하고 교활한 토끼의 굴을 널리 열었도다.
 아, 우리 조정은 작은 중화(中華)의 문명이요 열성조(列聖朝)를 길렀도다.
 지극한 정치가 향기로워 한낱 한당(漢唐), 송명(宋明)의 자취가 아니요,
 참된 선비를 겨루건대 수사낙민(洙泗洛閩)¹⁷⁾의 연원을 징험할 만하도다.

13) 종의 얼굴과 계집종의 걸음걸이 : 비굴한 모습을 말한다.

14) 한(漢)나라 공경(公卿)을 섬기니 : 천자가 가의(賈誼)에게 공경(公卿)의 지위를 주고자 의논하니 강관(絳灌), 동양후(東陽侯), 풍경(馮敬) 등의 무리들이 모두 방해하며 가의의 단점을 말하기를, “낙양의 사람으로 나이 어린 초학자가 오로지 권력을 천단하고자 하여 여러 일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천자는 뒷날 가의를 멀리하고 그의 의론을 쓰지 않았다. 《史記》〈屈原賈生列傳〉 유능한 인재를 쓰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15) 여진(女眞)의 참군(參軍) : 오랑캐의 부하가 되었다는 말이다.

16) 창귀(佞鬼) :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호랑이의 앞잡이가 되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다고 한다.

17) 수사낙민(洙泗洛閩) : 수사(洙泗)는 중국 산둥(山東)에 있는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사이를 가리킨다. 공자가 제자를 모아 가르치던 곳이다. 낙민(洛閩)은 낙양(洛陽)과 민중(閩中)의 병칭으로, 정호(程顥), 정이(程頤)는 낙양 출신이고 주희(朱熹)는 민중 출신이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모두 유학을 가르치던 곳이다.

신명(神明)이 몰락하고 또 석과(碩果)¹⁸⁾는 끝이 났구나.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이 불쌍하게도 갑자기 이렇게 비참한 어둠을 만났구나.
 하늘의 운세는 순환하니 누가 죄를 짓고 요행히 면하는가.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니 굽히는 것이 지극하면 반드시 펴지는 것을 알겠도다.
 소매를 떨치고¹⁹⁾ 낚싯대를 들어도 일려(一旅)²⁰⁾가 우(禹)를 회복하여 하(夏)나라를 기약
 하고
 옷을 찢어 발을 싸매고²¹⁾ 세 집으로 진(秦)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²²⁾을 볼 수 있으리라.
 초야에서 과목(頗牧)²³⁾을 일으키고 선비들 속에서 장한(張韓)²⁴⁾과 유악(劉岳)²⁵⁾을 만났도다.
 금정(金精)²⁶⁾이 조용한데 북풍은 차고 검의 기운이 충만하니 남두(南斗)²⁷⁾가 붉구나.

18) 석과(碩果) : 군자(君子)의 도(道)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역(周易)》 <박괘(剝卦) 상구(上九)>에서 “하나 남은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碩果不食.]”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큰 과일은 먹히지 않아 장차 다시 생겨나게 되는 이치를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19) 소매를 떨치고 : 투매(投袂)는 옷소매를 떨친다는 말로,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20) 일려(一旅) : 주 나라 제도에 5백 명의 군대 조직

21) 발을 싸매고 : 진(秦) 소왕(昭王)에게 “입을 다물고 발을 싸맨 채 아무도 진나라로 오려 하지 않을까[杜口裹足 莫敢向秦] 염려된다.”라고 하였다.

22) 세 집으로 진(秦)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 전국 시대 말년에 초 회왕(楚懷王)이 진(秦)나라에 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자 초나라 사람들이 진나라를 원망한 것과 관련하여, 초 남공(楚南公)이 “초나라에 비록 세 집만 남아 있어도,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일 것이다.[楚雖三戶 亡秦必楚也]”라고 말했던 고사가 있다.

23) 과목(頗牧) : 과목은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뛰어난 명장(名將)인 염파(廉頗)와 이목(李牧)을 말한다. 당(唐)나라 선종(宣宗) 때 당항(黨項)이 하서(河西) 지방을 어지럽히자 한림학사(翰林學士) 필함(畢誠)이 이들을 격파하는 계책을 조목조목 진달하였는데, 황제가 몹시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장차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뽑을 것인데, 염파와 이목이 나의 금서(禁署) 안에 있다. 경은 짐을 위해서 나가라.”라고 하고는, 필함을 빈녕 절도사(邠寧節度使)로 삼았다. 《신당서(新唐書)》 <필함열전(畢誠列傳)>

24) 장한(張韓) : 진(晉)나라 사람 장한이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 낙양(洛陽) 궁문에 있는 구리쇠로 만든 낙타를 가리키며 탄식하기를, “장차 네가 가시덤불 속에 누워 있는 모양을 보리로다.” 하였다.

25) 유악(劉岳) : 유악은 당(唐)나라 때부터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자제로 문사(文辭)와 담론(談論)에 재주가 있었으며 전례(典禮)에 밝았다. 유악은 송(宋)나라 초기 사람들이 길흉례(吉凶禮)를 행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서의(書儀)의 저자이다. 유악의 서의는 후당(後唐) 명종(明宗)의 지시로 편찬된 것으로 예법이 혼란한 당시에 그나마 백성들이 예법을 알게 하였고 나름대로 옛날의 좋은 예제(禮制)가 남아 있다는 의의가 있었다. 구오대사(舊五代史)는 유악에 대해 “당나라가 혼란에 빠진 뒤로 진신사대부들이 땅에서 쓸어버린 듯 사라졌으니 만일 단정한 선비가 없었다면 누가 지난날의 본래 기풍을 회복하였겠는가.”라고 평하였다.

26) 금정(金精) : 금정은 병란(兵亂)을 주관한다는 태백성(太白星)의 별칭이다.

27) 남두(南斗)가 붉구나 : 28수(宿)의 하나로서 승상(丞相)·태제(太宰)의 지위에 해당한다. 남두가 붉은 것은 임금의 자리를 침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월지(月支)의 머리로 술을 마시고²⁸⁾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멀지 않았고
 동탁(董卓)의 배꼽에 불을 붙이고²⁹⁾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어찌 어려우리오?
 장안(長安)의 부로(父老)들은 한관(漢官)의 위의(威儀)를 보며 기뻐하고³⁰⁾
 순창(順昌)의 깃발³¹⁾이 송(宋)나라 왕실을 크게 일으켜 중흥하리라.
 우리 충의(忠義)로운 모병에 응한 군사들이여 누가 강개하고 보국(報國)의 마음이 없겠
 는가?

고래와 새우가 싸우니 계책을 다 받아들여 모두 마쳤으니
 곰 발바닥과 물고기를 선택하는데³²⁾ 취하고 버리는 것에 얽매이는 것을 다 잊었도다.
 관중(管仲)이 아니었으면 좌임(左衽)하는 오랑캐의 신세가 되었을 것이요,³³⁾
 요치(洮齒)를 주벌(誅伐)하는데 우단(右袒)을 제한하겠는가?³⁴⁾
 산천과 가죽 악기, 피리 소리도 응당 적개심을 품었으니

28) 월지(月氏)의 마시고 : 흉노가 월지왕(月氏王)을 물리치고 그 두골로 술을 마셨다.
 29) 동탁(董卓)의 붙이고 : 동탁의 시체를 거리에 내 놓으니 동탁이 살아 찌서 무더운 날씨에 기름이 흘러 내리자 시체를 지키는 병사들이 동탁의 배꼽에 불을 붙이니 몇일이나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30) 한관(漢官)의 기뻐하고 : 한나라 관리의 복식과 전례 제도를 가리킨다. 신망(新莽) 말년에 유수(劉秀) 즉 광무제(光武帝)가 회양왕(淮陽王) 유현(劉玄)에 의해 사예교위(司隸校尉)에 발탁되었을 때, 그동안 왕망(王莽)에 의해 폐기된 한나라의 복식 등 옛 제도를 모두 복구시키자, 늙은 관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오늘에 다시 한관의 위의를 보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不圖今日復見漢官威儀.]”라고 탄식한 고사가 전한다.
 31) 순창(順昌)의 깃발 : 송나라 장수 유기(劉錡)가 2만도 안 되는 병력으로 금(金)의 수십 만 대군을 물리치고 순창을 지켜냈던 일을 가리킨다. 소흥(紹興) 연간에 금(金)이 자랑하는 정예 군사 10만을 격파하자 금나라 군사들이 그의 깃발만 보고도 도망칠 정도였는데, 소흥 32년(1162) 금나라 대군과 대치하던 중 병이 악화되어 물러나 있다가 울분을 참지 못한 채 피를 토하고 죽었다.
 32) 곰 발바닥과 물고기를 선택하는데 : 맹자가 말씀하였다. "물고기도 내가 바라는 바요, 곰 발바닥도 역시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은,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을진댄,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삶도 역시 내가 바라는 바요, 의도 역시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을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맹자(孟子)》 <고자상(告子上)>
 33) 관중(管仲)이 것이요 : 좌임(左衽)은 오른쪽 옷섶을 왼쪽 옷섶 위로 여미는 오랑캐의 의복 제도를 말한다. 《논어(論語)》 <현문(憲問)>에, 공자(孔子)가 관중(管仲)의 공을 찬양하면서 “만약에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머리를 풀고 좌임하는 오랑캐의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34) 요치(洮齒)를 제한하겠는가? : 요치는 제나라 민왕(湣王)을 살해한 인물이다. 왕손가(王孫賈)는 제나라 민왕(湣王)의 신하로 민왕이 요치(洮齒)에게 살해되었을 때 왕손가가 시중(市中)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요치를 치고자 하는 사람은 우단(右袒)하라.[欲與我誅齒者袒右.]”라고 외치자, 400명이 뜻을 같이하여 마침내 난을 평정하고 요치를 사로잡아 죽였다.

천지 귀신도 어찌 조순(助順)의 이치³⁵⁾가 없으리오.
 어찌 단지 일시의 무공(武功)뿐이겠는가? 진실로 만고(萬古)의 화맥(華脈)을 돕는 길이라.
 마땅히 각자 노력하고 서제(噬臍)³⁶⁾하지 말라.
 무릇 상벌은 태산북두(泰山北斗)와 같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해 포고한 후에 흑시라도 명령을 어기고 포만(逋慢)한 사람은
 이는 바로 적들의 무리로 돌아갈 것이니 결단코 병사를 끌고 먼저 토벌하리라.
 조짐을 아는데 어두워 비록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은 여기에서 마치니 이 뜻을 잘 알도록 하라.

영력(永曆)³⁷⁾ 다섯 번째 정미년(丁未年, 1907)³⁸⁾ 유월(六月) 일(日) 호좌창의장(湖左倡義將)³⁹⁾
 이강년(李康季)

35) 조순(助順)의 이치 : 《주역(周易)》 <대유(大有)> 상구효(上九爻)에 “하늘이 보우(保佑)해 주시나니, 길 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自天祐之 吉無不利]”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공자가 해설하기를, “보우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이다. 하늘이 도와주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이요,[天之所助者順也]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 上)>

36) 서제(噬臍) : 사항노루가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될 때에 제 배꼽의 향내 때문이라 하고 배꼽을 물어 뜯는다는 말로,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 없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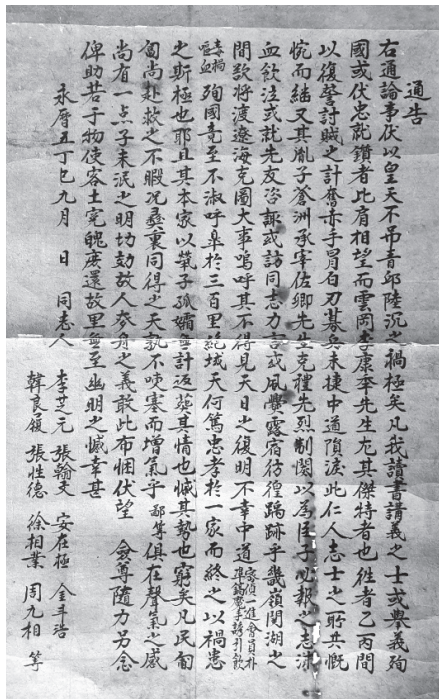
37) 영력(永曆) : 영력(永曆)은 남명(南明) 영력제(永曆帝)의 연호이다. 영력제가 오삼계에 의하여 잡힌 후에도 정씨 왕국에서 1683년까지 연호를 차용하였다.

38) 다섯 번째 정미년(丁未年) : 영력 첫 번째 정미년인 1667년 이후로 네 번째로 맞이하는 정미년, 240년 후인 1907년을 말한다. 6월은 음력표기이다.

39) 호좌창의장(湖左倡義將) : 1907년 8월 15일 제천 연합전투에 승리한 후 8월 19일 영월 주천강가에서 제천 단양 영월 원주 등지에서 40여 의진이 모인가운데 군례를 받고 의병대장에 등단하였다. 이 격문은 8월 21일 충주성 공격(8월 23일)을 앞두고 발표하였다. 운강 이강년은 을미의병기 유인석의 호좌의진을 계승하여 스스로 호좌의병장이라 불렀다.

이승재(운강의 長子)의 죽음을 알리는 通告文

이승재(李承宰, 1873~1910, 雲岡의 長子)의 죽음을 알리는 통고문은 사암 안재극⁴⁰⁾을 비롯한 7분의 예천 용궁선비들에 의해 1917년 작성되었다. 이 자료는 ‘사암선생문집’과 ‘이승재 추모집’에 실려 있으며 통고문으로 만들어져 운강기념관에 소장하고 있다. 아울러 ‘운강 선생창의일록’에도 그 내용이 간략하게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통고문으로 논하는 일은 삼가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우리 강산이 육침(陸沈)⁴¹⁾ 극한 화를 당한 일입니다.

무릇 글을 읽고 의리를 강론하는 우리 선비들이 더러는 의병으로 일어나 순국하거나 더러는 충심을 아뢰다가 형틀에 묶인 자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운강 이강년선생은 더욱 걸출하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지난 을미년(1895)과 병신년(1896) 사이에 원수를 갚고 적을 토벌하고자 분연히 맨손으로 일어나 수많은 칼날을 무릅쓰며 의병을 모아 적을 토벌하다가 싸움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눈을 흘리고 돌아왔으니 이 일은 어진 이들과

40) 안재극(安在極, 1879~1940) 호 思菴, 의당 박세화 문인으로 운강 순국 후 아들 이승재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불의의 흉한에 의해 객지에서 사망한 소식을 듣자, 여러 동지들에게 알려 재물을 마련하여 고향에 보내는 일에 앞장섰다. 또한 '8도의 동포들에게 고하여 3군(三軍)을 규합해 일제를 타도하자'는 격문과 효유문을 작성하여 동지들과 함께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1919년 운강선생을 추모하는 '雲岡李公傳'을 저술하였다.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유고집으로 후손들에 의해 2020년 '思菴先生文集'이 발간되었다.

41) 육침의 : 육침은 물이 없는데도 육지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으로, 전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해 버리는 것을 뜻한다.

뜻있는 이들이 모두 개탄하는 바였습니다.

게다가 선생의 맏아들인 승제(承宰, 자는 좌경佐卿, 호는 창주蒼洲) 선생이 선친에 대한 복제(服制)를 예법대로 마치자 신하된 도리로 반드시 보답하고자 하여 피눈물을 삼키며 선친의 벗⁴²⁾들에게 나아가 자문을 받기도 하고, 동지들을 찾아 힘주어 말하기도 하며, 더러는 풍찬노숙(風餐露宿)⁴³⁾하며 경기·영남·강원·호남 지방을 두루 다니고 외로이 떠돌면서도 장차 요동바다를 건너가 큰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오호라! 하늘의 태양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불행하게도 중도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일진회원 밀정 박준호의 유인으로 독을 마시는 화를 입어 피를 토했다] 끝내 세상을 떠나 삼 백리 아득한 곳에서 초혼⁴⁴⁾을 하였으니 하늘은 어찌 하여 우국충정 넘치고 효심 깊은 한 가문에 끝내 이와 같이 심한 재화를 내린 것입니까?

게다가 본가에는 아들 하나와 청상의 부인이 있을 뿐이라 고향으로 운구해 올 계획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정황이 측은하고 그 형세가 궁박합니다. 무릇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도 상을 당했다면 즉시 달려가 도와주어야 하거늘 하물며 민족을 위해 충정을 바친 선생의 몇몇함에 누군들 목이 메이고 기운이 솟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의리와 기개가 서로 통하는 사이요, 아직 한 점이나마 사라지지 않은 밝은 양심이 있으니, 옛 사람들의 맥주(麥舟)의 의리⁴⁵⁾를 본받아 감히 이렇게 정성을 펼치고자 알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는 형편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약간의 물건이나 마 협조하여 객지에서 세상을 떠난 원통한 혼백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이승에 남은 사람이나 저승의 혼백들에게도 유감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1917년 9월

동지인 이지원, 장한문, 안재극, 김두호, 한양이, 장성덕, 서상업, 주구상

42) 선친의 벗 : 선우(先友) 부친의 벗을 선우라고 한다.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이 <선군묘표비음선우기(先君墓表碑陰先友記)>에 작고한 부친의 벗 67명을 기록했던 데서 온 말이다. 《柳河東集 卷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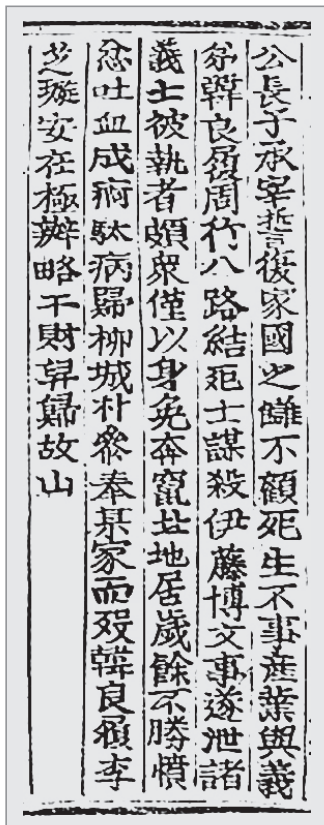
43) 풍찬노숙(風餐露宿) :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테서 먹고 잠잔다는 뜻으로 모진 고생 또는 객지에서 겪는 고생을 이르는 말이다.

44) 초혼(招魂) :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어, 지방에 올라서거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죽은 혼을 부르는 일.

45) 맥주(麥舟)의 의리 : 송(宋)나라 범요부(范堯夫)가 보리 500곡(斛)을 배에 싣고 오다가, 단양(丹陽)에서 석만경(石曼卿)이 두 달 동안이나 상(喪)을 치르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배를 모두 그에게 내준 뒤에 자신은 단기(單騎)로 돌아왔다는 고사가 있다. 《冷齋夜話 卷10》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수록된 이승재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

공의 장자 승재(承宰)가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여 사생을 돌보지 않고 생업을 일삼지 않으며, 의제(義第) 한양이(韓良履)와 함께 8도를 두루 다니면서, 죽기로 다짐한 인사들을 결합하여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죽이려 하다가 일이 누설되어 여러 의사들이 많이 잡혔다. 승재는 겨우 몸을 피하여 북녘 지역으로 도망해 가서 1년 이상을 지내다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토혈하고 병이 나서 말에 실려 유성(柳城) 박참봉(朴參奉) 집으로 돌아와 죽으니 한양이(韓良履) 이지선(李芝璇) 안재극(安在極)이 약간의 재물을 마련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의당유고와 취정록

집의당유고와 취정록에 실린 제문과 만사

김태원의병장의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에 실린 운강제문은 이규현선생의 '취정록(就正錄)'에도 만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김태원의 운강제문은 '운강유고'와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수록되어 이미 널리 알려진바 있다.

집의당 김태원⁴⁶⁾과 광암 이규현⁴⁷⁾은 전후기 의병사에서 운강과 함께 의병활동하였다. 운강 순국 후 바쳐진 이들의 제문과 만사를 소개한다. 제문에는 공히 戊申(1908) 11월 20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취정록'에 수록된 만사는 11월 20일로 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戊申 同年으로 추정된다.

'집의당유고'는 김태원이 남긴 글들을 모아 아들 김성모가 편집하였으며 1951년 유지혁이 서문을 썼다. 여기에 이규현이 쓴 집의당김공행장이 수록되어 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1989년 『한말의병자료집』에 영인되었다. 제천 단양지역 의병 활동을 기록한 '취정록'은 1911년 광암 이규현선생이 지었다.

46) 김태원(金泰元, 1863~1933) 강원도 영월출신, 호 集義堂, 한말 의병장, 1895년 음력 11월 경기도 이천에서 김하락, 구인영 등과 함께 군사를 소모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하고 선봉장을 맡아 백현, 이현,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퇴. 이듬해 정월 일본군과 혈전을 벌여 남한산성을 탈환하였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병력을 이끌고 경북으로 남하 서상렬부대에 합류하였다. 특히 1896년 3월이강년의진의 수안보 전투에 의병을 수합 서창에서 합류하여 연합작전 전개하였다. 1906년 4월 최익현이 거의하자 소토장으로 활동, 1907년 제천에서 이강년의진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병활동에 가담하였다. 199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국가보훈처 공훈록)

47) 이규현(李圭顯, 1874~1951) 경기도 여주출신, 호 廣菴, 단발령 이후 제천을 중심으로 봉기한 유인석의 호좌의진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참여하였으나 실패한 후 단양 장정리(長亭里)에 은거. 1905년 국권 침탈에 항거하는 원용팔(元容八) 정운경(鄭雲慶) 등의 의병 봉기에 참여,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있은 후 이강년이 재차 의병을 일으키자 참여하여 사서와 참모로 활동하였다. 1993년 건국훈장에 족장 추서.(국가보훈처 공훈록)

집의당유고와 취정록에 실린 윤강의 제문

祭雲岡李公康年文

維 永曆二百六十二年歲次戊申十一月癸未朔二十日壬寅同門友人海豐金泰元謹以隻脯單腸操文哭告于故義士雲岡李公象生之前曰

惟公受天正氣爲世大人鴻飛九霄鳳翔千仞嶠嶽降靈仙李挺英筮仕特早類宋巢谷鑿柄寡合遂初計決亭亭物表皎皎霞外

往在乙丙倡義南陲風動雲驅湖嶺震竦數魁伏誅天討載行始終難繼挺身入堤器使又隆遊兵設奇削今暫弛義事中指

通來十年世禍愈熾國夷人獸華亡道墜權柄已移漏船難支

去歲夏秋變出不意脅我 君父航海臨期八域震沸義士云誰公自去春彌綸實深子城永春夜驚龍血涔涔百折不挫怒髮衝冠

元於是時實獲參聞謂師門旨非曰時義前後有異自有高見量分度勢體師門心體天地心迨亡未殄迨死未絕庶幾一着忠憤少泄感公不棄誓以身隨

事如轉燭一難如志關東風雪畿海水霜捷報連翩吾屬增輝然想勞苦一念介介食不甘寢不帖

背天佑神扶合簪復叙白石窮途身陷蜚弩章鄉壽亭五坡文山凜凜罵賊意思安閒頑髡狡佞俛首服罪物自賊來一芥不受談判各館確辭如流百種卉服相顧稱是風議四流聽者增氣絞禍切身雍容談笑處置家事教誨子弟周遍纖悉無異平時普訣士友辭嚴義正氣像溫裕筆畫端重即此數者可驗素定

從容就義未有如公始義終義一節尙崇矧公正終倍壯其初日月其光河海其功列聖培養五百餘年賴有我公司可徵其報帝庭陳辭公顏厚不邦命維新迅掃腥穢

嗚呼痛矣其然未然洪流砥折孰障狂瀾兩儀昏濛孰繼孤明

以生較死霄壤龍承茫茫九原愛暮起之慚負幽明一生一死敢不益厲晚節益察時義所殊者跡所同者義靈如不昧庶或鑑照眷我微衷保佑迷塗嗚呼哀哉尙饗

운강 이강년 제문(雲崗李公康年祭文)

영력(永曆) 2백 62년(1908) 무신 11월 20일에 동문의 벗 해풍 김태원은 삼가 포 한 마리와 술 한 잔을 마련해 놓고 제문을 지어서 고 의사(義士) 운강 이강년의 상생(象生) 앞에 고 합니다.

공은 하늘의 바른 기상을 받아 세상의 대인(大人)이 되셨습니다. 하늘 높이 나르는 기러기인 듯, 천 길의 하늘 위로 비상(飛翔)하는 봉황인 듯 했으며, 높은 산에서 내려온 신령인 듯, 우뚝 솟아 뻗어난 선리[仙李 - 이백(李白)]인 듯 하셨습니다. 벼슬길에 남달리 빨리 나아간 것은 송 나라의 소곡(巢谷)과 유사하였으나, 세상과 뜻이 맞지 않자 초지(初志)를 이루고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서는 만물을 초월하여 우뚝 서고 세상 밖에서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지난 을미·병신년(1895·1896년)에 남쪽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바람처럼 움직이고 구름처럼 치달리니 호남과 영남 지방이 온통 진동하였습니다. 몇 명의 적의 괴수를 처단하여 천토(天討)를 비로소 행하였으나, 계속해 나가지가 어려워 몸을 빼내어 제천(堤川)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국(器局)에 따라 사람을 부리는 것이 더욱 훌륭하여 유격병(遊擊兵)으로 계획을 쓰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단발령이 잠시 늦추어지자 의병의 일을 중지하였습니다.

그후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의 화란이 더욱 극심해져서 국가가 망하고 사람들이 금수나 다름이 없어졌으며 중국이 망하고 도의가 추락했는데, 국가의 주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 마당에 물이 새기 시작한 배로는 버터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또 뜻하지 않았던 변이 생겨 우리 임금을 협박하여 항해할 날짜가 임박해 왔으므로 온 나라가 놀라 들끓었는데, 이때 의사(義士)가 누구였습니까. 공은 지난 봄부터 두루 경륜한 것이 실로 깊었는데, 자성(子城 즉 영춘(永春))의 야경(夜驚) 때 눈물을 흘리면서 백 번 꺾여도 좌절하지 않는 정신으로 노하여 머리카락이 전부 치숯았습니다.

제가 이때 실로 참여해 함께 들었었는데, 사문(師門)의 뜻인데 시의(時義)가 아니겠는가. 전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고명한 견해가 있어서이니, 분수를 헤아리고 형세를 파악하여 사문의 마음을 본받고 천지의 마음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거의 나라가 망하기 전,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충성과 울분을 조금이나마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이 나를 버리지 않는 데에 감격하여 목숨을 바쳐 따르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 뜻대로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치는 관동(關東)과 되서리 내리는 기해(畿海)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어 주신 덕분에 우리들은 더욱 빛이 났지만, 그 노고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걸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천지신명이 보우하사 단발령은 철회되었으나, 백석(白石)에서 길이 막혀 왜적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장향(章鄉)에서 수정후(壽亭侯 - 관우(關羽))가 했던 것처럼, 오파(五坡)에서 문산(文山 - 문천상(文天祥))이 했던 것처럼 늠름하게 적을 꾸짖으며 태연자약 행동하니, 머리를 깎은 교활한 왜놈조차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적이 준 물건이라면 지푸라기 하나도 받지 않았고, 각 관(館)에서 담판을 지을 때에는 물이 흐르는 듯이 변론을 하니, 잡다한 종자가 섞인 오랑캐가 서로 돌아보며 옳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기풍과 논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듣는 자들이 모두 기운이 솟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곧 닥쳐오는데도 온화하게 답소하였으며, 집안 일을 처리하고 자제들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평소나 다름없이 빈틈이 없으셨습니다. 또 사우(士友)들과 두루 영결(永訣)을 함에 있어서도 말은 엄하였으나 기상이 온유하셨고 필획이 단정하고 신중하셨습니다. 이 몇 가지를 가지고 보면 평소 모든 것이 바로잡혀 있었음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의리에 나아간 것으로 말하자면 공과 같은 분이 없으며, 시종일관 의리에 따라 행동한 그 절개는 높이 받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공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과거의 공로보다 배나 더 장한 일이었으니, 그 빛은 일월(日月)과 같고 그 공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열성(列聖)께서 5백여 년 동안 배양했던 것이 우리 공을 힘 입어 그 보답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가서서도 할 말이 있어 공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나라의 운도 새로워져 누린내가 깨끗이 씻겨질 것입니다.

아! 애통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거센 물결에 지주(砥柱)가 꺾여버렸으니 그 누가 광란의 물결을 막을 것이며, 천지가 깜깜해졌으니 그 누가 한 줄기 빛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삶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 용과 돼지의 차이와 같습니다. 아득히 저 세상으로 가신 분은 아무리 사랑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부끄럽게도 유명(幽明)을 달리하여 한 사람은 살아 있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만년의 절개를 더

욱 가다듬어 시의(時義)를 더욱더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취는 다르지만 의리는 똑 같으니, 영혼이 있다면 이 마음을 잘 살피시고 작은 충심을 돌아보아 혼미한 길을 보우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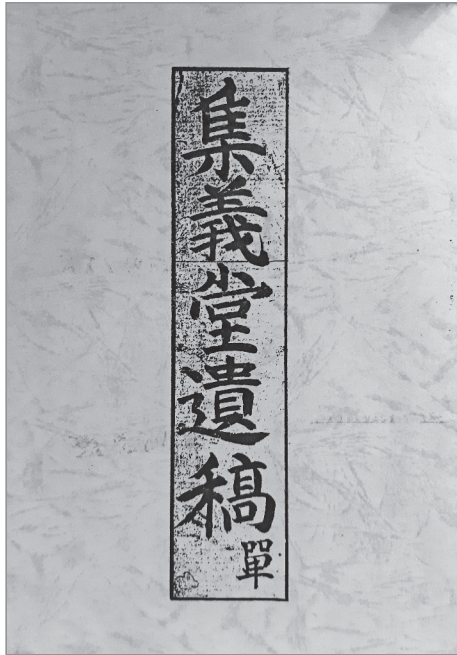
아! 슬프니다. 흠향하소서.

취정록에 실린 윤강의 만사

挽雲岡李公康年 十一月二十日⁴⁸⁾

曰唯天間地大人 천지간의 대인이라 모두가 인정하니
所守者平生謂何 평생토록 지킨 것이 무엇인지 알겠네
忠義億千秋實跡 억만년 이어나갈 충의를 실천했고
武文五十載磋磨 반백년 갈고 닦은 문장과 무예였네
一圍抗傾廈其久 기울어진 나라 힘을 다해 잡았지만
隻手擎側天亦難 한 손으로 떠받치니 하늘도 어려웠네
怨鳥啼三更夜月 삼경이라 달빛 아래 소쩍새는 우짖는데
爲歆忠魄淚成河 충정 위해 흘린 눈물 강물 되어 흐르네

48) '취정록'에 수록된 윤강의 만사는 주현삼의 제문(무신년 11월 29일)과 같이 나란히 수록된 것으로 보아 1908년 戊申 11월 20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의당유고(표지)

祭雲岡李公康年文
 維永曆二百六十二年歲次戊申十月祭未朔二十
 日壬寅同門友人海豐金泰元謹以復脯單腸揀文
 哭告于故義士雲岡李公象生之前曰惟公受天正

운강제문1

氣為世大人鴻飛九霄鳳翔千仞矯嶽降靈仙李挺
 英筮任持早類宋巢谷擊柝寡合遂初計决亭物
 表皎霞外往往乙丙倡義南陲風動雲驅湖嶺震
 竦數魁伏誅天討載行始終難縉挺身入堤器使之隆
 莖兵設奇削分暫如義事中止邇來十年世禍愈熾
 國夷人獸率亡道墜權柄已移漏船難支去歲夏秋
 變出不意脅我君父航海臨期八域震沸義士云
 誰公自去春彌綸實深子城春夜驚龍血淋漓百折
 不挫怒髮衝冠元放是時實獲叅聞請師門旨非曰
 時義前後有異自有高見量分度勢艱師門心體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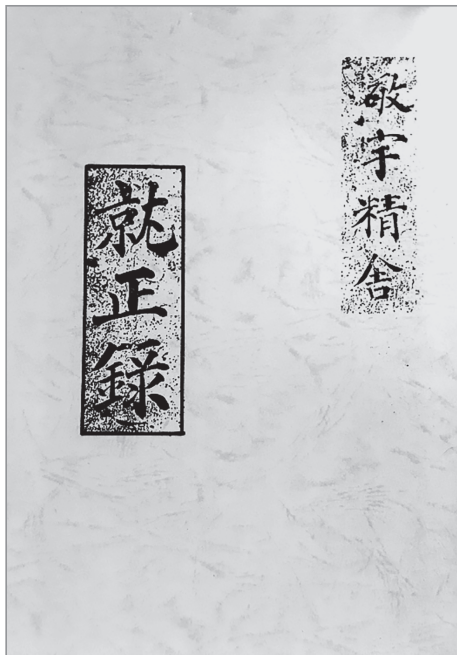
운강제문2

念
 地心迫亡未殄迨死未絕庶幾一著忠憤未泄感公
 不棄誓以身隨事如轉燭一難如志閑東風雲議海
 冰霜捷報連翩吾屬增輝然想勞苦一介介食不甘
 寢不帖月天佑神扶合簪復叙白石窮途身陷賊笮
 章鄉壽亭五坡文山凜凜罵賊意思安閑頑髮衰
 俛首服罪物自賤來一芥不受談判各館確辭如流
 百種卉服相顧稱是風議四流聽者增氣絞禍切身
 雍容談笑處置家事教誨子弟周遍纖悉無異平時
 普訣士友辭嚴義正氣像温裕筆畫端重即此數者
 可驗素心從容就義未有如公始義終義一節尚崇矧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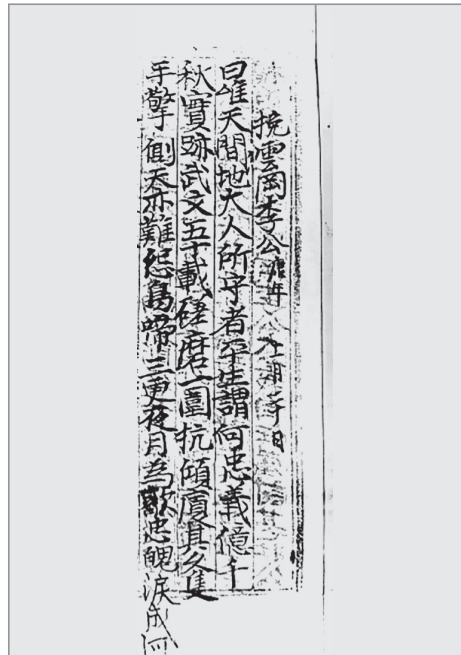
운강제문3

正終倍壯其初月其光河海其功 列聖培養五百
 餘年賴有我公可徵其報帝庭陳辭公顏厚不邦命
 維新迅掃腥穢嗚呼痛矣其然未然洪流砥折孰障
 狂瀾兩儀昏濛孰結孤明以生較死霄壤龍象茫九
 原爰莫起之慚負幽明一生一死敢不蓋厲晚節蒸蔡時
 義所殊者所同者義靈如不昧庶或鑑照眷我微衷保
 佑迷途嗚呼哀哉高齋

운강제문4



취정록(표지)



취정록(만사)

송상도의 '기려수필'에 기록된 운강 이강년

송상도선생⁴⁹⁾의 '기려수필(騎驢隨筆)'에는 239명의 항일독립지사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으며 운강에 대해 3쪽에 걸쳐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는 송상도가 사망한 후 장남 송인혁이 그 원본을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 제공하여 '한국사료총서2 기려수필'로 출판되었다.

기려수필은 시골 선비 한 사람의 업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방대한 독립운동을 담고 있다. 송상도선생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사명감이 없었다면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퇴계학맥을 이은 성리학자로서 역사에 특히 조예가 깊었던 선생은, 후일 역사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예견하고 항일에 관한 신분의 귀천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기려수필의 저술목적은 절의를 세운 인물을 선양하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선생은, 충의정신에 기반을 둔 유학자로서 자칫 소외되기 쉬웠던 평민과 하층민들에 대한 기술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나간 선각자였다.

기려수필에 기록된 운강 이강년은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영인본과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기려수필 국역팀'에서 2014년 발행한 『기려수필 1-망국의 한, 기록으로 꽃피우다』의 국역본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李康季

李康季字樂仁，號雲岡，全州人，孝寧大君輔后，居聞慶大門，太皇朝，出身武科，官至宣傳，爲人磊落慷慨，膽氣不凡，文詞夙就，乙未之變，散家財倡鄉兵，斬安東觀察金爽中等三人，聞柳麟錫起兵湖左，義聲大振，引兵而歸，爲遊擊將，每出戰，不避艱險，親冒矢石，殺獲

49)) 송상도(宋相燾, 1871~1947) 경북 영주출신, 1910년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후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항일투쟁을 하였던 행적을 30여년간에 걸쳐 현지답사하며 기록하여 '기려수필(騎驢隨筆)'을 저술하였다. 명나라의 기려도사(騎驢道士)가 명나라가 망한 뒤에 명나라 말기 충신의 사적을 수집했던 것과 같이,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수십 년간 전국 각지를 답사하면서 애국지사의 유가족 또는 친지를 방문하여 그 사적을 기록하고, 사건 당시의 신문과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유학자출신이므로 유교적 안목에서 서술하였는데, 현지답사를 통하여 채록하였기 때문에 당시 항일투쟁의 실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헌이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甚衆，丙申(高宗三十三年)，편자주 麟錫兵敗出疆，康年擊劍痛哭，後七月亦罷兵，遂載摯師事麟錫，在遼三年，始還家，閉門絕世，讀心近以求志焉，丙午(光武十一年)，편자주 群賊又脅上內禪，丁未三月，復起兵至永春之寶發，猝遇賊兵，士卒悉散，康年憤怒，拔劍突賊群，賊惶忙發炮，皆辟戾不發，如是者三，賊打折其炮曰，此神助也，自解圍而去，又數里，伏兵突出，康年手劍迎擊，被賊劍所傷，頰肉如掌大斬落，自後，有一陷窩在面上，雖無雅者，一見皆知其爲李某也，時群賊矯詔，罷八路軍隊，原州中隊閔肯鎬倒戈，部下金尙台 朱鉉三等，率募兵而至，於是，康年更進次于堤川，又賊兵來侵，與戰大破之，殺得十餘級，仍與肯鎬，約攻忠州，肯鎬出其右，康年出其左，肯鎬中路遇賊窘敗，康年獨擊之不克，退至聞慶，聞賊兵在蘆野，襲擊盡殺之，翌日，至唐浦，斬賊將一人，八月入永春，移檄于伊藤博文，進攻寧越，拔倭站，九月宣諭員洪祐錫，率守備兵百餘而來，康年使右先鋒白南奎，設伏寺里峙，大破之，至丹陽，又與賊大戰，於是，畿湖嶺諸賊并至，衆數千兵，共戰至十三日，乃力竭，大喪其師

與左先鋒河漢紹，率殘兵，退避加平之鑛岳山中，又賊兵至，與戰大破之，軍勢復振，戊申(隆熙二年) 편자주 二月，京倭猝至，爲其所困，自是頓挫，將移陣往清風錦繡山，至寺幕峙，遇伏兵被執，康年有詩曰彈子太無情，蹀上止不行，若中心腹裏，無辱到瑤京，入堤川，賊欲治丸瘡，康年叱却之，凡一飲一食，若賊來獻則皆罵而不食，翌日，至忠州，召吏屬及居民曰，汝知我乎，吾之所以舉此者，將欲討賊復讎，不幸至此，我則必死，後日之舉，亦必有愈於我者矣，聖人曰人之生也直，罔之生也，幸而免，豈不信矣乎，若等直心居之，聊以共太平，聞者無不伏地痛哭，有愈云者，蓋指金尙台而言也，至漢師，囚司令部數日，入平理院曰，此何地，檢事曰，此朝鮮之禁府，而今改名爲平理院也，康年曰，禁府，本我之官府，何倭酋在此，檢事曰，我亦韓非倭也，康年曰，果韓，何髮剃而服黑也，檢事默默，康年厲聲曰，我之所願承者天顏也，所欲見者伊藤也，何足與爾言乎，檢事曰，我亦體上意，待傳旨然後，決焉，願公實告，康年曰，不欲與醜口言，取筆紙書曰，吾之所舉義者，欲先斬五賊及七賊，追滅倭賊，上報國家之深讎，下濟生民之塗炭，不幸被執，檢事曰，所謂五賊七賊者誰也，康年罵曰，夫五七之賊，愚夫愚婦而皆知之，所謂官人者不知乎，曾犬彘之不若也，檢事赧然不能書，康年曰，何不速書，張目視之，怒髮衝冠，眼彩如炬，觀者皆吐舌曰，曾聞李某之爲威猛，今果然，及再審，審判長謂檢事曰，吾爲洋服，洽受李某之責，不免羞愧，具帽帶而問曰，公舉義軍，何以食之，財何以用之，康年曰，受野民之簞食而食之，收國結而用之，檢事曰，以鄉曲居民，稱以義兵，竊食國財，此非逆類乎，康年怫然大罵曰，汝所謂食祿之輩也，國家今日，當致身委

命, 猶恐不及, 反附讎賊, 先王疆土, 使之盡奪, 禮義典型, 使之盡滅, 迫脅君父, 不使號令於國中者, 是誰之罪也, 國母被害之日, 君父受辱之時, 遐想聖明, 豈不曰八路三百之郡, 胡無一人義士乎, 又不曰孰能扶存宗社乎, 孰能爲我復讎乎耶, 當是時, 所謂食祿之輩, 皆晏然坐視, 惟以通問外戚, 自爲得志, 雖解爾節鬻爾肉, 豈能盡贖哉, 余則生長鄉曲, 雖無官守, 想像其君心如此之切, 倡起義旅, 復雪爲事, 今販君賣國盜竊祿位者是逆賊乎, 體君心而欲爲復雪者是逆賊乎, 檢事赧然不敢復言, 九月十九日遇害, 柳麟錫出春川, 聞康年再舉, 歎曰此人必死, 至是果死之, 自起義來, 前後大戰, 凡三十餘, 殺得賊酋五十餘級, 前十二日, 告訣于同志曰, 處絞法以爲多殺人命, 掠奪民財, 豈多殺人命乎, 所殺者必倭酋之級類, 豈掠奪民財乎, 所奪者必倭酋之軍財也, 以此稱之曰, 多殺人命, 掠奪民財, 奸虜之誣害忠良, 豈不然哉, 十一月, 葬於堤川郡, 是日, 寒雨霏霏, 有雷作之異, 其臨死有詩曰, 五十年來辦死心, 臨難已有區區心, 盟師再出終難復, 地下有餘冒劍心, 先鋒河漢紹 白南奎亦追後被執, 漢紹罵賊死之, 南奎不屈, 賊不殺之, 處役十年云.

이강년(李康季)

이강년의 자는 낙인(樂仁), 호는 운강(雲岡)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輔)의 후손이다. 그는 경북 문경의 대문(大門)에 거주하였다. 고종 당시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선전관에 이르렀다. 활달한 기상과 강개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담력도 남달랐다. 젊어서부터 문장도 잘 지었다.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이강년은 가산을 털어 지역의 군사를 일으켜 안동관찰사 김석중(金奭中) 등 세 명을 참살하였다. 유인석(柳麟錫)이 충북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로운 명성이 자자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강년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가 유인석의 부대에 합류, 유격장(遊擊將)이 되었다. 매번 출전할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지 않고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곳에도 직접 달려가 많은 적들을 죽였다.

병신년(건양1, 1896), 유인석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국경을 넘어 망명하자 이강년은 칼로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 일이 있고 일곱 달 뒤에 그도 의병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유인석에게 폐백을 올리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3년 동안 요동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문을 닫고 세상과 발걸음을 끊은 채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을 읽으며 뜻

을 구하였다.

병오년(광무10, 1906), 나라에 피해를 입힌 여러 적신(賊臣)들이 또다시 왕위를 물려주도록 임금을 협박하였다. 정미년(1907) 3월에 이강년은 다시 의병을 일으켜 영춘현(永春縣)의 보발(寶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갑자기 적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병사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이강년은 칼을 뽑아들고 적진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당황한 적들이 서둘러 총을 쏘았으나 모두 발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세 번이나 불발탄이 나오자 적들이 자신의 총을 때려 부수며 말하기를

“이것은 신이 저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고는 포위망을 풀고 떠났다. 이강년이 또 몇 리를 행군하자 적의 복병(伏兵)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강년이 칼을 쥐고 적을 맞이하여 싸웠으나 적의 칼에 맞아 불 살이 손바닥만큼이나 떨어져 나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강년의 얼굴에는 움푹 파인 상처가 있었으므로 비록 평소 모르던 사람도 한 번 보면 곧바로 이강년임을 알아보았다.

당시에 많은 적신(賊臣)들이 임금의 조서를 사칭하여 전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원주 중대의 민공호는 이에 반발하여 부하 김상태(金尙台), 주현삼(朱鉉三) 등과 함께 모집한 군대를 이끌고 이강년이 있는 곳으로 왔다. 이에 이강년이 다시 충북 제천으로 전진하여 주둔하였다. 적병이 다시 쳐들어오자 맞서 싸워 크게 격파하고 10여 명의 적군을 죽였다. 그리고는 민공호와 충주를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 민공호는 오른쪽으로 공격해 가고 이강년은 왼쪽으로 공격해 갔는데 중간에서 민공호가 적병을 만나 패배하였으므로 이강년이 홀로 공격하여도 이길 수가 없었다. 이에 군사를 문경까지 후퇴시켰다. 그곳에서 적병이 노야(盧野)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습격하여 전멸시켰다. 다음날 당포(唐浦)로 가 적장 한 명을 참살하였다.

8월, 영춘현에 들어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격문을 보내고 영월로 진격하여 일본군의 역참을 빼앗았다. 9월에 선유원(宣諭員) 홍우석(洪祐錫)이 수비병 100여 명을 이끌고 왔다. 이강년이 우선봉(右先鋒) 백남규(白南奎)로 하여금 사리치(寺里峙)에 매복하게 하여 홍우석이 이끌고 온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단양에 이르러 다시 적들과 큰 싸움을 벌였다. 이때 경기와 호남, 호서, 영남에 있던 적병들이 함께 공격해 왔으므로 그 숫자가 수천이나 되었다. 이강년은 13일간 맞서 싸웠으나 힘이 다해 많은 군사를 잃고 말았다. 이강년은 좌선봉(左先鋒) 하한소(河漢紹)와 함께 남은 군사를 이끌고 가평에 있는 광악산으로 후퇴하였

다. 적병이 또 공격해 오자 맞서 싸워 크게 격파하여 군대의 세력을 다시 진작시킬 수 있었다.

무신년(융희2, 1908) 2월에 도성에 있던 왜병이 갑자기 공격해 오자 이강년의 군대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세력이 꺾여 청풍에 있는 금수산으로 진영을 옮기려고 사막치(寺幕峙)에 이르렀을 때 매복한 적병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당시 이강년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탄환이 무정도 하여	彈子太無情
복사뼈 위에 맞아 갈 수가 없구나	蹠傷止不行
가슴이나 배에 맞았더라면	若中心腹裏
치욕 당하지 않고 저승에 갔을 것을	無辱到瑤京

제천에 도착하자 적들이 이강년의 총상을 치료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강년은 적들을 꾸짖으며 치료를 거부하였고, 한 가지 음식이라도 적들이 가져오면 그때마다 꾸짖으며 입에 대지 않았다. 다음 날 충주에 도착하였다. 이강년이 관리들과 주민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아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적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나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뒷날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곧 믿음이니, 곧지 못하고도 살아있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어찌 믿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곧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좋은 시절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마다 땅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이강년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김상태를 가리켜 한 말일 것이다.

도성에 도착하자 이강년은 며칠 동안 사령부에 간혀 있었다. 평리원(平理院)에 들어가자 이강년이

“여기가 어디인가?”

라고 하였다. 검사가 대답하였다.

“이곳은 조선의 의금부인데 지금은 명칭을 평리원으로 고쳤습니다.”

“의금부는 본래 우리나라의 관부(官府)인데 어째서 왜놈이 이곳에 있는가?”

“나도 대한제국의 사람이고 왜인이 아닙니다.”

“네가 과연 대한제국의 사람이라면 어찌하여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었는가?”

검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이강년이 매서운 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뵈고자 하는 분은 임금님이고, 보고 싶은 것은 이토 히로부미이다. 어찌 너 따위와 말을 하겠느냐.”

“나도 전하의 의중을 파악하고 전지(傳旨)를 기다린 뒤에 공의 처리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러운 입을 가진 너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 종이와 붓을 가져다가 글로 써서

“내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먼저 오적과 칠적을 죽이고, 이어 왜적을 섬멸하여 위로는 국가의 깊은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로잡히고 말았다.”

라고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오적과 칠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이강년이 꾸짖어 말하기를

“오적과 칠적이 누구인지는 어리석은 백성들도 다 안다. 그런데 벼슬아치란 자가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개돼지만도 못하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아무 글도 쓰지 못하였다. 이강년이 “어찌하여 빨리 너의 의사를 쓰지 않는가?”

라고 하며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니 분기에 찬 머리카락이 갓을 치받을 듯하였고 눈빛이 마치 횃불처럼 빛났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혀를 내두르며

“일찍이 이강년의 위용과 용맹함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보니 과연 소문대로 구나.”

라고 하였다.

두 번째 심의가 열렸을 때 재판장이 검사에게

“내가 양복을 입으면 이강년에게 책망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

하리라.”

라고 하였다. 결국 재판장은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법정에서 이강년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대가 의병을 일으켰는데, 의병들이 먹을 식량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여 사용하였는가?”

라고 하였다. 이강년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싸주는 밥을 받아먹었고, 국가에 세금으로 낸 돈을 거두어 사용하였다.”

라고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향곡에 사는 백성이 의병이라 자칭하며 나라의 재물을 훔쳐 먹었으니 이는 역적의 무리가 아닌가.”

라고 하였다. 이강년이 발끈하여 크게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놈들은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무리이다. 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처지에 놓였으니 마땅히 목숨 바쳐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서 혹시라도 뜻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원수인 도적놈들에게 빌붙어 선왕의 강토를 다 빼앗아 가도록 하고, 예의와 전형(典型)을 모두 없애게 하였으며 임금을 헐박해서 나라 안에 호령할 수 없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누구의 죄란 말이나?”

국모가 시해되고 임금께서 모욕을 당하시던 때에 성스럽고 명철하신 전하께서 ‘전국 300개의 고을에 어찌 의로운 선비가 한 사람도 없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또, ‘누가 종묘사직을 지탱해 줄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 줄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임금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 너희처럼 녹을 받아먹은 놈들은 모두 편안히 앉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는 오직 외척들과 인연을 맺으면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네놈들의 행위를 감안할 때 지금 비록 네놈들의 관직을 빼앗고 네놈들의 살을 도려낸들 그 죄를 다 씻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비록 관리로서의 직책은 없지만 이처럼 간절하게 임금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의병을 일으켜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 노력하였다. 지금 임금과 나라를 팔아먹고 국록(國祿)과 지위를 도둑질한 놈들이 역적이냐? 아니면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 노력한 사람이 역적이냐?”

이 말을 들은 검사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라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9월 19에 사형되었다. 유인석이 춘천을 벗어나 이강년이 다시 거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

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반드시 죽겠구나.”

라고 말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과연 죽고 말았다.

이강년은 의병을 일으킨 뒤로 총 30여 차례에 걸쳐 큰 전투를 벌였으며 50여 명의 적을 죽였다. 이강년이 죽기 12일 전에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영원한 이별을 고하였다.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나를 교수형에 처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어찌 많은 사람을 죽였겠는가. 죽인 놈들은 모두 왜놈의 무리였다. 어찌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겠는가. 빼앗은 것은 모두 왜놈의 군수품(軍需品)이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라고 하니 간사한 오랑캐들이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거짓말로 꾸며 헤치려면 어찌 이와 같이 하지 않겠는가.”

11월에 이강년을 제천에 장사하였다. 장사하던 날 차가운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우레가 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 이강년이 죽으면서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오십 평생 죽기를 작정하였으니

五十年來辦死心

난리에 임해 진실한 마음 있었네

臨難已有區區心

맹세하고 두 번 출전해 복수하지 못했으니

盟師再出終難得

저승에서도 칼날 무릅쓰는 마음 있으리

地下有餘冒劍心

선봉이었던 하한소와 백남규도 이강년에 이어 체포되었는데 하한소는 적들을 꾸짖다가 죽었고, 백남규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지만 적들이 죽이지는 않고 징역 10년에 처했다고 한다.

MONO1198040965
951.6 A-334 1

韓國史料
叢書 第二輯
騎驢隨筆 全

國史編纂委員會

기려수필(표지)

李康年(一)

李康年字樂仁，號東園，全州人。孝奉大君輔后，居閔慶大內，太息朝，出身武將，官歷傳爲人，高落慷慨，膽氣不凡。文詞風流，乙未之變，散家財僱募兵，斬安東匪，與金中第二人，開佛廟，起兵湖云，義舉大振，引兵而歸，爲遊擊將，每出戰，不避艱險，馳冒石，被獲其來。丙申，康年憤怒，拔劍突賊，賊惶惶發炮，皆不發，如是者三，賊打折其炮，曰：此神助也。自解圍而去。又戰，伏兵突出，康年手劍迎擊，賊鎗所傷，類如拿大斬落，自後，有一陷高在面上，雖無獲者，一見皆知其爲李某也。時詳賊營，賊入路軍，原州中隊因首領倒戈，部下金尙台、朱鉉三等，舉軍兵而退。於是，康年更進于地川，又賊兵來，與戰，大破之，殺得十餘載。仍與首領約攻忠州，首領出其右，康年出其左，首領中路過賊營，康年與之，退至開慶，聞賊兵在蘆野，驚擊殺之。翌日，至所河，賊將一人，八人入水，移移伊羅傳文，遣客奪趙拔後站，九月，派員派船，率守備兵百餘而來，康年使右先鋒白雨雲，設伏寺里時，大破之。至丹陽，又與賊大戰，於是，畿湖遊擊賊卒，共數千兵，共戰至十三日，乃力竭，大獲其師，歸。隨筆 閱首錄，李康年。

이강년1

騎驢隨筆(李康年)

與左先鋒河漢納，率騎兵進避加平之鎮，布山中，又賊兵至，與戰，大破之。軍勢復振。戊申二月，京德猝至，爲其所困，自是領軍，將移陣往清風嶺，出至寺時，遇伏兵被執，康年有言曰：軍子太無情，路上不行，若中心腹視，無辱到南京，入堤川，賊欲治左衛，康年叱之，凡一飲一食，若賊來，則首領而不食。翌日，至忠州，召吏更及居民曰：汝知我乎？吾之所以舉此者，將欲討賊復讐，不幸至此，我則必死，後日之舉，亦必有處於我者矣。聖人曰：人之生也直，罔之生也，幸而免，豈不信矣乎？若直心語之，聊以共太平，聞者無不伏地痛哭，有慮云者，蓋指金尙台而言也。至漢師，囚司命部數日，入平理院，此何地？檢事曰：此朝野之無府，而今改名爲平理院也。康年曰：檢府，本我之官府，何倖會在此？檢事曰：我亦非倖也。康年曰：吳韓，何變割而服風也。檢事默然。康年罵曰：我之所願承者天顏也，所欲見者伊羅也，何足與爾言乎？檢事曰：我亦帶上戴，待旨然後決焉。願公實告，康年曰：不欲與爾口言，取筆紙曰：吾之所執者，欲先斬五賊及七賊，迫滅倭賊，上報國家之深，下濟生民之塗炭，不幸被執，檢事曰：所聞五賊七賊者，誰也？康年曰：犬五七之賊，愚夫愚婦而皆知之，所謂官人者不知乎？曾大庭之不若也。檢事雖然不能言，康年曰：何不速書，爾目視之，慈髮垂眉，固彰如炬，觀者皆吐舌曰：會聞李君之爲威猛，今果然，及再書，審判長稱檢事曰：吾爲洋賊，汝受李某之責，不免羞愧，具稱而問曰：公舉義軍，何以食之財何用之？康年曰：受野民之寶，其而食之，此固結而用之。檢事曰：以鄉曲居

이강년2

民，稍以義兵，空在國時，此非進類乎？康年憤然大罵曰：汝所謂食祿之輩也，國家今日，當致身委命，雖恐不及，反附離賊，先王羅士，使之盡奪，禮義典現，使之盡流，追會君父，不使號令於國中者，是離之罪也。國母被害之日，君父受辱之時，起想聖明，豈不曰：八路三百，胡無一人義士乎？又不曰：孰能共存宗社乎？孰能爲我復讐乎？耶？當是時，所謂食祿之輩，皆安坐觀變，惟以進退問外戚，自爲得志，雖解解節，爾爾，能盡諸品，余則生長鄉曲，雖無官守，想像吾心如此之切，倡起義旅，復讐爲事，今賊君實國監，職位者是逆賊乎？檢君而欲爲復讐者，是逆賊乎？檢事雖然不敬復言，九月十九日，遇害，初，康年喜舉，歎曰：此人必死，至是果死之，自起義來，前後大戰，凡三十餘戰，殺得賊會五十餘載。前十一日，告訣于同志曰：處被法以爲多殺人，命賊者財，豈多殺人命乎？所殺者必倖會之種類，豈被奪民財乎？所奪者必倖會之軍財也。以此論之，曰：多殺人命，賊奪民財，好勇之匪，豈不烈哉！十一月，葬於堤川，即是日，臺雨暴，霹有雷竹之異，其臨有詩曰：五十年來歸死心，國難已有區區心，盟師再出難復，地下有餘，冒賊心，先鋒河漢納，白雨雲亦後被執，漢納罵賊死之，雨雲不屈賊不殺之，處役十年云。

이강년3

유방집

‘유방집(遺芳集)’은 조소양선생⁵⁰⁾이 순한문으로 1940년 중국 남경에서 발행한 것으로, 1905년부터 1932년까지의 민족수난기 애국선열들의 행적을 수록하였다. 조명하 의사의 아들 조혁래선생이 소장한 유일한 원본에 의하여 1992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 출판되었다.

조소양선생은 ‘유방집’ 서문에 ‘아, 내가 힘껏 투쟁한 지 30년이 못 되어 이 80여 명 동지의 유골을 가지게 되었기에 나에게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일을 기록하게 한 것인가. 나는 죽은 열사를 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은 것을 슬퍼하는 선열을 곡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유방집’에 수록된 ‘운강 이강년’에 대한 원문을 국역하여 옮겼다.

遺芳集列傳-李康年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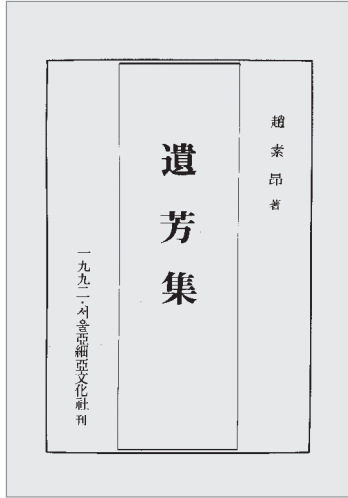
公諱康年，聞慶人，一八九五年，與其師柳麟錫舉義以，一九〇五年，保護條約後，被舉爲湖西倡義大將。與李麟榮，許蔦等謀攻京城，及東門之敗，李許諸公被擒。公志不少挫，更集各地義兵，轉戰于聞慶，永春原州等地，大小數十戰，殺敵甚夥，終以勢孤力絀，爲敵所拘，及就死，國人哀之。

공의 휘는 강년이고 문경 사람이다. 1895년 그의 스승 유인석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켰는데 1905년 을사보호조약 후 호서창의대장에 천거 되었다. 이인영 허위 등과 함께 서울을 공격할 것을 모의하여 동대문까지 이르렀으나 실패하였고 이인영과 허위 등을 비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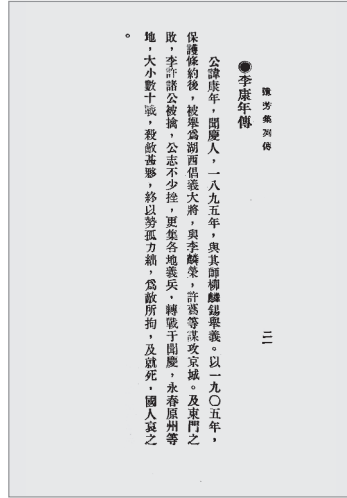
50) 조소양(趙素昂, 1887~1958) 경기도 양주출신, 중국에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노선이자 광복 후의 새로운 국가건설 방향을 제시한 삼균주의를 정립했다. 1919년 3 1운동 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헌장기초위원, 심사위원, 임시의정원법기초위원, 초대 국무원비서장, 국무위원, 외무총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40년 5월에는 김구의 한국국민당 및 지청천의 조선혁명당과 함께 3당통합을 이루어 한국독립당을 창당했다.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창당선언과 정강에서 삼균주의의 정립을 확정시켰다.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6 25한국전쟁 발발로 그해 9월 납북되었다.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2016년 양주시에서 조소양기념관을 개관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사로잡혔다.

공(이강년)께서는 뜻(왜적을 섬멸하려는)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다시 각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문경, 영춘, 원주 등의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크고 작은 수십 차례 전투를 치루면서 적을 사살 한 것이 매우 많았지만 끝내 형세가 외롭고 힘이 부족하여 적에게 잡혀 죽음에 이르게 되니 온 나라 사람들이 애석해하였다.



유방집(표지)



이강년전

색 인

ㄱ

- 가네코 후미코 18, 197
 갈평리 전투 97
 갈평전투 13, 168, 208
 갑신정변 44, 234
 갑오변란 13, 149, 152
 강기동 151
 강내영 21, 153
 강래영 152
 강병수 21, 15, 152, 153
 강병욱 21, 151, 152, 153
 강병유 21, 152, 153
 강봉주 154, 158, 162, 163
 강석희 18, 22
 강수원 107, 109
 강순필 15, 16, 21, 152, 153,
 157, 158, 160, 162, 163,
 164, 165, 166, 167, 171,
 172
 강순희 184, 185
 강영석 39
 강증산 17
 강화도조약 81, 83
 격고문 57, 58, 59, 61
 격고각도열읍문 7, 57, 58, 62, 66,
 67, 75, 180, 280
 격이등박문 57, 58, 76, 92, 180
 경계사출문 180
 경상감영 40
 경성공소원 105, 108, 110, 111,
 113, 114
 경술국치 131, 132, 295, 298
 경학사 16
 계몽운동 14, 15, 20, 23, 150,
 163, 164, 171, 172, 232
 고결팔역동지문 180
 고결팔역동지사우 57, 58, 92
 고광순 200
 고모산성 27, 28, 38, 42, 48,
 198, 208, 242, 254, 273,
 275
 고모성 97, 223, 247, 254, 273
 고영희 79
 고유훈 21
 고윤환 21
 공동회 118
 공화주의 150
 광방 170
 광이섭 14, 21, 107, 111
 광중석 88
 광한일 154, 155, 170
 관덕정 31
 관동대접주 34, 37
 관동수접주 28, 34
 관동의병대장 232
 관동포 34
 관방척후소 254
 관일약 129, 132
 관일정 129
 광복단 15, 149, 150, 151, 152,
 153, 165, 166, 167, 170,
 171, 172, 174
 광복회 12, 14, 15, 16, 20, 21,
 22, 149, 150, 151, 152,
 153, 164, 165, 166, 167,
 169, 170, 171, 172, 173,
 174, 175
 교남교육회 14
 교조신원운동 31
 국채보상운동 14, 145
 구성회 157
 군대해산 117, 232, 233
 권경함 36, 37
 권세연 27, 200, 202, 204
 권순문 37
 권용일 86, 181
 권용일 32
 권을병 47
 권응정 21
 권중현 79
 권중희 233
 금곡포덕소 37
 기려수필 153, 179, 298, 308

기삼연 200, 233	김병연 156	김용환 168, 172
기우만 60, 200, 231, 241	김병태 16, 22	김은좌 157
김강년 161	김복천 39	김인담 27
김경화 19, 22	김복한 99, 200	김재성 154, 155, 157
김귀현 118	김사목 170	김정근 42, 43, 48, 53
김규식 32	김산의진 27, 203	김정오 154, 158
김규항 107, 110, 111	김상대 45, 299, 301	김정환 151
김규현 168	김상지 64	김중환 86
김낙균 32	김상철 21	김찬규 168
김낙문 14, 21, 47, 158, 159, 160, 162, 163, 164, 165, 171	김상태 28, 29, 45, 46, 47, 48, 105, 107, 168, 184, 301, 302	김찬수 169
김덕제 200	김상호 45	김철상 21, 152, 153
김도현 60, 61, 180, 204	김석중 27, 28, 41, 42, 43, 44, 48, 49, 53, 184, 208, 247, 300	김춘삼 107, 110
김도화 61, 180, 200, 202, 204		김태원 291, 293
김동식 200		김현습 107, 111
김동연 158, 160	김성달 21	김현주 184
김동태 64	김성모 291	김흥기 107
김두현 118	김성일 168	김희문 168
김두활 152	김성추 47	김휘정 184
김룡사 35, 208	김수동 107, 108, 109	김희중 17, 22
김룡지회 17	김수락 184	
김만중 157	김수민 200, 233	L
김백선 231	김숙헌 47	남경준 43
김병동 168, 169, 172	김순흠 158	남궁역 118
김병두 159	김시현 18	남만귀 21, 107, 111
김병수 16, 21	김여흥 43	남산전투 97
김병우 106, 108, 111	김용현 105, 108, 116, 117	내성전투 13
		노병대 152, 153, 154, 155, 156, 158, 160, 162, 163, 178,

198, 200, 202, 204
노응규 200, 202
노희태 200
농암장터 27, 28, 42, 53, 208,
247

ㄱ

단발령 13, 45, 68, 77, 88, 112,
127, 128, 132, 199, 203,
208, 231, 291, 293, 294
달성친목회 167
대구읍성 31
대구토포사 39
대한매일신보 86, 91, 113, 121,
179, 232
대한협회 163
도천소학교 14
도총재 128
도태장터 13, 27, 208, 242
독립의군부 149, 150, 151, 153,
154, 155, 156, 157, 158,
160, 161, 162, 163, 164,
165, 167, 170, 171, 172,
173, 174, 177, 241
독립전쟁론 149, 150
독립협회 89, 118
동아개진교육회 105, 108, 116,
117

동학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6,
77, 83, 89, 165, 224, 226,
231, 234, 237
동학교도 31, 33, 42

ㄴ

러일전쟁 231, 249
류문년 21
류성우 17
류인석 27, 45, 46,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3
류인협 21
류조 21
류진옥 108, 111

ㄷ

마고성전투 13
만국평화회의 65, 78, 81, 92
매천야록 179, 246
맹이섭 156, 157
면죄문빙철 189, 190
명성황후 127, 182
모반대역부도죄 32

문경노동조합 17
문경병참부 39
문경아리랑 220, 222, 226, 227,
228, 229, 230, 277
문경의병 221, 237, 277
문경의병아리랑 221, 237
문경적변 28, 29, 30, 47
문경청년연합회 17
문경청년회 17
문봉성 22
문석봉 200, 202, 204, 217
문태수 233
민공호 13, 45, 65, 86, 178, 184,
187, 201, 205, 233, 301
민단조합 14, 15, 20, 22, 47,
149, 150, 151, 152, 153,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7, 170,
171, 172, 173, 174, 177,
241

민순호 21, 185
민영환 78
민종식 162, 201, 232

ㅂ

박경중 169, 170
박노창 16, 22
박득용 105, 108

박만금 42	변용만 21	서울진공작전 190, 199, 203, 205, 208, 232, 234
박백현 21, 107, 111	변인규 21	서원철페령 32
박병한 22	변하진 118	서일해 39
박상진 15, 16, 166, 169, 170	병인양요 131, 141	서진구 19, 22
박석규 39	보병제14연대 181, 254	선산포 34
박승환 69, 70	보부상 116, 117	성두환 39
박심수 47	보수집강소 30, 37, 48	성명회 128, 129, 132
박여집 42	복벽주의 150	성익현 223, 248, 255
박열 18, 21, 22, 23, 24, 144, 197	복실전투 28, 41, 42, 43, 48	소의신편 179
박용만 17	불교청년연합회 17	속오작대도 182, 183, 242, 243, 314
박용하 167	불령사 18	손광오 39
박윤중 21	人	손일현 154, 158
박인근 161	13도의군 128, 132	손득 154
박인길 18, 22	사내면집강 및 등별두존 57	송병준 79, 89, 187
박정수 184, 185	사졸 서계문 57, 58	송상도 153, 179, 298
박정양 32	상주소모사 39	송인혁 298
박제순 79	시영동각방곡두존 57, 58	순무대장 154
박종식 159	산남의진 61, 149, 154	신경희 21
박현성 255	상공포 34	신기 21, 145
박호진 169, 170	상주소모영 28, 41, 49	신통석 149, 178, 182, 199, 201, 202, 205, 232, 233
박후진 169	서덕구 42	신병선 21
방인관 233	서도현 167	신봉규 18, 22
방한덕 118	서벽전투 13	신봉일 17
박허실 41	서상렬 27, 291	신숙 21
배경신 21	서상벽 40	신용균 18, 22
백남규 86, 181, 301, 305	서상업 16, 21, 22, 152, 153, 168, 169, 172, 289	
백담사 전투 97		

신태식 14, 16, 21, 22, 168, 169, 172, 179
 신태인 16
 신흥강습소 16
 신흥무관학교 16
 심거벽 21
 심남일 61, 201
 심상훈 66, 151, 168, 169, 170, 173

○

F. A. 맥켄지 225
 H. B. 헬버트 223, 225
 안규홍 199, 201
 안동의병 13, 28, 42, 48, 49
 안보병참부 36
 안상균 42, 43
 안성해 65
 안재극 152, 153, 169, 288, 289, 290
 양재학 167
 양한위 165, 169, 170
 엄원선 108, 111
 엄주련 16, 22
 연관인명록 184, 185
 연풍전투 97
 연풍헌 36
 연풍헌감 36
 염석룡 156, 157
 염중모 89, 118
 영남대로 35, 227
 영등포 34
 영해란 31, 32, 33
 예안의병장 28, 42
 예천회맹 27
 오경묵 65
 오국환 21
 오귀룡 19, 22
 오일상 39
 용소동전투 13, 97
 우재룡 166
 운강선생문집 57, 58, 179, 180, 181, 183, 185, 194
 운강선생유고 57, 58, 76, 87, 90, 181, 194
 운강선생창의일록 57, 58, 75, 76, 153, 158, 163, 169, 179, 180, 181, 183, 184, 185, 194, 245, 280, 288, 290, 291
 원용팔 59, 60, 62, 63, 201, 291
 원주창의소 180
 위정척사론 183, 232
 위정척사사상 127, 141, 183, 231
 유강원도대소민인등 189
 유경기대소민인등 189
 유맹 118
 유명규 201
 유방집 307, 308
 유병선 65
 유성우 22
 유순영 157
 유승만 156
 유시연 152
 유신회 89
 유명봉 161
 유인석 59, 62, 63, 82, 88, 91, 92, 93, 95, 112, 184, 201, 204, 205, 231, 234, 241, 248, 287, 291, 302, 300, 304, 307
 유일수 39
 유준 21
 유준영 157
 유지혁 291
 유창순 15, 16, 167, 168
 유충청북도대소민인등 189
 유학주 118
 유해석 116
 윤갑병 89
 윤기영 28, 29, 46, 47, 48, 69, 86
 윤명섭 184
 안교봉 154, 155, 156, 157
 안상균 42

윤상보 154	174, 177, 182, 183, 185,	이만원 69, 107, 181, 184
윤시병 89	187, 190, 192, 224, 240,	이면우 114
윤정식 89	241, 255, 317	이명상 154, 170
윤창하 168	이강문 21	이명재 21, 78, 152, 153
윤치해 184	이강수 21	이범운 128, 201, 233
윤하영 118	이강유 21	이병무 79
윤희순 199, 201	이강하 152, 153	이봉재 21
을미개혁 28, 42	이건호 118	이상곤 156, 157
을미사변 13, 45, 46, 53, 68,	이관구 47	이상설 78, 128
112, 127, 128, 131, 132,	이국빈 39	이상의 59, 105, 106, 109, 119,
199, 203, 208, 231, 300	이규항 116	120, 184, 206, 228, 237,
을미의병 13, 27, 46, 127, 177,	이규해 21, 152, 153	271, 282
179, 184, 188, 192, 199,	이규현 291	이상재 118
204, 205, 208, 223, 226,	이규홍 184	이상협 152, 153
231, 232, 241, 254, 255,	이근택 79	이석용 115
287	이금재 21, 152, 153	이설 201
을사의병 127, 177, 199, 205,	이기량 21	이성재 21, 152, 153
231, 232, 241	이기찬 154	이세영 14, 159, 162, 163, 165,
을사조약 78, 83, 231, 232, 235	이기하 152, 153	201
익군부 정위 161	이기문 184	이소응 179, 201, 204, 205, 231,
익군부 참위 161	이덕일 43	255
익군부 참령 161	이동하 14, 21, 29, 36, 46, 47,	이수명 43
의병수련관 129, 135	128, 150, 154, 158, 159,	이승재 21, 152, 153, 184, 288,
의병아리랑 220, 221, 237, 238,	160, 161, 162, 163, 164,	290
255, 264, 271, 272, 274	165, 171, 234, 249	이승철 154
의병전쟁 4, 12, 13, 14, 20, 21,	이등박문 55, 58, 63, 65, 75, 76,	이식 154, 155
22, 23, 149, 150, 151, 155,	77, 78, 79, 80, 92, 95,	이식재 14, 47, 157, 158, 159,
156, 165, 166, 172, 173,	180, 290	160, 161, 162, 163, 164,

171
 이와사 사쿠타로 18
 이영재 152
 이완용 65, 79
 이용구 89, 117
 이용업 107, 111
 이용엽 152
 이용운 108, 111
 이우 154
 이원규 21
 이원팔 34
 이위종 78
 이은영 14, 47, 159, 161, 162,
 163, 164, 165
 이은화 16, 21, 152
 이용수 152, 168, 169, 170
 이인순 170
 이인영 14, 21, 102, 107, 155,
 157, 168, 171, 187, 201,
 205, 232, 241, 307
 이인화 156
 이정백 21
 이정익 21
 이정희 169, 170
 이종국 45, 152, 169
 이종면 159
 이종서 39
 이준 78

이중린 28, 42
 이중호 156
 이중화 156
 이지용 79
 이지원 152, 153, 289
 이진룡 151, 201, 234
 이진영 21, 118
 이태기 170
 이필제 27, 28, 29, 30, 31, 32,
 33, 47
 이한응 65
 이항로 127
 이현구 17, 22
 이호윤 27
 이홍장 77
 이회영 17
 이효경 107, 109
 인동토포사 39
 일진회 58, 63, 89, 90, 91, 92,
 93, 117, 180, 190, 289
 일진회장 117
 임도재 43
 임병찬 154, 201
 임봉주 15, 167
 임영수 107, 110
 임용헌 155
 임충상 40

ㄸ

작성전투 13, 235
 장복삼 21
 장복흥 21
 장선우 184
 장성덕 152
 장세명 16
 장승원 15 167
 장익환 21
 장장덕 43
 장치문 21
 장탁원 170
 장한문 152
 재격고문 57
 재산전투 13
 적성전투 13, 97, 182, 208, 248
 적성접주 36, 37
 전기의병 13, 62
 전용규 154, 155, 156, 170
 전인발 22
 전중근 21
 전중년 16
 전해산 61, 201, 233
 정기현 32
 정관섭 39
 정대무 65
 정미7조약 79, 101
 정미년창의가 179, 189

정미의병 127, 177, 179, 186, 189, 190, 191, 192, 199, 200, 203, 205, 208, 232
 정봉준 233
 정용기 61, 201, 202, 204, 232
 정운구 30, 31
 정운기 156, 157, 164
 정원영 22
 정의묵 28, 39, 40, 41, 53
 정인옥 16, 22
 정인회 255
 정인흥 86
 정재철 19
 정중택 107, 110
 정진우 16
 정한용 201, 202
 정항모 118
 정환직 201, 202, 204
 정흥대 14, 21, 107, 108
 정희섭 152
 제천전투 13
 조감역 156
 조경환 39
 조동교 65
 조령란 27, 29, 30, 31, 32, 33, 47
 조령유회 32
 조령전투 13, 97, 208, 226
 조명하 307
 조병갑 32
 조병세 78
 조병순 21
 조병식 116
 조병준 234
 조병호 39
 조선국권회복단 167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 16, 151, 168, 169, 170, 173, 174
 조선독립의군 160, 161, 165, 171
 조선민족대동단 16
 조선의용대 19
 조선청년총동맹 17
 조선폭도토벌지 178, 183, 186
 조성운 105, 108, 116, 117
 조소양 145, 307
 조영진 22
 조용필 47, 158, 162, 163, 165, 166, 167, 168, 171, 172
 조용현 39
 조중응 79, 117
 조한우 118
 조혁래 309
 주구상 152
 주시혁 21
 주용규 62, 201
 주현삼 295, 301
 죽령·순흥전투 13
 중기의병 13
 중정 34, 227
 지석영 39
 진보회 89
 진주작번 31
 진중일지 112, 121, 177, 181, 182, 183, 314
 진천작번 31
 집의당유고 291, 292, 297

大

차도선 202, 233
 차상찬 223, 253, 254, 255, 276
 창원소모사 39
 창의사실기 44, 64, 65, 181, 185
 채경목 107
 채기중 15, 16, 165, 166, 167, 168
 채응언 115, 116, 151
 천보락 21
 천세헌 17, 19, 21, 22
 최맹순 28, 34, 35
 최시형 29, 30, 31, 32, 33, 39, 45
 최옥영 14, 47, 107, 109, 150, 154, 155, 156, 157, 158, 160, 161, 162, 163, 164, 171, 174

최응규 32
 최익현 62, 202, 205, 232, 241, 291
 최제우 30, 31, 33
 최찬 21
 최해진 32
 추국청 32
 추안급국안 32
 충경 37
 충경포 34
 충의문 129
 충주성 공격 13, 287
 충효지 129
 취정록 291, 292, 295, 297

E

태봉전투 13, 213
 통고각국영사관문 57
 통고문 55, 57, 58, 63, 75, 81, 95, 167, 169, 180, 288
 통고봉평사민문 57, 58
 토왜격문 57, 58

표

폭도사편집자료 30, 44, 45, 185, 187
 폭도에 관한 편책 183, 186, 188
 풍기광복단 149, 150, 151, 152, 153, 165, 166, 167, 170, 171, 172, 174

ㅎ

하한서 86
 한국광복군 12, 18, 19, 20, 22
 한규설 79, 118
 한말의병자료집 291
 한미수호통상조약 83
 한양사적 254
 한양이 16, 21, 22, 152, 168, 169, 172, 289, 290
 한용국 21
 한익원 154
 한정만 151
 한치유 118
 할미성 223, 254, 273
 허달 152, 153, 168, 169, 172
 허위 61, 63, 113, 114, 115, 144, 167, 178, 180, 202, 203, 205, 231, 233, 307
 허준여 108, 111
 허찬 154
 현재창 118
 현준석 19, 22
 호좌의진 13, 27, 45, 86, 177, 242, 287, 291
 호좌창의대장 62, 112, 128, 280
 홍금섭 89
 홍만식 78
 홍범도 202, 233
 홍순옥 178
 홍우석 86, 301
 홍정후 118
 활빈당 226, 231
 황경문 108, 111
 황부주 21
 황옥 18
 황정연 22
 황직연 22
 황하일 39
 호고선유위원 57, 58, 92, 180
 효유일진회문 57
 흑도회 18
 흠치교 17, 19, 22
 흥사단 17

운강학술대회(1부-문경문화원 다목적실, 2021. 10. 15. 14:00~1600)



운강학술대회(2부-문경새재라마다호텔 세미나실, 2021. 10. 16. 10:00~13:00)



